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黃 鎬 德

김원일·현기영 소설의 학살 서사 연구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國語國文 學科

金 曜 燮

碩
士
學
位
請
求
論
文

金
元
一
·
金
基
榮

소
설
의

학
살

서
사

연
구

2
0
1
7

金

曜

- ii -

雙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黃 鎬 德

김원일·현기영 소설의 학살 서사 연구
A Study on the Genocide Narrative in Novel of
Kim Won-il · Hyun Ki-young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國語國文 學科

金 曜 燮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黃 鎬 德

김원일·현기영 소설의 학살 서사 연구
A Study on the Genocide Narrative in Novel of
Kim Won-il · Hyun Ki-young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請求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17 年 10 月 日

成均館大學校 一般大學院
國語國文 學科

金 曜 燮

이 論文을 金曜燮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17 年 12 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목차

제1장 서론	1
1.1 문제 제기	1
1.2 연구사 검토	9
1.3 연구의 시각과 연구의 범위	14
제2장 학살의 기억과 반공국민의 생성	23
2.1 ‘아버지’라는 출발점과 엇갈림	23
2.2 폭력의 제도화와 그 기원	39
2.3 반공국가의 학살과 그 이후	54
제3장 현기영 소설의 4·3항쟁과 제주공동체의 역사적 발견	73
3.1 공동체의 구조와 담론공간	73
3.2 제주공동체의 역사와 민중의 발견	103
3.3 민중이라는 새로운 관계	123
제4장 김원일 소설의 국민되기과 국가선택	134
4.1 잊어야 하는 혹은 수정된 아버지의 기억	134
4.2 소설의 개작과 정본의 형성	154
4.3 두 개의 국가와 국가선택	179
제5장 결론	202
참고문헌	212

1. 1차 자료	212
1) 기본자료	212
2) 신문 및 잡지 기사	213
2. 논저	213
1) 학술지 논문	214
2) 학위 논문	218
3) 국내 저서	219
4) 국외 저서	221
Abstract	223

논문요약

김원일 · 현기영 소설의 학살 서사 연구

이 글은 김원일과 현기영 소설이 한국전쟁 전후에 반공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인학살의 역사적 충격에 대응하는 문학적 응전의 과정이었다고 파악한다. 반공국가가 자행한 학살은 전근대적인 형태의 폭력이 아니라 탈식민의 과정과 냉전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이 교차하면서 근대국민국가와 그 국가의 국민을 생성하려는 사회공학적인 행위였다. (반공)국민을 만들어내려는 반공국가의 기제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반공국가에 의해서 가족을 잃었거나 빨갱이의 가족으로 몰린 이들은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선을 나누려고 하는 반공국가의 위협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복원하기 위해서 반공국가의 규율에 과잉적응하거나 대항적인 사회적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인정투쟁을 시도했다. 김원일과 현기영의 소설이 쓰이고 개작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인정투쟁의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현기영의 소설은 제주공동체의 구조를 통해서 반공국가가 금기로 남겨둔 제주 4·3항쟁의 역사적 기억을 복원하려고 했다. 그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의 단결, 제주공동체가 가진 항쟁의 전통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복원함으로써 4·3항쟁을 좌익의 봉기로 규정한 반공국가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부상한 민중개념을 4·3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를 위해서 조선왕조 말엽과 식민지시대를 다룬 역사소설들을 통해서 제주공동체가 가진 항쟁의 전통과 민중·민족주의 사이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확보한다. 현기영은 반공국가에 저항하기 위해서 당대 가장 강력한 대항 담론이

있던 민주화운동의 민중개념을 통해서 제주 4·3항쟁을 정의한다. 이를 통해서 4·3항쟁은 반공국가에 맞서는 시민 저항의 역사적 계보 위에 서게 되면서 ‘빨갱이’로 매도되었던 제주인들이 사회적으로 복권될 수 있었다.

김원일은 월북한 좌익인 아버지의 재현 문제를 두고 고민한다. 그의 초기작에서는 반공주의적인 방식으로 좌익 인물들을 재현하면서 일종의 반공문화적 성격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그의 고향 지역사가 반공주의적인 성격에 부합하도록 재구성되었고 이에 대해서 김원일은 큰 부담감을 느낀다. 그는 반공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응의 논리를 초기작에서 보여주었지만 이내 그 한계를 자각한다. 김원일은 반공국가가 만든 재현의 경계선이 사회적 변화 속에서 확장될 때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소설을 수차례 개작하기를 반복하면서 왜곡되었던 아버지의 형상과 고향의 지역사를 점차 복원해간다. 김원일은 한국전쟁을 두 개의 국가가 자행한 국민과 국가 만들기의 과정이 낳은 폭력임을 고발하면서도 당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려는 지식인들의 고뇌를 보여줌으로써 ‘빨갱이’로 낙인찍힌 아버지를 시대에 헌신한 지식인이자 혁명가로 복원해간다.

김원일과 현기영의 소설은 반공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문학적 작업이었다. 이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자행된 학살이라는 개별적인 사건의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작업으로 그 의미가 한정되지 않는다. 해방 이후 형성된 반공국가가 인간에게 가하는 구조적 폭력이 그들이 경험한 학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설은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반공국가의 사회공학에 대한 시민저항의 한 양식으로써 문학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준다.

주제어 : 학살(Genocide) , 반공주의(Anti-communism) , 인정투쟁(recognition struggle) , 국민국가(nation-state) , 민중(People)

제1장 서론

1.1 문제 제기

한국전쟁은 한국문학의 지형도를 결정지은 주요한 사건이었다. 전후 문학의 지형도는 한국전쟁의 충격과 분리해서 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내려질 만큼¹⁾ 전쟁의 기억은 강력했다. 전쟁체험과 분단 현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가와 작품들을 지칭하는 분단문학이라는 범주가 형성될 정도로 문학은 분단 현실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런데 분단문학을 써왔다 평가받는 일군의 작가들의 경우 전쟁체험만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기영과 김원일의 문학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년시절 전쟁을 체험했던 현기영과 김원일은 민족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충격적 사건을 원체험으로 한 작품들을 남긴 중요한 작가들이라 평가받는다. 하지만 김원일과 현기영의 유년기 체험의 성격은 한국전쟁이라는 전쟁 상황만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현기영과 김원일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건들이 대부분 전쟁보다 앞선 시기에 발생했으며 고향과 가족이라는 개인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이해의 방식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기영은 고향인 제주의 4.3항쟁을 육지의 전쟁과는 다른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 위치시킨다. 김원일은 가족을 버리고 월북한 좌익 아버지의 존재로 인해 고향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이념의 자장에 의해서 굴절된다. 김원일 소설에서 전쟁 전후의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과 달리 지역 내의 이념 갈등이란 형태로 재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현기영의 문학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원체험은 제주 4.3항쟁이다. 한국전쟁의 개전보다 앞선 1948년 4월 3일 발생한 4.3항쟁은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1년 뒤인

1) 김윤식, 「분단·이산문학의 수준」,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153쪽.

1954년 9월 27일에 가서야 종식된다.²⁾ 1948년 4월 3일의 남로당계열 무장세력의 봉기와 이에 대한 군사진압작전은 1949년 5월 15일 경에 사실상 끝이 나지만 한국전쟁 중에 자행된 예비검속과 국민보도연맹원학살로 고통받아야 했으며 제주에 대한 지역통제가 1954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³⁾ 한국전쟁보다 앞서 발생한 4.3항쟁은 육지의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처참했던 토벌이 끝난 뒤에도 지역민에 대한 동원과 예비검속, 학살이 지속된 4.3항쟁의 체험은 육지의 한국전쟁체험과는 분명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한국전쟁 참전경험이다.

현기영의 단편 「아스팔트」에서 한국전쟁은 제주도민에게 생존의 기회이자 사회적 인정의 기회로 그려진다. 4.3항쟁의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산사람’ (무장대)과 토벌대를 피해서 가족과 함께 산에 숨어 있었던 ‘창주’는 토벌대의 작전이 초토화 작전에서 선무공작 위주로 바뀌게 되어 하산 이후에도 살아남는다. 그러나 지역의 경찰인 임주임은 그의 입산경력을 문제 삼아서 그의 사상이 불순하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예비검속이 단행되자 불안감을 느낀 창주는 학도병에 자원하여 참전한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참전경험으로 인해 더는 사상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으며 지역 경찰과 그 협력자들과 대등한 관계가 되었음을 자각한다. 4.3항쟁으로 인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제주도민에게 한국전쟁은 그들을 향한 반공국가의 의심을 거두어내고 (반공)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개전 직후 해병대 3, 4기로 자원입대한 제주도민만 3000명에 달했는데

2) 1954년 9월 27일에 제주도 경찰국장 신상목에 의해서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다. 『제주신보』, 1954년 11월 28일, 박찬식, 「한국전쟁과 제주지역 사회의 변화 : 4·3사건과 전쟁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제 27호, 부경역사연구소, 2010, 92쪽에서 재인용.

3) 강성현은 4.3의 전개과정을 4국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 1국면(1947.3.1~1948.4.2)은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충돌과 공세시기다. 제 2국면(1948.4.3~1948.10.19)은 4월 3일의 봉기 이후 무장대의 공세와 경비대 주도의 토벌작전이 진행되던 시기다. 제 3국면(1948.10.20~1949.5.15)은 여순사건 이후 대량학살이 본격화 되는 시기다. 제 4국면(1949.5.16~1954.9.21)은 대대적인 예비검속과 마지막 토벌기로 구분한다.(강성현, 『제주 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6쪽.) 강성현은 4.3의 종식을 1954년 9월 21일로 설정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는 1954년 9월 27일을 종식 시기로 파악한다.

이들이 군대로 몰린 이유는 자신들을 향한 빨갱이라는 의심을 벗어던지고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함이었다.⁴⁾

한국전쟁에 앞서 4.3항쟁을 체험했던 제주도민들에게 한국전쟁은 육지의 전쟁이었다. 제주도에서는 인민군과 중공군, 국군과 미군이 뒤엉킨 국제전으로써 한국전쟁은 보이지 않았다. 1948년부터 미 군정에 의해서 시작되어 이승만정권으로 이어진 토벌군의 교전과 학살만이 제주도민이 볼 수 있었던 전쟁의 풍경이었으며 육지의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유지되었다. 육지에서 온 국가권력의 폭력 앞에 노출되어 자신이 국민임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4.3항쟁의 원체험은 현기영 문학에 강렬하게 남았고 그의 문학적 과제는 육지에서 벌어졌던 전쟁과는 다른 제주도의 체험을 설명해내는 것이었다.⁵⁾

김원일에게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은 그의 삶을 결정지은 강렬한 체험의 장소다. 김원일 자신이 그가 쓴 소설의 절반가량이 고향과 전쟁체험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만큼⁶⁾ 고향과 전쟁체험은 긴밀하게 결합하여 그의 문학에 깊게 뿌리를 박았다. 김원일의 대표작인 장편 『노을』과 『불의 제전』 등이 진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많은 작품에서 고향의 형상으로 진영이 재현된다. 고향 진영의 공간성은 월북하여 사라진 ‘빨갱이’ 아버지의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에 견고하게 결합하여 있다. 그런데 김원일의 전쟁체험과 고향의 이미지가 가진 중요한 성격을 그동안의 연구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바로 김원일이 체험한 전쟁의 양상과 그의 고향인 진영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상 사이에 간극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고향이 실

4) 박찬식, 「한국전쟁과 제주지역 사회의 변화 : 4·3사건과 전쟁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제 27호, 부경역사연구소, 2010, 93~97쪽.

5) ‘육지와 섬’이라는 구분은 4.3항쟁을 체험한 제주도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다. 육지와 섬의 구분은 현기영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현기영에게 4.3항쟁은 비슷한 시기 육지에서 발생한 사건과는 동질적이지 않은 고유한 사건으로 인식되는데 이는 그의 소설 속에서 제주가 “육지와 절연되어 있는 하나의 우주로 구성”된다는 점과 4.3항쟁을 이념적 갈등과 ‘섬 것들’에 대한 차별이 결합된 제노사이드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정중현, 「4.3과 제주도 로컬리티」, 『현대소설연구』 5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61~62쪽.)

6) 김원일, 『사랑하는 자는 괴로움을 안다』, 문이당, 1991, 204쪽.

제의 역사적 사건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현됐다는 점이다.

김원일은 남로당 지역 책임자였던 아버지, 김종표가 검거를 피해서 서울로 도망치자 1949년 3월에 고향인 진영읍을 떠나 서울로 올라간다. 한국전쟁으로 서울이 함락된 이후 인민군치하에서 성동구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시당 재정부 부부장 등을 역임했던 김종표는 9월에 서울이 수복되자 월북하고 남은 가족은 그해 11월에 진영으로 돌아온다.⁷⁾ 김원일은 1949년 3월에서 1950년 11월까지 고향인 진영을 떠나 있었다. 그런데 진영에서 벌어진 이념 갈등과 아버지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뤘던 그의 소설 『불의 제전』의 시간적 배경은 1950년 1월에서 10월까지로 고향을 떠나 있던 시기를 다루고 있다. 『불의 제전』에서 형상화된 자전적 체험과 그 시기 진영의 사람들이 체험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주목해야 한다.

1983년에 출간된 『불의 제전』의 1권과 2권을 구성하는 1부, ‘인간의 마을’은 좌우갈등이 치열했던 진영의 1950년 1월에서 4월까지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을’에서 형상화된 것과 달리 진영에서의 좌우갈등은 1950년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았다. 진영에서 좌익에 의해서 발생했던 주요 사건들을 보면 1947~1949년에 한정되어 있다. 그 시기 동안 진영에서 발생한 사건은 남로당 지부에 대한 색출과 ‘남로당원 황상태 대한청년단원등 테러 사건’ (1947~1949)과 ‘민애청 경남 김해군 진영읍 본산리 맹원 야경단 습격사건’ (1947.8)의 두 건의 유혈사태가 있었다.⁸⁾ 이외에 『불의 제전』에서 진영읍 지구대와 빨치산 유격대 사이 교전으로 나오는 ‘화차고개’ 전투는 1949년 11월 김해경찰서의 공비소탕 전과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전 지역이 진영읍 지구로 추정될 뿐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⁹⁾ 그리고 이 사건 역시 1949년에 일어났으며 김원일의 가족이 서울로

7) 김원일은 「자전 에세이 1」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1947년 이후 수사 기관에 쫓기는 몸이 되어 49년 3월에 가족이 모두 서울로 올라갔다고 밝혔으나(김원일, 「자전 에세이 1」, 『김원일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2, 54쪽.) 2013년에 발간한 자전소설인 『아들의 아버지』에서는 서울로 올라간 시기를 1949년 3월로 밝히고 있다. (김원일, 『아들의 아버지』, 문학과지성사, 2013, 228쪽)

8) 홍승권, 배병욱, 「한국전쟁 전후 김해지역 민간인학살의 실태와 성격」, 『제노사이드 연구』 4호,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8, 91~92쪽.

도피하게 된 시점보다 8개월 뒤다. 진영에서의 좌우익층들은 『불의 제전』의 배경인 1950년보다는 김원일이 서울로 떠나게 되는 1948년 3월을 전후한 시기에 훨씬 치열했다. 진영읍이 포함된 김해에서 좌익혐의로 처벌받고 보도연맹에 가입된 이들의 기록을 봐도 1947년에서 1949년 초 사이에 처벌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¹⁰⁾ 이 지역에서의 좌익활동은 1950년경에는 거의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1950년 진영읍의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훨씬 강렬했던 체험은 한국전쟁 중 자행된 보도연맹학살사건이었다.

진영읍은 김해에 속해있는 지역 중 가장 많은 보도연맹원이 가입한 곳이었다. 김해지역 보도연맹원 993명 중 152명이 진영읍 주민들이었고 이들은 1949년 11월부터 김해군수 등이 보도연맹 가입을 적극적으로 받던 시기에 가입한 이들로 상당수는 보도연맹이 무엇이었는데도 알지 못했다.¹¹⁾ 보도연맹활동은 195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다 그해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하달된 치안국 통첩에 따라 6~8월에 걸쳐서 김해 일대의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이 시행되었고 진영읍에서는 맹원 115명과 비맹원 51명으로 총 166명이 예비검속을 당한다.¹²⁾ 그렇게 6월 27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진영읍에서는 251명의 주민이 무참하게 학살당한다.¹³⁾ 좌우익의 대립을 중심으로 축조된 『불의 제전』속 진영읍과 달리 1950년의 진영읍 주민들 삶의 핵심에는 보도연맹이 있었다.

김원일의 소설 속 진영의 모습에서는 보도연맹학살의 비극적 체험은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1973년 작 「갈증」에서 진영읍은 전쟁이 발발한 뒤 부상병들이 후

9) 홍승권, 배병욱, 위의 책, 91쪽.

1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 『2008 하반기 조사보고서』, 2008, 810쪽.

1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 위의 책, 811~829쪽.

1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 위의 책, 824쪽.

13) 4·19혁명 직후에 성립된 국회의 양민학살사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유족인 김영욱 등이 증언한 내용이다.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268쪽) 사건의 발생 기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홍승권, 배병욱의 연구에서는 진영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발생한 보도연맹원 학살은 7월 26일이며 가장 마지막 학살은 8월 19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홍승권, 배병욱, 위의 책, 100쪽.)

송되고 치료받는 전쟁의 후방지역으로 묘사될 뿐이며 1978년 작 『노을』에서는 1948년 진영읍에서의 좌익폭동¹⁴⁾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김원일의 소설 속에서 보도연맹학살사건과 진영이 중첩되지 않지만, 제한적으로나마 보도연맹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1982년 작 단편 「미망」에서는 좌익활동을 하다가 실종된 아버지가 보도연맹원으로 제시된다. 이듬해에 출간된 『불의 제전』의 1983년판에서는 1950년에 보도연맹이 결성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언급된다. 1987년에 출간된 장편 『겨울 골짜기』에서는 거창군 신원면에서 보도연맹원들이 학살당한 사건이 국군 11사단에 의한 거창양민학살의 전사로써 진술되고 있지만 이 사건이 진영읍의 상황에 대응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영읍에서 자행된 보도연맹학살이 그의 소설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1997년에서야 완결된 『불의 제전』의 후반부다.

김원일의 소설 속 그의 고향 진영읍의 모습은 한국전쟁기 그 지역사보다는 좌익이었던 아버지에 의해 겪었던 그의 개인적 체험의 양상에 부합되도록 재구성되었다. 1950년 11월에 진영으로 돌아온 김원일이 수백 명의 주민이 죽었던 진영의 보도연맹학살사건을 1980년대에 몰랐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피해 규모가 크기도 했지만 몇몇 피살자들의 사례가 문제가 되어 군법 재판으로 가해자 일부가 처벌되었기 때문이다. 1950년 10월 고등군법회의에서 사적인 원한 문제로 주민을 살해했다며 보도연맹학살에서 지역 자경대를 이끈 지역유지 몇이 처벌받았고¹⁵⁾ 이 사건이 그해 12월에 언론 보도가 되었으며¹⁶⁾ 1960년에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유족회 결성과 유해발굴과 국회증언,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¹⁷⁾ 김원일이 고향을 떠나는 1954

14) 이 작품에서 묘사되는 진영읍의 폭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홍승권, 배병욱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진영읍에서 발생한 유혈 충돌은 모두 1947년에 발생했거나 그때부터 1949년까지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불의 제전』 속 1950년의 진영읍처럼 『노을』의 진영읍 역시 김원일에 의해서 변형된 공간일 가능성이 크다.

15) 김기진, 위의 책, 149~150쪽. 재판과정에서는 보도연맹학살사건을 주도한 해군 CIC 등 학살에서의 정부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 개별살해사건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학살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16) 홍승권, 배병욱, 위의 책, 124쪽.

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진영에서의 학살사건은 공론화되었다. 그리고 김원일의 자전소설 『아들의 아버지』에는 김종표의 옛 동료 중 보도연맹학살로 인해 죽은 이의 아내가 1955년에 그의 가족을 찾아왔던 일에 대해서 언급한다.¹⁸⁾ 고향에서 일어난 보도연맹학살에 대해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진영의 지역사는 김원일의 작품에서는 그의 좌익 아버지의 존재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있던 이념대립으로서의 전쟁의 이미지 속에 가려져 있다.

이념 갈등으로 형상화되는 김원일의 전쟁체험은 반공주의에 부합되게 형성된 반공국가의 공식기억과 그 반공국가의 시선이 자신을 포착하게 만든 ‘사상에 미친’ 아버지의 존재 사이에서 길항한다. 「어둠의 혼」과 『노을』에 이르는 시기 김원일의 소설들은 반공국가의 공식기억과 아버지에 대한 사적기억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놓여있다.¹⁹⁾ 또 이 고민은 반공국가에서 국민으로서의 태도를 끝없이 의심받아야 했던 빨갱이의 아들인 김원일 자신이 직면한 고민이기도 했다. 반공국가의 공식기억의 수용과 이에 대한 거리 두기에 대한 고민은 폭력의 주체로서 반공국가를 지워낸 『노을』과 반공국가에서 유일하게 공적으로 인정받은 국가폭력 사건인 거창양민학살사건²⁰⁾을 주목하는 『겨울 골짜기』의 간극을 통해서 그의 문학적 여정 내내 변화되어 갔음을 가늠할 수 있다. 폭력의 주체로서 반공국가의 존재가 희미해진 ‘이념 갈등으로서의 한국전쟁’이란 소설적 재현은 반공

17) 김기진, 위의 책, 141쪽.

18) 김원일, 『아들의 아버지』, 문학과지성사, 2013, 321~322쪽.

19) 정재림, 『전쟁 기억의 소설적 재현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06, 46쪽.

20) 거창 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3월 29일 국회의원 신중목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폭로되면서 그 전모가 밝혀지고 이후 국회 차원의 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 책임자 일부가 재판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이승만정권에 의해서 책임자들 대다수가 사면되고 사건의 진상이 축소되었다. (한성훈, 『가면권력』, 후마니타스, 2014, 151~178쪽.) 그럼에도 거창양민학살사건은 50년대 직후부터 말해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폭력 사건이었다. 1974년에는 동아일보에서 거창 양민학살사건이 「비화 제1공화국 재 9화 「거창사건」」이란 제목으로 수십 차례 연재되기도 했을 정도였다. 반면 같은 기사에 보도연맹에 대한 언급은 단 한 건에 불과한데 거창사건을 전후로 한 다수의 보도연맹학살사건에 대한 설명 없이 거창사건 희생자 중 일부가 보도연맹원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비화 제1공화국 재 9화 「거창사건」(6)」, 『동아일보』, 1974.3.23.)

국가의 공식기억을 추인할 가능성을 암시한다²¹⁾ 「미망」²²⁾과 『겨울 골짜기』에서 나타나는 보도연맹에 대한 돌출적 기술이나 「어둠의 혼」에서 증언되는 가족을 향한 반공국가의 폭력은 그 공식기억에 완전히 일치될 수 없는 간극을 김원일이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단과 전쟁체험이라는 단일한 유형으로 설명되는 현기영과 김원일의 유년기 체험의 공통성은 반공국가의 폭력과 그로 인해 국민이라는 지위에 대해 의심받게 되는 위기였다. 김원일의 소설에서 좌익인 아버지는 「어둠의 혼」에서 아버지 대신에 지서에 끌려가 고문당했던 어머니처럼 가족들에게 반공국가의 위협을 가족에게 향하도록 만든 존재였다. 김원일 자신 역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반공국가의 위협을 직면해야 했다. 그의 소설은 반공국가의 위협을 무릅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의문²³⁾을 풀기 위해 이념 갈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국가폭력의 기억이 돌출적으로 등장한다. 현기영의 유년기 체험에서 반공국가의 폭력은 전설 속 ‘해룡’ 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 폭력에 희생된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반공국가의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증명을 강요한다. 가족과 지역공동체에 의해서 계속 환기되는 기억과 말할 수 없게 하는 반공국가의 위협 사이의 긴장감이 현기영의 소설에는 짙게 베어있다.

김원일과 현기영이 체험한 반공국가의 폭력과 국민됨 상실의 위기는 학살의 역사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있다. 현기영에게 각인된 4.3항쟁의 기억은 제주도 전체를

21) 이념 갈등의 공간으로서 진영을 재현한 소설 『노을』은 반공주의 문학이라는 평가와 과거와의 대면을 통한 분단극복의 시도라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으며 1978년 반공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2) 1982년 발표된 단편 「미망」에서 아버지의 실종원인으로 보도연맹가임을 제시한 점은 주목해볼 만하다. 보도연맹학살사건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1985년 이창동의 「소지」와 김정환의 「슬픈 해후」를 기점으로 한다. 보도연맹학살사건이 공적 기억에서 사실상 80년대 중반까지 억눌려온 상황에서 김원일이 민감한 사건을 환기했고 이에 아버지의 이미지를 결합했다는 점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3) 강진호, 「민족사로 승화된 가족사의 비극 - 김원일의 삶과 문학」, 『현대소설과 분단의 트라우마』, 소명출판, 2013, 111쪽.

피로 물든 학살의 과정으로써 학살자들의 위협과 반공국가에 동원당하고 그에 맞서기도 하는 양민들의 이미지로 구축되어 있다. 김원일은 이념 갈등으로서의 한국전쟁 전후의 혼란을 주목하지만 거창 양민학살이나 보도연맹학살 사건과 같은 학살의 서사가 개입하는 소설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 학살의 역사는 이념 갈등과 안정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비대칭적인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 진영의 보도연맹학살은 이념 갈등을 중심으로 재현된 진영에서는 주변화되고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재현은 서사의 전면에선 이념문제에 부자연스럽게 결합한다.²⁴⁾ 현기영에게 학살의 역사는 유년기 체험의 핵심적인 사건이고 김원일에게는 학살사건들이 이념 갈등으로 재현된 지역사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들이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살의 역사와 그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소설적으로 재현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사 검토

현기영과 김원일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전쟁체험과 분단인식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김원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은 현기영에 대해서는 그와 4.3항쟁, 4.3항쟁이 발생한 지역인 제주도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김원일 연구는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려는 작가론적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²⁵⁾ 분단문제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는데 그의 분단의식과 유년기 전쟁체험과 결합한 아버지의 문제가 그를 이해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어왔다. 본고에서는 김원일과 현기영 연구의 경향 중에서 분단문제와 전쟁체험, 전쟁체

24) 박찬모, 「『겨울 골짜기』의 개작 양상 고찰」, 『現代文學理論研究』 4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273쪽.

25) 이성희, 『김원일 분단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 2008, 5쪽.

험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기영과 김원일을 직접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정재림의 『전쟁 기억의 소설적 재현 양상 연구』에서 김원일과 현기영, 오정희를 유년기 전쟁체험 세대의 작가들로 분류한다. 그는 공식적 기억과 사적 기억, 대항기억으로 기억 개념을 세분화하여 이들의 소설과 기억의 문제를 분석한다. 김원일은 공식적 기억으로부터 좌익이었던 아버지의 기억을 망각하길 요구받는다. 그러나 자애로운 모습으로써 아버지에 관한 사적 기억을 재구성해냄으로써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아버지와 화해에 이른다. 정재림은 김원일이 공식적 기억과 대립하면서도 이와 타협하는 길을 택했다고 평가한다. 현기영은 수난자의 서사를 통해서 대항기억과 집단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수난자의 서사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수난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만, 제주도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동하는 김원일을 유년시절에 해방과 6.25를 체험한 분단소설 2세대의 대표적 작가로 설명한다. 그는 김원일의 「어둠의 혼」이 70년대 분단소설의 새로운 경향을 열어놓은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어둠의 혼」이 입사소설의 형태를 취하면서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피하지만 회의주의적 태도를 통해서 진실의 복합성을 보이면서²⁶⁾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태도는 이후 『불의 제전』으로 이어지는 분단문제에 대한 확장된 시야를 예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오생근은 김원일이 공산주의자 아버지로 인한 유년기의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기 삶을 역사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오생근은 자기 상처의 조망이 김원일의 1인칭 시점 작품들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평가하고 이를 중심으로 김원일의 문학을 검토한다. 「어둠의 혼」과 같이 소년의 시선을 취하는 작품들은 어

26) 이동하, 「분단소설의 세 단계」,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302쪽.

른들의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이지만 분단문제를 다루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 평가받는다. 과거와 현재의 시선을 오가는 『노을』에서 자신의 비극적 경험이 분단 상황의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결합하여 있음을 파악한다. 이러한 과거 경험에 대한 객관화는 상처를 극복하는 치유의 방식이다. 오생근은 김원일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시선을 통해서 김원일이 분단문학을 당대 현실의 인식을 아우르는 차원으로 갱신해왔다고 평가한다. 27)

강진호는 김원일 문학의 원점에 아버지로 인한 가족사의 비극이 자리하고 있고 이것이 그가 민족사의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김원일에게 분단의 비극은 아버지로 상징된다. 아버지의 월북으로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그로 인한 작가의 강박은 『노을』까지는 분단 현실을 개인의 비극으로 환원함으로써 다층적으로 보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후 『불의 제전』에 이르러서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상처를 조망하게 된다. 『불의 제전』은 분단 이전의 시기부터 내려져온 사회적 갈등을 포착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과장했으나 잊혀온 아버지의 역사를 복원해냈다는 데서 자신의 상처를 조망해온 작가의 성취를 확인시켰다 평가받는다. 이러한 자기 상처의 조망은 민족사에 대한 이해의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가족사와 민족사를 결합해 분단의 극복 방안으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휴머니즘적 태도를 보인다. 28)

양현준은 김원일의 문학적 행보를 한국전쟁과 분단에 관한 지속적인 탐구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는 김원일의 작품들의 시점 선택이 개인적 체험과 객관적 현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용하게 했는가를 살핀다. 시점 변화는 현실의 객관적 인식과 화자의 내면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서 갔고 『불의 제전』에서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아우르며 전쟁과 분단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시도하게 된

27) 오생근, 「분단 문학의 확장과 현실 인식의 심화」, 『김원일 깊이 읽기』, 112쪽.

28) 강진호, 「민족사로 승화된 가족사의 비극」, 『탈분단 시대의 문학 논리』, 새미, 2001, 147쪽. (같은 논문을 다른 책에서 다시 인용함)

다.²⁹⁾ 이러한 시점 활용의 변화양상은 작가의 현실 인식의 변모와 함께 이루어진다. 관념적인 인식의 차원에서 주관적 현실 인식을 거쳐 현실의 객관적 인식으로 나아갔다는 것이 양현준의 평가다.

양문규는 현기영의 문학에서 4.3항쟁의 형상화가 수난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가운데 역사적 의식의 확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아버지」로 시작해 「순이 삼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현기영의 4.3항쟁 형상화는 70, 80년대까지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며 수난사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다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동적인 민중 상을 그리는 데서 탈피하여 4.3항쟁의 역사적 정당성³⁰⁾을 주장하는데 이른다. 양문규는 이러한 변화가 6월 항쟁이 나타났던 역사적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인식이 역사발전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음을 비판한다. 4.3항쟁을 다룬 김석범의 『화산도』와 비교하여 “민중 계급을 통한 역사 전반의 모색을 포기”³¹⁾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모색이 부재할 때 4.3항쟁의 형상화가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

김동윤은 현기영이 4·3을 탈식민의 문제와 결합해왔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현기영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남긴 영향이 4·3의 발생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왔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미국에 의한 신식민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4·3이 국제적·민족적 문제였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다.³²⁾ 미국에 의한 신식민 상황은 제주 민중의 저항을 불러서 4·3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유혈진압의 책임에서도 미국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현기영의 인식이다. 김동윤은 현기영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점차 미국 제국주의 쪽으로 무게를 옮겨갔다고 지적하는데 이를 당대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4·3인식을 갱신해온

29) 양현준, 『김원일 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1, 64쪽.

30) 양문규, 「수난으로서의 4.3 형상화의 의미와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 11권, 한국문학연구학회, 1998, 210쪽.

31) 양문규, 위의 책, 219쪽.

32) 김동윤, 「현기영의 4.3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의 문제」,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2015, 350쪽.

근거라고 평가한다.

현기영의 문학을 제주도의 로컬리티와 연결하여 살피는 연구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로컬리티의 문제는 초기에는 제주방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되었다. 이명원은 「순이 삼촌」에 나타나는 제주 방언의 의미 작용을 분석한다. 이명원은 「순이 삼촌」이 서울 방언과 제주방언, 서북방언이라는 복수의 언어적 코드로 나누어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언어적 코드 사이의 위계가 서사 전개와 결합하여 있음을 보인다. 이 복수의 언어적 코드들은 제주인이 관계 맺고 있는 타자의 상징 체계를 가시화시킴으로써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제주 방언의 강조가 배타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³³⁾

김동현은 제주도의 로컬리티의 형성에 관해 연구하면서 현기영의 문학을 제주가 가진 로컬리티의 한 형태로서 '4·3'과 결합하여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는 현기영의 「순이 삼촌」이 억압된 기억으로서의 4·3을 드러낸 문학사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소설에 나타나는 제의적 형식과 현기영이 보이는 무당으로서의 작가라는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그의 문학이 무당으로서의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무속을 통해 개인의 고통을 재현함으로써 국가에 맞서고 죽은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현기영이 4·3을 해결하려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³⁴⁾

정종언은 현길언과 현기영의 소설을 비교하면서 이들이 제주의 로컬리티를 이해하는 방식과 4.3항쟁의 재현이 긴밀하게 결합하여 있다고 설명한다. 현길언은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비판하면서도 집단적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환원될 수 없는 개별의 기억을 중시하며 이데올로기와 개인적 삶을 대립적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태도는 육지의 국가권력이 제주도를 적대하게 만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으로 향하는데 이는 '주변성'으로 정의되는 제주도의 로컬리티가 이데올로기와는

33) 이명원, 「4·3과 제주방언의 의미 작용 -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 19집, 제주학회, 2001, 17쪽.

34) 김동현, 『로컬리티의 발견과 내부식민지로서의 '제주'』,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4, 134쪽.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반면 현기영은 4.3항쟁의 억압된 기억을 공동체의 공적 기억으로서 복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단위에서 바라보는 태도는 학살을 감행한 육지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제주도의 로컬리티를 인식하게 만든다. 4.3항쟁은 육지의 민중 저항과는 ‘빨갱이’와 ‘토민’이라는 이중적인 배제의 형식에 갇힌 제노사이드의 체험으로 이해된다.³⁵⁾ 제주는 육지와는 분리된 고유한 신화적 공간으로 표상되는 종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정중언은 이러한 현기영의 제주도 인식이 민족 문학의 동일성을 교란하는 지방적 발현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김원일과 현기영의 분단과 전쟁, 고향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을 대략 검토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김원일과 현기영의 작품에 나타나는 사건의 성격에 대한 면밀한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개별 사건들의 성격을 규명하지 않고 한국전쟁과 분단의 비극이라는 일반적 성격에 근거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발생지역과 체험자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다. 사건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분석은 현기영과 김원일의 체험을 동질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각 사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음으로써 작가에 의해서 증언된 체험을 실제적 사실로 받아들인 한계도 발견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원일의 소설에서 재현된 고향 진영과 실제 1950년의 진영의 상황은 일치하지 않는다. 실제와 재현의 불일치는 사건의 체험이 작가의 의식에 남긴 상흔을 가늠하게 할 수 있는 단서가 되어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에 유의하여 현기영과 김원일의 소설에 나타나는 학살 사건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1.3 연구의 시각과 연구의 범위

35) 정중언, 앞의 책, 62쪽.

본고에서는 현기영과 김원일의 소설에 나타나는 학살사건과 그에 수반되는 정치적 탄압과 갈등을 중심으로 반공국가의 국민 형성과 그에 대응하는 작가들의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전쟁의 충격이 전시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정치적 조건으로서 반공국가와 (반공)국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현기영과 김원일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되는 반공국가의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인해 완전한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본고에서는 그들의 문학이 반공국가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연속적인 과정이었다고 보고 1970년대 이후 그 변화과정을 뒤쫓을 것이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삼는 것은 이들의 작품에서 반공국가의 위협에 노출된 고향과 가족의 문제가 그 시기를 기점으로 소설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기영과 김원일은 최초로 학살문제를 그들의 작품에서 다루었을 때 반공국가에 의해서 ‘빨갱이’로 규정된 아버지의 죽음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한다. 현기영은 그의 등단작인 「아버지」(1975)에서 고향을 불태우다가 토벌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산사람’으로서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등장시킨다. 김원일은 「어둠의 혼」(1973)에서 경찰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좌익’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다. 비슷한 시기 창작된 두 작품은 모두 작가들의 강렬한 원체험의 전모를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반공국가가 은폐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건을 노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기영은 「순이 삼촌」(1978)을 기점으로 반공국가의 공적기억과 대립하여 사건의 진실을 탐구한다. 그에 반해서 김원일은 비슷한 시기에 반공문학상을 수상한 『노을』에서 반공국가의 공적기억과 공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겨울 골짜기』에서 돌출적으로 등장하는 국민보도연맹학살사건의 편린처럼 반공국가의 공적기억의 한계를 배회하는 서사의 재현을 보인다. 특히 『겨울 골짜기』와 같은 장편들은 수차례 개작을 거치면서 반공주의의 제약에 대응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³⁶⁾ 이 글은 비슷한 출발을 보였던 두 작가가 다른 대응의

방식을 보이며 변화해간 양상을 사회적 인정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인정투쟁의 과정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김원일과 현기영의 소설에서 고향은 중요한 서사의 공간적 배경이자 공동체의 공간이다. 현기영에게 그의 고향인 제주도는 그가 포착한 학살의 서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공간적 배경이며 그 비극을 체험한 자들을 결집하는 공동체다. 공동체로서의 제주도는 반공국가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이 금지된 4.3항쟁의 비극을 발언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독자적인 공통기억을 형성하는 장소다. 현기영은 더 나아가 제주공동체를 4.3항쟁을 함께 체험한 공통성을 넘어서 고유한 역사적 전통을 가진 집단으로 설정한다. 본고에서는 현기영의 이러한 고향인 제주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4.3항쟁을 이룬 시점에 반공국가의 공적기억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었던 근거였다고 판단한다. 현기영의 소설에서 제주도 공동체의 역사적 발견을 통해서 반공국가의 국민/비국민 창출에 맞서는 주체인 민중으로 거듭나는 근거를 확보했다고 본다. 이 과정을 중심으로 현기영 소설이 발전해가는 과정을 살필 것이다.

김원일에게 고향 진영은 『노을』, 『불의 제전』과 같은 그의 주요 장편들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한다. 고향의 형상은 많은 경우 치열한 이념 갈등의 공간이거나 ‘좌익’ 아버지의 기억과 결합한 곳으로 재현된다. 이 과정에서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시기의 진영에서 벌어진 학살사건은 주변화되는데 이는 『겨울 골짜기』에서 거창을 재현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김원일에 의해서 재현되는 고향과 공동체는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대립하며 반공국가의 국민의 범주에 아직 포섭되지 않았거나 거기서 이탈했으리라 의심받는 대상이다. 이러한 김원일의 고향 형상화는 반공국가의 공적 기억과 공진하거나 위배하면서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이 글에서는 김원일의 소설에서 고향과 공동체가 경험한 반공국가의 폭력 문제가

36) 『겨울 골짜기』가 1987년 민음사에서 출간되었을 때 ‘여순 반란사건 과 그 이후 폭동’ 이던 설명이 2004년 이룸에서 출판된 판본에서는 ‘여순 반란사건 이후 그 항쟁’으로 바뀌었다거나 빨치산 활동에 비관적인 유격대원 ‘김익수’의 입에서 “공산주의는 무산 대중을 위한 좋은 사상인 점은 틀림없소.”와 같은 일부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는 태도 등이 이룸판에 추가된 점(박찬모, 위의 책, 261~269쪽)등 반공국가의 상황이 변화하자 사건에 대한 서술 역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제시되고 변형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그가 반공국가의 국민 창출에 대응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겨울 끝짜기』의 거창과 같이 진영의 재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공간도 포함시켜 분석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김원일의 아버지 이미지와 고향이 맺는 관계를 살핌으로써 왜 그가 현기영과는 달리 고향과 공동체를 하나의 대안적 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학살사건이 반공국가의 체계와 국민을 형상을 결정지은 예외상태였다고 판단한다. 아감벤은 예외상태를 법적·정치적 질서를 창출하고 정의하는 과정으로 규정한다.³⁷⁾ 이 예외상태를 창출할 수 있는 주권 권력은 개인의 신체를 예속하고 있어서³⁸⁾ 예외상태를 통해서 개인을 죽음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존재인 ‘호모 사케르’로 만들 수 있다.³⁹⁾ 전쟁과 같은 계엄령하에서, 즉 예외상태에서 한국의 반공국가가 수행한 학살이 국민의 경계로서 호모 사케르를 결정하고 이들을 제거한 사건으로 파악한다. 이는 반공국가에 의해서 죽어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진 ‘비국민=빨갱이’를 호모 사케르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아감벤의 예외상태 개념은 학살과 같은 주권 권력의 폭력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사회를 만드는 작용이며 그 사회에 속할 수 없는 잉여로서의 호모 사케르를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운동으로써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설명력을 가진다. 그러나 한편 주권 권력과 예외상태에 대한 아감벤의 이론적 작업은 유대교와 그리스·로마로 서구정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학적 작업으로서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전개된 주권 권력에 대한 그의 근대적 모델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학살의 근대적 성격을 분석한 라울 힐베르크와 지그문트 바우만의 개념을 빌려오하고자 한다. 그들의 연구는 현대의 제노사이드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를 작동하게 하는 장치들과 연관

37)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62쪽.

38) 조르조 아감벤, 위의 책, 245쪽.

39) 조르조 아감벤, 위의 책, 293~294쪽.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바우만은 제노사이드가 결정을 독점하는 주권 권력이 자신이 원하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공학임을 설명해준다. 이러한 논의들은 김원일과 현기영이 직면했던 한국의 반공국가와 학살의 역사적 전개를 설명하는 과정에 적용될 것이다.

아감벤의 개념을 한국의 역사적 체험에 적용하려고 할 때 그의 이론이 주권 권력에 저항하는 피해자들의 능동적 행위를 주변화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감벤은 예외상태의 논의에서 희생된 자들을 증언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한다.⁴⁰⁾ 이러한 증언능력의 부재는 예외상태에서의 주권 권력의 규정에 저항하는 저항적인 정의를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호모 사케르에 대한 주권 권력의 우위를 확고하게 한다. 주권 권력이 절대적 우위를 상징하는 아감벤의 접근은 예외상태에 있어서 피억압자의 투쟁 가능성을 위축시킨다는 위베르만이 비판하기도 했다.⁴¹⁾ 위베르만은 증언의

40) 조르조 아감벤,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91쪽. 아감벤에게 증언은 주권 권력에 의해 수감자들의 신체가 포섭되어 있을 때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수용소는 주권 권력에 인간의 신체가 장악된 가장 극단적인 공간이므로 이 속에서 인간의 죽음은 주권 권력의 의지를 벗어나는 어떤 가능성도 가지지 못한다. (조르조 아감벤, 위의 책, 116~117쪽) 즉 ‘시체로 생산되는’ 수감자의 신체는 ‘죽은 자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며 죽음의 모든 사회적 맥락과 분리된다. 증언은 수용소에서 위력을 가지지 않는다. 오직 그 이후, 묵시록적 지평과 연결될 뿐이다. 아감벤에게 증언은 다시 메시아의 도래, 혁명적 예외상태와 연관된다. (조르조 아감벤, 위의 책, 241쪽)

41)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반덧불의 잔존』, 길, 2012, 90~94쪽.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은 아감벤의 철학적 작업이 벤야민의 참고하면서 민중의 저항적 역량을 긍정하지만, 구체적 역사의 양상을 설명할 때는 그 역량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아감벤이 서구역사 속 주권 권력의 계보를 그려내는 과정에서 민중의 존재를 주권 권력에 종속된 주체로 그린다고 보았는데 『왕국과 영광』에서 아감벤이 민중을 주권 권력의 권위에 대한 승인으로써 ‘환호송’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단정했다고 비판한다. 위베르만의 시선에서 아감벤은 왕국과 영광이라는 주권 권력의 정치신학적 계보학을 구축하면서 피억압자의 전통에 대한 인식이 결여하고 있다. 아감벤에 대한 위베르만의 비판은 여러 지점에서 전개되지만 특히 이미지에 대한 아감벤의 이해를 비판하는 그의 논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 아감벤은 드보르의 ‘스펙타클 사회’ 개념에 기대어서 현대의 민주주의의 여론이 실상 주권 권력에 동원되어온 ‘환호송’의 전통 속에 갇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여론이 미디어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위의 책, 93쪽) 민주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국가 모두가 실상 서구의 주권 권력의 계보학에서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바라보는 아감벤에게 이들 사이의 대립은 “환호송을 보내는 인민의 직접적인 현전에 기초한 전체론적 국가와 주체 없는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해소되는 중립화된 국가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직 외견”일 뿐이며 “양자는 단지 하나의 동일한 영광의 장치가 두 가지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조르조 아감벤, 『왕국과 영광』, 새물결, 2016, 524쪽) 위베르만은 이러한 인식이 이미지적인 것으로서의 미디어를 오직 권력의 기능으로 축소함으로써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주체로서의 민중을 주권 권력에 예속된 신체로 환원했다고 비판한다.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위의 책, 99쪽)

불가능성을 반박하면서 소멸하지 않는 이미지⁴²⁾의 잔존에서 저항의 가능성을 찾는

위베르만은 『반딧불의 잔존』에서 주권 권력에 의해서 구성된 세계의 질서, 그의 개념으로는 ‘지평’ 혹은 ‘권력의 서치라이트’와 대립하는 과편적이고 산발적인 것으로 ‘이미지’를 개념화한다.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위의 책, 85쪽) 이미지는 민중에 의해서 생산되는 목소리들의 포괄적인 묶음으로 주권 권력에 대한 즉각적 저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저항의 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평은 세계에 대한 거대한 전망으로 (벤야민적인)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는 벤야민을 전유하는 아감벤이 이미지와 지평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민중의 사라지지 않음의 역량인) ‘잔존’과 ‘전통의 권력’을 모호하게 묶어 버렸다고 비판한다. 이로 인해서 아감벤은 저항적 가능성을 탐색할 때 지평을 창출하는 메시아가 도래할 목시록적 순간만을 강조했다고 비판한다.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위의 책, 145쪽) 이는 일상 속에서 나타난 사회의 여러 목소리의 정치적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상태의 순간으로 모든 저항의 가능성을 후퇴시킨다.

‘이미지’에 대한 위베르만과 아감벤의 인식이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아우슈비츠의 수인들이 가진 증언의 역량에 대한 해석이다. 아감벤은 아우슈비츠의 무젤만을 주권 권력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극단적인 생명정치적 신체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한다. 아감벤은 아우슈비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이들 무젤만이 언어의 능력을 상실한 신체이기에 (수용소의 극한을 본자는)언어가 없고 (수용소의 극한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언어를 가진 자는 온전한 증언자가 아니라는, 증언의 불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르조 아감벤, 2012, 145쪽) 아감벤은 증언은 단독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존자들이 증언할 수 없는 자들인 무젤만을 보증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조르조 아감벤, 2012, 222쪽) 반면에 위베르만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 증언의 능력이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벤야민이 『이야기꾼』에서 죽은 자는 그가 살아온 삶에 의해서 단독적으로 이야기(증언)를 남길 역량을 가진다는 ‘죽은 자의 권위’ 개념(발터 벤야민, 『서사(敍事)·기억·비평의 자리』, 길, 2013, 430~434쪽)을 제시하면서 아감벤이 벤야민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위베르만은 유대인 수감자들이 외부로 수용소의 실상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과 성공한 사례들을 예시로 아우슈비츠에서 증언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이는 인간을 인간 이하로 만들어내고자 했던 나치국가와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저항이었다고 평가한다.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모든 것을 무릅쓴 이미지들』, 레베카, 2017, 70~72쪽)

위베르만이 제시한 이미지와 지평의 구분은 증언의 가능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감벤에게 증언은 주권 권력에 의해 수감자들의 신체가 포섭되어 있을 때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수용소는 주권 권력에 인간의 신체가 장악된 가장 극단적인 공간이므로 이 속에서 인간의 죽음은 주권 권력의 의지를 벗어나는 어떤 가능성도 가지지 못한다. (조르조 아감벤, 2012, 116~117쪽) 즉 ‘시체로 생산되는’ 수감자의 신체는 ‘죽은 자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며 죽음의 모든 사회적 맥락과 분리된다. 증언은 수용소에서 위력을 가지지 않는다. 오직 그 이후, 목시록적 지평과 연결될 뿐이다. 아감벤에게 증언은 다시 메시아의 도래, 혁명적 예외상태와 연관된다. (조르조 아감벤, 2012, 241쪽) 반면 위베르만이 주목하는 증언의 효력은 현재적이다. 수용소와 그곳에서 자행된 학살을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로 만들어 내려는 나치국가에 맞서서 가능한 한 먼 곳까지 사진을 보내는 수감자들의 행동(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위의 책, 32쪽)은 지평이 아니라 이미지로써 저항한다. 희생자들에 의해서, 또는 방관자들에 의해서 주권 권력의 의지에 반하는 이미지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잔존함으로써 누구도 이곳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나치국가의 목적은 그때부터 이미 실패했다.

위베르만의 비판은 이미지와 지평의 구분을 통해서 아감벤이 주권 권력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힘들에 대해서 간과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준다. 아감벤 역시 주권 권력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주목하지만 그 남는 것들은 현재가 아니라 목시록 뒤의 지평으로 밀려난다. 반면 위베르만이 말하는 이미지는 현재적이며 수많은 주체들에 의해서 끝없이 만들어진다. 하나하나의 이미지는 사회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이나 결정을 내놓지는 않지만 그 과편적인 것들은 주권 권력에 저항할 수 있고 그의 전망과는 다른 사회를 형성해갈 수 있다. 주권 권력이 자신의 사회적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지를 만드는 인간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42) 위베르만은 ‘이미지’와 벤야민의 ‘이야기’ 개념을 등치시키고 있는데(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위의 책,

다.⁴³⁾ 본고에서는 위베르만의 비판을 수용하여 반공국가의 국민 창출에 대항하거나 거리를 둘 수 있는 ‘주체화’⁴⁴⁾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이는 반공국가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국민으로 내몰린 이들을 복권하려는 김원일과 현기영의 문학적 작업이 가지는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문제다.⁴⁵⁾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한국 사회가 겪은 대규모 학살은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김원일과 현기영에게 강렬한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그들의 소설의 주요한 사건들로 등장한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반공국가와 반공국민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과 그에 수반된 대량학살의 문제, 그리고 이를 경험한 한국 사회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제주 4·3항쟁이나 경남에서의 보도연맹학살, 거창 양민학살

119~112쪽) 벤야민은 「이야기꾼」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죽음의 순간에 그 삶을 살아갔다는 권위가 부여됨으로써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발터 벤야민, 위의 책, 437쪽) 이러한 벤야민의 이야기 개념은 희생자가 타인의 권위를 통해서만 증언 가능하다는 아감벤의 견해(아감벤, 2012, 222쪽)와 대립한다. 위베르만 역시 이미지의 생성이 보편적 능력으로 이해하기에 아감벤이 상정한 증언 개념을 비판한다.

43)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위의 책, 115쪽.

44) ‘주체화’는 랑시에르의 개념으로 공동체를 구획하고 관리하는 치안의 논리를 벗어나서 그 공동체의 나눔에 개입하고 이를 바꾸게 하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적 능력과 결부되어 있다.(자크 랑시에르, 『불화』, 길, 2015, 71~73쪽) 이러한 랑시에르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이후 살펴볼게 될 아감벤의 이론적 접근이 그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능력과 정치 사이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베르만은 아감벤을 비판하기 위해서 랑시에르를 동원했다. 랑시에르 자신도 정치에 대한 아감벤의 논의를 비판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주체화’의 과정이 김원일과 현기영의 소설 속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이 주체화의 양상이 아감벤적인 예외상태에서 작동한 주권 권력의 결정과 맞서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45) 아감벤의 작업이 희생자들의 자기 복권 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력을 보이지 못하는 데는 그의 이론이 홀로 코스트를 경유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으리라 추정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내몰았던 주권 권력인 나치 국가가 단죄되고 희생자들은 사회적으로 복권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노사이드를 경험한 대다수 국가에서 사건 이후에도 주권 권력은 사회를 지배했고 희생된 이들의 사회적 복권은 주권 권력에 저항하는 지난한 여정이었다. 베트남전쟁과 냉전에서 근대적 폭력의 희생자들을 복권하려는 문화적 저항의 과정을 연구한 문화인류학자 권현익의 논의는 이에 대한 주요한 참조점이다. 권현익은 베트남전쟁 중 대량학살을 경험한 중남부 베트남 사회에서의 망자의례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연구했다. 그는 베트남 전통사회의 망자의례가 근대적인 폭력과 근대적 국민국가인 베트남의 정치적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권현익, 『베트남전쟁의 유행들』, 산지니, 2016, 178쪽) 망자의례의 전통은 근대적 국가의 폭력인 학살과는 다른 층위에 놓인 문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근대적인 국민국가는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국뎃묘지와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망자 기념의 체계를 구축한다. 망자에 대한 의례는 전통적인 공동체뿐 아니라 근대적 국민국가에게도 중요한 정치적 공간이다. 권현익은 망자의례가 근대적인 폭력과 국민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표현이 나타나는 장소라고 설명한다.(권현익,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2013, 121쪽) 베트남의 망자의례에 대한 권현익의 연구는 베트남과 유사하게 망자위령의 문제와 정치적 복권의 노력이 결부되어 있던 한국의 역사적 상황은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사건 등 개별적인 사건을 열거하는 대신에 반공국가의 형성이라는 흐름 속에서 살피고자 한다. 이는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사건으로서의 학살이 아니라 반공국가와 반공국민을 형성하는 정치·사회적 수단으로서의 학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4·19혁명이나 80년대의 민주화운동, 87년의 6월 항쟁이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개된 학살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복권과 진실규명의 시도들은 김원일과 현기영의 소설을 설명하기 위한 참조점이다. 이 과정에서 보이는 유족이나 희생자들의 행동은 김원일과 현기영 소설의 인물들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좌익의 가족이거나 국민됨을 의심받았던 지역 출신이라는 작가들의 사회적 위치와 그들이 반공국가에게 겪은 위협이 학살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응과의 비교를 통해서 두 작가의 문학적 응전이 가지는 의미와 위치가 좀 더 선명해지리라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김원일과 현기영의 소설 중 학살의 서사와 연관된 작품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김원일과 현기영이 학살의 서사를 소설에서 등장시키기 시작한 시점은 「아버지」와 「어둠의 혼」이 쓰인 1970년대이다. 이후 현기영은 1999년에 장편 『지상의 손가락 하나』에 이르기까지 4.3항쟁과 관련된 소설을 다수 창작한다. 이 중 3권의 단편집인 『순이 삼촌』(1979), 『아스팔트』(1986), 『마지막 테우리』(1994)에 수록된 학살 서사가 나타나는 단편들과 유년기 체험으로서 4·3항쟁이 그려지는 장편 『지상의 손가락 하나』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김원일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년기의 전쟁체험에 대한 소설 역시도 왕성하게 창작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의 소설까지 연구범위에 포함할 경우 같은 시기에 창작된 현기영의 작품들과의 비교라는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연구범위가 연구자의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김원일의 연구범위도 1970년대에서 1990년까지, 1997년에 완결된 『불의 제전』까지로 한정한다. 이는 1983년에 1부인 「인간의 마을」에 해당하는 2권 분량만으로 출판되었던 미완의 『불의 제전』이

1997년에서야 총 7권 분량으로 완결됨으로써 김원일의 전쟁체험에 대한 서사화의 한 기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1997년 문이당에서 출판된 『김원일 중단편전집』에 수록된 단편 중 학살서사가 나타나는 작품들과 장편으로는 『노을』, 『겨울 골짜기』, 『불의 제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이중 장편들은 개정판의 출간이나 전집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개작이 이루어졌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개작의 양상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김원일의 경우 고향인 진영읍의 형상화가 학살의 기억을 망각하는 방식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학살서사의 범위에 진영을 다룬 작품들 역시 포함하려 한다. 이를 통해서 학살사건의 기억과 망각의 균열점을 살피고자 한다.

제2장 학살의 기억과 반공국민의 생성

2.1 ‘아버지’ 라는 출발점과 엇갈림

한국전쟁을 체험한 많은 작가에게 전쟁은 가족의 위기로 다가왔다. 특히 한국전쟁을 유년기에 체험한 세대에서는⁴⁶⁾ 많은 경우 유년시절 가족의 상실과 전쟁의 기억이 결합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좌익이나 혹은 좌익으로 몰려서 가족을 잃은 충격을 자신의 문학 안에서 반복적으로 소환하는 작가들도 적지 않다. 김원일과 김성동, 이문열, 이문구, 문순태 같은 작가들은 좌익이었거나 좌익으로 몰려서 가족의 곁을 떠난 아버지의 상실이 문학을 통해서 극복해야 했던 일생의 문제로 품고 있었다. 그중에는 김승옥처럼 절필한 이후에야 좌익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을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⁴⁷⁾ 가족의 위기, 특히 아버지의 상실이라는 감각은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거나 월북 등으로 이산가족이 되었던 이들뿐 아니라 한국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체험한 이들의 세대 감각이라 볼 수 있다.⁴⁸⁾

그런데 이 세대 감각이 표현될 때 문학이 가지는 특수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중 가족의 죽음, 특히 반공국가에 의해서 빨갱이로 규정된 이들의 죽음은 역사적 금기였으므로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

46) 김윤식은 한국전쟁을 체험한 시기를 기준으로 작가들을 체험세대와 유년기 체험세대, 미체험세대로 구분한다.(김윤식, 「6·25전쟁문학 - 세대론의 시각」, 『문학사와 비평』 1집, 문학사와 비평학회, 1991, 15쪽.)

47) 유임하, 「마음의 검열관, 반공주의와 작가의 자기 검열」, 『상허학보』 15호, 상허학회, 2005, 132쪽

48) 김승옥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을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로 규정한다. “우리 세대의 문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6·25 문학이라고 봐야 해요. 4·19세대의 문학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세대가 어린시절에 겪은 6·25 이후의 체험담들이 결국은 우리 60년대 문학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적어도 나의 경우에는 6·25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6·25 이후 한국인은 아버지를 상실한 세대, 민족대혼란의 전쟁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성리학적 전통문화가 깨져버리고 아직은 새로운 것이 붙잡히지 않은 세대, 이렇게 압축시켜보자 해서 그렇게 썼던 거죠. 데뷔작 이후에 쓴 소설들도 거의 모두 그런 주제들이었죠.” 최원식 외,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비, 2002, 32쪽

고 위령하는 일조차 국가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몇 차례의 정치적 격변기를 제외하고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반공국가에게 희생된 가족이 문제를 말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할 수도 없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었는데 1950년대 조봉암의 피해대중론⁴⁹⁾이나 1960년 4·19혁명 이후의 피학살유족회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지만, 각각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탄압과 군부정권의 탄압으로 무력화되었다. 1980년대 말엽에 와서야 논의가 본격화되어 학술연구가 시작되고 1990년대의 과거사 진상규명 운동이 전개되면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반면에 문학에서는 좌익이었던 가족의 문제나 학살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왔다.

1973년 발표된 김원일의 『어둠의 혼』은 1950년에 좌익이었던 아버지가 경찰에 의해서 재판조차 없이 살해당하는 상황을 보여주었으며⁵⁰⁾ 현기영이 1978년에 발표한 「순이 삼촌」은 제주 4·3항쟁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학살당했던 과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뿐 아니라 그 희생자 대다수가 반공국가에게 좌익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이들을 주장했다. 문순태가 1981년에 발표한 단편 「말하는 돌」은 한국전쟁 중에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상대를 좌익으로 몰아서 죽였던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전쟁 중의 좌익학살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의적

49) 조봉암의 피해대중론은 한국전쟁과 같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 희생된 이들을 하나로 묶어 호명했던 특수한 단위였다. 피해대중의 범위에는 반공국가에 의해서 비국민으로 내몰려 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포함함으로써 반공국가에 의해서 은폐되고 배제되었던 좌익과 좌익으로 몰린 희생자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복권하려고 했다.(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2000, 531~539쪽) 하지만 이러한 정치권에서의 희생자 복권 노력은 조봉암과 진보당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치세력이 없었으며 4·19혁명 이후에 국회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지만 학살이 자행된 지역구 개별 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뿐이며 그마저도 5·16쿠데타 직후 군부의 탄압으로 무력화되었다. 조봉암 이후 반공국가에 의한 학살희생자들을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삼은 사례는 광주 5·18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1980년대 말엽에 가서나 가능했으며 한국전쟁기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제주4·3항쟁과 같은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정치권의 관심은 제한적이었다.

50) 전시가 아닌 평시에 민간인을 재판 없이 총살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었으며 전시에도 군과 경찰은 군사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했음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 거창 양민학살사건에서 군사령관이 적성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을 총살하라고 만든 기록을 간이군사재판을 통해서 처벌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수정하기도 했다.(한성훈, 위의 책, 167쪽) 이처럼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인 처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도 반공 국가에는 부당스러운 행동이었다.

으로 자행되었고 지금까지도 그에 대해 침묵해야만 하는 상황을 고발한다. 이창동이 1985년에 발표한 단편 「소지」는 국민보도연맹학살사건을 주제로 한 최초의 단편이었는데 이는 국민보도연맹학살사건의 지역사를 다룬 첫 역사서인 『실록 보도연맹』⁵¹⁾보다 앞서서 사건을 언급한 사례였다. 특히 현기영은 국내에서 4·3항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존의 기록마저 훼손되었던 시절인 1970년대 중반부터 생존자들을 취재하면서 역사적 연구보다 앞서서 4·3항쟁의 역사를 정리했다.⁵²⁾ 이처럼 한국문학은 비극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일조차 금지되었던 시대에 사건에 대해 증언해왔다. 본고는 문학이 당대의 정치적 제약 속에서 증언할 수 있었던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고 사용했는가를 김원일과 현기영의 소설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이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아버지 상실이라는 공통의 감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필 것이다.

현기영은 197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아버지』⁵³⁾가 당선되어 등단한다. 김원일은 그보다 거의 10년 앞서 1966년에 「1961·알제리」로 대구 『매일신문』의 매일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현기영의 「아버지」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제주 노형리 함박이굴을 배경으로 ‘산폭도’가 되어 죽은 아버지에 대해서 다룬다. 그가 평생 천착하게 되는 4·3항쟁 전후의 제주사회의 갈등이 현기영

51) 경북 청도군에서 자행된 국민보도연맹학살사건의 희생자 유가족인 박희춘이 쓴 『실록 보도연맹』은 국민보도연맹학살사건을 대상으로 한 첫 역사서이자 1961년 피학살유족회운동이 군부정권에 의해서 탄압당한 이후 학살희생자 유가족이 쓴 첫 기록물이었다. 이 책은 1990년 삼화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지만 실제 집필의 시작은 1986년부터였다. 박희춘의 사례를 포함한 희생자 유족들의 행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 장의 3절에서 다룰 것이다.

52) 현기영, 『바다와 술잔』, 화남, 2002, 178쪽.

53) 본고에서 다루는 현기영과 김원일의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현기영의 작품은 「아버지」, 「순이 삼촌」, 「도령마루의 까마귀」, 「해룡 이야기」(『순이 삼촌』, 창비, 2015), 「아스팔트」, 「길」, (『아스팔트』, 창비, 2015), 「목마른 신들」, 「변방에 우짖는 새」, 「위기의 사내」(『마지막 테우리』, 창비, 2015) 『변방에 우짖는 새』(창작과비평, 1983), 『바람 타는 섬』(창작과비평사, 1989), 『지상에 순가락 하나』(실천문학사, 1999)이다. 김원일은 「어둠의 혼」, 「갈증」(『김원일 중단편전집 1』, 문이당, 1997), 「미망」(『김원일 중단편전집 4』, 문이당, 1997) 『노을』(문학과지성사, 1978 / 1997) 『겨울 골짜기』(민음사, 1987 / 동지, 1994 / 이룸, 2004) 『불의 체전』(문학과지성사, 1983 / 중앙일보사, 1987 / 문학과지성사, 1997 / 강, 2010), 『아들의 아버지』(문학과지성사, 2013)이다. 이후 인용시에는 괄호 안에 작품명과 쪽수만 언급할 것이다. 다만 개작이 반복된 김원일의 장편에는 년도 표기가 추가된다.

의 첫 소설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김원일의 등단 후 7년간이 지나서, 현기영의 「아버지」가 발표된 시기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1973년에 「어둠의 혼」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유년기와 고향,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소설적 작업의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그의 초기 대표작으로 꼽히는 「어둠의 혼」은 다시 1980년에 『문학사상』에 첫 연재를 시작해서 지면을 옮겨가며 중단되기를 반복하다가 1995년까지 연재된 장편 『불의 제전』으로 이어진다. 비슷한 나이의 두 작가⁵⁴⁾가 그리 크지 않은 간격을 두고 발표한 단편들이 각자의 문학의 심부를 차지하는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내고 있던 셈이다.

현기영의 「아버지」는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중의 시간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둠의 혼」과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아버지」에서 작중 화자인 ‘나’는 운동장 한복판에 불에 타버린 숲 같은 ‘산폭도’의 시신이 아버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소설은 ‘산폭도’들의 봉기와 토벌대의 진압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주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을 주축으로 한 무장투쟁은 1948년 2월경에 결정되어⁵⁵⁾ 1948년 4월 3일에 실행되었다. 그리고 ‘산폭도’라는 표현은 제주 주둔 미군사령관의 명령으로 1948년 6월 20일에 작성된 『제주도 남로당 조사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다.⁵⁶⁾ 이를 고려한다면 소설의 배경은 1948년 4월 3일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아버지」의 서사를 구성하는 한 축인 ‘산폭도’ 가족에 대한 아이들의 차별과 그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은 현기영의 자전소설인 『지상에 손가락 하나』에서 1948년 4·3항쟁 직후 마을 아이들의 태도에 대한 서술과 거의 일치(『지상에 손가락 하나』, 62쪽)한다. 「어둠

54) 현기영은 1941년에 제주에서 태어났고 김원일은 1942년에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1970년대에 ‘작단’ 동인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했고 현기영의 첫 소설집인 『순이 삼촌』의 발문을 김원일이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이는 『순이 삼촌』 필화사건 이후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기영은 그 사건 이후 작당 동인들과 멀어졌다고 밝히고 있다.(현기영, 『젊은 대지를 위하여』, 화남, 2004, 72쪽)

55)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했수다』, 한울, 1989, 163쪽.

56)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182쪽.

의 혼」의 소설적 배경은 1950년이지만 실제 모티브로 하는 사건은 「아버지」와 같은 1948년에 있었다. 김원일은 그의 자전적인 소설 『아들의 아버지』에서 「어둠의 혼」은 1948년 늦가을에 자신의 가족이 겪은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했다고 밝혔다.(『아들의 아버지』, 215쪽) 그러나 지서에서 총살당한 아버지의 시신을 보게 되는 소설 속 ‘갑해’와 달리 김원일은 아버지인 김종표와 함께 1949년 서울로 도망쳤다는 점에서 실제 그대로를 소설 속에서 재현한 것은 아니었다.

같은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두 작품은 서사의 골격도 거의 유사하다. 두 작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빨치산(산폭도)가 된 아버지의 죽음을 겪는 소년이 빨갱이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마을에서 차별과 위협에 직면하게 되며 겪는 내면의 혼란을 그리고 있다는 데서 동일하다. 이러한 유사성은 두 작품 사이의 영향 관계보다는 해방 이후의 좌우대립과 그로 인한 혼란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소설 속 소년들이 겪는 좌익의 가족으로서 겪게 될 차별에 대한 두려움과 아버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의심하지 않는 태도는 한국전쟁기 피학살자 유족들과 같이 유사한 경험을 한 이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유사한 작품을 쓴 두 작가가 몇 년 지나지 않은 1979년에는 전혀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된다.

「어둠의 혼」 이후 김원일은 아버지와 고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소설 『노을』을 1978년 출간하고 이듬해인 1979년에 제4회 반공문학상 대통령상을 수상⁵⁷⁾한다. 현기영은 1978년 가을에 『창작과 비평』에 4·3항쟁을 최초로 고발한 「순이 삼촌」을 발표하고 이듬해 「도령마루의 까마귀」, 「해룡 이야기」 등 4·3항쟁에 대한 작품들과 함께 소설집 『순이 삼촌』을 내놓는다. 현기영은 4·3항쟁에 대한 소설들이 불온서적으로 몰려 보안사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한다.⁵⁸⁾ 같은 시기에 고향의 문제를 천착해간 김원일과 현기영의 문학적 작업이 한 사람은 반

57) 「大統領賞에 「노을」 제4회 反共文學賞」, 『동아일보』, 1979.6.30.

58) 창비 50년사 편찬위원회, 『한결같이 날로 새롭게』, 창비, 2016, 205쪽.

공문학으로 장려되고, 다른 한 사람은 불온서적으로 몰려서 출판이 금지되는 엇갈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1979년에 김원일과 현기영의 엇갈린 자리에 대해서 손쉬운 해석은 민주화운동에서 자신의 문학적 소임을 찾는 현기영⁵⁹⁾과 민중문학론을 비롯한 이데올로기적인 경향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려고 한 김원일⁶⁰⁾의 태도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김원일의 『노을』을 반공문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단에 관한 문학적 탐구로써 반공주의에 포섭되지 않는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와 연결된다. 홍정선은 80년대 내내 『노을』이 진보적 평론가들에 의해서 반공주의 문학이란 잘못된 단정이 지배적이었다고 회상한다.⁶¹⁾ 『노을』이 반공이념의 개입으로 인해서 인물상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말았다는 김태현의 주장⁶²⁾은 80년대 진보문인들 사이에서 반공문학이라는 평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노을』을 반공주의적인 작품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아버지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반공주의에서 벗어난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뉘고 있다. 양진오는 김원일이 70년대의 반공주의 규율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좌익을 악마적 타자로 그릴 수밖에 없었지만 반공주의가 금지한 좌익의 인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반공문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⁶³⁾ 그는 김원일이 반공주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지만, 그 조건 속에서도 진지한 탐구를 지속했다고 평가한다.⁶⁴⁾ 정재림은 『노을』에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반공국가의 공식 기억과 의식적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아버지와의 화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⁶⁵⁾ 이는

59) 현기영, 『젊은 대지를 위하여』, 화남, 2004, 160~161쪽.

60) 김원일, 권오룡, 「열정으로 지켜온 글쓰기의 세월」, 『김원일 깊이 읽기』, 32쪽.

61) 홍정선, 「기억의 굴레를 벗는 통과제의」, 『노을』, 문학과지성사, 1997, 367~368쪽.

62) 김태현, 「반공문학의 양상」, 『실천문학』 1988년 봄호, 실천문학사, 1988, 29쪽.

63) 양진오, 「좌익의 인간화, 그 문학적 방식과 의미」, 『우리말글』 35권, 우리말글학회, 2005, 292쪽.

64) 양진오, 위의 책, 274쪽.

65) 정재림, 위의 책, 46쪽.

아버지의 복권을 위해서 반공국가와의 타협했다는 점에서 반공주의적인 선택이었음을 드러낸다. 박찬효는 『노을』에서 김원일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인간성을 부각하고 화해의 서사를 구성했음을 지적한다.⁶⁶⁾ 그러나 소년 갑수의 시선을 이용해서 반공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주의자로서의 아버지의 주체성을 복원하는 이중의 전략을 구사했다고 평가한다.⁶⁷⁾ 이소영은 김원일 소설에 등장하는 고아의 이미지를 분석하면서 반공주의의 도식으로 이해되어 온 『노을』의 아버지, 김삼조의 이미지가 반공국가의 비국민으로서 형상화된 ‘고아적인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조건에 내재한 계급적 갈등이 가진 긴장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한다.⁶⁸⁾ 마혜정은 『노을』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김삼조와 배도수로 이중화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전향자로 교체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있음을 지적한다.⁶⁹⁾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점은 『노을』의 반공문학적 성격에 대해 평가하는 연구들 대다수가 1978년의 초판본과 1997년 사이의 개작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는 개작을 통해서 새롭게 쓰인 부분을 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기도 하다.⁷⁰⁾

66) 박찬효, 「김원일의 노을에 나타난 ‘죽은’ 아버지의 귀환과 이중 서사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45쪽.

67) 박찬효, 위의 책, 250쪽.

68) 이소영, 『김원일·이문구 소설에 나타난 고아의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69~71쪽.

69) 마혜정, 「분단 기억의 이중적 소환과 가족의 구성」, 『현대소설연구』 6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29~130쪽.

70) 그러한 예로 박찬효의 「김원일의 노을에 나타난 ‘죽은’ 아버지의 귀환과 이중 서사 전략」이 있다. 그는 화자인 ‘갑수’가 아버지, ‘김삼조’에 의해서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악몽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아버지의 폭력성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갑수와 같이 순응적 삶을 사는 ‘우리’를 비판하기 위해 구성”된 장면으로서 이념 대립을 관망하는 대중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박찬효, 위의 책, 248~249쪽.) 그는 『노을』의 1997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해당 장면을 분석한다. 그러나 1978년 초판에서 갑수의 악몽 속에서 아버지의 악행을 관찰하고 있는 대중의 무기력은 죄악이 되어 권력을 얻은 아버지의 강요 때문이다. (“동무들이 내가 시키는대로 안한다 카모 재미가 없을끼요. 재미가 없다 카는 말을 농으로 들으모 우째 될끼다 카는거는 여러 동무들이 더 잘알겠잉께, 내 더는 말을 알겠습디.” 『노을』, 1978, 295쪽) 꿈속의 아버지는 아내를 잔인하게 고문하면서 “조순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노을』, 1978, 295쪽)를 강요하는 잔인한 죄악으로 묘사된다. 아버지의 폭력성에 대한 갑수의 두려움에 대한 묘사가 개정판에서는 대중의 외면에 대한 비판으로 바뀐 것이다.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김원일에게 씌워진 반공문학이라는 혐의가 『노을』 이후에는 더는 따라붙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을』을 반공문학이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했던 김태현이 같은 글에서 “다행히도, 김원일은 『노을』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그 (분단극복의 - 인용자) 만남을 다시 『불의 제전』, 『겨울 골짜기』에서 추진하였고 그 성과는 『노을』보다 한층 알찬 것”⁷¹⁾이라고 평가하듯 김원일의 이후 작품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달라진다. 『노을』 이후 반공주의에 대한 혐의가 사라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김원일이 말하듯 정치적 의식 없이 자기 체험의 고백으로 시도했던 소설 쓰기가 반공주의와 분단이라는 정치적인 비평 논리 속에서 소비되었던⁷²⁾ 헤프닝에 불과한 것일까? 그러나 본고에서는 자기체험이라는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들이 발견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의 소설 전반에서 고향 진영의 역사적 사실들과 자신의 유년기 체험에 대한 변형이 반공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민주화 이전의 작품들에서 반복되는 데 반해서⁷³⁾ 90년대 이후 개작된 소설들에는 진영의 역사가 좀 더 현실에 근접한 형태로 그려진다. 김원일은 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는 2010년 강에서 발간된 『불의 제전』의 개정판에 대해서 “소설을 구상하고 기고했을 때와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새 삽화를 첨가하거나 내용상 해석을 달리하여 개고하지는 않았” (『불의 제전』 1권, 2010, 7쪽)다고 밝히고 있지만 2010년판에는 진영읍에서 자행된 국민보도연맹학살에서 총살현장에서 부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탈출하고 이후 피학살유족회에서 활동했던 김영봉을 연상하게 하는 생존자의 이야기가 추가되었다.(『불의 제전』 5권, 2010,

71) 김태현, 위의 책, 35쪽.

72) 김원일, 권오룡, 위의 책, 35쪽.

73) 1973년 작 단편 「갈증」이 대표적으로 한국전쟁 중 진영읍을 전쟁터로부터 멀고 안전한 후방지대로 묘사하면서 1950년에 자행된 보도연맹학살의 공간과는 다른 지역사를 소설 속에 구성한다. 이는 『노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전쟁기의 피해가 피해간 지역으로서 1948년의 좌익폭동으로 인해서 좌익이 주도한 동족학살의 가장 지역사를 그려낸다.(『노을』, 1997, 102쪽)

45~46쪽) 1997년판에서는 1983년 발행된 1부와는 인물의 정치적 입장이나 인식의 변화들이 여럿 발견된다. 진영의 주민들이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동원되거나 좌익의 가족들이 연좌제 처벌을 당하게 될 거라는 위협(『불의 제전』 1권, 1997, 273쪽), 월남에 대한 후회나 남한 체제에 대한 비판, 해방 직후 월북이 지식인에게 선택지로 남겨져 있었다는 인식(『불의 제전』 1권, 1997, 93쪽)등의 차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정치적 평가와 인식의 차이는 『노을』과 『겨울 골짜기』에서도 반복된다.

김원일의 아버지 김중표를 모티브로 한 ‘조민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변화된 지점이 발견된다. 조민세의 입산에 대해 의문을 품던 마을 사람들은 “나도 좌익하는 사람이다 카모 이가 갈리구마.”(『불의 제전』 1권, 1983, 38쪽)라면서 좌익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만 1997년판에서는 저 부분이 삭제되면서 지식인이 좌익이 된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강조된다. 좌우대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않았던 주민들 사이에서 지역 지식인 출신 좌익들은 신비화된 형태로 기억되며 그들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극단적인 증오는 반공국가에 의해서 형성된 빨갱이 담론이 주입된 결과였다.⁷⁴⁾ 1997년 판의 변화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요청된 적대에서 당대 민중의 현실적 태도에 근접하게 재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겨울 골짜기』에서 김중표를 모티브로 한 빨치산 지식인 ‘김익수’가 보여주던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도 여러 개정판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긍정적 재평가로 바뀐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김원일이 2013년 발표한 『아들의 아버지』의 머리글에서 “돌이켜 보건대 아버지를 포함한 그들이 비록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체제를 지향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민족애는 순수했다. 더러 판단의 오류에 따른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이 땅에 평등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려 혼신을 기울였다.”(『아들의 아

74) 노용석, 『민간인 학살을 통해 본 지역민의 국가인식과 국가권력의 형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논문, 2005, 80~88쪽.

버지』, 8쪽)는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듯 보인다.』, 8쪽)는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듯 보인다. 김원일이 「어둠의 혼」에서 “그들의 사상인지 먼지에 미쳤”(「어둠의 혼」, 225쪽)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그 이후 40여 년간의 문학적 여정 속에서 변화되어왔으며 그 변화가 새로이 창작한 후기의 작품들 뿐 아니라 기성의 작품에 대한 개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짐작하게 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김원일 소설의 개작은 그가 반공주의적 논리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가는 과정과 결부되어 있다. 1978년의 『노을』 초판본에서 반공주의적 시선과 일정 정도 결합이 있었다고 해도 이후의 작품들과 개작을 통해서 반공주의의 시선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와 지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구성해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사실은 김원일 소설의 반공주의적 면모를 단순하게 반공주의적 검열을 회피하기 위한 의식적 선택⁷⁵⁾의 결과라고 보는 것도 적절치 않음을 보여준다. 반공국가의 표적이 된 좌익의 가족들이 (반공)국민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국민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자신과 죽은 가족을 복권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반공국가의 공식적인 기억에 균열을 가하는 만큼이나 반공국가의 논리를 충실하게 수용하려는 모습도 가지고 있다. 김원일도 이들과 유사한 태도를 보였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노을』에서 지역 엘리트였던 아버지 김중표를 무식하고 폭력적인 좌익 ‘김삼조’와 지역의 이념적 지도자에서 전향 좌익이 된 ‘배도수’란 두 인물로 나누어 놓음으로써 좌익의 폭력성과 전향의 논리를 강조한 것이나 박정희정권의 국책사업이었던 새마을운동의 지도자감으로 좌익 유가족인 ‘치모’를 내세운 데는 ‘(반공)국민’으로 인정받고(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망이 기저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이 장의 3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피학살유족회나 좌익 유가족의 사례 등에서 볼

75) 양진오, 위의 책, 292쪽.

수 있듯이 사회적 인정의 욕구는 주권 권력에 대한 저항과 협력의 단순한 경계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권 권력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가족성원들을 복권하려는 욕망을 체제가 동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권 권력이 만들어 놓은 사회의 경계에 균열을 가하고 저항적 역량을 보존하기도 한다. 김원일의 소설이 변모해가는 과정은 인정의 욕망이 수행하는 동원과 저항의 모순되어 보이는 이중적이고도 동시적인 작용을 보여준다. 이는 김원일은 의식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고 하지만 민주화에 의해서 형성된 당대 사회의 정치적 지형도로부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피학살유족들의 사례와 비교할 때 민주화운동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었던 경우에도 민주화로 인한 정치적 제한의 약화를 이용해서 희생자들의 복권을 시도한다.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사례인 『실록 보도연맹』을 쓴 박희춘의 경우 자신이 민주화 세력과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민주화운동이라는 대항적 주체들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서 글을 쓸 수 있었다고 말한다.⁷⁶⁾

현기영이 「아버지」에서 「순이 삼촌」으로 변화한 것 역시도 민중문학론과의 관계를 통해서 명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현기영이 여러 차례 밝히고 있듯이 그의 문학적 자양분은 서구문학을 전범으로 한 순수문학이었으며⁷⁷⁾ 70년대 문학계의 순수·참여논쟁에 대해서도 “참여 문학쪽 논리에 일면 수긍을 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순수문학 쪽에 두고 있었”⁷⁸⁾다고 회고한다. 현기영의 자신의 문학적 지향이 유신의 엄혹한 정치 현실로 인한 각성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한다.⁷⁹⁾ 그 유신체제의 엄혹한 정치 현실이란 「순이 삼촌」, 「도령마루 까마귀」, 「해룡 이야기」와 같은 4·3항쟁에 대한 소설화와 단편집 『순이 삼촌』 출간 때문에 겪게 된 모진 고문이었다.⁸⁰⁾ 참여문학이나 민중문학론이 뒷받침이 되어 4·3항쟁의 문학적 재현을 시

76) 노용석, 『박희춘1933년2월26일생』, 눈빛, 2005, 246~247쪽.

77) 현기영, 「내 소설의 모태는 4·3항쟁」, 『역사비평』 22호, 역사비평사, 1993, 163쪽.

78) 현기영, 2004, 159쪽.

79) 현기영, 『바다와 술잔』, 화남, 2002, 175쪽.

80) 현기영, 2002, 187~188쪽.

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필화사건으로 인해 참여문학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다. 현기영이 ‘문학의 사회참여론자’들과 가까워지고 자유실천문인협회의 활동에 관여하게 된 것도 필화사건 이후였다.⁸¹⁾

4·3항쟁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를 시도했던 이유에 대해서 현기영은 4·3항쟁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밝힌다.⁸²⁾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반공국가의 위협에 노출되었던 김원일 역시도 강렬한 유년기의 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다른 지역의 피학살 유가족이나 좌익 가족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들과 구분되는 현기영의 행보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발하게 전개된 제주의 4·3항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문화적 복권 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기영의 소설이 당대 민중문학과 긴장 관계에 놓여있다는 인상을 받기는 어렵다. 그가 사회 참여적인 문인들의 대표적인 단체인 자유실천문인협회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창작과 비평』과 『실천문학』과 같은 진보적 문예지들과 깊은 관계를 맺은 작가였기 때문이다. 또 현기영은 여러 에세이나 소설을 통해 역사의 주체로서의 민중과 문학의 역할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으며 그의 역사소설들이 민족·민중사관에 입각한 역사연구들의 영향을 받았다고⁸³⁾ 밝히기도 했다. 『순이 삼촌』으로 인한 필화사건 이후 현기영의 문학론은 그가 자신의 소설적 자양분이라고 말해왔던 서구문학의 예술지상주의를 강하게 부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⁸⁴⁾ 1980년을 전후하여 현기영은 민중문학론에 입각한 작가로 거듭난 셈이다. 그런데 동시에 현기영은 바로 그 민중문학론의 관점에서 가해지는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제주 4·3항쟁에 대한 현기영의 천착을 “편협한 지방주의자, 심지어 분리주의자”로 의심하는가 하면 “제주도를 떠나 보편적인 한반도 이야기”를

81) 현기영, 2004, 72~73쪽.

82) 창비 50년사 편찬위원회, 위의 책, 203쪽.

83) 현기영, 2002, 181쪽.

84) 현기영, 2004, 164쪽.

써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⁸⁵⁾가 1980년대부터 있었다. 그가 1993년에 쓴 산문 「나의 문학적 비경 탐험」에서도 유사한 압력에 대해서 언급한다. 제주로 한정된 소설 세계가 현기영의 작가적 역량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평론가들의 비판적 평가들에 직면했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 현기영이 변죽을 쳐서 복판을 울린다는 문학론을 주장하여 자신을 변호한다.

나의 문학적 전략은 변죽을 쳐서 복판을 울리게 하는 것, 즉 제주도는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의 모순적 상황이 첨예한 양상으로 축약되어 있는 곳이므로, 고향 얘기를 함으로써 한반도의 보편적 상황의 진실에 접근해보자는 것이다.⁸⁶⁾

현기영의 이러한 자기변호는 4·3항쟁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와 민족·민중문학론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 긴장의 성격은 표면적으로는 제주도의 역사적 경험을 민족분단의 주변부로 인식하는 당대 주류의 시선과 4·3항쟁의 역사적 규명과 복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기영 사이의 불일치다.⁸⁷⁾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대 민족·민중문학론이 4·3항쟁을 포괄하는 담론을 구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민중담론과 제주의 역사를 결합하려 하는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보았듯 민중문학론에 대한 현기영의 열정이 4·3항쟁의 문학적 형상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4·3항쟁의 문학적 형상화가 연대의 대상으로써 당대의 민중문학론과 결합한 것이다. 이는 4.19혁명 직후 민주화담론에 의

85) 현기영, 2004, 107쪽.

86) 현기영, 2002, 173쪽.

87) 이러한 시선을 다른 문인들 역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염무웅은 현기영 문학의 가치가 “현기영이 집요하게 탐색하고 있는 세계가 지역적 한계 안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근대사의 비극적 심층인가”에 의해서 될 터인데 그의 소설 속 제주를 “민족모순이 최고도의 파괴적 광기 속에 관철된 민족사의 핵심적 현장”이기에 “광주 사람이 광주항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팔레스타인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 말하는 것을 어찌 지역주의라 맞출 수” 없듯이 현기영의 문학을 지역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설명한다.(염무웅, 「역사의 진실과 소설가의 운명 - 현기영 『마지막 테우리』, 『실천문학』 84년 가을호, 실천문학사, 1984, 334~335쪽)

해서 호명되지 못했던 피학살유족회가 민주화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자신들의 근거로 삼았던 모습과 닮아 보인다. 현기영에게 있어 민족·민중문학론은 4·3항쟁을 가시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주지는 않는다 해도 그의 문학적 성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4·3항쟁에 대한 역사적 담론을 구성하는 데 활용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현기영에게 민족·민중문학론이 4·3항쟁 재현의 근거가 되어준 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곤란에 직면한다. 현기영의 소설들에 대해서는 그의 작가적 역량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엽에야 본격적으로 진상규명 운동을 시작한 육지의 주민들⁸⁸⁾과 달리 1987년의 6월 항쟁 직후부터 조직화된 4·3진실회복운동이 전개된 제주⁸⁹⁾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이 차이가 4·3항쟁을 공동체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해진 폭력⁹⁰⁾이라고 보는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이는 4·3항쟁에 대한 제주인들 주류의 인식일 뿐 아니라 현기영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시각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갈등 양상은 「아버지」와 「순이 삼촌」 이후 소설들 사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아버지」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산폭도’과 ‘토벌대’로 분할된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그로 인한 불안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순이 삼촌」 이후의 소설들에서는 가해의 주체를 육지에서 온 외부자들과 그들에 의해서 동원된 내부구성원으로 지목한다. 「아스팔트」나 「목마른 신들」, 「마지막 테우리」 등에서 “살아날 길은 오직 자기편을 배신하는 것뿐”⁹¹⁾이었기에 가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인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도령마

88)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출판사, 2013, 32쪽.

89)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민주주의와 인권』 3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3, 75쪽.

90) 박찬식, 「4·3증언 프레임과 제주민의 자치의식」, 『탐라문화』 2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90쪽

91) 현기영, 「마지막 테우리」, 『마지막 테우리』, 창비, 2015, 23쪽.

루 까마귀」의 제주 경찰들처럼 제주인이 가담하는 경우들에 대한 언급도 나타난다. 하지만 외부에서 온 가해자가 중심이 되고 제주인들은 이에 종속된 하위행위자 역할에 놓여있다.⁹²⁾ 특히 이 구도는 『변방에 우짖는 새』나 『바람 타는 섬』처럼 4·3항쟁 이전을 다룬 역사소설들에서도 나타난다. 즉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온 외부의 폭력과 피해자로서 공동체의 구도가 현기영이 소설에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현기영에게 4·3항쟁은 제주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폭력과 저항의 맥락 속에 놓이게 된다. 4·3항쟁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책임자로 유격대 2대 총사령이었던 이덕구⁹³⁾를 제주도의 항쟁 전통에서 지도자격인 장두로 지칭한다.⁹⁴⁾ 장두인 이덕구가 이끌었던 4·3항쟁은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좌우익 간의 충돌이 아니라 제주 민란의 역사적 전통 위에 자리하게 된다. 현기영이 “4·3항쟁을 이데올로기적 도전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중앙과 변방의 전통적 갈등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⁹⁵⁾한 것은 제주 역사 속 항쟁의 계보 위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함이다. 본고에서는 항쟁의 전통이란 논리가 현기영이 반공국가의 위협 속에서도 4·3항쟁의 소설화를 이어가는데 근거가 되어주었다고 평가한다. 항쟁의 전통은 4·3항쟁에 가해진 이데올로기적인 억압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는데 이 전통 속에서 좌우대립의 이데올로기는 주변적인 요소가 되며, 반공국가의 논리를 경유하지 않으면서도 남로당과 같은 좌익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현기영은 4·3항쟁의 희생자 대부분을 발생시킨 군경의 폭력성을 좌익의 논리와 관계없이 고발할 수 있었다. 이는 현기영이 반공국가의 역사적 금기를

92) 제주 출신 군경들은 육지 출신들로부터 계속 의심받았고 그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다. “그 육지것들은 병정이나 순경이라도 섬 출신이라면 으레 검은자위 굵은 흰창 눈으로 흘겨 보며 못 미더워 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간 숫제 빨갱이로 몰릴까 두려운 섬 출신 병정 중에는 의심받음 직한 행동거지는 물론 안할뿐더러 심지어는 한술 더 떠서 포악한 짓을 먼저 저지르고 다니는 축도 더러 있던 모양이다.” (현기영, 「도령마루의 까마귀」, 125쪽)

9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182쪽.

94) 현기영, 『지상에 손가락 하나』, 실천문학, 1999, 68쪽.

95) 현기영, 『젊은 대지를 위하여』, 화남, 2004, 146쪽.

건드리면서 동시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구도 한 측에 서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현기영은 김원일과 달리 이데올로기 대립을 전면에 다루지 않으면서도 고향의 역사적 사건을 조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공동의 역사를 통해서 묶인 하나의 공동체로서 제주도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

본고는 현기영과 김원일이 고향과 가족의 역사를 조망해온 문학적 작업이 유사한 방식으로 출발했지만, 반공국가의 위협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고 판단한다. 『노을』을 둘러싼 반공문학 논쟁이나 현기영이 체감했던 변방의 사건에 대한 문학적 재현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적 분위기는 이들의 작업이 당대의 문학과 일정한 긴장 관계 속에서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긴장의 원인이 이들의 문학을 분단문학의 범주로서 이해하려는 문단 주류와는 달리 인정투쟁의 필요성이 기저에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이들에게 분단 현실의 문학적 조망만큼이나 반공국가가 가하는 ‘비국민-빨갱이’라는 의심의 시선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이들의 문학적 작업은 반공국가의 국민상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공국가 설정한 이데올로기적 경계선인 ‘비국민-빨갱이’라는 구분 자체를 우회하거나 무화시켜가는 과정을 보였다. 토도로프는 집단학살 희생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개인화하는 것이 폭력의 근원에 저항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⁹⁶⁾ 김원일과 현기영이 그들의 소설을 통해서 반공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과정이 현기영에게는 역사에 대한 천착을 통한 제주공동체의 발견으로, 김원일에게는 고향서사의 반복과 변주, 그리고 꾸준한 작품의 개작을 통해 당대의 정치적 공간의 틈을 계속해서 비집고 들어가 확장하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본고의 관점이다.

96) Tzvetan Todorov 『Facing The Extreme』, London : Phoenix, 2000, 158~178쪽.

2.2 폭력의 제도화와 그 기원

김원일과 현기영의 문학적 행보는 반공국가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들이 반공국가의 위협을 마주했던 것은 단순히 월북한 좌익의 아들이기 때문이거나 ‘빨갱이 섬’ 태생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위협은 한국사회가 처한 공통의 조건이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김원일과 현기영의 역사적 원체험으로써의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하는 하나의 단일한 사건이 아니다. 해방 직후 미군정하에서 정치 세력 들간의 이념대립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이념대립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 충돌로 비화되었는데 특히 이승만 정권이 성립하는 1948년을 기점으로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과 같이 저항과 폭력적인 진압이 연속되는 내전상태가 전개되었다. 반공국가를 만드는 사회·정치적 통제장치들이 이 폭력과 혼란 속에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신생 반공국가는 그동안 확보한 통제장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는 가공할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학살당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 통제장치들의 폭력적 사용은 정치적 경쟁자들을 제압함으로써 반공국가를 강화하였으며 처참했던 학살을 경험한 이들은 반공국가에 순종하는 국민으로 훈육되었다. 반공국가의 통제장치들은 휴전 이후에도 한국사회를 작동시키는 폭력의 구조로 자리 잡았다. ‘평시의 계엄법’으로써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공국가의 통제장치에 의해서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무효화된 예외상태가 상례화되었다.⁹⁷⁾ 이로 인해 전쟁 상황과 같은 사회적 통제가 지속된다. 그러므로 김원일과 현기영 등이 체험한 전쟁과 학살은 전생애에 걸쳐서 직면해야 했던 사회적 폭력의 구조였다.

한국사회를 작동하는 폭력의 구조로서의 전쟁, 일상화된 계엄법, 예외상태의 논

97) 강성현, 「‘예외상태 상례’의 법 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 『사회와 역사』 108호, 한국사회학회, 2015, 178~183쪽.

리는 일국적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직접적으로는 1945년의 제2차 세계대전으로 형성된 냉전체제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간접적으로는 식민지에 대한 통제장치들과의 경험과 지식에 영향을 받았다. 반공국가의 통제장치들은 식민지의 유산과 새롭게 형성된 냉전체제 하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장치들의 형성들은 필연적 산물들이 아니었으며 통제장치들을 통한 국가의 폭력, 학살의 발생 역시 필연은 아니었다. 냉전의 주변부에 자리했던 탈식민 신생독립국가들에게 냉전이란 내전과 예외상태⁹⁸⁾에서의 정치적 폭력의 분출로 체험되었으며⁹⁹⁾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탈식민 신생독립국가들 사이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유산과 냉전 질서는 예외상태적 폭력의 필요조건이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벤자민 발렌티노가 지적하듯이 전략적 선택으로써 대량학살은 주권 권력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조건이 제한되고 다른 시도들이 실패했을 때 선택된다.¹⁰⁰⁾ 중요한 것은 냉전체제와 식민지 유산이라는 조건이 어떻게 당대 한국

98) 유럽법의 전통에서 예외상태는 흔히 전시계엄법과 같이 긴급사태에서 법률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문제에 대한 법률로 여겨지지만 아감벤은 예외상태가 법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법의 본질적인 한계영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새물결, 2009, 18~19쪽) 이러한 아감벤의 시각은 예외상태를 법률의 근원적 구조로 파악하는 공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연구(카를 슈미트, 『정치신학』, 그린비, 2010, 16~18쪽)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슈미트는 국가의 주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법은 예외상태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으나 국가는 바로 그 예외상태 속에서도 계속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카를 슈미트, 위의 책, 24쪽) 슈미트에 따르면 법률 조항으로 그 조건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긴급사태에서의 결정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국가 주권의 본질이며, 바로 그 결정을 통해 주권 권력이 법을 창출한다고 보았다.(카를 슈미트, 위의 책, 25~26쪽) 예외상태는 엄격하게 규정된 내용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법의 한계지점은 주권 권력의 결정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슈미트의 논리를 수용하여 아감벤 역시 법률의 조항보다 결정이 우위에 있음을 인정한다.(조르조 아감벤, 2009B, 62~63쪽) 슈미트는 법의 핵심에 결정의 독점권자인 주권 권력을 배치하여 이후 독재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사유를 전개했으나 아감벤은 주권의 결정을 주권적 추방령이란 개념으로 대체하여 주권을 인격성에서 기능과 구조의 문제로 전환시켰다.(고지현,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읽기」, 『인문과학』 93호,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220쪽.) 그는 ‘~~법률~~의 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외상태를 통해서 법률 조항에 의존하지 않는 법의 작용, 법을 창출하는 힘으로써의 결정(조르조 아감벤, 2009B, 79쪽)이라는 법의 근원적인 구조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가 천착해온 홀로코스트라는 예외상태는 극히 예외적인 병리성의 발현이 아니라 근원적인 법의 구조로서 ~~법률~~의 힘을 작동하게 한 서구정치의 연장선이었으며 현대의 통치 패러다임이 이러한 법의 본래적 작동방식을 전면화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적 문제제기다.(김향, 『중말론 사무소』, 문학과 지성사, 2016, 237~238쪽.) 본고에서 예외상태 개념은 조르조 아감벤의 이론적 정리를 따를 것이다.

99) 권현익,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2013, 17쪽.

100) 벤자민 발렌티노,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129~131쪽.

사회의 상황과 결합하여 치명적인 폭력의 구조화를 초래했는가를 이해하는 일이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배가 종식된 이후 38선 이남에서 시행된 미군정체제는 사법 기구들에 의존하면서 한국인의 자율적 정치 행위를 제약했다. 특히 경찰은 미 군정 하에서 여러 정치적 사건들에 폭력적으로 개입하여 공권력의 사용이 테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¹⁰¹⁾ 폭력적인 공권력은 미 군정의 무관심과 묵인 속에서 조장되었다. 이는 당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점령정책이 한국의 반공기지화를 위해 체제를 안정시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했으며 이를 위해서 사법 기구의 강제력에 의존했기 때문이다.¹⁰²⁾ 안정화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점령지 정책은 4.3항쟁과 같은 한국 내의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에 무관심했고 이로 인해 미 군정의 대응은 충돌을 더 악화시켰다.¹⁰³⁾ 반공기지 확보를 위해 안정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는 새롭게 성립된 이승만 정권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4.3항쟁과 여순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압은 미국에게 신생 정부의 생존능력을 평가하는 잣대였고 이를 의식한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기보다 더 극단적이고 강경한 진압을 시도했다.¹⁰⁴⁾

38선 이남의 새로운 국가는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미군정이 재구축한 사법 기구들은 식민지 해방 이후 활발했던 한국인의 정치참여를 억압했다. 지역 안정을 위해서 강제력에 의존했던 미군정에 의해서 사법기구는 비대화되었으며 이들의 제도화된 폭력이 암묵적 승인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군정이 강화한 사법기구의 강제력은 이승만 정권의 억압적 통치기반을 구축해주었다.¹⁰⁵⁾ 미군에 의해서 구축된 사법기구의 물리적 폭력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은 이승만 정권은 국내 정치세력이나

101) 서중석, 위의 책, 659쪽.

102) 이해숙, 「남한과 일본에서의 미군정기 점령정책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24집 제1호, 사회과학연구, 2006, 113쪽.

103) 서중석, 위의 책, 698~701쪽.

104) 강성현, 2002, 45~46쪽.

105) 서중석, 위의 책, 692~697쪽.

국민보다는 미국의 존재를 중요시했다. 당시 이승만은 한국을 시민사회에 기반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폭력적 국가기구에 의해서 이식된 국가로 인식했다.¹⁰⁶⁾ 이러한 인식 속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의 시선에 국민이 어떻게 포착되는가에 따라 그들의 생사가 결정되었다. 냉전질서 속에서 미국에 의해 진행된 국가만들기는 신생 반공국가를 시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체제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주권 권력과 시민, 정치세력 사이에 일방향적인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즉 한국의 반공국가는 그 등장부터 이미 주권 권력의 자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건을 상실한 상태로 출발한 것이다.

한국의 국가건설 과정에서 미국이란 외부의 개입은 국가운영과 국내여론을 별개의 층위로 나누어 놓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이로 인해서 이승만 정권은 국내의 반발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새로운 국가와 국민의 조건을 자유로이 기획할 수 있었다.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회와의 갈등 속에서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었으나 여순사건이나 한국전쟁과 같은 예외상태의 순간들을 통해서 국내의 경쟁자들을 제압해갔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원예사의 전망’ 이라고 부르는 국가의 단일한 의지에 의한 현대적인 사회 건설의 욕망과 기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¹⁰⁷⁾가 이승만 정권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 원예사는 새로운 사회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목록을 지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제거할 폭력적인 수단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전망을 실행하기 위해서 국가의 폭력은 가차

106)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127쪽.

107) 지그문트 바우만,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165쪽. 원예사의 비유는 지그문트 바우만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일종의 사회공학으로써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한 개념이다. ‘원예사의 사회’란 근대세계가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잡초와 관목을 구분하는 원예사의 행동처럼 사회구성원을 가꾸어야 할 것과 제거할 것의 범주를 나누어 관리하여 의도에 따라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려는 개념이다.(지그문트 바우만, 위의 책, 166쪽) ‘원예사의 사회’는 근대세계가 전근대사회를 변화시키면서 형성한 견고한 것들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속성(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강, 14쪽)이 작동하는 과정이다. 나치의 악명 높은 인종주의조차 극단적 광기의 발현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기준으로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을 나누는 사회공학의 한 방식이었으며, 이 인간 관리의 지식은 근대 의학과 과학적 전통의 계보 위에 놓여있다.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127~133쪽)

없이 자행되었다. 반공국가의 건설이라는 ‘원예사의 전망’을 위해 ‘빨갱이’라는 위협들을 제거해갔고, 이는 금지에서 전향이라는 재사회화의 기술로, 그리고 다시 학살이라는 절멸의 수단으로 빠르게 변화해갔다.

미국의 냉전세계질서 구축이 반공국가로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직접적 동인이었다면 식민지의 유산은 반공국가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사상적 참조점이었다. 4.3항쟁과 여순사건 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계엄령이 여러 차례 선포되었는데 당시는 계엄법 자체가 제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계엄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포된 계엄령은 공식적으로는 대통령령의 형태를 취했으나 실상 그에 앞선 지역 군사령관들의 계엄을 합법화하기 위한 사후조치였다.¹⁰⁸⁾ 계엄의 내용과 형식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계엄법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된 계엄은 일본의 계엄법을 따랐다.¹⁰⁹⁾ 초기 한국군 장교들의 적지 않은 수는 일본군과 만주군에서 복무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 경험, 즉 일본 제국군의 군사적 지식을 계엄령하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 활용했다. 4.3항쟁을 진압했던 9연대는 미군사고문단과 미군CIC의 지원 하에 일본군이 선호하던 포위전술인 삼광삼진(三光三盡)¹¹⁰⁾ 작전을 실행하여 제주도를 초토화했다.¹¹¹⁾ 일본군의 군사지식과 문화는 전쟁시기와 학살사

108)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487쪽.

109) 이로 인해서 해방후 일본법령의 효력 인정여부와 계엄령의 합법성 여부는 장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김순태, 「제주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8, 김무용, 「제헌국회의 계엄령 헌법화와 계엄법안의 차별화」, 『한국사학보』 49호, 고려사학회, 2012, 백운철, 「일제치하에서의 계엄법」, 『世界憲法研究』,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2,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등 참조.)

110) 삼광삼진과 유사한 초토화 전술로 거창양민학살 당시에 11사단 사단장 최덕신이 사용했던 견벽청야 전술이 있다. 그 내용면에서는 동일한 이 전술은 그 군사지식의 계보에서는 이질적이었다. 독립운동가 최동오의 아들이었던 최덕신은 중화민국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하여 중국군 상교(대령)까지 복무한 뒤에 해방 이후 육군사관학교에 재입학해 3기로 졸업한다. 그의 견벽청야 전술은 중국국부군 장군 백승희가 항일전에서 사용했던 전술을 사용한 것이다.(박명립,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거창사건’의 사례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36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02, 83쪽.) 견벽청야 전술은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도 사용되었다.(김득중, 앞의 책, 358쪽.) 건군 초기 한국군의 구성원이 다양했던 만큼 군사적 지식의 기원 역시도 일본군에 한정되지 않는다.

111)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20세기의 내전」, 『亞細亞研究』 14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104쪽.

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는 일본도를 휘두르고 포로와 양민을 참수하던 한국군의 이미지로 확인되기도 한다. 이후 1949년에 제정된 계엄법이 일본의 계엄법을 참조했다는 것¹¹²⁾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시 상황에서 국가통제의 근거인 계엄령처럼 평시 상황에서 통제장치들도 식민지 경험의 연장선 속에서 만들어졌다. 반공국가의 강력한 통제체계였던 국가보안법과 국민보도연맹의 성립과 운용은 검찰이 주도했다. 당시 검사 인력 절대다수는 일제하 경력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대화숙, 사상보국연맹과 같은 식민지기의 사상통제 체계를 참고하여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다.¹¹³⁾ 특히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며 사상이 사법적 영역으로 포함되자 검사들은 일제하의 사상검찰로서의 성격을 회복하였으며 국가보안법 역시 제국 일본의 신치안유지법과 유사하게 개정되어갔다.¹¹⁴⁾

한국의 반공국가화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식민지기의 잔재들과 직간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여순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물이었다. 여순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948년 9월 3일에 대동청년단 소속의 국회의원 김인식 등에 의해서 ‘내란행위특별조치법’의 제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지만 법사위에 한 달 이상 계류되며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여순사건의 발생은 체제가 심각한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불안감을 만들었고 이를 동력으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법률상의 미비점들을 지적했음에도 약간의 수정만 거쳐서 그해 12월 1일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¹¹⁵⁾ 국가보안법 제정을 주도했던 국회의원 김인식 등은 여순사건과 같은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법률임을 강조했다.¹¹⁶⁾ 그 이면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인해서 친일혐의를 받던 정치세력이 가졌던 위

112) 백윤철, 「일제치하에서 계엄법」, 『世界憲法研究』 49호, 2012, 51쪽.

113) 김기진, 위의 책, 20~21쪽.

114) 강성현,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25-5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444쪽.

115) 김득중, 위의 책, 518~526쪽.

116) 김득중, 위의 책, 524쪽.

기감도 있었다. 한국민주당은 반민족행위처벌법으로 형성된 친일과정국을 반공정국으로 상쇄하고자 했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친일과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¹¹⁷⁾ 탈식민의 과정인 친일협약자 청산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반공국가의 사상통제 장치의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정과정에서 법리의 불합리함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지적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승만 정권은 이 법의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이승만 정권은 식민지 체험이 남겨놓은 사회적 갈등의 반사이익을 얻으며 권력을 강화해갔다.¹¹⁸⁾

국가보안법 제정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곽상훈은 국보법 폐기를 주장하는 자가 곧 공산도배라고 주장했다. 곽상훈의 발언은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뿐 아니라 목적범까지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었다.¹¹⁹⁾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공산도배’의 근거로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느냐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란 불분명한 기준이 쓰였다는 점이다.¹²⁰⁾ 국가보안법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여순사건을

117) 강성현, 2015, 94쪽.

118) 국회 소장과 의원이었던 조국현은 이 법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국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조국현 의원 발언, 『제헌국회 속기록』 제 1회 105차, 김득중, 위의 책, 524쪽에서 재인용.) 별 다른 소용이 없었다.

119) 김득중, 위의 책, 525쪽.

120) 행동이라는 자의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반공국민의 형상은 국민에게 지속적인 자기 증명을 요구했다. 예컨대 상이군인처럼 반공국민상을 대표하는 이들조차 국가의 원호정책에 대한 반발을 보이자 ‘악질불순분자’ 혹은 ‘반국가적’ 타자로 배제했고 이들의 배후에 공산주의자의 선동을 의심했다.(김봉국,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정치」, 『애도의 정치』, 길, 2017, 151쪽.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33호, 한국중앙사학회, 2011, 304쪽) 김득중의 지적처럼 반공국가의 국민이 되는 일이란 유동적으로 바뀌는 국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김득중, 위의 책, 605쪽) 즉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언제든 국민이 아니라 비국민의 자리로 추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분명한 반공국민인 상이군인조차도 언제든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조종되는 비국민이라 의심받을 수 있었으므로 국민이란 결코 확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었다.

계기로 ‘공산주의자’, 곧 ‘빨갱이’ 이라는 비국민의 형상이 만들어졌다.¹²¹⁾ 그런데 ‘빨갱이=공산주의자’ 라는 정체성은 공산주의라는 이념과의 연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나 실상 그 적용에서는 광상훈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사상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대한 입장과 행동이 기준이 되었다. 반공주의에 수반된 개념이면서도 공산주의 이념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지 않는 ‘빨갱이’ 개념의 기이함은 식민지의 유산에서 비롯되었다.

‘빨갱이’ 개념의 역사적 계보는 제국 일본의 사상범 개념인 ‘아카(アカ)’ 로 거슬러 올라간다.¹²²⁾ 1925년 처음으로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특정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목적을 처벌하는 목적죄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논리와 동일하다.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은 그 적용대상을 “국체 또는 정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를 알고도 이에 가입한 자” 로 규정했는데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은 무정부주의자와 공산주의자였으나 이를 구분하고 법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웠기에 천황제로서의 ‘국체’ 와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반대라는 목적을 기준으로 삼았다.¹²³⁾ 그런데 공산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모호성은 적용대상의 지속적인 확장과 그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권력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주의자’, 즉 공산주의를 의미하던 속칭이던 ‘아카(赤)’ 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던 사상범이란 넓은 개념이 법의 대상으로 확립되어 간다. 행위가 아닌 사상과 목적을 처벌한다는 치안유지법의 논리는 대상의 행동이 국체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주권 권력을 크게 강화하는 발판이었다. 치안유지법이 가진 대상의 모호성은 1928년 법률개정에서 결사에 가입한 자뿐 아니라 그들을 도운 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심화된다.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 라는 모호한

121) 김득중, 위의 책, 604쪽.

122) 강성현, 「아카(アカ)와 "빨갱이"의 탄생 -"적(赤-敵) 만들기"와 "비국민"의 계보학」, 『사회와 역사』 100호, 한국사회사학회, 2013, 237쪽.

123) 강성현, 2012, 47쪽.

범위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사상검사의 권력이 강화되었다.¹²⁴⁾ 이후 1936년 사상범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단순히 배제의 과정으로써의 처벌을 넘어서 사상검찰은 사상범을 포섭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한다. 전향과 갱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이들의 장악력은 훨씬 강력해진다. 최종적으로 이들의 권한은 대화숙과 같은 국가적인 전향단체를 조직함으로써 황국 신민을 사회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이른다.¹²⁵⁾ 이러한 사상

124) 강성현, 2013, 242~243쪽.

125) 사상사범이라는 제도적 장치들은 일본의 사법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특수한 수단이었으나 제도를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내려는 기획은 일본만의 것이 아니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원예사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듯이 한 사회에 길러내야 할 주체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근대국민국가의 특성이다. 국민과 국민이 아니는 것을 구분하는 주권 권력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는 순간은 역시 제노사이드다.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저항하기 위해서 제노사이드 개념을 성립시킨 제노사이드가 특정한 집단의 기반 및 생물학적 구조 전체를 파괴 및 절멸시키는 총체적 절멸행위(Total Annihilation)라는 점에서 전쟁과는 다른 폭력행위라고 규정했다.(최호근, 『제노사이드』, 책세상, 2005, 21~23쪽) 그는 제노사이드를 실재하는 인구집단에 대상으로 한 절멸행위로 설명했지만 이러한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제노사이드의 사례였던 홀로코스트의 유대인조차 단일하고 완결된 범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자의적이고 차등적으로 생산되었다.(독일 본국과 독일의 위성국 사이에 적용된 유대인 개념의 차이는 라울 힐베르크, 『홀로코스트 유럽 유대인의 파괴』, 개마고원, 2009, 1017쪽 참조.) 초크와 조나슨은 램킨의 제노사이드 개념이 실재하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피해자 집단의 성원됨이 가해자에 의해서 정의된다는 대안적 설명을 제시했다.(강성현, 「제노사이드와 한국현대사」, 『역사연구』, 18호, 역사학연구소, 2008, 104~105쪽) 유럽의 홀로코스트 연구를 집대성한 역사학자 라울 힐베르크는 홀로코스트를 포함한 모든 파괴과정에는 ‘정의 - 집중 - 학살’의 연속적인 과정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그는 홀로코스트는 경제적 자산의 아리아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집중-약탈-학살’의 4 단계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라울 힐베르크, 위의 책, 1396쪽) 이 파괴과정의 출발점이 되는 정의(Definition)는 가해자들에 의해서 누가 피해의 대상이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과정이다. ‘정의’가 모든 파괴의 과정에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권 권력이 관할하는 인구집단 안에서 대상을 분리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힐베르크는 ‘정의’가 근대적인 관료기구의 제도적 장치로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유대인에 대한 정의는 1933년 독일 내무부 관료들에 의해서 ‘비아리아인’이라는 개념으로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었고 같은 해에 법률 시행령에서 ‘비아리아인’인 유대인의 세부조건들이 결정되었다.(라울 힐베르크, 위의 책, 119~120쪽) 그는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분석함으로써 근대적 국가기구가 특정한 인구집단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그 집단에 대한 파괴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근대성과 홀로코스트 사이의 관계에 대한 힐베르크의 연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지그문트 바우만이다.

바우만의 ‘원예사의 사회’는 힐베르크가 정리한 파괴의 네 단계에 대응된다. 사회적 권위와 수단을 독점한 정치권력, 즉 원예사는 일방적으로 그 사회에 속해야 할 존재와 그렇지 못한 존재를 분류해낸다. 힐베르크의 ‘정의’ 개념에 해당하는 이 사회공학적인 행위는 그의 개념보다 더 복잡한 사회학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발전되었다. ‘정의’의 과정은 단순히 희생자를 선별하는 작업이 아니다. 사회공학으로써 제노사이드를 수행되는 이 첫 단계는 정치권력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회를 위해 키워나가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는 것이었다. 홀로코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나치 국가가 ‘인종적 순수성’을 달성하기 위해 제거하려던 대상이었던 장애인, 저능아, 반사회적 행위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안락사 프로그램

사법은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조선인 역시 황국신민으로 만들어내고자 했다.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 37조는 “국체에 대한 명징한 관념과 황국의 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¹²⁶⁾

제국 일본의 사상검찰은 국체의 적으로써 ‘아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규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아카’를 황국신민으로 훈육할 수 있었다. 국민과 비국민 모두를 만들어낼 수 있던 이 막강한 사상검찰의 권력은 미군정하에서 다시 만들어진 38선 이남의 검찰에게는 지나간 과거였다. 물리적 강제력인 경찰의 역할을 중시했던 미군정의 정책으로 인해서 검찰의 위상은 식민지기에 비해서 크게 축소되었다. 미군정이 검찰보다 경찰을 우선시했다는 인식은 당시 검사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상검사 선우종원은 미군정하에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위계질서가 깨졌다고 회고했다. 미국이 따르는 영미법계는 경찰을 모든 수사의 중심에 두었고 이로 인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던 대륙법계의 사법체계를 따르며 형성된 위계질서가 뒤엎어졌다는 것이다.¹²⁷⁾ 정부 수립 이후에도 검찰에 대

을 통해서 갖춰졌다. 홀로코스트는 이 ‘무가치한 생명’ 한 생명을 제거하고 가꾸어야 할 대상을 보호하는 사회공학이 대상을 유대인으로 바꾼 것에 불과했다.(지그문트 바우만, 위의 책, 128~129쪽)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육성해야 할 것과 제거해야 할 것을 나누고 후자를 점차 점증하는 폭력을 통해서 파괴하는 일은 나치 국가의 사회통제의 특성이었다.(데틀레프 포이케르트, 『나치시대의 일상사』, 개마고원, 2003, 319~321쪽) 이 사회공학의 대상에 유대인이 포착된 것은 ‘아리아인’과 그들 사이의 차이가 아니라 ‘차이의 소멸’, 명확히 해야 할 경계가 분명해지지 않으리라는 위협 때문이었다. 그들의 존재는 원예사의 분류를 위협했고 국가는 그들에게 ‘유대인다움(Jewishness)’을 부여함으로써 이 위기를 제거하고자 했다.(지그문트 바우만, 위의 책, 111~116쪽) 나치 국가로 하여금 유대인의 텅 빈 기표를 채워 넣을 수 있게 하는 정당성은 인종주의라는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확보되었다. 그리고 이 과학은 제거되어야 할 인종들에게 나치가 사회에서 제거하고자 했던 속성들을 기입했다.(데틀레프 포이케르트, 위의 책, 330~334쪽)

126) 강성현, 2012, 113쪽.

127) 선우종원, 『사상검사』, 계명사, 1993, 28~30쪽. 선우종원은 검찰이 경찰의 우위에 서야 하는 이유를 일제 식민지체제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들었다. “미 군정하의 국립경찰 간부들은 거의가 일제하에서 일하던 경찰관들로서 일제의 검찰 밑에서 그야말로 일제의 법을 다루고 운영하면서 봉사해 온 사람들” 이기에 “독립을 눈앞에 두고 같은 동포인 우리 겨레의 자랑스러운 검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야릇한 대립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선우종원, 위의 책, 28~29쪽.) 그러나 실상 미군정에 의해서 재건된 검찰 인력 절대 다수가 일제 검찰에서 일했던 자들이었고 선우종원 자신도 1942년에 일본 검찰 고문 사법과에서 근무하면서 ‘일제의 검찰 밑에서 그야말로 일제의 법을 다루고 운영하면서 봉사해 온 사람’이었다.

한 경찰의 우위는 지속되었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여순사건 당시 광주지검 순청지청 차석검사 박찬길에 대한 경찰의 즉결처형사건이다. 여순사건 진압과정에서 경찰은 박찬길을 좌익검사로 몰아서 즉결 처형했고 이에 검찰은 경찰에 책임을 물으려고 했으나 국무총리 등의 개입으로 이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¹²⁸⁾ 그런데 이런 검찰에 대한 경찰력의 우위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자 다시 역전된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던 당시 권승렬 검찰총장은 법안이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가보안법 초안에 있었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라는 항목이 목적범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 일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¹²⁹⁾ 목적을 처벌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의 성격은 제국 일본의 치안유지법의 목적죄로서의 성격과 동일한 것이었다. 위헌소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수정만 거쳐서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다. 국가보안법은 그 대상을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자”¹³⁰⁾로 규정한다. 천황제를 의미하던 ‘국체’가 국헌과 정부로 바뀐 것일 뿐 치안유지법의 논리와 거의 유사하다. 이 두 사법체계에서 국민은 행위가 아닌 목적의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주체, 주권 권력의 판단 앞에 무기력하게 놓여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유사성은 곧 제국 일본의 사상사법 전통의 부활로 이어진다. 사상검사 오제도는 국가보안법 적용 방안에 대해 사법부가 논의하는 전국감독관회의에 서울지법 명의로 「자문답신안」을 제출한다. 여기서 그는 국가보안법 적용 방안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이를 “①사상범과 그 용의자에 대한 사전사찰제도의 확립 ②중점 적극수사체제의 확립 ③공산주의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고 반국가분자를 뿌리 뽑기 위해 엄벌주의로 그 형을 통일할 것 ④ 엄벌과 동시에 사상의 시정으로 공산당이 공산당을 때려잡는 반공전위대로 내세

128) 강성현, 2012, 258쪽.

129) 김득중, 위의 책, 520쪽.

130) 김득중, 위의 책, 521쪽.

을 수 있는 교화전향운동을 적극 펼 것 ⑤공소보류처분제를 신설, 전향가능자와 죄상이 경미한 자는 일정 기간 책임감독관에게 보증 인수케 하고 사상을 선도해서 감시했다가 재범의 위험이 없을 때 관용할 것”¹³¹⁾이었다고 요약한다. 사상검사들에 확립된 이러한 국가보안법 운영의 방향은 제국 일본이 사상범을 제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술과 하등 차이가 없었다. 주권 권력은 개인의 사상을 직접 살피고 필요하면 그 사상 자체를 개조하는 과정을 기획할 수 있었다. 제국 일본의 대화속을 연상하게 되는 전향자 단체 국민보도연맹의 등장은 오제도가 보여주듯이 국가보안법의 등장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결과였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강하게 비판했던 검찰조직은 사상사범을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실추되었던 조직의 위상을 빠르게 회복했다. 검찰이 사상사범의 핵심조직이 되자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교육받고 익숙하게 활용했던 기성의 정책들에 의존했다. 검찰 인력 상당수가 복무했던 일본의 사상사범과 통제장치들이 사상검사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사용된다.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사상범으로서의 “빨갱이”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식별되고 관리되는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제국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전향자 단체 대화속이라는 법적, 제도적 참조점은 국가 권력이 인간을 통제하고 필요하다면 만들어내는 기술을 제공했다. 제국 일본의 사상사범 전통을 통해 학습된 원예사의 기술은 특정한 국가와 국민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적 시도를 가능하게 했다. 냉전세계의 최전선으로서 반공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이승만 정권의 ‘원예사의 전망’은 식민지 유산이 남긴 사상사범의 전통에 의지했다. 사상검찰은 새로운 국가와 국민을 만들어내고 이 국민에 속하지 않아야 할 자들을 분별해내는 기술적 과업을 담당했다. 이들은 원예사의 전망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근대적인 힘으로써의 관료집

131) 오제도, 「그때 그일들」 141회, 『동아일보』, 1976.6.19. 이 글에서 오제도는 국회의 “일부 인사와 용공적인 혁신세력에서는 일체의 악법인 「치안유지법」과 똑같은 것이라고 반대”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국가보안법과 치안유지법 간의 유사성을 국회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상검사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국 일본과의 연속성에 대한 자기 부정의 이러한 태도는 경찰을 일제 검찰의 하수인이었다고 비난한 선우종원과 유사하다.

단¹³²⁾이었고 홀로코스트의 관료집단이 그러했듯이 ‘빨갱이’라는 비국민들에 대한 학살 과정에도 충실히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

오제도가 그 필요성을 역설했던 전향자 관리는 국민보도연맹의 등장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된다. 그리고 이 국민보도연맹에 대한 관리는 선우중원, 오제도 등과 같은 검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전쟁 초기 선우중원이 기억하듯이 서울지역에 집결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정희택, 오제도, 선우중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¹³³⁾ 이러한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검찰의 관리는 경찰조직을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선우중원의 경우 전쟁 중 신설된 경찰핵심조직이었던 정보수사과의 과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¹³⁴⁾ 한국전쟁 초기 경찰에 의해서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대상들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은 검찰의 지휘계통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예비검속은 수십만에 이르는 국민보도연맹원 학살로 이어진다.

사상검찰이라는 관료집단이 다시 열어놓은 국민에 대한 반공국가의 통제력은 검찰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았다. 라울 힐베르크가 지적하듯 관료집단은 관습적인 방식에 의존했지만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는 기존의 제한들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가지는 데 학살과 같이 행정기구의 권력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때는 희생자들을 공격하는 제도적·사회적 제약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과정을 단순화해간다.¹³⁵⁾ 법률이 정지되는 계엄공간에서 사법기관인 검찰을 대신해서 군이 경찰을 통제하고 학살의 전 과정을 수행했다. 미군 CIC를 모델로 만들어진 방첩조직인 육군 CIC가 계엄공간에서 경찰과 헌병조직을 관리하며 사상범 업무를 총괄했다.¹³⁶⁾ 평시와 전시에 중심이 되는 관료집단은 변화했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통제하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변화하지 않았다.

132) 지그문트 바우만, 위의 책, 142쪽.

133) 선우중원, 위의 책, 176쪽.

134) 한성훈, 위의 책, 103쪽.

135) 라울 힐베르크, 위의 책, 1393쪽.

136) 한성훈, 위의 책, 124쪽.

사상사범이라는 식민지 유산은 이승만 정권에 와서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고 국가에 의해서 국민의 경계와 생명의 경계가 결정될 수 있는 예외상태적 폭력으로 고도화되었다.

식민지 유산은 이승만 정권의 반공국가 만들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서 반공국가는 국민과 국민이 아닌 자인 ‘빨갱이’를 구분하고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경계 만들기의 기술 위에서 인간과 주권 권력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신생 국가의 기원이자 정당성의 원천으로써 미국의 존재는 이 기울어진 상황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점령지 안정화를 위해 식민지 관료 체제를 존속시키자 이들은 자신들이 훈련받은 익숙한 기술들을 부활시켰다. 그 기술들은 식민지 공간보다 더 파괴적인 방식으로 작동했지만 라울 힐베르크가 지적하듯 기성의 기관은 기성의 방식으로 움직였으며 이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방 직후 한국인들의 다양한 정치적 열망을 억누른 미국은 반공주의를 국가의 목표이자 정체성으로 제공했다. 이승만 정권은 이러한 목표를 그대로 수용했고 이는 친일청산이란 여론의 위협에서 벗어나려 했던 정치세력의 이해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반공주의라는 새로운 국가건설의 목적이 냉전이라는 미국의 세계적 이해관계에 의해 한국에 부여되었기에 한국의 다른 정치적 열망들은 미국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한국 내에서 시민사회와 다른 정치세력의 중요성을 크게 낮췄다. 이승만 정권에게 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은 오직 미국이었으며 국민은 국가에 의해서 훈육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관리의 대상에 불과했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을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기원이자 주권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존재로 인식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을 “유엔의 대의명분을 위해서”¹³⁷⁾ 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역설했다. 이승만이 말한 유엔의 대의명분이란 곧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엔을 중심으로 구

137) 이원순, 『인간 이승만』, 신대양출판국, 305쪽. 김동춘, 앞의 책, 125쪽에서 재인용.

상한 미국의 전후질서, 즉 냉전체제였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이 기획한 냉전의 세계 질서 속에 국가의 주권이 승인된다는 세계관을 가졌다. 미국의 기획한 전후 세계질서가 유럽공법체제에서 각 국가의 침해받지 않던 주권을 상정하는 대신 그 위에 상위질서를 설정했다는 걸 생각한다면¹³⁸⁾ 이러한 인식을 기형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주권국가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 한국정부에 의한 학살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를 받던 미국정부는 이를 개별국가의 문제로 여기고 불개입했다.¹³⁹⁾ 바바라 하프가 지적하듯이 학살의 실행에서 외부세력의 지원 혹은 묵인은 핵심적인 요소¹⁴⁰⁾이며 한국에서 그 주체는 미국이었다. 미국을 주권의 기원으로 여긴 한국정부와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거리를 둔 미국정부에 의해 책임의 진공상태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책임의 진공상태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목소리는 울릴 수 없었다.

해방 이후 38선 이남에서의 식민지 유산을 재생산한 탈식민과 냉전체제의 구축은 반공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극단적인 괴리와 힘의 비대칭 관계를 만들었다. 반공국가로의 권력집중을 야기한 이러한 탈식민과 냉전의 연속된 과정이 처참했던 학살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였다. 향상된 권력의 기술과 여론으로부터 분리되고 외부로부터 승인된 주권의 위상은 슈미트가 말한 결단하는 존재로서의 주권자의 위상에 부합하는 모습이였다.¹⁴¹⁾ 그리고 그러한 주권의 도래는 아감벤이 경고했던 것처럼 인간의 생명을 넘어 죽음까지 관리하는 정치를 탄생시켰다.

이승만 정권의 반공국가는 탈식민과 냉전체제라는 이중의 조건을 통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탈식민과 냉전체제로의 편입과정은 반공국가의 가공할 폭력을 가져올

138) 김학재, 『관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66~67쪽.

139) 한성훈, 위의 책, 133쪽.

140) 바바라 하프, 「제노사이드의 발생원인」,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각, 2005, 93쪽.

141) 칼 슈미트, 위의 책, 16~17쪽.

필요조건이었을 뿐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한국과 같이 1945년에 독립한 인도네시아에서 미군의 지원 하에 반공주의를 내세운 국가의 학살이 자행된 건 20년 뒤인 1965년에 이었다.¹⁴²⁾ 탈식민과 냉전체제로 편입된 다수의 국가들에게 국가권력에 의한 예외상태적 폭력의 경험은 공통적이었으나 그 시기나 방식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개별국가가 처한 정치적 상황들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국가에서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기획되었다고 해도 폭력의 발생은 다른 형태를 취했다. 다음 절에서는 한국의 반공국가의 국민만들기의 과정으로서의 학살의 진행 양상과 한국사회가 이에 대응해가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3 반공국가의 학살과 그 이후

해방 이후 38선을 기준으로 한 소련과 미국의 분할점령은 남과 북에 각기 상이한 정치체제를 갖춘 두 개의 국가를 만들어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적 대립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두 개의 국가가 만들어져야 했고 통일된 국가를 원했던 김구의 한국독립당과 같은 정치세력 대신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나 그에 협력한 한국민주당 등 단정단선 노선을 견지한 세력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반공 독재정권이 출현했다고 볼 수 없다. 이승만과 그에 협력한 정치세력들은 다수의 친일경력 인사들과 함께하고 있었기에 그 지지기반이 허약했다. 이들은 강력한 물리력이었던 경찰을 장악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청산당할 수 있는 세력이었다.¹⁴³⁾ 4.3항쟁과 여순 사건을 거치며 권력의 통제장치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1950년 총선의

142) 권현익, 2013, 55쪽.

143) 강성현, 2013, 256쪽.

완패로 인해 이승만 정권의 존립은 오히려 더 위태로워졌다.¹⁴⁴⁾ 그러나 총선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개전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권력은 급속하게 강화된다. 이승만 반공독재체제의 성립은 계엄과 전쟁이라는 ‘예외상태’의 출현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국내를 평정해간 지난한 과정의 산물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통치하던 38선 이남의 사회는 크고 작은 정치적 충돌이 반복되었다.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으로 분할된 사회에서 정치참여가 미군정에 의해서 제한됨으로써 정치적 참여가 상대세력이나 미군정에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으로 분출되었다. 한국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갈등의 원인에 무관심했던 미군의 태도와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 경찰 물리력을 강화해가는 과정은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더 극렬하게 만들었다. 특히 한국인 경찰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보인 폭력성을 방조하고 더 나아가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우익단체들의 폭력 역시도 지원·묵인함으로써 정치적 폭력이 만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승만 정권의 폭력적 통제방식도 상당부분 이러한 해방 이후 사회적 분위기에 기원했으며 국가가 권력을 독점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들도 이 시기의 갈등과 그에 뒤이은 사건들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반공독재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연쇄적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그에 대한 정권의 대응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각인된 충격적인 체험이었고 국가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였던 김원일과 현기영에게는 중요한 문학적 응전의 대상이었다. 미군정기에 분출되었던 사회적 갈등과 이를 철저히 평정하려는 정권의 의지,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고조된 위기감이 뒤엉키면서 한국 사회가 체험해본 적이 없는 극단적인 폭력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반공국가가 자행한 가공할 폭력은 파괴를 위한 기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반도의 38선 이남이란 너른 정원에 남겨야 할 것과 뿌리 뽑아야 할 것들을 선별하고 남겨두기 위해 살아있는 것을 개량하는 원예사의 냉정하고 지치지 않는 손이

144) 김동춘, 위의 책, 157쪽.

분주히 움직이는 사회의 꿈이었다.

1948년 8월 15일에 출범한 이승만 정권은 시작과 동시에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1948년 4월 3일 제주의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이 된 무장대 병력 350명이 도내의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하면서 4·3항쟁이 발생한다.¹⁴⁵⁾ 4·3항쟁에 대한 진압은 미군정의 지휘하에서 이루어졌다. 미군정은 4·3항쟁 발생 직후부터 경찰병력 증강과 동원된 우익청년단 같은 강제력을 통해서 진압했으며 민간인이 경찰에 의해서 사살당하는 일이 4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¹⁴⁶⁾ 제 9연대 연대장 김익렬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 사의 평화협상이 실패하자 무력진압은 한층 심각하게 전개된다. 특히 5.10총선거 이후 이승만 정권의 성립이 다가오면서 장기화되어가는 4·3항쟁을 신속하게 진압하길 원했던 미군정은 군병력 교체를 단행하는데 11연대의 부연대장이던 송요찬을 새롭게 재편된 9연대의 연대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그가 전임자에 비해서 훨씬 강경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¹⁴⁷⁾ 이렇게 제주의 갈등이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제주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한 이승만 정권은 1948년 9월 15일 주한미군 병력의 철수가 시작되면서 독자적인 군사적 역량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졌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0월 8일에 미군철수 연기를 요구했고 새롭게 조직된 국군을 위한 군사·경제원조를 요청했지만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주에 대한 진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됨으로써 친일파 청산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커졌다. 친일파 출신 관료와 정치

14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167쪽.

14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189쪽.

147) 이는 제주에 파견된 군 지휘관들의 과감성 부족에 대한 미군정의 불만 때문이었다. “9연대 재편 직전인 7월 12일자 미군 비밀문서는 제주도 상황에 대해 “반란이 계속됐으나 이 달(6월) 하순 접어들면서 국방경비대 사령관은 ‘평정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작전이 더딘 것은 경비대가 오직 학살이라는 수단으로 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고 밝혔다” 고 기록했다.(Political Advisor, USAMGIK, to Secretary of State, July 12, 1948.) 최경록 연대장의 작전도 차별없이 주민을 연행하는 형태이긴 했지만, 중전보다는 완화된 것이었다. 이에 관해 최경록 연대장이 ‘학살’을 꺼려했기 때문에 작전이 더딘 것으로 분석했던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234쪽.

인들과 협력했던 이승만 정권으로서는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반민특위의 활동은 정권에 중대한 위협이었다.¹⁴⁸⁾ 국회에 의해서 정권이 위태로워지던 상황에서 4·3항쟁 진압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여수 14연대의 반란까지 발생하면서 이승만 정권 뿐 아니라 국회까지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된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감은 앞서 보았듯이 반공국가의 통제장치인 국가보안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사상에 대한 반공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었던 것처럼 제주 4·3항쟁에 대한 진압도 한층 과격화된다.

48년 11월부터는 강경진압작전이 개시되고 그달 17일에 계엄령이 선포된다. 그리고 다음해 3월까지 제주 중산간마을을 불태우면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고 해안가 5km 이내에 제주인들을 집중시킨다. 이 시기까지 제주의 피해는 미군의 집계로는 1만 4000~1만 5000여명이 사망하고 전체 섬의 가옥 중 3분의 1이 파괴되었으며 전체 주민 30만명 중 4분의 1이 해안가로 소개되었다.¹⁴⁹⁾ 초토화 작전이 자행된 것은 제주도만이 아니었다. 14연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와 순천 지역에 현지사령관의 결정으로 1948년 10월 22일에 계엄령이 선포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허가 없이 내려진 이 계엄은 뒤이어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승인되었지만 당시 법적인 근거조차 갖추지 못했다. 계엄의 선포로 인해서 현지의 군사령관은 시민들이 헌법적 기본권을 무시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활용했다. 제주도에 선포된 계엄령도 이와 여수와 순천에 내려진 계엄령과 동일한 것이었다.¹⁵⁰⁾ 계엄령, 즉 예외상태 하에서 주권 권력은 시민을 보호해주던 모든 법적인 권리를 중단시킴으로써 이들의 생명을 완벽하게 손에 넣었다. 그리고 진압을 위해서 파견된 군병력과 우파 민병대에 의해서 무수한 인명이 학살당한다.

계엄령하에서 막대한 인명이 희생되었지만 4·3항쟁의 진압과 여순사건에 대한 진압 모두 완료되지 않는다. 한라산에서 활동하는 무장대 병력이 고작 5명이 남게

148)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권, 전예원, 1997, 346~347쪽.

14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323쪽에서 재인용.

150) 김득중, 위의 책, 483~487쪽.

되는 1954년 4월 1일에야 해변마을로 소개된 주민들이 산간지대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¹⁵¹⁾ 한국전쟁의 발발과 같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진압의 과정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제주에 대한 군사작전은 6년간이나 지속된 것이다. 여순사건도 14연대가 점령했던 지역들은 1948년 10월 27일에 국군이 수복하지만¹⁵²⁾ 14연대 잔존병력들이 산악지대로 입산해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여 군의 진압작전은 1950년 3월 15일이 되어서야 끝을 맺는다.¹⁵³⁾ 하지만 군사작전이 소강국면에 들어서거나 혹은 종결되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이 안정을 되찾는 것은 아니었다. 다급했던 위기상황을 일부분 정리한 반공국가가 국민보도연맹과 같은 사회적 통제장치들을 새롭게 고안해냈다. 그리고 여순사건과 4·3항쟁에 휩쓸렸던 지역 주민들은 반공국가의 통제장치에 노출되었다.

여순사건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통과된 국가보안법은 막대한 규모의 사상범을 탄생시켰다. 1949년에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이 11만 8,621명이었으며 남한 지역의 교도수 수감자 22,000명 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인원이 전체의 70%에 달했다.¹⁵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사상범과 사상범죄의 수가 폭증하던 시기에 사상범을 관리하고 전향을 유도하는 명분을 내세운 국민보도연맹도 창설되었는데 이는 이승만 정권을 위한 대중동원 단체인 대한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와 같은 ‘애국 3단체’가 형성되어 대중통제를 강화해가던 과정과 맞물려 있다.¹⁵⁵⁾ 국민보도연맹의 형성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 단체가 전향을 통한 국민만들기를 조직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보도연맹과 국가보안법 등 사상사범의 운영과 체계화에서 주요한 역할을 사상검사 오제도는 공산주의는 처벌이 아니라 사상의 전향을 통해서만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판단이 국민보도연맹

15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353쪽.

152) 김득중, 위의 책, 255~267쪽.

153)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다시 쓰는 여순사건보고서』, 한국학술정보, 2012, 174~177쪽.

154) 김득중, 위의 책, 529쪽.

155) 강성현, 2012, 267쪽.

창설의 이유였다고 밝혔다.¹⁵⁶⁾ 급속하게 전국 조직으로 성장한 국민보도연맹은 사상범들을 전향을 명분으로 가입시켰을 뿐 아니라 전국단위 조직으로 확장하면서 지역별 할당량을 배정해서 무차별적으로, 때로는 강압적 수단까지 동원해서 맹원들을 확보했다. 수차례 자수 기간을 설정해서 사법적 처벌을 면죄해주는 조건으로 맹원을 받았는데 제주도처럼 지역 반공국가로부터 의심을 받았던 지역은 전체 인구에 비해서 자수자의 수가 매우 많았다.¹⁵⁷⁾ 국민보도연맹은 전향을 제도화함으로써 반공 국가가 국민이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생산하는 생명정치적 기구였다. 그리고 아감벤이 연구한 현대의 생명정치의 사례인 수용소가 그러했듯이 국민보도연맹을 통해 국민을 만들어내는 주권 권력은 바로 그 동일한 장치를 이용해서 국민이 아닌 자들을 절멸시켰다.

국민보도연맹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급속도로 거대화되어 최대 33만 명의 맹원을 갖춘 전국조직으로 성장한다.¹⁵⁸⁾ 이 거대한 조직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상검사들은 국민보도연맹을 통한 전향 절차의 제도화가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였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의 절대적인 보호 지도를 받게 될 회원들에게는 어떠한 기관에서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임의로 재수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¹⁵⁹⁾ 함으로써 사법적 처분을 피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검사 선우종원이 한국전쟁으로

156) 오제도의 말에서 인상적인 것은 그가 국민보도연맹과 같은 사상사법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사상검사로서 좌익을 다뤄본 경험과 일제 때 대학시절에 공산주의 책을 탐독해 얻은 지식, 2차 대전 때 나치스가 공산주의에 대처한 것, 공산주의가 나치에 대처한 것 등을 참작” 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김기진, 위의 책, 20~21쪽.) 오제도가 참조했다는 국가들은 바우만이 원예사의 전망을 극단적인 사회공학(학살)을 통해서 수행한 국가들로 예시한 곳들이기도 하다.

157) 1949년에 남로당원 자수기간 동안 1949년 11월 30일까지 총 52,182명이 자수해서 전향자가 되었는데 전체 인원 통계에서는 제주도의 가입자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보다 며칠 앞선 11월 27일까지의 통계에서 전체 인원 29,986명 중 제주도의 자수자는 5283명이다. (강성현, 2012, 296쪽) 제주 인구가 30만 가량으로 당시 남한 인구의 1.5%에 불과했는데 자수인원이 전체의 6분의 1을 넘는다는 건 4·3항쟁을 겪는 제주도가 반공국가에게 얼마나 취약한 상황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은 제주도에 등록된 국민보도연맹 회원의 수가 27,000명에 달한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422쪽.)

158) 김기진, 위의 책, 85쪽.

159) 선우종원, 위의 책, 170쪽.

인해서 “보람있고 보다 위대한 우리의 꿈”이 무너졌다고 회고하듯¹⁶⁰⁾ 전향자 단체로서의 국민보도연맹의 기능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멈추고 반공 국가의 잠재적인 위협들을 분류하고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전향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이었다는 사실이 전쟁 중에는 후방의 안정화를 위해서 학살해야 하는 위험분자라는 증거가 된다. 전쟁 발생 직후부터 전국의 국민보도연맹원들과 사상범과 같은 요시찰인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속이 시행되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학살의 희생자가 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들은 갑·을·병이나 A·B·C의 세 등급으로 나뉘어 (A) 죽여야 할 사람, (B) 선별 후 죽여야 하는 사람, (C) 석방 대상으로 나뉘었다.¹⁶¹⁾ 전향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은 곧 전향의 정도에 따라서 적을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 보도연맹원들이 놓여 있던 사상범이라는 처지는 전쟁 개시와 함께 방첩기관의 통제 혹은 공격대상이 되는 원인이 되었다. 방첩기관에서 담당하는 군 수사업무에 사상범의 관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군으로부터 국민보도연맹원 관리를 넘겨받은 육군소속의 방첩대 CIC는 군과 경찰을 통제하며 국민보도연맹원을 비롯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학살했다.¹⁶²⁾ 사상검사들이 내세운 보호장치는 전쟁의 예외상태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검찰조직은 예비검속 과정에 협력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검사들이 주도했던 전향작업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었지만 관료제의 관성은 멈추지 않았다. 이미 대부분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학살된 1952년에도 사법당국은 언론을 통해서 맹원들에게 전향을 독려한다.¹⁶³⁾ 사상검사들의 관료제적 관성으로 인해 이미 파괴된 대상을 향해서도 국민 만들기를

160) 선우종원, 위의 책, 175쪽.

161) 한성훈, 위의 책, 64쪽. 보도연맹원들에 적용된 분류기준은 경우에 따라서는 A·B·C·D의 네 등급으로 더 세분화되기도 했다. 사상범에 대한 단계별 구분과 그에 따른 차등적인 대우는 학살 뿐 아니라 월북작가 등에 대한 검열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반공 국가의 일상화된 통제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62) 한성훈, 위의 책, 118~121쪽.

163) 「돌아와안겨라! 전향자여! 『보련원』 포섭심사요강결정」, 동아일보, 1952.3.23

계속해온 것이다. 제주에서도 1950년 7월에 요시찰인들에 대한 일제 검거가 이루어져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집단 총살을 자행하여 수천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한국전쟁 중 한국군과 경찰, 서북청년단 등 무장한 우익민병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수많은 곳에서 자행되었다. 전선의 북상과 남하가 반복되었던 ‘툽질전쟁’¹⁶⁴⁾의 양상은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지와 수복지라는 이중의 성격이 교차하도록 만들었다. 점령과 수복의 교차는 피난가지 못한 주민들을 반공국가의 의심과 처벌의 대상으로 남겨놓았다. 4.3항쟁의 진압과정부터 등장했던 공간과 사상, 공간과 국민성의 결합을 기준으로 한 처벌의 논리가 전쟁 기간 중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부역자 처벌의 논리는 한편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무책임한 피난 과정의 도덕적 부채를 정리하고 오히려 피난을 국민됨의 근거로 만드는 일이기도 했다.¹⁶⁵⁾ 다른 한편에서는 점령공간에 작용한 다른 국가주권의 힘을 의식한 것이기도 했다. 인민군에 의한 점령지에 설치된 인민위원회와 같은 통치기구들의 존재는 지역민들에게 가해진 국민 만들기의 압력이 하나의 국가 주권에 의해서만 가해진 것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남과 북의 경합하는 두 개의 국가는 각자 자신들이 확보한 공간에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이 두 개의 국가 사이에 놓였던 지역민들은 두 가지 국민상 모두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¹⁶⁶⁾ 한국전쟁에서 두 개의 국가로부터 지역민들이 겪게 되는 이중의 위협은 전쟁이 끝난 뒤까지 반복된다.

반공국가와 인민공화국 사이에 놓였던 지역민들의 비극은 한국전쟁 기간 중 계속 반복되지만 그중 예외적인 사례가 없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반공국가의 국가주권이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유일한 결정권자로서 군림했던 것과 달리 1951년에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이하 거창사건)에는 또 다른 권력기구인 국회

164)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57쪽.

165) 김동춘, 위의 책, 165~166쪽

166) 점령과 수복의 반복으로 인해 두 개의 국가 사이에서 민중이 겪어야 했던 위협과 적응의 과정은 김경헌 (『민중과 전쟁기억』, 선인, 2007)과 한모니까(『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7) 참조.

가 개입한다. 거창양민학살사건에 국회가 개입함으로써 전쟁기간 중 책임자 처벌과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도한 예외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진영읍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의 처벌과정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졌다. 진영에서는 강성갑 목사에 대한 살해에 대한 미국선교단체와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이라는 국외단체들의 압력이 책임자를 처벌하게 된 원인이었다.¹⁶⁷⁾ 그러나 책임자 처벌은 학살을 주도했던 해군 G2와 같은 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김병희와 같은 지역 유지들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¹⁶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사건에 대한 반공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반해서 거창사건은 국회라는 국내의 또 다른 권력기구의 개입으로 처벌과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목할 것은 거창사건의 진상규명과 처벌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거창사건과 사건의 은폐를 기도한 책임으로 51년에 국방·내무·법무장관이 동시에 사임했으며 지역민들을 학살한 11사단의 지휘관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¹⁶⁹⁾ 거창사건에 대한 국회의 진상조사는 반공주의의 논리 그 자체를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예외상태에서 주권 권력의 결정의 독점이 다른 정치적 권위체에 의해서 도전받았을 때 희생자들에 대한 반공국가의 ‘정의’에 맞서 그들의 죽음을 복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공국가와 군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되었기에 거창사건은 민주화 이전에 4.19혁명 이후 짧은 1년을 제외하면 공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국가의 학살이었다. 제한적이지만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진영의 사례가 공론화되지 못하였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보도연맹학살은 진영출신의 소설가 김원일의 작품에서 조차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지만¹⁷⁰⁾ 거창사건은 김원일의 장편소설 『겨울 골짜기』

167) 한성훈, 위의 책, 78쪽.

168) 김기진, 위의 책, 141쪽.

169) 한성훈, 위의 책, 162~165쪽.

(1987)에서 핵심적인 사건으로 재현된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국회의 개입으로 인해서 민간인에 대한 학살로 인정된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중 반공국가가 자행한 양민학살의 대명사가 되어 유사한 양민학살 사건들을 ‘제 2의 거창사건’이라 부르기도 했다.¹⁷¹⁾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상이 성사됨으로써 중단된다. 휴전협상으로 인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완전하게 중단된 것은 아니었지만 반복되는 피난과 점령, 이후에 뒤따르는 ‘빨갱이’, ‘부역자’ 되기의 공포로부터는 벗어난 삶의 공간을 가지게 된 것처럼 보였다. 전쟁이 멈추고 전시 계엄령의 질서는 평시의 통치체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국민을 만들어내는 반공국가의 배제와 포섭의 장치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전시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삶을 통제했던 군에서 ‘평시의 계엄법’인 국가보안법과 이를 통해 사상사범을 전개해간 검찰로 중심이 옮겨갔을 뿐이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법무부와 검찰 등 사법기관은 부역자와 간첩에 대한 포섭의 논리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유지해간다. 1955년 서울지검 주례검사회의에서는 한국전쟁 중의 경미한 부역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여 국가재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지시한다.¹⁷²⁾ 1960년에 대검찰청은 「공소류자 감시 및 보도규칙」 제정하면서 자수·전향자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대한민국에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자등에 대해서 공소를 보류하는 포섭정책을 세운다.¹⁷³⁾ 전향을 유도하는 통제의 장치들뿐 아니라 희생자들에 대한 억압도 지속되었다.

반공국가가 자행한 수많은 학살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금기가 되어 말할 수 없었다. 반공국가에 의해서 학살된 이들의 유가족들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공론

170) 김원일의 1973년작 단편 「갈증」은 전쟁 중 진영읍의 상황을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부상병들이 휴식을 취하는 후방공간으로 그려냈고 1978년작 장편 『노을』에서는 전쟁 전 좌익폭동으로 곤혹을 치루었으나 전쟁 중에는 인민군에 점령되지 않아 평화로웠던 공간이라고 설명한다.

171) 「제이거창사건 강화특공대이송(第二居昌事件 江化特攻隊移送)」, 경향신문, 1952.01.08.

172) 「경미한 부역자는 불문」, 동아일보, 1955.12.14.

173) 「부역자간첩등 포섭기준성립」, 동아일보, 1960.3.30

화를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망자의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는 일이 많았다. 제주의 모슬포에서는 1950년의 예비검속으로 252명이 학살당했는데 유가족들은 방첩대 군인들에 제지로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다. 희생자들의 유해는 1956년이 되어야 일부는 비밀리에 수습하고 일부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 수습할 수 있었으나 뼈가 뒤섞여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132구를 한 대 모아서 유족 전체가 자신들의 가족으로 모시기로 하여 ‘백조일손지지(百祖一孫之地)’라는 묘역을 조성하기도 했다.¹⁷⁴⁾ 백조일손지지의 사례는 반공국가에 의해서 유가족들이 직면한 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유가족들은 반공국가에 의해서 희생된 가족들이 빨갱이로 규정됨으로써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거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복권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없었으며 희생된 이들을 전통적인 가족의례 속의 조상으로 모시기 위한 장례절차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다. 희생된 자들은 근대국민국가에서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가족 의례에서의 망자가 누려야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학살 희생자들이 반공국가에 의해서 전통과 근대, 문화와 정치 양측에서 모두 소외되는 상황은 1960년까지 지속된다.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반공국가의 억압이 일시적으로나마 감소하자 그동안 억눌렸던 희생자 복권의 시도들이 분출한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자 1960년 5월부터 전국의 한국전쟁기 피학살유족들의 진상규명 운동이 본격화되고 5월 23일 국회에서는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¹⁷⁵⁾ 각 지역에서는 피학살자유족회가 결성되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자를 고발하는 한편 방치된 시신을 수습하고 위령제와 위령비를 조성했다.¹⁷⁶⁾ 피학살유족회의 활동에서 정치적인 복권의 노력과 국가차원의 위령비 건설요구 같은 망자위령의 의례와 기념물 건설이 결합되어 있었

17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433쪽.

175) 장근식 외,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2010, 67쪽.

176) 김기진, 위의 책, 281쪽.

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반공국가에 의해서 가족의례의 영역까지 훼손되자 이에 대한 복원이 정치의 영역과 겹쳐지게 된 것이다. 피학살유족회의 활동은 반공국가에 의해서 희생된 이들을 정치적·도덕적으로 복권하려고 함으로써 반공국가가 활용하는 ‘좌익’과 ‘빨갱이’ 같은 반공주의의 핵심개념을 공격하는 일이었다.¹⁷⁷⁾ 국회의 진상조사는 “공산괴뢰에 악질적으로 협력한 민간인으로서 군 작전상 부득이 살해한 자는 양민에서 제외”¹⁷⁸⁾ 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보도연맹원이나 부역자 학살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일정부분 반공주의를 재생산하고 있었지만 국민보도연맹 학살의 유족과 생존자들이 증언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복권을 뒷받침해준 것 역시 사실이다.

피학살유족회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이었던 4·19혁명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학살희생자들의 정치적 복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주시민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경북 피학살자 위령제 준비위원회의 회보 『들꽃』 창간호에 실린 유족회 간부 이원식이 쓴 “피의 유산”에서는 학살 희생자들이 현재까지 살아있었다면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정말 열성적인 민주전사民主戰士” 로써 국가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⁷⁹⁾ 이는 도래할 공동체에서 받게 될 사회적 인정을 가정함으로써 기성의 공동체에서 얻을 수 없었던 존중을 발견하는 인정투쟁의 한 방식이었다.¹⁸⁰⁾ 이처럼 당대 주류의 정치적 정체성과 희생자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태도는 희생된 가족과 자신이 반공국민이라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미 있어 왔다.¹⁸¹⁾ 4·19혁명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조건은 반공주의에 포섭되지 않으면서도 희생된 이들에게 새로운 정치적 정체

177) 장근식 외, 위의 책, 71쪽.

178) 전갑생, 「1960년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 자료」, 『제노사이드 연구』, 한국제노사이드 연구회, 2007, 236쪽.

179) 한성훈, 위의 책, 299쪽.

180)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사월의 책, 2011, 320쪽.

181) 김무용, 위의 책, 416~417쪽.

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복권의 근거를 마련해준다. 물론 이처럼 적극적으로 반공국가의 반공주의적 전망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의 전망으로 교체하지 않고 가족의 신원회복 운동인 경우가 대다수였다.¹⁸²⁾ 하지만 이 역시 희생자가 누구인지 일방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반공국가의 결정 독점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자기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정투쟁이었다.¹⁸³⁾

4·19혁명이 이내 5·16쿠데타로 막을 내렸듯이 피학살유족회 운동은 새로이 등장한 군부정권의 탄압에 직면한다. 군부정권은 피학살유족회 활동이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특수반국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한다.¹⁸⁴⁾ 이로 인해서 전국의 피학살유족회 간부 28명이 기소되었고 이중 15명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며 학살 희생자들을 ‘민주전사’라 불렀던 이원식에게는 사형이 선고된다.¹⁸⁵⁾ 그리고 전국에 피학살유족회가 만든 위령비와 무덤 역시 군에 의해서 파괴당한다. 피학살유족회에 대한 반공국가의 처벌은 희생자들이 정치적 차원 뿐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도 망자로서의 존중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유족회에 대한 재판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묻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냐는 유족회의 주장에 검찰은 “빨갱이들을 묻어준 게 죄다”¹⁸⁶⁾라면서 빨갱이가 도덕적 차원에서도 복원될 수 없는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¹⁸⁷⁾

정치적인 차원에서 희생자를 복권할 수 있었던 국회의 진상조사와 피학살유족회

182) 노용석, 위의 책, 210쪽.

183) 박명림, 위의 책, 88쪽.

18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906쪽.

185) 김기진, 위의 책, 309쪽.

186) 한성훈, 위의 책, 319쪽.

187) 조르조 아감벤은 아우슈비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오늘날의 주권 권력이 행사하는 예외상태적 폭력이 망자가 전통적으로 누려야 했던 죽음에 대한 의례적 차원의 존중을 박탈하고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르조 아감벤, 2012, 120~125쪽) 반면에 인류학자 권현익은 망자의례와 같은 가족관계의 문제가 주권 권력의 불법화가 될 때 가족성원의 복권이 곧 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형성되는 장소가 된다고 주장한다. (권현익, 2013, 140쪽) 본고에서는 권현익의 주장처럼 희생된 이들의 사회적 복권을 위한 노력이 반공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화적 응전의 과정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운동이 군부정권에 의해서 좌절된 이후 유족과 생존자들의 대응은 개인화·가족화 되어간다. 학살희생자의 문제를 거론했을 때 자신도 빨갱이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살의 기억은 가족공동체 내부라는 좁은 영역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었다.¹⁸⁸⁾ 학살 희생자들의 존재를 이야기할 공론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와 같이 반공국가에 대한 대항적 정치를 사회적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도 없었으므로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침묵해야만 했다. 반공국가의 위협 속에서 학살의 상처를 품고 살아야 했던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더욱 철저히 자신이 반공국민임을 증명하려는 과잉적응이다. 다른 하나는 전통사회에서의 사회적 인정의 근거들을 회복하려는 문화적 대응이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반공국민이라는 증명, 즉 반공국가에 대한 과잉적응이었다. 유가족들은 “절대로 우리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 하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국민투표할 때 우리가 100퍼센트” 투표를 하면서 자신들이 반공국민임을 인정받으려고 했다.¹⁸⁹⁾ 이들은 반공국가의 국책사업에 더 열심히 참여했으며 강력한 반공주의자로서의 신념을 가지기도 했다.¹⁹⁰⁾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김원일의 장편 『노을』에서 불필요하게 새마을운동에 의해서 고향 진영이 현대화된 모습을 강조한 것이나 남파간첩의 유복자로서 ‘빨갱이’의 아들이지만 새마을운동 지도자감이라는 평가가 붙는 청년 ‘치모’의 존재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과잉적응 문제와 맞닿아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과잉적응이 4·19혁명 직후 민주화를 자신들의 사회적 인정 근거로 활용했던 행동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민주화의 이행기였던 1988년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위령비가 복원되었을 때 유가족들은 “반공을 제일로 여기는 애국 국민” 이라고 자신들을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거창신원 양민학살사건은 광주의 모태” 라고 주장¹⁹¹⁾함으로써 반공국가의 정치적 인

188) 김무용, 위의 책, 413~414쪽.

189) 한성훈, 위의 책, 209쪽.

190) 김무용, 위의 책, 415~417쪽.

정과 광주민주항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라는 새로운 정치적 인정 모두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반공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유족들의 과잉적응은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공식적을 내 아버지는 빨갱이 하다가 죽었고 나는 군에 있으면서 빨갱이 잡아서 훈장 ” 을 받았다는 박희춘이 느낀 분열된 감정¹⁹²⁾처럼 정체성의 혼란 상태에 놓여 있었다. 반공국민이라는 자기 증명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희춘과 같은 이들은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반공국가의 감시와 차별이 그들을 따라다녔다.¹⁹³⁾ 연좌제로 묶여 지속되는 차별로 인해서 조부모의 죽음을 자신의 자녀들에게조차 숨기는 경우도 많았다.¹⁹⁴⁾ 지속되는 반공국가의 위협으로 인해 가족의 죽음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므로 가정의 의례 역시도 위기에 직면했다.

전통사회의 의례들은 인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인정 기능을 수행한다. 망자에 대한 의례도 이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장례는 망자를 가족공동체 안으로 수용하여 조상신으로 인정받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¹⁹⁵⁾ 이렇게 편입된 조상신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손들과 매개됨으로써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제사에 대한 권한은 가족성원들의 중요한 권리였다.¹⁹⁶⁾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지역과 가족공동체들이 경험한 학살은 제사를 지내야 할 가족을 남기지 못하거나 성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통과제의절차를 거치기 전에 살해당하는 등 의례수행의 위기를 가져왔다. 이러한 의례의 위기

191) 한성훈, 위의 책, 210쪽.

192) 노용석, 『박희춘 1933년 2월 26일생』, 눈빛, 2005, 106~107쪽.

193) 노용석, 위의 책, 252~253쪽.

194) 김기진, 위의 책, 312쪽.

195) 표인주,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죽음 처리방식과 의미화과정」, 『전쟁과 기억』, 한울아카데미, 2005, 277쪽.

196) 표인주, 「전쟁경험과 공동체문화」, 『전쟁과 사람들』, 한울아카데미, 2003, 155쪽.

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족과 지역공동체는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양자를 들이거나 위령제와 같은 공동의 제사의례를 진행하거나 망자혼사굿과 같이 무속적인 방식으로 통과제의를 대신함으로써 망자의 삶을 복원하고자 노력했다.¹⁹⁷⁾ 이처럼 근대적인 전쟁과 학살의 충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통의례들은 일정 부분 변형되었는데 이는 역사적 사건에 대응하는 현대화된 전통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¹⁹⁸⁾ 제주의 백조일손지지처럼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한 전통의 의례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공동체 성원들간의 관계는 현대화된 전통 혹은 (클리포드 기어츠의 개념으로는) ‘종교의 현대화’¹⁹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의례의 변화는 이탈된 이방인들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연대를 새로이 만들어낸다.²⁰⁰⁾

전통적 공동체의 의례, 특히 비극적으로 죽은 이를 위로하는 망자 의례는 반공국가에 의해서 공론장에서 제외된 학살사건의 기억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가족과 공동체의 소통공간으로 기능한다.²⁰¹⁾ 제주 4·3항쟁의 담론공간에서 무속의 역할을 연구한 김성례는 심방(무당)의 입을 매개로 망자와 생존의 기억이 대화적 관계로 재구성됨으로써 국가권력이 만들어낸 거대담론에 대한 대항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²⁰²⁾ 민중적 집합기억을 보존하는 이 의례의 공간인 무속은 역사적 사건뿐 아니라 희생된 이들의 원한을 가시화함으로써 역사적 기억의 보존과 국가의 공식적 담론에 대한 의미전복을 이중적으로 수행했다.²⁰³⁾ 무속과 같은 망자의례는 반공국가에 맞서는 대항 담론을 구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전통 공동체의 도덕적 근

197) 표인주, 위의 책, 154~166쪽.

198) 권현익, 2016, 178쪽.

199) 권현익, 2012, 56쪽.

200) 권현익, 2016, 208~209쪽.

201) 김성례, 「제주 무속」, 『종교신학연구』 4권,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1991, 21쪽.

202)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 제주 4·3의 담론정치」, 『근대를 다시 읽는다 2』, 역사비평사, 2006, 522~523쪽.

203) 김성례, 앞의 책, 24쪽.

거들뿐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움직임과 함께하기도 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는 망자에 대한 애도가 저항의례의 핵심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역사적 비극의 희생자들에 대한 의례에 동참하는 정치집단과 의례의 주체가 사회적으로 협력하면서 정치성을 강화한다.²⁰⁴⁾

1980년대 활발하게 전개된 민주화운동은 반공국가의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적 복권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활발하게 전개되는 민주화운동의 열기와 다양한 문화적·정치적 수단들의 개발은 반공국가에 대한 시민적 저항·대응의 한 영역인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운동을 뒷받침해준다.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반공국가에 대항하는 담론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에 유가족과 희생자들이 역사적 금기가 된 학살사건들을 증언하려고 했다. 학살 유가족에 의해서 집필된 최초의 국민보도연맹 학살에 대한 저술인 『실록 보도연맹』을 쓴 박희춘은 1986년에 고조화되는 민주화의 열기에 자극을 받아서 집필을 시작한다.

그때부터 소위 정권을 대항하는 소위 민주인사들이 여기저기서 발생 안하나. 그 배경을 내가 간 크게 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이래 가지고 뭐 내가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르지마는 내가 없는 사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일을 이 과거사 규명을 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소위 정책반동은 아니고,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은 아니고, 내가 과거에 이래 억울한 일이 있었다 카는 기야 뭐 어떻겠노, 거기에 용기를 얻는다고. 그때 뭐 벌써 민주인사들, 학생들이나 소위 민주인사들이 잡히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정권을 대항하는 세력은 아니잖아.²⁰⁵⁾

박희춘의 사례처럼 민주화로 인해 반공국가의 억압이 약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204) 권현익, 2013, 129~130쪽.

205) 노용석, 위의 책, 246~247쪽.

틈타서 희생자를 복권하려는 시도는 민주화운동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례다. 반면에 4·3항쟁을 복권하려는 제주에서의 문화운동은 민주화운동과 좀 더 긴밀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문학·놀이패·노래 등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문화적 형식들, 특히 민족문화론·민중문화론의 영향을 받은 문화단체들이 80년대 제주에도 결성되었으며 이들은 민족민주운동과 4·3항쟁의 복권을 함께 추진했다.²⁰⁶⁾ 이러한 문화적 수단들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의해서 재의미화된 ‘민족’, ‘민주’, ‘통일’ 과 같은 개념들이 4·3항쟁이나 광주항쟁과 결합함으로써 이들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항적 의미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²⁰⁷⁾

권현익은 주권 권력에 의해서 혈연관계의 대상이 불법화된 상황에서 그의 시민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요구는 혈연관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며 이를 위해 친족집단은 냉전이 만든 정치적 양극성을 해체하며 민주화의 토대가 되어준다고 주장한다.²⁰⁸⁾ 근대국민국가에서 인간의 지위를 결정하는 법의 영역과 가족의례와 같은 전통 공동체 내의 문화가 한 인간의 권리와 지위를 인정하는 문제로 뒤엉켜 있을 때, 법과 문화라는 다른 사회적 근거들이 상호 간섭한다. 한 인간에 대한 불법화는 그에게 수행되어야 할 문화적 의례의 금지로 확장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문화에 대한 주권 권력의 침입은 법적·정치적 저항의 가능성을 상실한 예외상태 속에서 문화를 주권에 맞설 수 있는 저항의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주권 권력의 ~~법률~~의 힘이 문화의 작용을 중단할 수 있다면, 문화 역시 주권 권력의 결정을 멈출 수 있다. 주권 권력은 예외상태 속에서 모든 정치적 가능성을 점유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화는 언제나 주권 권력에 대항하는 저항적 역량을 보존하는 후방이며 그 속에 끝내 사라지지 않는 인간을 잔존하게 한다. 바로 주권 권력이 유대인으로, 호모 사케르로, 빨갱이로, 인간이 아닌 그 무언가로 내던진 자리에 서 있을 한 사람의 인간

206) 김영범, 위의 책, 2003, 93~94쪽.

207) 이남희, 위의 책, 251쪽.

208) 권현익, 2013, 140쪽.

을 말이다.

제3장 현기영 소설의 4·3항쟁과 제주공동체의 역사적 발견

3.1 공동체의 구조와 담론공간

현기영의 등단작인 「아버지」는 4·3항쟁에 대한 그의 소설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작품이다. 「아버지」는 비슷한 시기에 미성년인 소년의 눈으로 좌우대립의 참상을 조망하는 유사한 전략을 취했던 김원일의 「어둠의 혼」이나 윤홍길의 「장마」보다 훨씬 메시지가 모호하고 서구 전위문학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²⁰⁹⁾ 반면에 「순이 삼촌」 이후 4·3항쟁에 대한 현기영의 소설들에서는 “확고부동한 리얼리스트”²¹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현기영 자신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는 『』을 출간한 이후 겪은 정치적 위협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학적 지향이 변모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²¹¹⁾ 그런데 「아버지」가 현기영 4·3항쟁 소설들과 가지는 차이는 작법만은 아니다. 「아버지」는 ‘산폭도’가 두렵고 잔인한 존재로써 “굴뚝도깨비” 같은 이미지로 재현되면서 이들을 폭력 이미지의 전면에 내세운 유일한 경우다.

죽인다, 약탈한다! 아버지! 오지 마! 오지 말란 말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창을 흔들면서 막무가내로 걸어온다. 물의 후방은 앞으

209) 이동하, 「역사적 진실의 복원」, 『작가세계』 1998년 봄호, 세계사, 1998, 49쪽.

210) 염무웅, 위의 책, 332쪽.

211) 현기영, 2002, 175쪽.

로 이동할수록 점점 통이 살찌가고 군데군데 부스럼 같은 소용돌이를 띄운 빨간 황톳빛 등허리가 징그럽게 번쩍거린다. 뱀 헛바닥같이 갈래난 앞물은 날름거리며 점점 다가온다. 아버지, 오지 마! 오지 마! 가까이서 물컹거리는 비릿한 흙탕물 냄새, 누렁뱀 냄새. 산폭도들이다! 완실아, 도망쳐! 빨리! (「아버지」, 331쪽)

「」이 잘 보여주듯이 현기영의 다른 소설들에서 폭력의 주체로서 조명받는 것은 토벌대, 특히 서북청년단과 같이 육지에서 들어온 군경들이며 이들에 비해서 열세였던 무장대의 가해는 주변적인 사건으로 제시되는 편이다. 「도령마루의 까마귀」에서 무장대에 의해서 귀리집의 시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등장하지만 “시어머니가 폭도한테 죽창 맞아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폭도 가족이라는 누명이 벗겨” (「도령마루의 까마귀」, 132~133쪽)지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조명을 받는 것은 군경이 가하는 폭력의 잔혹함이다. 무장대가 안채를 불태우고 시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한달 후인 10월 보름날 국방군들이 와서 불태울 뭇으로 밖거리(바깥채)와 대문간을 남겨둔 셈” (「도령마루의 까마귀」, 132쪽)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장대의 폭력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군경이 가하는 더 큰 폭력과의 연관속에서만 포착된다.

그 무섭던 소까이(疏開). 온 섬을 뺨 돌아가며 중산간 부락이란 부락은 죄다 불태워 열흘이 넘도록 섬의 밤하늘을 흰히 밝혀놓던 소까이. 통틀어 이백도 안되는 무장폭도를 진압한다고 온 섬을 불지르다니, 그야말로 모기를 향해 칼을 빼어든 격이었다. 그래서 이백을 훨씬 넘어 삼만이 죽었다. 대부분 육지서 들어온 토벌군들의 혈기는 그렇게 철철 넘쳐흘렀다. 특히 서북군은 섬을 바닷속으로 가라앉힐 만큼 혈기방장하였고 군화 뒷축으로 짓뭇개어 이 섬을 지도상에서 아주 없애버릴 만큼 냉혹했다.(「해룡이야기」, 149쪽)²¹²⁾

212) 4·3항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규모는 제주4·3사건위원회에 신고된 피해 내역에 따르면 총 14,028명이며

반면에 「아버지」에서는 육지에서 온 토벌대의 위협은 선명하지 않다.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외부자인 육지의 토벌대로부터 받게 되는 위협과 의심의 눈초리 대신에 제주인들 사이에서 토벌대의 가족과 산폭도의 가족들로 나뉘어 의심하고 공격하는 모습이 제시된다. 토벌대인 형을 둔 ‘완실이’는 산폭도의 아들인 ‘나’를 호수에서 나오지 못하게 돌팔매질하면서 가두어놓고 괴롭힌다. ‘나’에게 “우리 형은 토벌대야. 산폭도를 두 마리나 죽였대.”(「아버지」, 327쪽)라는 완실이의 말이 환청처럼 반복해서 들리던 중 산폭도들을 이끌고 마을을 불태우려고 내려오는 아버지의 환상에 시달리는 소설의 후반부는 제주 사회를 토벌대의 가족과 산폭도의 가족으로 나뉘어져 대립하는 이미지로 구성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을을 불태우는 “굴뚝도깨비”라는 가해자의 이미지로 상상되듯이 산폭도의 가족이라는 죄의식은 환각 속에서 완실이에게 아버지와 산폭도를 피해서 도망치라고 소리치는 모습(「아버지」, 331쪽)을 통해서 나타난다. 현실 속에서 자신이 완실이에게 위협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폭도의 가족이라는 죄의식과 부채감을 짊어지고 있다. 산폭도가 된 아버지가 과연 마을에 방화를 한 것이 맞는지, 운동장에 방치된 불에 타죽은 산폭도의 시체가 아버지가 맞는지 끝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완실이의 관계는 죄의식과 징별로 확고하게 나뉘어 있다.

「아버지」에서 ‘나’의 죄의식은 산폭도인 아버지를 가족²¹³⁾으로 두고 있다

이 중 토벌대에 의한 사망자는 10,955명(78.1%), 무장대에 의한 사망자는 1,764명(12.6%), 가해자를 알지 못하거나 밝히지 않은 경우가 1,266명(9%)이며 기타 사례가 43명(0.3%)이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371쪽) 이는 5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조사이며 유가족 등에 의해서 직접 접수된 피해만을 산정한 것으로 실제 사망자 규모에 비해서 낮게 제시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망자는 토벌대에 의해서 발생했는데(78.1%) 이는 80% 이상이었다는 다른 조사결과들과 동일한 결과였다.(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373쪽) 4·3항쟁에 대한 제주인들의 기억에서 중요한 가해의 주체는 무장대가 아니라 토벌대로 파견된 군과 경찰병력들이었다.

213) 「아버지」의 배경인 노형리 함박이굴 일대는 4·3항쟁 기간에 전소된 공간으로 현기영의 실제 고향이기도 하다. 실제 그의 고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원일의 「어둠의 혼」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가족사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으나 현기영의 아버지는 죄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4·3항쟁 중에 헌병으로 군 복무를 했다는 점에서 소설 속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노형리가 불타던 시기의 상황도 소설 속 재현과는 상당히 달랐는데 산폭도에 의해서 마을로 산불이 번져서 불탄 것으로 설명하지만(「아버지」, 332쪽) 『지상』

는, 혈연적 관계로 인한 연대책임으로 인해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가족의 정치적 책임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연좌제의 논리와 흡사하다. 좌익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담하지 않은 일에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야 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조차 없던 연좌제가 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반공 국가는 혈연관계를 국민의 자격을 검증하는 데 활용했다.²¹⁴⁾ 실상 「아버지」에서 ‘나’가 가지고 있는 죄의식은 반공 국가가 요구했던 태도에 가까운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폭도 가족이라는 의심받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가족이 입산자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던 제주인들의 삶이었다. 이는 혈연에 의해 정치적 책임과 성향을 나누는 것이 단순하지 않은 제주의 조건, “좁은 섬바닥이라 서로 알음알음해서 따져보면, 구정물 튀어간 사돈의 팔촌일망정 연결되게 마련” (「도령마루의 까마귀」, 124쪽)인 제주인들 사이의 관계 때문이다. 현기영의 일가친척들도 “우리 식구는 군인 가족, 막내이모는 경찰 가족, 나머지는 셋이모를 포함해서 모두 ‘폭도 가족’ ” (『지상』, 53쪽)으로 군경과 무장대가 혈연적으로 뒤엉켜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제주의 상황에서 혈연관계를 근거로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행위는 반공 국가의 ‘정의’가 얼마나 자의적인 수행되었는가를 확인해준다. 특히 제주인들 간의 혈연관계를 의식해서 제주 출신 군경들을 배제하고 육지 출신 토벌대를 중심으로 군사작전이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제주인들 사이의 관계가 좌우익으로 혈연에 의해서 나뉘어 있음을 자각하는

의 손가락 하나」에서는 군의 토벌에 의해서 수행된 소개작전의 일환으로 설명(『지상에 손가락 하나』, 49쪽)된다.(현기영은 정확한 날짜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1948년 11월 14일의 일로 추정된다. 이날 5시경 국군 부대에 의해서 노형리 일대에 있던 무장대 병력 79명이 사살당하고 2명이 체포되었는데, 이 이외에 노형리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폭도 79명을 사살 / 북제주군서 국군 소탕전」, 독립신문, 1948년 11월 27일) 이후 노형리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소개되어 1953년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재건복귀 진정(陳情) / 도평·노형 양리」, 제주신보 1953년 11월 3일)

214) 이러한 논리는 좌익에 대한 처벌, 학살과정에도 사용되어서 빨갱이로 여겨지는 이들의 가족도 빨갱이로 판단했으며, 본인을 죽일 수 없을 때는 그 가족이나 친척을 ‘대살(代殺)’ 하기도 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김동춘은 전통의 유산인 유교적인 가족공동체와 삼족을 멸하여 책임을 지게하던 전통의 반란의 관념들을 혈통적 민족주의를 통해서 동원하여 수행된 의사 인종주의적인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한다.(김동춘, 위의 책, 272~282쪽.)

대신에 육지와 섬이라는 구분을 의식하게 하는 조건이었다.²¹⁵⁾

「아버지」 이후 현기영이 쓴 4·3항쟁에 대한 소설들은 개별의 가족, 특히 좌와 우로, ‘비국민-빨갱이’와 국민이란 정치적 나눔과 연결된 형태의 가족을 전면 에 내세우지 않는다. 반공국가는 혈연을 통해서 가족 단위를 정치적 경계 안으로 포섭²¹⁶⁾하고 관리하지만 혈연관계가 좁게 얽혀 있는 제주에서는 오히려 그 정의의 자의성을 보여줄 뿐이다. 오히려 부각되는 것은 개개의 가족과 그 구성원이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 함께 놓여 있었던 ‘섬 것’ 들, 즉 공동체로써 제주도의 모습이다.

“큰 난리가 들이닥쳐 많은 사람들이 한날한시에 떼죽음을 당하고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 (「해룡이야기」, 148쪽) 버린 고향의 이미지가 학교 운동장에 전시된 불에 탄 공비의 시체(「아버지」, 332쪽)의 이미지를 대신한다. 빨갱이의 가족이 겪은 개인의 수난이 아니라 불타버린 고향을 함께 살아간 제주공동체의 수난이 중심에 놓인다. 그런데 이때 제주공동체²¹⁷⁾란 무엇인가? 내부성원들 사이의 혈연적 인접성이 강하고 육지와는 문화적·역사적 차이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원생주의적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별개의 민족²¹⁸⁾ 단위의 공동체로 볼 수도 있는가? 현기영의 소설에서 재현되는 제주공동체는 민족 구분에 활용되는 혈연·역사·문화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지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공간이 아니다. 오히

215) 육지에서 온 진압병력에 의해서 육지와 섬 사이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인식했던 것은 4·3항쟁의 진압 과정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보다 1년 앞서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시위인 1947년의 3·1사건부터 연속된 3·10총파업 등에 대한 강경한 진압을 경험한 제주인들은 외부세력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섬과 육지 사이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박찬식, 2006, 85쪽)

216) 김동춘은 혈연에 대한 통제가 조선왕조의 전통적 관념에서 기원한 전근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김동춘, 위의 책, 276쪽) 반공국가의 사상통제의 참조점이었던 식민지기 일본의 사상범 관리 역시도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수행되기도 했다. 일본의 사상검사들이 전향자 관리를 위해서 조직했던 대화숙에서는 사상범의 가족 전체를 직접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상전향을 완성하고자 한 것이다.(강성현, 2012, 170쪽)

217)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작가적 의무로 이어지는데 현기영은 “작가는 자기 개인 체험을 공동체의 체험과 일치시키고, 자신의 운명을 공동체의 운명과 단단히 결속시켜야” (현기영, 『젊은 대지를 위하여』, 167쪽)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문학적 목표에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는 4·3항쟁을 섬공동체가 자신을 지켜온 항쟁의 전통으로 이해하는데(현기영, 2004, 146쪽) 이런 인식은 4·3항쟁에 대한 소설이 자연히 공동체의 문제를 경유하게 만든다.

218) 앤서니 D.스미스, 위의 책, 32~35쪽.

려 현기영이 중심과 변방이라는 역사적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듯이, 육지와 제주공동체는 깊은 상호 연관성으로 묶여 있다.

현기영에게 고향 제주는 소설의 4·3항쟁의 비극을 직면했던 원체험의 공간이자 ‘육지인’과 구별되는 제주도인이라는 자기인식을 부여하면서 혈연·지연으로 매개로 만들어진 공동체 성원 간의 구체적 관계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실제 고향인 제주시 노형리 함박이굴이 4·3항쟁의 과정에서 불타 사라지면서 고향은 상실의 감각²¹⁹⁾으로 체험되는 대상이면서 오랜 항쟁의 전통을 가진 역사의 공간²²⁰⁾과 신화적 세계를 간직한 공간²²¹⁾으로 인식되면서 고향의 표상은 시공간적으로 확장된다. 그런데 공동체로서의 제주도라는 인식은 4·3항쟁이 발생했던 비극과 고통의 땅이라는 원체험과 조응하며 그의 소설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 장에서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자 그가 소속된 공동체로서 제주도의 표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류하고 이것이 4·3항쟁의 서사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제주공동체에 대한 현기영의 인식은 크게 두 층위로 나뉜다. 하나는 혈연·지연으로 묶인 인적관계로서의 공동체이다. 인적관계로서의 공동체는 가족 관계, 마을 공동체의 성원이라는 소속감, 동향 출신이라는 동질감으로 구성된 혈연·지연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이다. 또 하나는 역사·문화적 공통 지평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성격이다. 제주도는 육지와는 구분되는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형상화된다. 이 역사·문화적 공동체라는 의식은 ‘육지 것’과의 뿌리 깊은 분리 의식의 근원²²²⁾이며 육지와와의 차이를 만든 자연적 조건²²³⁾과 신앙의 구조²²⁴⁾도

219) 이산하, 「삶과 문학 : "4·3트라우마"를 위한 기억 투쟁 작가_인터뷰: 현기영」, 『계간 민주』 6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13, 229쪽.

220) 현기영, 2002, 169쪽.

221) 정중현, 위의 책, 63쪽.

222) 홍기돈, 「제주 공동체문화와 4·3항쟁의 발발 조건」, 『탐라문화』 4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134쪽.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현기영의 제주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인적관계라는 요소와 역사·문화적 공통지평이라는 성격이 함께 나타난다. 하지만 현기영의 초기 작품들에서는 인적관계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데 반해 80년대 이후부터는 역사·문화적 성격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이는 필화사건 이후 현기영이 역사적 작업에 매진하며 『변방의 우짚는 새』와 같은 역사소설을 창작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²²⁵⁾

제주공동체가 가지는 혈연·지연적 인적관계로서의 성격과 역사·문화적인 공통지평으로서의 성격은 4·3항쟁의 기억을 보존하고 재현하는 과정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반공국가에 의해서 망각하기를 강요받는 4.3항쟁의 기억들이 제주공동체 내부에서 보존되고 반복적으로 말해지면서 반공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과는 다른 대항적인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 4·3항쟁에 대한 대항기억은 공동체 성원 각각의 개별적인 체험을 통해 구성되기도 하지만 제주도가 가진 역사와 문화의 맥락 위에 재배치됨으로써 더 넓은 해석의 지평을 확보하게 된다. 제주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격과 4·3항쟁의 서사가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 반공국가에 맞서는 ‘주체화’의 양상이 상이하게 전개된다. 그런 점에서 제주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피는 것은 4·3항쟁에 대한 현기영의 문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혈연과 지연에 기반한 인적관계로서의 제주도 공동체는 현기영의 소설에서 4.3항쟁의 기억을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특히 「순이 삼촌」과 『해룡이야기』와 같은 초기 단편에서 두드러지는 성격이다. 이 소설들에서는 4.3항쟁의 기억을 떠올리는 계기이자 그 기억이 보존-교환되는 장으로 혈연-지연 관계인 친인척·친구들과의 만남과 대화가 제시된다. 반공국가에서 4.3항쟁에 대한 추모와 기억, 발언

223) 홍기돈, 위의 책, 128~130쪽.

224) 홍기돈, 위의 책, 142~143쪽.

225) 현기영, 2002, 168쪽.

이 금지된 상황에서 제주공동체, 특히 혈연-지연으로 결속된 공동체의 성원들이 만나는 공간은 비공식적·비가시적인 형태로 기억을 보존하고 교환하는 장소가 된다. 그런데 혈연과 지연의 논리를 통해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은 일견 폐쇄적인 집단처럼 보인다. 그러나 4.3항쟁의 진압과정을 속에서 제주공동체는 반공국가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혈연의 논리를 이용해서 나름의 대응방식을 찾았다. 이는 반공국가의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군과 경찰 같은 직군에 있는 친척들을 내세우거나 육지 출신의 군경을 결혼 등을 통해 가족의 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비국민-빨갱이’라는 의심을 중화시키는 것이다.²²⁶⁾ 그리고 이 혈연집단의 확장은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의례의 영역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반공국가의 개입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원한 관계를 만들기도 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반공국가의 폭력에 동원되어 이들 사이에 피해와 가해의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이다. 제주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연·혈연의 요소들은 일견 공동체를 폐쇄되고 고정된 형태로 갖추는 조건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반공국가가 수행한 폭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과 변형의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성원들을 포함하도록 변형되었다. 이러한 공동체의 변화는 4·3항쟁 재현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다.

제주공동체를 형성하는 혈연과 지연의 논리는 성원들 사이의 인적관계를 형성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인적관계 형성의 조건이 반공국가가 국민을 형성하고 판별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3항쟁의 과정에서 혈연관계는 반공국가로 하여금 성원들 사이의 정체성을 교환·보증할 수 있는 요소지만 지연은 정치적 정체성을 식별하는 수단²²⁷⁾은 될 수 있을지언정

226) 이는 베트남국가에 의해서 반동으로 몰린 가족을 망자의례의 대상으로 복권하려고 했던 베트남 민간사회의 대응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권현익, 2013, 119쪽.

227) 라울 힐베르크는 모든 파괴의 과정이 ‘정의-집중-절멸’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집중’은 파괴의 대상으로 규정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이다. (라울 힐베르크, 위의 책, 1396쪽) 즉 공간은 학살의 전개에 있어서 대상의 식별과 확보라는 이중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활용된다. 공동체 내의 성원들이 공간을 지연을 형성하는 조건이라고 인식하는 데 반해서 주권 권력은 공간을 국민형성을 위한 식별장치로 활용한다. 마치 정원을 꾸미는 원예사가 식물이 자라는 공간과 없어야 하는 공간을 나누어 놓듯이 말이다.

구성원 상호 간에 보증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토벌대’와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혈연관계는 이들에게 부여된 ‘(반공)국민’과 ‘비국민=빨갱이’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한다. 4·3항쟁 과정에서 정부의 토벌대는 입산자, 총살자, 도피자의 가족들을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을 위험분자로서 관리한다.²²⁸⁾ 마을과 해변과의 거리 같은 지역단위로도 동일한 정체성을 구성하기도 했으나²²⁹⁾ 지연을 근거로 빨갱이로 의심되는 이와 군경 사이의 동향 출신이라는 관계를 내세운다고 해서 반공국가의 의심이 중화되지 않았다. 반면에 같은 마을구성원이더라도 군경, 서북청년단 등 토벌대의 가족인 경우 쉽게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즉 지연과 달리 혈연은 개별의 주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증받거나 이동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이러한 혈연과 국민됨의 결부는 현기영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단편 「잃어버린 시절」(1983)은 혈연과 지연이 반공국가에서 국민과 비국민을 구별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소설의 주인공 ‘종수’의 아버지는 해방 직후 일제 치하에서 마을 구장이었다는 이유로 좌익 청년들에게 친일파로 몰리기도 했던 인물이었지만 4·3항쟁 기간에 도박판을 벌였다가 경찰이 찾아오자 놀라서 도망쳤고, 경찰은 그를 도피자로 보고 적성지역으로 간 입산자, 즉 빨갱이로 규정한다. 그는 이 우연한 사건으로 빨갱이로 몰려서 토벌대에 희생당한다. 남편이 도피자가 된 뒤에 군경이 관리하는 해안가로 소개되어 온 종수의 어머니는 종수에게 군경이 심문할 때 아버지가 폭도에게 죽었다고 대답하라고 당부한다. 입산자의 가족은 동일하게 빨갱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토벌대는 해안가에 몰린 소개민을 대상으로 폭도 용의자 색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때 판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혈연관계다.

228)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 지성사, 2006, 84쪽.

229) 권귀숙, 위의 책, 85쪽. 이러한 지역 단위로 부여된 정체성은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부여되었다. 이는 토벌대 내에서의 제주도민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다.

소개민들이 해변 일주도로에 내려오자 소개작전의 절차에 따라 폭도 용의자 색출 작업이 진행되었다. 외도리 위 일주도로를 가득 메운 광연리와 인근 부락 주민들은 두려움에 얼굴이 하얗게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노인과 아녀자들이었다. 젊은 남정네들은 진작에 잡혀서 결판났거나 입산자가 되어버리고 남은 것은 병신 팔푼이들뿐이었다. 따라서 폭도 용의자 색출이란 곧 입산자 가족을 가려냄이었다.(「잃어버린 시절」, 39쪽)

입산자의 가족은 곧 폭도로 규정하는 반공국가의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족을 ‘적’에게 희생된 자로 위장해야 했다. 이 거짓말과 함께 종수의 가족이 ‘폭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경찰복 차림의 외산촌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경의 가족이라는 증명은 곧 ‘빨갱이’와 구분되는 반공국민이라고 인정받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국민됨과 혈연의 상관관계는 제주도인들로 하여금 결혼을 생존의 방편으로 사용하게 만든다. 「순이 삼촌」에 등장하는 ‘나’의 고향 친척들 중에는 서북 청년단 출신의 고모부가 있다. 고모와 고모부의 결혼은 도피자 가족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행했던 정략결혼이었다. 도피자의 가족이어서 받게 되는 의심을 군경과 결혼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다. 「해룡 이야기」(1979)에서는 토벌대에 끌려갔던 ‘중호’의 어머니는 서북 출신 군인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한다. 이후 군인과 어머니는 일 년여 뒤에 군인이 육지로 전출을 갈 때까지 동거한다. 이는 군경과의 정략결혼이 사상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가부장적 질서하에서 여성은 교환과 거래의 대상으로, 학살의 위협과 생존을 위한 성의 거래라는 이중의 위협에 놓여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지연은 혈연과 달리 국민됨을 보증해주지는 않는다. 지역, 마을 단위로 적으로 인식하는 반공국가의 논리는 지연이 국민됨을 보증할 수는 없지만 비국민을 식별하

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이다.

“정숙이 아버지, 우리 친정 오래비가 작년에 병정 간 무사 알지 않우파?”

“이장님 마썸, 우리 사촌동상이 금녕지서에 순경으로 이수다. 김갑재라고 마썸.”

“뒤로 물러갑서. 다들 직계가족이 아니라 아니됩니다. 물러갑서.” (「순이 삼촌」, 66~67쪽)

혈연을 통한 보장도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지연은 누군가의 국민됨을 증명할 수 없었다. 단일한 정체성을 공유하게 하는 혈연과 달리 지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국민과 비국민 사이에도 맺어질 수 있었다. 이는 곧 지연을 형성하는 동일한 공간적 조건 속에 국민과 비국민 사이의 대립관계를 기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립관계의 형성은 같은 공간에 속한 마을주민들이 반공국가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폭력에 적극 가담한 것이 원인이 된다.

“그때 함덕지서 주임이 본도 사람이랐는디 부하들한테 명령 없이 도피자를 총살 말레 당부했는디도 그 육지것들이 자기 주임이 제주 사람이라고 얄이보안 함부로 총질했쥬.”

이 말에 작은당숙이 한 손을 내저으며 이의를 달았다.

“박 주임이 참말 그런 말을 해서까 마썸? 아매도 죄 없는 사람 죽인 책임을 조금이라도 벗어보젠 변명허는 걸 겨우다.”

현모 형도 한마디 거들었다.

“난 들으니까 박 주임 그 사람이 서청보다 되리어 더 악독하게 놀았덴 험디다.”

고모부가 다시 말을 받았다.

“그것도 그럼직한 말이쥬. 그 당시 본도 출신 순경 중에는 자기네들이 서청헌티 빨갱이로 물리카부덴 되리어 한술 더 떠서 과격한 행동으로 나간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니까.” (『순이 삼촌』, 82쪽)

제주도인들 전체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반공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탄압하는 이들도 발생했다. 적극적인 반공주의의 수행이야말로 ‘빨갱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분명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바우만은 홀로코스트를 수행한 나치국가의 작업에 유대인 평의회가 광범위하게 협력이 필요했음을 지적하면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들을 사회적 고립시킨다고 설명한다. (‘정의-집중-약탈-학살’로 고도화되는) 파괴과정으로 인해 희생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이들을 파괴하려는 주권 권력의 관료집단 이외에는 다른 사회적 주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로 인해 “표적이 된 범주에게 합리적 결정을 위한 유일한 준거틀로 ‘자기 자신의’ 관료집단만 남겨”²³⁰⁾ 졌기에 주권 권력의 목표를 수행하는 관료집단의 요구에 피해자들은 종속된다. 제주인들 역시도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경 이외에 외부와 고립된 상황에서 반공국가가 제시한 국민의 기준을 수행하는 것²³¹⁾만이 생존을 담보해주었다. 즉 반공국가의 폭력에 동원되었을 때, 자신이 (반공)국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회 장치의 일부”²³²⁾가 되어 다른 이들에 대한 폭력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현기영이 『순이 삼촌』이 금서가 되어 필화사건은 겪은 뒤로 2년 만에 발표한 4·3항쟁에 대한 소설인 「길」은 토벌대에 동원되어 가해자가 된 제주인의 삶과 같은 제주인에게 가족을 잃은 희생자의 문제를 조망한다. 고등학교 교사인 ‘나’

230) 지그문트 바우만, 위의 책, 213쪽.

231) 이는 비정치적인 주체인 ‘양민’에서 반공국가의 국민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반공국가에 의해 반공국민으로 사회화된 결과가 국가의 폭력에 복무하는 일이라는 사실은 바우만이 “사회화 과정은 도덕적 능력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작하는 것” (지그문트 바우만, 위의 책, 299쪽)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232) 지그문트 바우만, 위의 책, 211쪽.

는 입시를 앞두고 담임을 맡은 학급의 우등생인 휘진에게 정성을 쏟는다. 그는 가난하지만 총명한 ‘휘진’을 위해서 학교 등록금을 대신 내줄 정도로 아끼는데,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공부했던 자신의 모습이 덧씌워져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찾아온 휘진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토벌대, ‘박춘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4·3항쟁 중에 가난한 산판꾼 박춘보는 멋모르고 산에 올랐다가 산폭도 용의자로 몰렸다가 산간 지형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토벌대로 동원되었다. 입산자와 산폭도를 동일하게 취급하던 시절, 박춘보는 살아남기 위해서 토벌대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토벌대 생활 중에 야산대의 속임수에 당해서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토벌대를 안내했고 이로 인해 적과 내통한 것이란 의심을 받게 된다. 전향자였기에 의심받았던 박춘보는 그 날 이후 전향자 딱지를 떼내기 위해서 더 욱지 토벌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압 작전에 나선다. 박춘보는 욱지 출신의 토벌대 동료들에게는 제주 출신의 전향자라 차별받은 외로움과 제주인들에게 가해자였다는 죄의식으로 말년까지 고통받는다. 그런 그가 토벌대 생활을 중에 마을 간의 원한으로 한 사람을 폭도로 몰아서 죽이려 하다가 우연히 ‘나’의 아버지가 그 광경을 목격한다. 자신이 사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세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는 ‘나’의 아버지를 위협하여 토벌대 본부로 끌고 가고, 이후 아버지의 시신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박춘보에게 아버지가 살해되어 묻힌 장소를 알아내려고 박춘보의 집을 찾아가나, 이미 병을 앓던 춘보가 죽어 상을 치르는 중이었다.

「길」에서 박춘보의 토벌대 가담은 그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 전향자가 되어 반공 국가를 위해 일하며 살아남거나 죽는 것 이외에 선택할 수 없었다. 하지만 토벌대에 가담한 박춘보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공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고, 그에 맞춰서 더 폭력적으로 행동했다. 박춘보에게 반공 국가의 국민되기를 추동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의심과 위협이었다면 국민되기의 과정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었다.

“이리 봅서! 이 작자를 압네까?”

“아아니, 당최 모릅네다. 생판 침 보는 사람입쥬” 하고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여하튼 바깥으로 나옵서. 이 작자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좀 있으니! 요 위에 토벌대 있는 데까지 따라와사 하쿠다.”

사내는 이제 소맷부리에 숨겨 있던 개머리관 없는 카빈총을 노골적으로 꺼내서 오른손에 거머잡았다.

(「길」, 120~121쪽)

박춘보은 토벌대 내에서는 전향자였기에 의심의 대상이었지만 제주인들에게는 다른 토벌대와 다르지 않았다. 토벌대가 산폭도와 국민을 구분하고 결정하는 작은 주권 권력 노릇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²³³⁾ 박춘보은 누가 산폭도이고 누가 국민인지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었다. 특히 4·3항쟁 중 제주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토벌대에 계 주민들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었다.²³⁴⁾ 박춘보은 토벌대로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무고한 이를 살해하고, 우연히 그 과정을 목격한 이 또한 살해한다. 그가 가진 죄의식은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공 국가에 동원되어 자행한 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동원되어 얻게 된 권력을 이용한 잘못이기도 하다. “가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발광케 만든 한 시대” (「길」, 123쪽)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그 시대의 예외상태에 ‘마을 싸움의 원한’ 과 같이 반공 국가의 논리 이외에 다른 원인을 폭력에 투사한 개인의 책임 역시 존재했다. 다만 제주인인

233) 치안작전은 경찰과 같은 행정관료들에게 주권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조르주 아감벤, 『목적 없는 수단』, 난장, 2009a, 116~119쪽.)

234) 당시 토벌대는 “사람을 죽이는 게 계엄”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김종민, 「제주 4·3항쟁 -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98년 봄호, 역사비평사, 1998, 37쪽.)

박춘보에게 반공 국가에 의해 동원되지 않는 선택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동원된 제주 출신 가해자와 육지 출신 가해자를 현기영이 상이한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순이 삼촌』으로 묶인 3편의 4·3항쟁 관련 소설들(「순이 삼촌」, 「도령마루의 까마귀」, 「해룡이야기」)은 말할 수 없었던 4·3항쟁의 처참했던 상황과 그로 인해 제주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보여주었다. 이동하는 현기영의 소설을 4가지로 유형화하면서 “4·3의 비극 및 그것이 후대에까지 남기게 된 후유증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을 그중 한 가지로 분류하여 앞 서의 3편과 같은 4·3항쟁에 대한 단편들이 그 유형에 속한다고 보았다.²³⁵⁾ 그는 이 유형의 소설들을 다시 과거의 상황을 제시하는 것과 그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시 나눈다. 이러한 소설의 목적과 사건 재현의 시점에 따른 구분은 작가의 의도를 비교적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지만 통시적인 의식의 확장과정은 비가시화된다. 『순이 삼촌』을 출간하고 2년 뒤에 다시 4·3항쟁에 대해 썼던 「길」에서 언급되는 4·3항쟁의 비극적 상황들은 실상 「순이 삼촌」에서 열거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별대로서 오히려 육지 출신보다 더 잔인하게 진압에 나선 제주인들은 「순이 삼촌」에서 언급되었고 적성지역에서 발견되는 주민들을 산폭도로 간주해 죽일 수 있었던 것 역시 「도령마루의 까마귀」에 등장한다. 현기영이 4·3항쟁의 아픔을 견딜 수 없어서 썼다는 70년대 그의 초기 단편들에서 4·3항쟁 특징적 사건들은 거의 다 제시된다. 이후 그의 소설들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4·3항쟁의 사건과 상황에 대한 제시가 아니라, 여전히 반공 국가의 억압을 의식하는 피해자들의 대응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다.

「길」에서 학살유가족인 ‘나’가 가해자인 박춘보를 직접 만나서 가족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반공 국가는 학살희생자들의 위령을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²³⁶⁾했을 생각하면 ‘무덤 없는 아버지’의 시신을 가해

235) 이동하, 위의 책, 47~54쪽.

자와 만나 찾으려는 시도²³⁷⁾는 분명 위험한 일이었다. 물론 그가 박춘보를 만나려고 했던 데는 같은 제주인이라는 게 크게 작용한다. 아무리 반공국가의 국민이 되려고 노력해도 결코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상이군인이었으나 전향자 출신이었기에 원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제주인들에게는 가해자였기에 제주공동체에서도 환영받지는 못한다.²³⁸⁾ 그렇게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힘겹고 가난한 처지와 고등학교 교사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나’의 뒤바뀐 사회적 지위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준다.

그러나 나는 노인이 틀림없이 내 질문에 대답해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 노인은 나에게 꼼짝달싹할 수 없게 붙잡힌 초라한 약자에 불과했다. 시침 떼지도 못하고 그 처형 사건을 고스란히 시인해야 하는 노인의 정신적 충격은 얼마나 클 것인가?(「길」, 124쪽)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한 일일 뿐이다. ‘나’는 여전히 “해방 직후 그 난리 속에서 토벌대에게 죽은 것은 양민은 하나 없고 모두 폭도뿐이라는 억지가 아직도 통하고 있는 세상”(「길」, 106쪽)을 살고 있기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여전

236) 반공국가는 위령비 설치 등 피학살유족들의 망자를 위령하기 위한 행동조차도 반공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했다.(이동진 위의 책, 170쪽)

237) 「도령마루의 까마귀」의 후반부에서 주인공 ‘귀리집’은 억울하게 폭도로 몰려서 학살당한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만 이는 가해자들의 시선을 피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 시신 수습을 돕도록 요구하는 상황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다.

238) 이러한 사회적으로 고립된 제주 출신 가해자의 이미지는 현기영의 개인적 체험과도 연관되어 있다. 「해룡 이야기」에는 토벌대의 정보원 노릇을 하면서 좌익을 색출했다가 토벌대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마을이 복원된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경멸받은 ‘구름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현기영의 자전소설인 『지상에 손가락 하나』에도 어린 시절 그가 본 ‘구름보’의 모습이 묘사된다. 구름보는 자기 마을에서 (토벌대에게 마을 사람들 중 누가 빨갱이인지 지정해주는) ‘손가락총’으로 많은 이들을 죽였지만 사태가 끝나고 몇 년 뒤에는 경찰서 앞에서 구두수선장 일을 하면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현기영은 구름보를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헌신짝처럼 가차없이 버림”을 받는 “밀고자의 운명”(「지상에 손가락 하나」, 214쪽)로 평가한다.

히 두려운 일이다. ‘육지’의 주권 권력인 반공 국가 언젠든 빨갱이로 ‘정의’ 할 수 있는 대상인 ‘섬 것’, 제주공동체의 구성원이란 위치에서는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박춘보를 통해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찾고자 했던 ‘나’의 시도가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으로 좌절되는 소설의 결말은 그 조건 안에서 4·3항쟁의 상처를 해소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길」이 반공국가에 동원된 제주 출신 가해자와 제주공동체 성원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보여준다면 「아스팔트」는 희생자들이 반공 국가에게 국민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과 그 한계를 응시한다. 「아스팔트」는 제주의 중산간마을인 새밋드르가 토벌군의 소개작전으로 불타고 무장대의 위협에 입산자가 되었던 주민들은 전략촌으로 이주해서 반공국가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간 과정을, 창주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준다. 창주는 갑작스레 같은 고향 사람인 강영조가 생명이 위독하여 그에게 남길 유언을 들으러 와달라는 연락을 받는다. 고향인 새밋드르 마을의 이장이었던 강영조는 토벌대를 위해 마을 청년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성분을 분류하던 정보원이었다. 무장대와 토벌대 양측 사이에 끼어 수난을 당하던 새밋드르 마을의 청년들은 토벌대의 소개령으로 마을이 불타고 전략촌으로 이주당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산으로 도망치고, 그 가족들도 입산자가 된다. 강영조는 ‘손가락총’으로 입산자 가족들을 가려내어 토벌대의 손에 죽도록 만든다. 그는 육지출신 토벌대인 임 주임과 한패가 되어 마을에 군림한다. 마을이 불탈 때 도망쳐서 입산했던 창주와 그의 가족은 힘겹게 피난생활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하산하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토벌대에 투항한다. 다행히 그들이 투항하는 시기에 토벌대의 정책이 전향을 유도하는 선무공작으로 전환되면서 그들은 살아남아 해변가 전략촌에 정착한다. 그렇지만 입산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지속되어 창주는 임 주임과 강영조의 감시 속에 불안한 시간을 보낸다. 임 주임과 강영조은 조작극까지 벌이며 예비검속으로 마을 청년들의 희생시키고 이권을 챙긴다. 더욱 심각해지는 이들의 횡포에서 벗어나고자 창주는 자원입대해서 전쟁에 참전한다. 전쟁에서 돌아온 창주는 이제야 국민으로서 강

영조, 임 주임과 대등해졌다고 느끼게 된다. 창주는 그들을 공공연히 면박 주고 마을사람들을 희생시킨 그들의 조작극을 폭로하지만 언제 그들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창주는 죽어가던 강영조의 부름을 받고 그의 사과를 듣기 위해 찾아가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아스팔트」의 창주는 입산자다. 4·3항쟁에 대한 현기영의 소설에서 입산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일은 드문 경우로, 이보다 앞선 작품들에서는 산폭도라는 혐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소개지역의 이주민들이 주인공이었다. 「순이 삼촌」의 순이 삼촌이나 「도령마루의 까마귀」의 귀리집, 「해룡이야기」의 ‘중호’ 모두 소개작전으로 마을이 불탄 뒤에 군경에 의해서 통제되었던 이주민들이다. 이 이주민들에 비해서 입산자들의 처지는 더 열악했는데 “산에 올라간 사람은 무조건 폭도”로 취급했던 시대에 어떤 이유로라도 산으로 올라간 이들에게는 반공 국가의 의심이 계속되었다. 「순이 삼촌」에서는 이들 입산자의 지위를 놓고서 제주인과 제주에 정착한 육지 출신 토벌대가 말싸움을 벌이기도 한다.

“고모부님, 고모분 당시 삼십만 도민 중에 진짜 빨갱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사 만명쯤 되는 비무장공비 빼부리면 얼마 되여? 무장공비한 삼백명쯤 되니까?”

이 말에 나도 모르게 빨끈 성미가 났다.

“도대체 비무장공비란 것이 뭐우파? 무장도 안한 사람을 공비라고 할 수 이서 마썸? 그 사람들은 중산간 부락 소각으로 갈 곳 일허 한라산 및 여기저기 동굴에 숨어 살던 피난민이우다.” (중략)

“비무장공비가 아니라 피난민이라 마썸.”

나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고모부의 말을 수정했다.

“맞아, 내가 말을 자꾸 실수해점저. 그땐 산에 올라간 사람은 무조건 폭도로 봐시

니까.

(「순이 삼촌」, 84쪽)

서북청년단 출신인 ‘나’의 고모부와 자식 세대인 ‘나’ 사이의 다툼은 입산자들에 대한 빨갱이라는 의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비무장공비’라는 개념을 통해서 입산자들은 무장대의 일원으로 간주 되었고 「길」의 박춘보처럼 ‘전향’을 통해서만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전향은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운명이 보여주듯 이들에게 가해진 좌익의 혐의를 완전히 벗어던지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전향은 사상의 이동 가능성을 의미했고, 언젠가 다시 좌익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이들로 여겨졌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이동 가능성, 모호성은 견고한 국민됨을 만들려는 국민국가의 적²³⁹⁾이면서 동시에 (반공)국민의 형성에는 어떤 정치적 존재가 되지 못하고 주권 권력의 손에 생명을 내맡긴 호모 사케르의 경계선이 수반되어 있음²⁴⁰⁾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이 반공 국가의 호모 사케르인 전향자들을 소설의 전면으로 내세우는 건 주권 권력의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작품들보다 더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전향자, 즉 입산자인 인물을 소설에 등장시킬 때 현기영은 두 가지 요소를 꼭 배치한다. 하나는 그 인물이 좌익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공)국민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인물의 행동이다. 「길」의 박춘보는 금주령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무식한 산판꾼이었던 점이 좌익이 아님을 증명하고 토벌대에 가담함으로써 국민임을 증명한다. 「아스팔트」의 창주는 입산 당시 어린 소년이었다는 점을 통해 사상과 관련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이후 한국전쟁에 자원입대하여 3년간의 군복무를 통해서 국민임을 증명한다. 전향자 재현에서 현기영이 취하는 이러한 전략은 반공 국가가 은폐하고자 했던 역사적 사건을 조명했다는 부담감

239) 지그문트 바우만, 위의 책, 110쪽.

240) 조르조 아감벤, 2008, 268~269쪽.

이 한 원인이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는 반공 국가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이들을 대표 인물로 내세운다. 4·3항쟁에 대한 그의 소설들에서 중심 인물은 대부분 성별로는 여성과 아이들이며, 대부분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한 농사꾼과 그 자녀들이다. 이들은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상의 문제에서 자유롭고²⁴¹⁾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과 아이들은 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에 무장대에 동원되어 협력했을 가능성도 낮다. 15세 이상의 남성들은 무장대가 표적이 되어 강제로 끌려가기도 했고(“산으로부터 중산간 마을에 만 15세 이상 장정들은 모두 입산시키라는 지령이 떨어져 한밤중 납치극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스팔트」, 59쪽) 무장대의 주축을 이루는 이들이기도 했다. 원치 않는 협력이었다고 해도 반공 국가의 시각에서 이는 부역행위였다. 그렇기에 제주의 성인 남성들은 반공국가의 위협에 더 취약한 존재들이었다. 박춘보 같이 소설에 등장하는 성인 남성들은 토벌대의 협력하여 자신을 증명한 이들이다. 현기영의 소설에서 무장대로 활동했거나 그럴 수 있었던 이들은 의식적으로 작품의 전경에서 밀려났다. 이를 볼 때 현기영은 좌익 무장대와 접점이 없는 무고한 양민이라고 확신이 가능한 이들을 소설의 중심인물로 내세움으로써 반공 국가의 의심과 처벌을 벗어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아스팔트」는 입산을 했던 전향자를 중심인물로 내세움으로써 적성지역에 속하는 중산간마을²⁴²⁾의 삶을 재현할 수 있었다. 중산간마을들은 그 지역 자체가 적성지역으로 분류되어 집단적으로 빨갱이 취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한

241) 그의 소설 속 지식인 인물들은 「길」의 고등학교 교사인 ‘나’ 처럼 4·3항쟁이 끝난 뒤에 성장한 이들이다. 즉 4·3항쟁을 재현하는 그의 소설 속에서 사건 당시 지역의 지식인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교육받은 자는 사상과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무장대가 된 이들이 제주인들에게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기억된다는 점(박찬식, 위의 책, 88쪽)과 관련되어 있다. “4·3사태 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죽지 않았느냐. 느네 아방도 농업학교까지 나왔지만……. 사람은 너무 무식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공부 많아도 불행해진다.” (『지상에 순가락 하나』, 224쪽)는 진술도 그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좌익 무장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빨치산이 활동하던 다른 육지 지역 주민들에게도 발견된다.

242) 정부군 제9연대장 송요찬은 1948년 10월 17일 포고령을 통해서 해안에서 5Km이상 멀리 있는 구역은 적성지역이라고 선포하고 11월 경부터는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작전을 감행한다.(김은희, 「제주 4·3시기 ‘전략촌’의 형성과 주민생활」, 『역사민속학』 제 2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6, 184쪽.) 출입시에 산꼭대기로 간주되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적성지역과 반공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전략촌의 구분은 공간이 정치적 정체성 구분의 기준선이 된 사례다.

라산 일대로 도피했다가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아스팔트」에서 창주의 가족과 새밋드르의 피난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힘겹게 산에서 겨울을 나는 동안 토벌대의 정책이 선무공작을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²⁴³⁾ 한라산의 겨울 추위와 배고픔으로 지친 피난민들은 귀순 권고 뼈라를 가지고 백기를 흔들며 토벌대에 투항한다. 이들이 해안가의 전략촌으로 배치되면서 표면적으로 전향 절차는 마무리된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전국적인 예비검속 광풍이 불 때 강영조와 임 주임이 뼈라 사건을 조작해서 실적으로 올린다. 예비검속으로 마을 청년들이 희생된다. 한국전쟁 직후 예비검속은 좌익으로 의심되는 이들과 전향자들,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대량학살당한 것도 예비검속의 결과였으며 제주에서도 보도연맹원에 의한 예비검속으로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 제주인들 중 많은 수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해야 했고 학살당한 이들의 유가족들도 잠재적인 위협 대상으로 인지되었다.²⁴⁴⁾ 제주에서도 예비검속 4·3항쟁 당시 입산경력이 없는 이들도 예비검속 대상이 되기도 했다.²⁴⁵⁾ 반공 국가에게 전향자들은 계속 의심스러운 대상으로 남겨졌고 실적을 내려는 토벌대에 의해서 희생당하기도 했다. 이런 위태로움 속에서 전향자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국민됨을 증명해야 했다. 그 기회가 예비검속의 위기를 불러온 한국전쟁이었다.

243) 1949년 3월 2일에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출범하면서 선무공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중산간마을에 대한 초토화작전이 거의 완료되었고 무장대도 궤멸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입산한 피난민의 수는 1949년 3월경에 2만명, 무장대는 230명 가량으로 추정되었다. 군은 이 중 15,000명의 주민들을 하산시켜서 수용했다. 이러한 전략상의 변화에는 제주에 시찰을 온 국무총리 이범석이 참상을 목격한 뒤 선무공작을 촉구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325~326쪽.)

244) 제주도의 보도연맹원 수와 위험분자의 규모에 대해서 1950년 8월 주한미국대사관은 “등록된 국민보도연맹 회원 27,000명과 과거 반란사건 시기와 그 후에 공산주의자로서 피살된 사람들의 친척 약 50,000명이 제주도에 잠재적인 파괴분자로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Memorandum for the record, Subj.: Conditions on Cheju Island, John P. Seifert, Naval Attache, Donald S. MacDonald, Third Secretary of Embassy, Philip C. Rowe, Vice Consul, Aug 17, 195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422쪽에서 재인용)

245) 입산경력과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예비검속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인민군이 지금 제주도에 상륙했다는 무근지설을 유포, 경찰 전화선 혼신 사건 시 혐의자로 집행유예 3년 언도 후 일제 검거시 태도가 애매, 과거 범죄사실 전무하나 태도 애매, 뼈라살포 사건’ 「예비검속자 석방 상신의 건」, 1950.8.15,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216~217쪽에서 재인용.

창주는 이제 위험한 나이 열다섯살이었다. 외딴 가교사 건물에 예비검속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다. 다른 학생들도 불안한 눈치가 역력했다. 고향 가는 발길을 끊는 것만으로 안심할 계체가 아닐 듯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 중학생들을 상대로 육지 전쟁터에 지원할 학도병 모집이 그것이었다.(「아스팔트」, 84~85쪽)

창주의 학도병 지원은 “넌두 입산했던 놈이라 사상이 별로 안 좋”(「아스팔트」, 83쪽)은 위험분자 취급을 하는 임주임의 직접적인 위협과 젊은 장정 취급을 받는 15세라는 나이로 인해 언제든 좌익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사상을 모르는 어린 나이가 지나자 다른 성인 남성들처럼 반공 국가의 위협에 취약해진다. 창주는 자신이 반공 국가에 헌신할 것임을 일기 안에서도 다짐하면서 이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아닌 국민 동원에 직접 참가하는 것만이 그의 안전을 보장한다.²⁴⁶⁾

총알이 스쳐지나가면서 턱살을 찢어놓은 흉측한 상처를 달고 삼년 만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창주는 자신이 임씨, 강씨와 대등한 위치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아스팔트」, 86쪽)

삼년 간의 군 복무를 통해서 창주는 상이군인이 되어 돌아온다. 전쟁이 그에게

246) “창주의 일기는 그 어투를 닮아 다분히 비분강개조였을 텐데, 앞부분은 개밋드르 주민이 겪은 고만에 대해 써내려가다가도 나중에는 반드시 새 나라에 대한 부푼 기대와 새 시대의 역군이 되겠다는 결의가 피력되어 있곤 했다.” (「아스팔트」, 83쪽)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공 국민으로서의 생각을 노출시키지만 생각이 그의 국민됨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이는 반공 국가의 통제논리를 생각하면 모순되는 지점이다. 반공 국가의 사상처벌이란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 대한 개입으로써 ‘사상사법’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생각이라는 검증할 수 없는 것을 처벌하는 사상사법은 강성현의 지적처럼 실질적으로 주권 권력의 대리자인 사법기관이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확대일 뿐이었다.

흉측한 상처를 남겼음에도 그 고통이 아니라 임 주임, 강영조와 대등한 지위의 국민이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낀다. 창주는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확고하게 (반공)국민임을 확인받았기에 간접적인 발화로나마 임 주임과 강영조가 마을에서 자행한 악행들을 고발한다. 그로 인해 강영조는 평생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만 창주는 혹시 그들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안고서 살아간다. 여전히 세상은 4·3항쟁의 억울한 죽음을 폭도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상이군인이라 해도 반공 국가에 저항할 때, 언제든 좌익으로 내몰릴 수 있었으므로²⁴⁷⁾ 창주의 불안감은 현실적인 것이었다. 참전을 통해서 국민임을 증명하고 마을 안에서 임 주임, 강영조와 대립하던 창주는 아마도 자신의 죄악에 대해 사죄할 강영조의 유언을 듣기 위해 그의 집을 향해가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길」과 마찬가지로 「아스팔트」에서도 피해자는 가해자의 사과를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과를 하기 전에 생을 마감하고 만다. 현기영은 시간이 더 흐른다면 4·3항쟁의 참상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이들이 모두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순이 삼촌」에서 피력한 바 있다.

“아니우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이 사건은 영영 매장되고 말 거우다. 앞으로 일이 십년만 더 이서봅서. 그때 심판받을 당사자도 죽고 없고, 아버님이나 당숙님같이 증언할 분도 돌아가시고 나민 다 허사가 아니우파? 마을 전설로는 남을지 몰라도.” (「순이 삼촌」, 78쪽)

현기영이 「순이 삼촌」을 발표한 1978년은 4·3항쟁의 참상이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였다. 4·3항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자들을 단죄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사과라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는 불안감이 그의 초기작부터 나오고 있다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²⁴⁷⁾ 이임하, 위의 책, 304쪽.

「길」과 「아스팔트」에서 연이어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 직전에 이들이 죽는 것은 현기영의 불안과 좌절감을 보여준다. 끝내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는 좌절감은 단순히 소설 밖의 참혹한 현실, 4·3항쟁의 진실규명의 가능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서 여전히 반공 국가가 군림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설의 인물들이 택한 대응의 방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한 결과였다. 「길」의 ‘나’는 박춘보 아들의 담임이 되었다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로 아버지의 유해를 찾으려고 하지만 좌절된다. 「아스팔트」의 창주는 한국전쟁 참전 군인이라는, (반공)국민이라는 사회적 인정을 바탕으로 가해자들과 맞선다. 하지만 이 역시도 충분하지 않다. 그의 저항은 제주 출신 가해자들에게나 유효하기 때문이다.

창주의 발설 이후 마을의 노인, 흠어미들이 앞에서는 다소곳이 웃어보이다가도 뒷전에서는 손가락질한다는 사실이 강씨에게 일생 큰 부담이 되어왔던 게 틀림 없다. 그렇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일 것이다. 그런데 임씨는? 섬여자와 결혼하여 아이 낳고 이 섬땅에 뿌리내려 살아왔으니, 그도 역시 갈데없는 섬백성이 분명하다. 그러나 임씨는 이 섬땅에 그리고 저 반도땅에 드리워져 있는 그 집단적 편견이 견히지 않는 한, 아마 끝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지 않을까? (「아스팔트」, 89~90쪽)

「길」의 박춘보가 제주공동체에서 고립되었던 것처럼 강영주 역시 고립되어 평생을 시달렸다. 하지만 임 주임은 그들과 다르다. 육지에서 온 그는 육지의 시각을 통해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으므로 창주의 고발에 흔들리지 않는다. 단지 제주공동체 안에서 그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빨갱이로 의심하고 몰아가는 일을 창주에게 할 수 없게 된 것뿐이다. 4·3항쟁을 좌익폭동으로, 죽은 자들을 모두 빨갱이로 규정하는 반공 국가의 서슬퍼런 시선을 극복하지 않는 이상 비극의 해소는 불가능

하다. 강영주의 집에 도착하기 직전 창주가 임 주임과 변하지 않은 육지의 상황을 생각하는 장면에서 뒤이어 강영주의 죽음을 배치한 것은 현기영의 그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주가 자신과 제주인들이 반공 국가의 국민임을 아무리 증명해도 반공 국가는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인들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 사회 장치의 일원이 되어 그것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 주권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될 뿐인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국민으로 인정받아 살아남는 합리적 선택을 해도 주권 권력의 목표는 변하지 않으며, 그는 단지 그 목표를 도울 뿐이다.²⁴⁸⁾

4·3항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의 어둠을 거두어내려는 현기영에게 제주인들이 (반공)국민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제주공동체는 혈연의 논리를 이용해서 국민됨을 증명하는 방식들을 개발했다. 군과 경찰인 친척과의 관계를 증명하거나 의식적으로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육지에서 온 토벌대와의 결혼을 통해서 (반공)국민들과 가족 관계를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기는 한다. 제주공동체 내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금기가 된 4·3항쟁의 기억을 보존하고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공동체의 혈연·지연적 특성은 일종의 담론장을 만들어 준다. 4·3항쟁을 공산폭도들의 반란사건으로 규정하는 반공 국가의 공식 기억을 현기영의 소설 속 제주도인들은 부정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반공 국가의 공론장에는 유통되지 않는다. 단지 제주공동체 내에서만 전달될 뿐이다.

「순이 삼촌」에서 제사 때문에 고향을 찾은 ‘나’는 순이 삼촌이 죽었다는 소식을 친척들로부터 전해 듣는다. 할아버지의 제사로 친척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순이 삼촌의 죽음은 그가 생전에 겪었던 4.3항쟁의 처참했던 상황을 상기시킨다. 반공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역사의 금기가 고향의 친척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이고도 활발하게 말해진다. 제주공동체 내에서 4.3항쟁의 기억이 보존·교환

248) 지그문트 바우만, 위의 책, 252쪽.

될 수 있는 것은 이들 모두가 사건을 체험한 이들이며 동시에 정치적 정체성을 보증·전달하는 혈연의 논리로 묶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성원으로 편입된 육지 토벌대의 존재는 가족을 반공 국가의 의심으로부터 보호해준다. 토벌대 출신자들의 존재는 사건에 대한 기억과 주장이 반공 국가와 직접 충돌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일원인 그들의 입을 통해서 반복된 반공 국가의 논리와 대립한다. 희생된 이들을 빨갱이로 규정하는 반공 국가의 논리를 가족 성원들 사이의 대화라는 형식 속에서 비판함으로써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피한다. 가족 성원들은 서로 정치적 정체성을 보증·전달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가족 내부의 일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으면서 과거의 죽음을 상기하게 하는 제사는 반공 국가의 의심을 피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전달하고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한다.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체험자들의 기억은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다. 이들은 서로의 기억을 교환하여 사건의 성격을 가늠하면서 반공 국가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비판이 반공주의 자체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진 않는다.

적에게 오염됐다고 판단된 부락을 토벌해서 백명 정도의 이적행위자를 사살했다면 그건 수궁할 만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살자 육백명이란 수효는 옥석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격을 의미했다.(「순이 삼촌」, 72~73쪽)

반공 국가가 적성지역을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계엄령하에서 국민 아닌 자들을 죽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비판은 진압과정에서의 잘못이나 사건의 은폐 등으로 한정된다. 특히 ‘옥석을 가리는 것’, 즉 희생된 양민을 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에 대한 비판이 중심이 된다. 현기영의 4·3항쟁에 대한 소설들이 가난한 여성과 아이들처럼 좌익혐의에서 자유로운 이들을 전면내세웠던 것처럼, 좌익이 아닌데 오인된 혹은 모함받은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는 걸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살해된 이들 사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자들을 분리하고 그들을 추모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당시의 군 지휘관이나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머문 채 떨어져나가지 않았을리라고 섬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선불리 들고나왔다간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위령제 한번 뗏뗏이 지낼 뱃심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합동위령제를 한번 뗏뗏하게 올리고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진혼하자는 것이었다.(「순이 삼촌」, 85~86쪽)

4·3항쟁으로 인한 제주인들의 죽음에 대해 현기영의 접근 방식은 1960년의 피학살유족회의 관점과 유사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의 시신을 수습하고 위령제를 지내려는 열망을 통해서 반공 국가가 비국민인 빨갱이로 규정된 가족들을 국민으로, 공동체의 성원으로 되돌려 놓고자 한다. 하지만 그 복권의 과정에서 좌익에 대한 반공 국가의 공격 문제는 주변화된다. 억울한 죽음이 복권되어야 하는 것은 이들이 ‘빨갱이’가 아니라 가족이며, 그 가족이 속한 제주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과 제주공동체는 국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자기 증명의 시도를 통해서 빨갱이가 아님을 확인한다. 제사와 그 제사의 한 유형인 위령제가 학살된 이들의 복권에 있어서 핵심적인 목표가 된 것은 제사가 희생된 이들을 혈연적 계보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임을 승인하기 때문이다. 혈연적 계보의 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둔 가족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토대를 둔 국가는 각기 상이한 기준으로 대상을 배제하거나 편입시키기 때문에 서로 수용하는 대상이 다르다.²⁴⁹⁾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족의 영역을 점유하고 통제함으로써 상이하게 작동하는

249) 권현익, 2016, 215쪽.

두 기준이 상호 간섭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민간사회가 망자의례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혈연적 계보 사이의 충돌이란 문제를 해소해야 했던 것처럼²⁵⁰⁾ 제주공동체 역시 제사의 영역에서 반공 국가의 정의와 공동체 성원의 계보적·도덕적 복원 사이의 긴장을 해결해야만 했다. 4·3항쟁의 복권을 위한 문화 운동이 추모와 위령의 형태를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나²⁵¹⁾ 현기영의 소설에서 혈연적 계보의 위기²⁵²⁾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혈연적 계보의 위기가 발생한 원인이 반공 국가의 정치적 개입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혈연적 계보와 관계된 영역이 정치화된다. 위령제가 혈연적 계보에 기반한 공동체의 의례²⁵³⁾임에도 4·3항쟁의 위령제가 정치단체나 정치적 문제, 인권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지지해주는 것은²⁵⁴⁾ 위령과 제사가 반공 국가의 위협에 맞서는 과정에서 정치화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반공 국가의 폭력은 제주공동체를 변화시켰다. 4·3항쟁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250) 권현익, 2012, 130쪽.

251) 김영범, 위의 책, 90쪽.

252) 현기영의 소설에서 혈연적 계보의 위기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제사와 장례의 위기라는 형태로 제시된다. 「도령마루의 까마귀」에서 귀리집은 학살당한 남편의 시신을 찾아 매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 「길」의 ‘나’는 아버지의 시신을 끝내 찾을 수 없어서 무덤을 만들지도 못한다. 「잃어버린 시절」에서도 입산자가 되어 희생당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등장한다. 「목마른 신들」에서는 가족이 모두 죽어 제사를 받을 수 없어 토벌대의 손자에 갖든 4·3항쟁 희생자의 혼이 등장하고 희생자들의 위령과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방(무당)이 수십 년간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한다. 이러한 혈연적 계보의 위기는 다른 지역의 학살유족들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김원일의 소설에서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그의 장편 『노을』에서도 좌익이었던 아버지의 제사를 세상의 눈이 두려워서 수년간 지내지 못한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꾸준히 소설화하는 소설가 조갑상의 단편 「어느 불편한 제사에 대한 대화록」에서도 죽은 아버지의 기제사 문제를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이란 형태로 나타난다. 의례의 문제 이외에 혈연적 계보의 위기의 사례는 「해룡이야기」에 등장한 토벌대와 동거하는 어머니의 상황으로 제시된다. 혈연적 계보의 핵심적 도덕률인 가부장적인 성윤리가 반공 국가의 위협 속에서 훼손된다.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여성 수난사 형태로 제시되는 이 위기는 김원일의 『불의 제전』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에 대한 최초의 소설인 이창동의 「소지」에도 등장한다. 이때 가부장적 성윤리가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당사자인 여성이거나 그의 자녀들이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작 성윤리를 규제하는 공동체는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해자들을 윤리적으로 단죄하거나 비난함으로써 피해 입은 여성을 이중으로 고립시킨다.

253) 제주에서 제사는 직계 가족 사이의 봉제사로 한정되지 않고 친척과 마을공동체 성원 전체가 모이는 집단제의 성격 가진다.(김동현, 위의 책, 126쪽) 4·3항쟁의 기억과 복권에서 제사가 가족내 의례가 아니라 제주공동체 전체의 의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254) 권현익, 2013, 129쪽.

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다. 그러나 제주공동체의 변화는 인명의 희생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반공국가로부터 국민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제주공동체는 육지에서 온 이들을 성원으로 받아들였고 많은 제주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육지에서 온 잔인한 가해자도 ‘섬백성’으로 받아들였고 그러한 개방을 통해서 국민임을 증명하고자 했다.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제사와 장례 같은 망자의례는 반공국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제한되고 변형되었다. 이로 인해서 혈연적 계보와 공간으로써 제주도는 제주공동체로써 통합·변형된다.

칠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이장 허가를 받은 가족들이 몰려들었을 때는 멀치껏처럼 폭 썩어 육탈된 뼈들이 네 거 내 거 구분할 수 없게 얼크러져 있었다. 네 뼈다 내 뼈다 부질 없이 다투던 유족들은 결국 저 조상들은 네 거 내 거 구별할 수 없으니 우리 모두 하나의 자손이 되어 섬기자고 의견의 일치를 본다음 얼크러진 뼈들을 주워 맞춰 사람 형상을 만들고 일일이 봉분을 갖춰 매장했으니 그 공동묘지가 백조일손지지다. 백조일손, 그 얼마나 좋은 말인가. 아무렴, 4·3조상은 그렇게 모셔야지. 내 조상 네 조상 구별 말고 섬 백성이 모두 한 자손이 되어 모셔야 옳았다. (「목마른 신들」, 99쪽)

반공국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논리는 변형되고 영역은 확장된다. 「길」의 ‘나’가 끝내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오촌까지 몰사하여 씨멸족된 집안이 수다한데 그 주인 없는 귀신들” (「목마른 신들」, 88쪽)이 남겨질 때 전통적인 공동체의 의례는 변형되어야만 한다. 베트남전쟁이 베트남 전통 사회에 의례의 위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체의 변화를, “누군가의 조상은 다른 이의 유령”이란 논리로 의례의 대상을 통합하고 확장한 것²⁵⁵⁾처럼 제주공동체 역시 더 넓은 범위의 공동체 성원을 열 수 있도록 변형되었다. 그리고

255) 권현익, 2016, 175~211쪽.

이러한 변화는 제주공동체라는, 혈연과 지연이란 전통적인 인식의 범주를 단순히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논리들의 변화를 통해서 반공 국가에 맞서는 대항 수단을 창출하는 것이다.²⁵⁶⁾

제주공동체는 혈연의 논리와 관계를 통해서 4·3항쟁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고 희생된 이들을 복권하는 수단을 만들어낸다. 이는 반공국가에게 국민이라고 인정받기 위한 시도가 4·3항쟁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결코 유효한 수단이 아니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현기영의 소설에서 국민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해자의 사과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작가의 인식을 반영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4·3항쟁의 과정에서 토벌대와 맞섰던 무장대와는 거리를 둔다. 그의 여러 소설에서 ‘좌익병’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좌익과 반공 국가 모두에게 거리를 둔다. 그는 4·3항쟁 당시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의 어느 한쪽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4·3항쟁을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으로 읽어내는 반공 국가의 규정을 뒤엎고자 한다.

현기영은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이 아니라 “중양과 변방의 전통적 갈등관계”²⁵⁷⁾를 통해 4·3항쟁을 말하려고 한다. 그는 제주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반공국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4·3항쟁과 그로 인해 희생된 제주인들을 규정하려 하고 이를 위해서 제주의 역사를 조명한다. 『변방에 우짖는 새』와 『바람 타는 섬』과 같은 역사소설들이 4·3항쟁과 연관되는 이유는 현기영이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아닌 ‘항쟁의 전통’이란 개념을 반공국가에 맞서는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제주공동체를 형성하는 문화적·역사적 요소들을 이용해서 (반공)국민되기가 아닌 방식으로 희생자들을 복권할 수 있는 인정의 근거를 확보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현기영의 역사소설에서 강조되는 항쟁의 전통은 현기영이 어떻게 당대의 민족·민중문학론과 조용하게 하는 연결고리로서 기능한다. 이는 “광

256) 권현익, 2012, 262쪽.

257) 현기영, 2004, 146쪽.

주청문화 이후” 4·3항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의례가 급증하는 상황과도(「목마른 신들」, 74쪽) 맞물려 있다. 다음 장에서는 현기영이 ‘항쟁의 전통’의 역사적 발견을 통해서 어떻게 반공 국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주공동체를 규정하고 더 나아가 민중·민족문학론과 연결되어 민주화운동과 4·3항쟁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3.2 제주공동체의 역사와 민중의 발견

「해룡이야기」의 화자인 중호는 제주인들이 4·3항쟁의 가해자들을 전설 속 해룡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한다. 제주 전설 속 해룡은 제주를 습격하고 노략질하던 왜구들을 묘사한 것으로,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며 “해룡에게 먹히는 사람들은 다 팔자소관일 뿐, 해룡에 대한 적개심은 털끝만큼도” 품지 않는다.(「해룡이야기」, 163쪽)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반공국가의 압도적인 폭력에 분노조차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제주공동체를 지배한다. 그런데 해룡의 비유에서 주목해봐야 하는 건 4·3항쟁을 겪은 제주의 고통을 비단 현재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제주 역사의 연장선 위에 올려놓는다는 점이다. 과거 제주를 습격했던 왜구처럼 해룡을 탈을 쓴 토벌대의 공격은 왜구의 습격을 반복한 것처럼 보인다. 중호는 4·3항쟁의 괴로운 기억을 역사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변방인 제주의 모습과 겹쳐놓는다.

육지 중앙정부가 돌보지 않던 머나먼 벽지, 귀양을 떠난 적객(謫客)들이 수륙 천리를 가며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던 유배지. 목민(牧民)에는 뜻이 전혀 없고 오로지 국마(國馬)를 살찌우는 목마(牧馬)에만 신경 썼던 역대 육지 목사(牧使)들. 가뭄

이 들어 목장의 초지가 마르면 지체 없이 말을 보리밭으로 몰아 백성의 일년 양식을 먹여치우게 하던 마정(馬政). 백성을 위한 행정은 없고 말을 위한 행정만 있던 천더기의 땅. 저주받은 땅, 천형의 땅을 버리고 싶었다.(「해룡이야기」, 159쪽)

4·3항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제주의 현재와 제주가 겪었던 역사적 차별들이 겹쳐진다. 반공국가가 4·3항쟁을 해방 이후 냉전질서가 형성되면서 좌우 이데올로기 사이의 대립이 극대화되어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면 현기영은 중앙과 변방, 육지와 섬 사이에서 전근대사회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갈등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한다. 앞서 반공국가의 확장이 근대적인 국민국가 만들기 의 과정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전근대의 역사적 갈등의 연속선 상에서 이를 이해하는 현기영의 관점은 원생적 민족주의 같은 태도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기영이 제주공동체의 혈연적 관계들이 재조정되고 변형되는 양상을 인지한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근대적 사건들로 인해 변화된 제주를 가정한다. 그는 제주 민중의 항쟁 전통을 강조하면서 민란을 일으키는 민중이 왕조시대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이는 식민지배라는 근대적 사건의 자장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획득한 것²⁵⁸⁾이라 주장한다. 즉 항쟁의 전통은 제주의 역사적 전통이면서 동시에 근대적 경험 속에서 변형된 것, 근대의 충격에 의한 전통적 공동체의 근대화²⁵⁹⁾를 보여준다.

제주공동체의 역사와 4·3항쟁을 결합하기 위해서 현기영은 공동체의 전통이 근대화되는 과정을 항쟁의 전통을 통해 바라본다. 그는 조선왕조 말엽의 민란을 다룬 『변방에 우짖는 새』와 식민지기 제주 잠녀들의 항일투쟁을 그린 『바람 타는 섬』을 쓰면서 항쟁의 전통이 전근대사회에서 4·3항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계보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4·3항쟁으로 이어지는 항쟁의 전통이란 과연 무엇인가? 『변

258) 현기영, 2002, 151쪽.

259) 권현익, 2016, 178쪽.

방에 우짚는 새』에서 민란과 반란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소설 전반부를 이루는 ‘방성철의 난’이 민란으로 시작해서 반란으로 치닫자 이를 진압하는 것은 바로 제주공동체의 성원들 그 자신이다. 반란과 구분되는 항쟁의 전통을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반공국가의 규정을 뒤엎고 4·3항쟁을 재맥락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항쟁의 전통 속에서 제주도와 육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변방으로서의 제주가 중심부인 육지, 한반도와 맺는 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 항쟁의 전통을 내세운 4·3항쟁의 역사적 복원과 민주화운동의 연관성을 밝힐 수 없다. 항쟁의 전통과 육지와 제주 사이의 관계를 현기영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제주공동체를 구성하는 역사·문화적 조건들을 살펴볼 것이다.

현기영의 『변방에 우짚는 새』는 제주의 역사에 대한 현기영의 첫 장편 소설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엽에 연이어 발생한 방성철의 난(1898)과 이재수의 난(1901)을 그린다. 소설은 갑오개혁에 관여했던 고관인 운양 김윤식이 제주로 유배를 오는 여정을 따라가며 두 난이 끝나는 1901년에 김윤식이 섬을 떠나는 시점에 끝을 맺는다. 제주로 유배를 오는 김윤식의 시선을 통해서 처음 포착되는 제주는 인조 이후 200년간의 출륙 금지령으로 고립된 섬으로, “물 위에 떠 있는 뇌옥(牢獄)” (『변방에 우짚는 새』, 9쪽)이나 다름없는 공간이다. 긴 시간 통제된 섬은 중앙고위관료의 눈에는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면서 제주목사의 착취로 인해 피폐해진 이방의 땅이다. 제주의 이질성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출륙 금지령으로 인해 교류가 제한되었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중앙에 진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정에 시달리는 제주인들의 상황도 이질적인 모습의 한 원인이다. 조정에 진상할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남정네 근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마누라와 딸자식까지 별거벗겨 물질을” (『변방에 우짚는 새』, 15쪽) 해야만 했던 상황은 제주의 잠녀문화를 만들었다. 그런데 중앙의 착취 때문에 발가벗고 바닷일을 하는 제주인들의 모습은 육지의 시선에는 이질적이고 해괴한 모습으로만 보인다.

귀양 온 서울 양반은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그저 말하기 좋다고 “포작 인이나 잡녀나 물옷 바람의 적신(赤身)으로 물질을 하는데. 미역을 물으로 끌어올 리 때에는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녀가 서로 상잡하여 일하니, 가히 해괴 한 풍습이라 하겠다” 하고 개탄했으니, 실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공담(空談)이었다.(『변방에 우짖는 새』, 16쪽)

제주인들의 이질적인 문화 중에서 김윤식과 같은 귀양을 온 적객들이 특히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민란이다.

왕명으로 도입한 지방 방백, 수령을 욕보이고 심지어는 살해하기까지 한 자들을 난 민이나 적당(賊黨)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병이라 통칭함을 평소에 펴 언짢게 여기 는 그들이었다. 도대체 섬 백성들이 천리 만리 물 막힌 섬중에 산다고 누가 조선 백성이 아니라고 할까 봐 육지의 의병 흉내를 냈더란 말인가.(『변방에 우짖는 새』, 48쪽)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을뿐더러 출륙 금지령이 내려져 백성들이 중앙에 학정을 고발할 수조차 없었던 제주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민란이 아니고서는 학정에 맞 설 수 없었다. 그로 인해서 제주에서는 민란과 민란을 이끄는 지도자인 장두를 의 병으로 여기게 되었다. 한양에서 귀양을 온 이들은 제주인들 역시 같은 조선 백성 임이 분명한데 민란에 의존한다고 비판하지만 “목사가 목민관이 아니라 목마관에 지나지 않” (『변방에 우짖는 새』, 17쪽)는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제주에서 민란은 “백약이 무효하고 사람은 다 죽게 될 적에 마지막으로 한번 쓰는 극약” (『변방에 우짖는 새』, 67쪽)이며 장두는 이 극약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고 자신은 학정을 벌하고 중앙에 현실을 알린 뒤에 희생되는

영웅으로 인식된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제주공동체의 이질적인 문화들, 잠녀나 민란, 장두 등은 제주 사회의 특수한 성격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 제주사회의 특수성은 제주의 고유한 문화적·물리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제주를 필요한 특산품들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지로만 인식하는 중앙정부로 인해 잠녀라는 특수한 노동형태가 제주에 등장했고 출륙 금지령으로 인해 고립된 상황 속에서 중앙으로 보내야 할 진상품 확보에 관심이 쏠린 관료들의 학정에 대항하기 위해 제주백성들은 민란이란 방식에 의존해야만 했다. 제주의 특수성은 중앙인 한반도와 변방인 제주 사이의 위계적인 결합의 산물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과 제주 사이의 특수한 관계는 역설적으로 중앙에서 보낸 관료에 제주인들이 반기를 드는 민란에 의해서 더 견고해진다. 반란과 민란의 엄격한 구분을 통해서 중앙과 제주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민란이 제주를 독립된 국가로서 탐라국 시절로 되돌리려는 반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는 반란으로 비화되면 중앙의 군사들에 의해서 훨씬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 중앙의 군사가 아니라 제주의 의병이 나서 진압한다.

『변방에 우짖는 새』는 방성철의 난을 다루는 전반부와 이재수의 난을 다루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소설의 전반부에서 방성철의 난은 민란으로 시작해서 정감록의 예언을 믿고 제주에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려는 반란으로 비화한다. 방성철의 난이 반란으로 비화하자 이를 진압하는 것은 제주의 유생들이 주축이 된 창의군이 다. 제주공동체를 위해서 시작한 방성철의 난이 장두로서의 희생정신을 보이는 대신에 반란으로 변모하자 제주인들은 단합하는 대신에 방성철의 난에서 이탈하고 그에 맞선다. 방성철의 난이 제주공동체의 요구를 배반한 잘못된 민란의 사례라면 소설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재수의 난은 전통적인 제주 민란의 목표와 윤리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재수의 난은 프랑스 신부들에 의해서 조직된 제주의 천주교 신자들이 프랑스의 위세를 뒤에 업고서 제주에 군림하자 이에 맞서서 제주인들이 조직한

민란이다. 이재수의 난을 이끈 장두들은 방성칠과 달리 중앙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확대하는 대신에 천주교 신자들을 진압하고 나서 중앙에서 파견된 군사들에 투항하여 최후를 맞는다. “병란(兵亂)에는 사람이 무수히 죽지만, 민란엔 난민들은 살아도 장두(狀頭)는 반드시 죽는다” (『변방에 우짖는 새』, 58쪽) 민란의 전통과 장두의 희생정신을 이재수의 난은 보여준다.

현기영은 방성칠의 난과 이재수의 난을 비교함으로써 민란과 반란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반란으로 비화된 방성칠의 난을 제주인들이 직접 진압했다는 것은 제주공동체가 반란을 의도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반란과 민란의 엄격한 구분과 반란에 대한 제주인들의 거부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구분을 통해서 4·3항쟁을 반란으로 규정(260)하는 반공국가의 관점을 반박하고 이를 전통적인 민란, 항쟁으로써 다르게 의미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반란과 구분되는 민란은 무장대와의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게 해준다. 제주인들이 반란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더 큰 참상을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호종단이 제주섬의 혈맥을 단혈(斷血)하고 기(氣)를 눌러버려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전설은 말입니다, 큰 인물이 나오면 반드시 역란을 일으켜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갈 터이므로 큰 인물이 제발 나오지 말아 달라는 소망이 깃들어 있다고 봐야지요. 우리 섬에는 이 호종단 전설 말고도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아기 장수 전설이 있는데, 아기가 장차 커서 역적이 될까 두려운 그 부모가 아기를 죽여버리거나 겨드랑이 날개를 인두불로 지저버린다는 얘가지요.(『변방에 우짖는 새』, 97쪽)

260) 4·3항쟁 중 제주도의 계엄령은 1948년 11월 17일 「대통령령 제31호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으로 내려졌다. 이 대통령령에서는 제주 4·3항쟁을 제주에서의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지구를 합위지경(合圍地境)으로 정하고 본령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 계엄사령관은 제주도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 (「대통령령 /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 『官報』 제14호, 1948년 11월 17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87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반란이라는 규정은 4·3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을 비판하는 우익의 주장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제주도가 별개의 국가로 나뉘어 있던 탐라국 시절을 되돌리려는 반란에 대해서 제주인들은 그 일이 더 큰 화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공유한다. 반란을 경계하고 민란에 의존하는 제주의 전통은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앙정부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위기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민란의 지도자인 장두는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민중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여야 한다. 그러므로 방성철의 난처럼 반란으로 비화되어 제주인들의 희생을 크게 할 위험을 만든다면 이 항쟁의 전통에 근거해서 비판할 수 있다. 방성철의 난을 주도한 남학당 세력에 대해 현기영은 현실 논리에 입각하지 않은 승산 없는 싸움을 했기에 민란이 몰락한 것이라고 평가²⁶¹⁾하는데 이 논리는 무장대에도 적용되어 그들이 극단적 모험주의자로서 민중을 파국을 몰고 갔다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²⁶²⁾ 현기영은 항쟁의 전통을 통해서 좌우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하는 것이다.

반란에 대한 제주공동체의 경계심은 스스로를 독립된 탐라국이 아니라 한반도의 변방으로서 제주도라는 지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중앙과의 관계를 깨려고 할 때 제주공동체에는 더 큰 화가 미친다. “여러 차례 항쟁하여 봤지만 목숨만 무수히 잃을 뿐 도무지 불가항력인지라 본조에 들어서는 순순히 복종하여 역대 성왕의 양순한 적자가 된” (『변방에 우짚는 새』, 96쪽) 제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와 중앙과 변방의 관계를 받아들인다. 한반도와 제주의 관계는 중앙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제주는 한반도의 상황과 공동운명으로 묶여서 외세의 위협이라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방성철의 난과 대비되는 긍정적인 민란인 이재수의 난이 그러한 경우다.

반란으로 비화하던 방성철의 난은 제주의 유림이 주축이 된 창의소에 의해서 진

261) 현기영, 2004, 143쪽.

262) 현기영, 2004, 105쪽.

압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민란은 반복되는데 그 원인은 제주 목사의 학정과 외세의 위협인 천주교인들이다.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조선왕조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해지자 프랑스(법국, 法國) 신부들과 그들을 따르는 제주인 천주교 신자들이 사실상 제주를 장악한다. 프랑스 신부들은 조선왕의 칙령인 ‘여아대(如我待 : 나와 같이 대우하라)’와 아시아에 포진한 프랑스 세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교당을 치외법권화한다. 이들은 또 조세를 거두기 위해 제주로 내려온 봉세관 강봉헌이 교인들을 조세 징발에 동원하게 함으로써 제주지역의 행정력을 장악한다. 일반 백성들에게 조세를 거두면서 관권과 결탁하고 죄를 지은 신도들은 여아대 칙령을 내세워 처벌을 무력화하는 신부들의 위세 때문에 제주의 온갖 건달과 기회주의자들이 신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든다. 이로 인해 천주교의 교세가 커지고 그만큼 천주교인들에게 제주인들이 겪는 수난은 심해져 간다.

천주교인들은 제주인들의 충돌이 민란으로 비화 되는 것은 이들이 제주인들의 문화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이다. 천주교인들은 봉세관과 결탁해서 마을 공유지를 헐값에 사들이는데 그중에는 마을 여성들이 믿는 무속신앙의 대상인 할망당의 신목(神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미신을 타파한다면서 신목을 베어버린다. 교당을 비판하는 양반은 관에 처벌을 요구하고 처벌하지 못하자 망신을 주다가 살해하기도 한다. 고을의 좌수 오대현의 첩을 납치하고 이 일을 벌인 천주교인인 아전 최제보를 군수가 가두자 무리를 몰고가서 감옥을 부수고 수감자들을 석방한다. 천주교인들의 위협이 계속되자 지역의 양반들을 중심으로 창의, 즉 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장두로 좌수 오대현이 나선다. 민란이 터지자 천주교인들은 장두들과 협상을 하자고 불러내서 이들을 잡아 가둔다. 그러자 오대현의 노비였던 이재수와 젊은 양반인 강우백이 새로운 장두가 되어 민란을 이끈다. 천주교인들은 제주의 주성을 점거하고 농성하지만 결국 민병들이 성을 점령하고 천주교인들을 죽인다. 이후 중앙에서 진압군이 내려오고 프랑스 함대의 개입이 임박하자 민란의 장두들은 모두 자수하여 서울로 압송되고 민란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책임을 묻지 않기

로 하면서 이재수의 난은 끝을 맺는다.

이재수의 난과 방성철의 난은 몇 가지 주목할만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이재수의 난이 반란이 아니라 민란이라는 성격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점이다. 방성철의 난은 정감록을 내세워 탐라국으로 독립하려는 반란이 되자 제주의 양반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 의해서 진압된다. 반면에 이재수의 난은 천주교당을 진압한 뒤에 조정에서 보낸 찰리사에게 항복하여 장두들이 서울로 압송된다. 장두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반란이 아님을 증명하는 민란의 전통을 유지한다. 이들의 항복은 민란이 장기화 되었을 때 관군의 진압이나 외세의 개입, 농사의 손실 등 제주인들이 겪게 될 고통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바로 반외세를 내세우는 민란이라는 점이다. 이재수의 난에서는 천주교인들과 그들의 배후에 있는 프랑스 신부들에 대항한 민란으로, 그들을 프랑스 제국주의의 침병으로 인식한다.

“허기는 법국이 안남(安南)이라는 나라를 따먹을 적에도 그런 수법을 썼쥬. 신부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정을 탐지하고 길을 닦아논 후제 병대를 몰아 쳐들어가더란 말이여. 법국뿐만 아니라 영국·덕국도 다같은 수법이라. 중국 백성들이 오죽 서양오랑캐한테 시달렸으면 난리를 일으켰겠는가?” (『변방에 우짖는 새』, 210쪽)

이재수의 난은 프랑스라는 제국주의 세력의 외부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려고 한다. 그런데 제주인들에게 프랑스나 조선이나 모두 외부의 세력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 않은가? 앞서 보았듯이 탐라국으로의 독립에 대한 반감은 조선왕조에 대한 충심이 아니라 더 큰 화를 겪지 않으려는 공동체의 방어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고 탐라국 시절에 대한 환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가까이 방성철 난만 봐도 알지 않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섬 백성들 마음 한구석엔 옛날 탐라국 시절의 태평성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은연중 있는 거요.”

(『변방에 우짖는 새』, 242쪽)

조정에서 급파된 관군보다 제주 앞바다를 떠다니는 프랑스의 군함이 더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민란이 조선왕조의 통치질서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는 조선왕조의 질서 속에서 형성된 민란이란 전통이 다른 시대와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성철이 일본에 항복하거나 외세를 끌어들이어 조선왕조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제주인들은 동요한다.

제주 삼읍 호적을 백성 몰래 왜왕한테 바쳐설랑 제주섬을 왜국에 부속시킨댄 하니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런 황당한 소리가 어디 있는가. 만국 공법(萬國公法)이 있는 세상인데, 아라사·미국·영국·법국 들이 눈뜬 봉사로 가만히 앉아 있을 것 같애여?(『변방에 우짖는 새』, 128쪽)

조선왕조로부터 이탈하려는 방성철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전통적인 왕조적 질서의 논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만국 공법’이 작동하고 있는 냉정한 국제질서에 근거한다. 제주가 속해 있는 세상을 전근대적인 왕조의 질서가 아니라 전 세계로 팽창한 유럽의 만국 공법이 지배하는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프랑스 신부들의 교세전파를 프랑스 제국주의의 확장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드러나듯 제주가 직면한 외부의 위협은 전통적인 중앙과 변방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전 세계가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로 재편되는 제국주의의 위협이었다. 그리고 세계에서 중앙인 한반도와 조선왕조는 변방에 우위를 점하는 세력이 아니라 제주와 동일하게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에 직면한 또 다른 변방일 뿐이다. 제국주의 열강의 위협 앞에서 전통적인 중앙과 변방의 관계는 흐려지고 동일한 위협에 처한 공동운명으로 묶이는 것이다. 『변방에 우짖는 새』의 시작과 끝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좌우되

는 조정에서 쫓겨온 귀양 접객들의 이야기로 되어있는 것은, 한반도와 조선왕조 역시 제주라는 변방처럼 세계의 변방이 되어 버렸음을 상징한다. 그들은 제주를 떠나 중앙으로 돌아갔으나 실상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제주와 별반 차이가 없는 또 다른 변방일 뿐이다.

『변방에 우짚는 새』에서 처음 제시된 민란의 전통은 이후 『바람 타는 섬』에서 ‘민란’이라는 전근대적 세계관에서 벗어난다. 왕조시대의 민란은 왕조의 신민인 백성이란 정치적 주체를 가정한다. 현기영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공동체에 가한 위협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족·민중의 새로운 자아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²⁶³⁾ 식민지 공간에서는 왕조시대의 백성과는 다른 정치적 정체성인 민중에 의해서 항쟁의 전통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바람 타는 섬』이 배경으로 하는 1932년의 삼남항일투쟁은 현기영이 주목한 민중이란 정치적 정체성과 항쟁의 전통의 결합을 통해서 4·3항쟁을 포괄할 수 있는 항쟁의 전통의 재의미화를 수행한다. 그런데 『바람 타는 섬』에 앞서서 1986년에 희곡으로 각색된 「변방에 우짚는 새」에서 항쟁의 전통에 대한 현기영의 이해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발견된다.

희곡으로 각색된 「변방에 우짚는 새」는 소설의 내용에서 방성철의 난과 귀양을 온 적객들에 관한 내용을 거두어내고 이재수의 난을 집중한다.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은 거의 같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하나는 이상적인 장두, 이재수가 공동체의 위기를 체험하고 장두로서 의식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오대현의 노비였던 이재수가 군수를 보좌하기 위해 공노비로 적을 옮긴 뒤에 천주교인들의 횡포와 관의 무력감을 보고 갈등하는 과정이 희곡에는 추가되어있다. 소설에서 장두는 이인(異人)으로 갑작스럽게 대의를 위해서 나서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오대현, 강우백 같은 양반 계층이 아닌 장두들에 대해 설명할 때 강조되는 지점이다. 이는 방성철이나 이재수 모두 마찬가지로 이재수는 “날개가 돋은 아기 장수들, 혹은 나라에 역적이 될까 두려워 인불로 지저 버리거나, 맷돌로 눌러 죽였다는

263) 현기영, 2002, 151쪽.

전설” (『변방에 우짚는 새』, 327쪽) 속의 존재들처럼 여겨진다. 반면에 희곡에서는 일상의 삶을 고민하는 청년이 공동체의 위기로 인해 의식화하는 과정을 짚어주고 있는데 이는 『바람 타는 섬』에서 잠녀들과 여성장두들의 의식화를 따라가는 소설 구성과 닮아있다. 또 다른 특징은 소설에는 없던 퇴기인 ‘만성춘’의 등장이다, 민병들이 주성을 점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제시되는 만성춘은 희곡의 후반부에 이재수와 짝을 이루며 민란이 제주 사회의 지도층이 아니라 천대받는 하층민들이 주도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재수의 입체화와 만성춘의 등장은 소설에서 민란에 큰 영향을 끼친 제주 양반사회가 희곡에서 주변화됨을 보여준다. 『변방에 우짚는 새』 이후 조선왕조의 지배적이었던 유교문화의 흔적들이 그의 소설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후 강조되는 것은 당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주로 향유했던 무속과 같은 하층민들의 전통문화다. 주체적인 여성인물로서의 잠녀를 내세우는 『바람 타는 섬』에서 여성들의 무속 문화가 강조되어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하층민들의 문화에 대한 강조는 전통적인 굿과 농악, 마당극 등을 민족·민중적인 것으로 재발견하려고 했던 민중문화운동의 흐름과 일치한다.

1932년의 제주 잠녀항일투쟁을 배경으로 하는 『바람 타는 섬』은 마을의 잠녀들이 영등제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탐라 개벽 신화의 사설을 읊으면서 시작하는 영등제에서는 제주의 전통신앙의 대상인 ‘영등할망’에게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고 이 기간 동안에 잠녀들의 바다물질을 금한다. 잠녀들이 채취해야 할 해산물들이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두는 이 자율적인 통제는 전통적 공동체의 자기규율과 재생산 능력을 보여준다. 현기영은 잠녀들을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재생산하는 주체로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잠녀들은 탐라 시절부터 내려오는 제주의 전통을 이어오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이상향으로 제시된다.

“바다밭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 잠녀들의 사회야말로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 바다밭의 공동소유, 공동관리를 통해 이룩된 평

등사회, 꼬문이란 바로 이런 거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아. 권력의 억압을 받지 않는 자연아, 본능아, 자주인, 자치인으로서의 개인들이 상호 부조로서 공동체를 꾸려가는 거야.” (중략-인용자) 그러나 이 고장의 아나키즘 이론은 새로운 전망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저 천년 세월의 머나먼 탐라 시절부터 면면히 이어온 이 고장의 공동체적 생활양식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는 느낌이다.(『바람 타는 섬』, 71쪽)

그러나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제주잠녀들은 근대적 자본주의와 식민지 질서에 포섭되어 있다.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녀조합에 위탁판매를 해야만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그에 따라붙는 수수료와 잡세들까지 더해지며 잠녀들은 채취물의 9할 이상을 수탈당한다. 해녀조합에 착취당한 잠녀들의 가난은 그들을 제주도 바깥으로 내몬다. 매해 음력 3월초에 제주의 1만여 잠녀 중 3천명 이상이 육지 물질을 나가야 했고 이들은 전라도나 충청도 같은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의 여순, 대련, 더 멀게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까지 떠돌면서 물질을 하고 돌아온다. 제주를 벗어난 잠녀들의 노동을 중계하는 것 역시 일본인 전주들이다.

식민지 경제로 편입된 상황은 제주의 잠녀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본 등지를 떠돌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제주의 남성들 역시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다. 많은 제주 남성들은 고향을 떠나서 공장의 노동자로 일본 제국의 식민지와 경제적 영역을 따라서 떠돌아다닌다는 점에서 육지 물질을 떠나는 잠녀들과 큰 차이가 없다. 잠녀들이 육지 물질을 하기 위한 뱃삿까지 불합리하게 해녀조합에 착취당하듯이 제주와 대판(오사카)로 일하려고 오가는 제주의 남성 노동자들도 일본 자본의 착취 대상이다. 20만 도민 중에 일본에 건너간 4만 노동자의 대부분이 몸담고 있는 대판”(『바람 타는 섬』, 219쪽)을 오가는 정기 연락선들이 갑작스레 요금을 크게 올리자 만여 명의 제주 노동자들이 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항의한다. 그러나 일본 자본은 그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이에 제주의 노동자들은 통항 조합을 결성해서

도통환이라는 연락선을 취항하며 일본 자본에 맞선다.

만여 명의 조합원이 단단히 결속되어 일으킨 이 자주운항운동이 도민 일반의 의식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민족의식, 계급의식이 극적으로 고양되고, 뭉치면 살 수 있다, 단결만이 강적과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평범한 진리가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다. 수십 명, 수백 명은 깨기 쉽지만 만 명이라는 숫자에는 적이 함부로 대들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에 재삼 확인되었다. 제주의 전통적 민란도 전도적인 봉기였을 때만 성공했듯이 규모 큰 싸움이 아니면 적을 이기지 못할 게 분명해졌다. 자주운항운동의 승리는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는 물론 삼일청년회 등 민족주의자들까지 망라한 협동전선의 산물이었다.(『바람 타는 섬』, 159쪽)

『바람 타는 섬』은 제주 잠녀항일투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자주운항운동처럼 제주에서 진행되었던 저항운동뿐 아니라 육지 주민들이 벌인 항일운동도 여러 차례 언급한다. 항일운동에 대한 강조는 제주 잠녀들의 투쟁을 항일운동사의 계보를 통해서 파악하려는 현기영의 태도를 보여준다. 동시에 전근대사회에서 중심과 변방으로 나뉘었던 제주와 육지 사이의 관계가 식민지라는 공통의 현실로 인해 결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 제국의 식민지라는 점에서 동일한 육지와 제주를 항일저항운동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민족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변방에 우짖는 새』에서 제주인들에게 오랜 시간 중앙에 의해서 탄압받아온 변방으로서의 경험, 즉 중심과 변방이라는 이질적 관계성이 핵심적인 경험이었다면 『바람 타는 섬』에서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재편된 한반도와 제주도의 관계는 이질정보다는 동질성이 강조된다. 제주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지역적 특수성이 아니라 식민지가 된 한반도의 보편성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지역들 사이의 공통적인 상황이 한 원인이겠지만 식민지 경제체제에 편입된 제주인들이 고

향을 떠나서 직접 확인하는 체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녀야, 우리 잡녀만 유별나게 못 사는 게 아니다. 이 울산 지방만해도 인구 절반이 객지 생활은 한다는 거라. 도회지로, 간도로, 일본으로 말이야. 우리가 야학에서 배운 그대로야. 울산만 아니라 조선 팔도가 다 그 모양이지. 일본 대판의 공장에도 우리 고향 사람보다 경상도 사람이 더 많다는걸 뭐. 여공 노릇이 물질보다 더 힘들고 돈벌이도 우리만 못하다고.” (『바람 타는 섬』, 211쪽)

제주를 출륙금지령의 여파로 고립된 지역으로 그렸던 『변방의 우짚는 새』와 달리 『바람이 타는 섬』은 한반도 전체가 식민지로서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동질적인 인식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는 일종의 민족적 체험으로써 공유되며 변방이었던 제주인들이 민족이란 관념 속에서 중앙과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육지와 제주를 하나로 묶는 민족적 체험이 제주의 전통적 경험들을 육지를 중심으로 한 민족사의 한 부분으로 종속시키는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민족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제주가 가진 항쟁의 전통을 저항의 근거로 소환한다. 제주공동체의 공동체주의적 전통이 식민지라는 근대적 위기에 대한 민족적 저항의 참조점 혹은 대안적 이상향으로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려는 모습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 현기영은 한반도의 주변부로 인식되는 제주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하려고 한다. 현기영은 “약 3개월에 걸쳐 연인원 1만 7천여 명이 참가” 한 “1930년대 국내 최대의 항일투쟁”이었으나 제주도라는 지역적 고립성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바람 타는 섬』, 394쪽) 잡녀투쟁을 민족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곧 잡녀항일투쟁이 계보적으로 놓여 있는 제주 항쟁의 전통을 변방의 지역적 특수성이 아니라 민족사에서 중요한 저항의 형식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다. “변죽을 쳐서 복판을 울리게 하는”²⁶⁴⁾ 현기영 문학의 전략은 민족 안에서 제주와 제주

264) 현기영, 2002, 173쪽.

전통의 위상을 재고하려는 노력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제주인들의 민족의식 획득이 육지와 제주가 동일한 식민지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식민경험의 공통성만큼이나 그에 대한 근대적 지식의 습득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4만 노동자가 겪는 참담한 노동 현실은 3백여 명의 전투적인 활동가를 양산해냈는데, 지금 그곳 노동 현장에서 급진주의자들이 분과 투쟁을 벌여 개량주의자와 아나키스트들을 제치고 대중 획득에 이니셔티브를 쥐기 시작했다는 소문이었다.(『바람 타는 섬』, 219쪽)

일본 제국의 식민지 경제체제의 하부에 종속된 제주인들은 경제적인 착취의 경험 뿐 아니라 저항의 방식도 근대적 지식 통해서 습득한다. 제주인들이 식민공간에서 근대적 노동자로 변화하는 경험은 그들 사이에서 근대적인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자가 출현하는 원인이 된다. 노동자로서의 경험뿐 아니라 식민공간에서 제국의 일원으로서 접근 가능해진 근대적 지식, 즉 유학을 갔다 온 근대적 지식인들의 등장도 제주가 민족의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바람이 타는 섬』은 제주잠녀들과 함께 저항의 주체로서 제주의 지식인들을 주목한다. 작품에서 잠녀항일투쟁을 지원하는 지식인으로 이호일, 김시호, 김시중이라는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각 당대의 중요한 정치적 노선이었던 사회주의, 아나키즘,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²⁶⁵⁾

이호일, 김시호, 김시중 세 사람의 제주 지식인들은 항일운동에 대해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념적 노선에 따라서 계획과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주의자인 이호일은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공화국의 건설을 주장한다. 아나키스트인 김시호는 제주

265) 홍기돈, 「근대 이행기 민족국가의 변동과 호모 사케르의 공간」, 『한국언어문화』 64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252~253쪽.

의 전통적 공동체주의를 아나키즘이 실현된 이상적 사회로 보고 제주공동체의 회복을 주장한다. 민족주의자인 김시중은 계급모순이 뚜렷하지 않았던 제주에서 계급투쟁의 실효성을 비판하고 동시에 제주공동체의 회복 역시 민족해방운동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김시중은 민족독립이라는 선결 과제를 위해서 다른 노선들 사이의 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왜곡·변조가 아니라 변용이지. 원전을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변용해야 쓰임새가 있지. 호일아, 급진적 강령을 표방했다간 일 벌이기도 전에 탄압되어 버린단 말이다. 청년동맹은 당분간 개량주의적 껍질이 필요해. 보호막이 있어야 돼!” (중략)

“형, 자치주의자들도 그 현실성 없는 똥고집 버려야 해. 제주 공동체의 회복은 제주인의 힘만으론 불가능해. 조선인의 총역량을 결집시킨 민족해방운동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거라고. 먼저 국권 회복해 놓고 계급 문제, 자치 문제를 해결해야지.” (『바람 타는 섬』, 156쪽)

현기영은 그들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상대의 주장을 비판하는 과정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면서 제주 사회에 당대의 저항적 지성들의 논의가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노선 갈등에도 불구하고 제주잠녀항일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제주의 전 도민들의 협력이 강조된다. 자주운항운동에서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는 물론 삼일청년회 등 민족주의자들까지 망라한 협동전선의 산물” (『바람 타는 섬』, 159쪽)이라는 점을 강조했듯이 공동체의 외부로서 일본에 대한 저항은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단결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동체의 단결이 김시중이 강조하는 민족적 필요성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잠녀들의 항일투쟁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김시중, 김시호, 이호일 같은 지식인들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계획했던 사회운동 대부분

이 일본의 탄압으로 무력화된 이후 제주 잠녀들이 새로운 투쟁의 주체로 전면으로 나선다. 잠녀들은 지식인들이 운영하는 야학에서 교육받고 그들의 지원을 통해서 투쟁을 준비하지만 민족 엘리트의 지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체로 볼 수는 없다. 그들의 의식화는 지식인들의 주장을 자신의 체험과 문화적 준거를 통해 이해함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객지 생활하면서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오른 집의 모습이였다. 그것은 가난한 집이라기보다 비천한 잠녀의 집이였다. 그전에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녀였다. 야학에서 ‘계급’, ‘신분’이란 말을 배우긴 했어도, 그것은 어렴풋한 관념에 불과했다.(중략-인용자)

그러나 정작 그녀에게 계급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실감시켜 준 것은 반 년간의 울산 물질이였다. 자본주 구로다의 부당한 착취와 학대에 못이겨, 마침내, 다른 잠녀들과 함께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을 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어리석은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 싸움은 그녀에게 비록 잠녀 개개인은 비천하고 무력하지만, 똘똘뭉쳐 조직화된 잠녀는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고귀한 집단임을 가르쳐 주었다. (『바람 타는 섬』, 321쪽)

근대적 지식인들은 저항의 주체들을 조직하고 그들이 현실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지식인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민족의식이 만들어지고 민중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민중의 자기 경험과 문화적 인식에 부합되는 사상과 이념적 접근만이 선택되는 것이다. 홍기돈은 『변방에 우짖는 새』에서 민란 지도자들의 판단이 민중에 의해서 선택되거나 배척당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민족주의 형성에 대한 근대 엘리트들의 역할과 한계를 설명한 앤서니 D.스미스의 논의를 빌려온다. 스미스에 따르면 민족국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지식인들의 입장은 자신들의

전거가 되어줄 특정한 역사의 사건/문화/제도를 선택하며 그것과 민중이 공명한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²⁶⁶⁾ 근대적 지식인들에 의해서 담론이 구성된다고 해도 민중이 호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족의식으로 정착할 수 없다. 제주 잠녀들은 육지에서 체험한 식민지 자본주의의 현실과 그에 맞선 공동체의 투쟁 경험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지식인들의 담론을 수용하는 것이다. 시중과 같은 지식인들은 잠녀들의 투쟁을 독려하면서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남자들에게 있으니” (『바람 타는 섬』, 325쪽) 탄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민중을 이끌고 항쟁을 책임지는 주체인 ‘장두’는 지식인들이 아니라 잠녀다. 여성 장두는 잠녀 뿐 아니라 제주의 농민과 지식인, 남성들까지 참여한 전 제주의 항쟁을 이끈다. 잠녀가 장두가 되어 이끄는 항쟁은 근대적 담론을 통해서 규정되었다고 해도 항쟁의 전통 위에 있다. 제주공동체는 근대적 저항의 담론을 전통적 형식을 통해서 실현한다. 이처럼 저항은 민중과의 공명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지식인이 민중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자의식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²⁶⁷⁾이다.

현기영은 저항의 주체로서 민중을 중심으로 제주 잠녀항일투쟁을 그려나간다. 근

266) 홍기돈, 위의 책, 256쪽. “전통들이 ‘발명’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족류-상징주의자들은 주민(그리고 특히 주도 족류공동체)의 대다수 사이에서 이전에 공명을 불러 일으킨 상징요소들만이 엘리트가 제안하는 민족의 정치문화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앤서니 D.스미스, 위의 책, 77쪽. 홍기돈, 위의 책, 256쪽에서 재인용.)

267) 홍기돈은 현기영이 『바람 타는 섬』에 등장하는 세 유형의 지식인 중에서 아나키스트인 김시호의 공동체주의를 은연중에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이 잠녀항일투쟁을 장두를 내세우는 제주의 항쟁 전통에 위치시키려는 서술 속에서 확인된다는 것이다. (홍기돈, 위의 책, 253쪽) 이러한 김시호의 공동체주의에 대한 현기영의 선호가 김시호 같은 유형의 지식인을 민중을 이끄는 주체로서 승인한 것은 아니다. 김시호가 자신의 아나키즘을 제주공동체의 전통과 결합해서 사유함으로써 공동체주의가 곧 제주공동체의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자산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시호에 대한 선호는 제주공동체의 전통으로서의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기영이 80년대 말엽에 쓴 「4·3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도 제주에서의 아나키즘 강세가 제주공동체의 풍토와 잘 맞아 떨어졌던 성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일제시 최대의 저항운동인 1931년의 잠녀(해녀)투쟁은 전통적 저항 양식에 급진사상이 접목되어 일어났다. 당시 도내 사회운동권에서는 민족주의, 불세비즘보다는 아나키즘이 더 큰 영향을 지니고 있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불세비즘과 겨루어 이미 패퇴해버린 아나키즘이 제주도내에 건재해 있었다는 것은 공동체 자치주의를 표방한 그 이념이 제주 공동체의 정신적 풍토와 잘 맞아 떨어진 때문이었다.” (현기영, 2004, 101쪽)

대적 지식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민중의 인식과 전통을 강조하는 방식은 한편으로 일종의 반근대적인 전통회귀의 태도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기영은 제주에서 항쟁의 주체인 민중이 왕조시대의 백성들과 다르며 식민지배라는 근대적 사건의 자장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획득한 것²⁶⁸⁾ 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보여주려는 듯 『바람 타는 섬』에서는 근대적 교육을 받기 위한 제주인들의 노력을 강조하는 장면이 여럿 제시된다. 잠녀들의 의식화 과정도 근대적 교육과 식민지 현실에 대한 그들의 체험을 통해서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잠녀들의 투쟁이 민족을 위협하는 식민지 권력에 대한 저항일 뿐 아니라 전통에서 여성이 겪어야 했던 차별에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전통적으로 남존여비 사상과 잠녀라는 신분 때문에 이중의 천대를 받아온 잠녀들이 권력에 도전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해녀조합 반대 투쟁에는 생존권 투쟁을 통한 반일 투쟁 외에도 신분의 족쇄를 깨뜨려버리는 인간 해방의 거룩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다. (『바람 타는 섬』, 323쪽)

현기영은 민중이 제주공동체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근대적 현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화한 것임을 보여준다. 중심인 육지와 주변부로서의 섬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통된 식민지 체험이라는 근대적 사건은 민족의식과 민중이라는 근대화된 관념을 구성한다. 근대적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에 의해서 민중의 인식은 근대적 공통의 언어와 의식을 구성함으로써 육지와 하나의 민족으로 재구성된다. 현기영은 여기에서 민중의 주체성과 제주공동체의 전통²⁶⁹⁾이 계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268) 현기영, 2002, 151쪽.

269) 권현익은 근대국가의 위협에 직면한 전통적 공동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의 요소를 근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권현익, 2016, 178쪽) 그는 근대화된 전통들은 근대국민국가가 만들어낸 일국적 차원의 민족 관념 안으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공동체가 끌어안을 수 없었던 타자들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도덕적 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권현익, 2013, 138쪽)

보여주려고 했다. 이를 통해 민중이라는 새로운 주체의 저항으로 재규정된 제주공동체의 항쟁 전통은 육지의 민족주의로 일방적으로 수렴되는 대신에 민중의 저항을 설명하고 실현하는 고유한 형식으로 인정받는다. 현기영이 역사소설을 통해서 제주항쟁 전통을 보여주려는 작업이 4·3항쟁이 놓인 역사적 계보를 규명하려는 작업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제주의 항쟁이 민주화운동에서의 민중 담론과 결합했다는 점은 중요성을 가진다. 좌익의 봉기로 규정되었던 4·3항쟁이 반공국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항 담론이었던 민주화운동과 결합하는 연결고리가 그의 역사소설에 의해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3.3 민중이라는 새로운 관계

현기영은 1980년대에 『변방에 우짖는 새』와 『바람 타는 섬』과 같은 역사소설을 통해서 제주 4·3항쟁을 민중항쟁의 역사적 계보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다. 중심부인 육지와 변방인 섬이라는 역사적 경계선은 식민지배라는 공통의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형성된 민중이라는 새로운 주체는 제주가 가진 항쟁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육지와 하나의 민족이라는 새로운 관계성을 구성한다. 민중과 항쟁의 전통 사이의 연결고리가 가진 중요성은 4·3항쟁의 역사적 맥락을 반공주의적 규정에서 탈각시키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과 결합하게 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제주 4·3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운동에 나선 이들에게 민주화운동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87년의 6월항쟁 이후 4·3진실회복운동이 조직화 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인력과 역량이 이들을 지원했다.²⁷⁰⁾ 제주 4·3항쟁의 복권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민주화운동의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항쟁’이 가지는 의미

270) 김영범, 위의 책, 75~78쪽.

를 반공국가에 저항하면서도 그 반대편에 선 좌익의 논리로 회수되지 않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이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 민주화라는 가치와 그것을 달성하는 역사적 주체인 민중이다. 제주의 항쟁 전통이 민중항쟁의 역사적 계보 위에 서게될 때 제주 4·3항쟁은 민주화운동이 놓여 있는 역사의 계보 앞자리에 놓이게 된다. 민주화운동을 포괄하는 민중의 저항으로 의미화된 제주 4·3항쟁은 제주인들을 반공국가가 제거하고자 했던 ‘비국민-빨갱이’가 아니라 반공국가의 폭압에 맞서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저항하는 주체, 즉 민중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반공국가의 탄압의 근거였던 4·3항쟁이 새롭게 의미화되면서 희생된 이들을 복권하는 근거가 되어준 것이다.

전통적으로 도민의 배타성이란 섬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생존양식이었다. 그러므로 40년 전의 4·3항쟁을 이데올로기적 도전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전통적인 섬공동체의식을 도외시 한 채 섬 남정네라면 무조건 한테 싸잡아 불운시한 것이 그 비극의 진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앙과 변방의 전통적 갈등관계를 먼저 염두에 두었어야 했다. 부패한 행정, 과다한 세 징수, 육지 장사치들의 농간 등 이 사태의 발단이었던 것이다.²⁷¹⁾

현기영은 민중이라는 주체를 발견함으로써 제주의 항쟁을 민주화운동과 결합하고 4·3항쟁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제주인들의 사회적 인정 근거를 확보한다. 그런데 이런 현기영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호명이 곧 민주화라는 가치에 제주의 전통을 편입시키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었다. 『바람 타는 섬』의 김시호가 아나키즘이라는 근대적 지식을 통해서 제주공동체를 설명하면서도 제주의 공동체주의가 사상에 선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현기영 역시 민주화를 제주공동체의 가치체계 속에서 파악한다. 그는 4·3항쟁이 이데올로기적인 원인보다는 섬공동체가 자신을

271) 현기영, 2004, 146쪽.

보호하기 위한 생존양식이 더 크게 작용한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자기방어 수단으로서 민중항쟁이 가지는 의미는 제주 4·3항쟁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전기간에 걸친 민주화운동은 외세와 독재 권력의 억압으로 왜곡된 개인과 민중의 얼굴을 되살리려는 정체성 회복의 자정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욕의 과거를 청산하여 사물들이 제대로 보이는 대자적 자아로 새롭게 태어나려는 몸부림이었다. 민중사관이 정립되고 공동체의 과거 역사와 전통문화가 재발견·재평가되었다.²⁷²⁾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마당극이나 무속과 같은 문화적 전통은 당대의 저항과정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²⁷³⁾ 현기영 역시 마당극 「일식풀이」를 창작하는 등 당대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활발했던 전통의 활용에 동참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민족 전통이 가지는 의미를 ‘공동체주의’라는 틀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는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다른 한편으로 공동체 복원 운동”²⁷⁴⁾이었다고 평가한다. 반공국가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외세의 위협과 독재로 위협받은 공동체의 자기방어로 보는 것이다. “자유·평등·박애·사회정의·이상”과 같은 민주화의 주요한 가치들을 “공동체의 덕목”으로 규정하면서²⁷⁵⁾ 근대적 지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그에 선행했던 공동체주의의 현대적 재현으로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바람 타는 섬』에서 제주 4·3항쟁의 공동체주의를 설명하는 방식과 흡사하다. 현기영이

272) 현기영, 2002, 154쪽.

273) 이남희, 위의 책, 299~337쪽 참조.

274) 현기영, 2002, 193쪽.

275) 현기영, 2002, 193쪽.

공동체주의를 민주화의 핵심적 가치로 주장함으로써 민중 항쟁의 역사적 계보를 통해서 연결된 제주 4·3항쟁과 민주화의 관계는 역전된다. 민주화의 가치가 항쟁을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쟁이 민주화의 의미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항쟁의 전통과 민주화의 관계에 대한 현기영의 인식은 반공국가에 대항하는 핵심적 담론이었던 민주화를 사회적 인정의 근거로 삼아서 4·3항쟁을 복권하려는 일방적인 구원의 구도를 설정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이 4·3항쟁을 민중의 이름으로 소환하고 복권하는 것이 아니라 항쟁의 전통을 이루는 역사적 계보 위에 민주화운동이 기입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심부였던 육지의 관점에서 주변부에 불과한 제주가 항쟁 전통의 오랜 역사를 가짐으로써 민주화운동이라는 새로운 민중항쟁의 대등한 일원으로 함께한다. 민중항쟁의 역사적 계보를 통해서 제주공동체는 주변부 혹은 사회적 인정을 제공받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는 주체, 민주화운동의 민중이 된다.

1987년의 6월 항쟁에 대한 현기영의 중편 「위기의 사내」는 민중으로써 민주화운동에 연대하는 제주공동체의 시선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위기의 사내」는 현기영의 자전적 소설로 6월 항쟁의 치열했던 시위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 학교를 나선 고등학교 영어교사이자 소설가인 ‘한기웅’의 하루를 따라가는 작품이다. 소설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에서 한기웅은 시위에 교사들이 동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퇴근 시간을 늦춘 학교의 방침을 어기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학교를 나선다. 그는 학교의 감시와 통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섰으나 속으로는 초라한 소시민이 된 자신에 대한 환멸의 감정을 품고 있다. 반골 기질로 부당한 제도와 충돌해온 그였지만 이제는 학교에서도, 그의 소설에서도 싸움에 지쳐버렸다.

난 저번 학교를 떠나오면서 다시는 총대 메는 내무실 선임하사 노릇을 안할 작정이었어. 내가 늙어서 그런가. 내 글도 싸움꾼의 투지만만한 글이어야 하는데, 웬일

인지 이제는 싸움이 싫어졌어. 싸우긴해야 되겠는데, 완전히 전의상실이야. 싸움을 못하는 늙은 싸움꾼. 기껏 골방에서 술 취해 악악떨 뿐이지. 내 마빡에 찍힌 낙인은 이제는 나의 허상일 뿐이야.(「위기의 사내」, 209쪽)

지치고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한기웅의 환멸은 젊은 혈기를 잃고 점차 노년으로 접어 들어가는 그의 육체 때문만은 아니다. 한편으로 상처 입고 망가져 가는 육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체의 상처를 남긴 사건이 가져온 정신의 응혈이 더 큰 원인이었다. 고향인 제주의 비극적이던 4·3항쟁의 참상에 대한 소설을 집필한 한기웅은 그로 인해 필화사건을 겪는다.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한 그의 몸은 풀리지 않는 응혈로 검푸르게 물들었지만 처참한 몰골로 무감각한 기계 같은 기관원들 앞에서 텅굴어야만 했다는 모멸감과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느낀 무력감이 남긴 정신의 상처에 비할 것은 아니었다. 그 사건 이후 한기웅은 지치고 소극적인 인간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나 그가 과연 다시 일 저지를 만한 ‘우범자’였을까? 그는 피하조직에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응혈 상처를 가진 불구자였다. 그가 맞은 매의 효과는 정확했다. 글쟁이로서 그는 예각이 멎어버린 두루뭉수리가 되어버렸다. 아무리 눈을 홉뜨고 펜대에 힘을 쥐보지만 멎든 감수성으로는 힘찬 글을 써낼 수 없는 노릇이었다.(「위기의 사내」, 233쪽)

소설가로서 현실에 맞서던 그는 모멸감과 무기력감에 무너져 내린다. 그는 문학의 전위성·전향성을 이야기하는 젊은 문인들 앞에서 문학의 말석도 나름의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고 변명처럼 말하는 도피주의자가 되어간다. 그의 말석론은 본래 변방의 반골로서 한기웅의 기질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점차 정신의 상처가 남긴 허탈감을 변명하기 위한 말이 되어간다. 그렇게 세상 앞에 웅크린 무기력한 삶의 전환

점으로 87년의 6월이 찾아온다.

봄의 선구자 종달새처럼 시대의 어둠을 뚫고 세차게 솟아오른 종철의 푸른 녀, 그의 사십구재에 벌어진 대행진 이후 석달 사이에 산발적으로 부딪치던 항쟁의 무리는 눈덩이 분듯 불어나 거대한 에너지로 성장했다. 오늘의 대행진은 깨느냐 깨지느냐, 한판 승부의 대회전이 될 것이란다. 말과 글, 이론과 상상으로만 존재하던 역사의 전환기가 시방 구체적인 모습으로 저 거리에 나타나 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리, 도시는 지금 저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자기를 쇄신하여 새로 젊어지고 있는데, 내가 갱년기의 무기력에 사로잡혀 속절없이 늙어만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기의 사내」, 235쪽)

억울하게 죽은 고향의 영혼들을 신원(伸冤)하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과도 멀어지면서 고립되어가던 기웅의 응어리진 분노는 것처럼 반공국가의 폭력에 희생된 이들과 함께할 때, 맞서 싸울 위력을 갖는다. “분노는 분노끼리 어울려 유유상종해야만 비로소 파괴력을 갖” (「위기의 사내」, 235쪽)을 수 있기에 그는 반공국가에 맞서는 시민의 대열에 합류하고자 한다. 반공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의 연대는 그들이 겪는 고통이 하나의 계보로 묶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공분실로 끌려갔던 한기웅은 고향의 비극적 사건을 소설로 쓰게 된 이유가 “금기를 덮어두면 들수록 역사는 전철을 되풀이할 뿐 한치도 발전 못”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진실을 밝히려는 그를 위협한 반공국가에 의해서 “그 역사의 전철이 바로 그해 5월 광주에서 되풀이되고” (「위기의 사내」, 232쪽)만다. 기웅에게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은 제주 4·3항쟁이 겪었던 고통의 연쇄 위에 놓여 있다. 제주 4·3항쟁의 고통을 겪어온 이에게 광주의 주검을 겪어온 민주화운동은 같은 아픔을 가진 연대의 대상이며, 그들과 함께함으로써만 무기력한 고립을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제주가 중심의 인정이 필요한 변방이기 때문이 아니

라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함께 나아갈 때 어두운 현실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의 사내」 2부에서는 시위행렬에 참여한 기웅이 민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반공국가의 억압에 맞설 의지를 되찾아 끝내 승리할 때까지 함께하리라는 다짐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위기의 사내」는 제주 4·3항쟁의 억울한 죽음과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이들, 그리고 그 죽음을 짊어지고 반공국가에 맞서는 이들을 항쟁에 주체인 민중으로 통합한다. 현기영의 역사소설이 획득하려고 하는 민중으로서의 자각은 민주화운동과의 연대를 통해서 구체화 된 것이다. 현기영에게 민중은 역사의 주체일 뿐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원이다. 그는 제주의 역사를 민중항쟁의 역사로 통합함으로써 제주공동체를 더 지역적 경계가 아니라 역사적 계보를 통해서 구성한다. 이를 통해서 제주공동체는 제주 밖의 이들, 육지의 민중을 향해서 개방되어 그들과 연대한다. 외부의 타자를 구성원으로 포함하기 위한 공동체의 열림은 「순이 삼촌」을 비롯한 그의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순이 삼촌」과 같은 초기 단편들에서 재현된 제주공동체는 반공국가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육지에서 온 진압군과의 결혼을 통해서 혈연관계를 맺는다. 육지의 진압군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가족공동체가 제주 4·3항쟁의 기억을 교환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담론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순이 삼촌」은 비교적 긍정적인 사례에 속한다. 반면에 「해룡 이야기」는 생존을 위해 맺은 진압군과의 관계가 가족공동체가 훼손되는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룡 이야기」의 경우처럼 제주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육지에서 온 타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4·3항쟁으로 경험한 공동체의 위기를 항구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스팔트」에서 제주에 정착한 진압군인 임 주임이 반공국가의 가해의 구조를 재생산하면서 주민들 위에 군림하듯이 육지에서 온 성원은 반공주의가 만든 위계를 제주공동체에 뿌리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공국가의 그림자를 공동체에 드리우는 그들의 존재로 인해서 국민으로 인정받는 일이 공동체 성원들에게 중요한

생존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전쟁 참여를 통해서 국민임을 인정받은 「아스팔트」의 창주가 끝내 육지의 반공국가에 맞설 수 없었던 것처럼 반공국가의 일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공동체가 처한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현기영의 역사소설이 가지는 중요성은 민중이란 저항 주체를 통해서 제주공동체가 반공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면서도 그에 맞설 연대의 대상들과 만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민중이라는 일종의 민족적 상상이 폐쇄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위기에 직면한 이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공동체의 구조를 재구성한다. 권현익은 전통적인 공동체가 성원들 사이의 계보적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전쟁과 같은 근대적 충격을 겪게 될 때 친족의 도덕성이 광범위한 시민적 결속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한다.²⁷⁶⁾ 전통적인 공동체의 성원됨을 보장해오던 질서가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주권 권력의 위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새로운 도덕적 결속이 가능하도록 확장된다는 것이다. 제주 4·3항쟁 이후 제주공동체를 이루는 성원인 민중이라는 주체는 반공국가의 위협으로 인해서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졌던 전통적 공동체의 성원됨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 그리고 이 민중의 민족주의는 한반도 이남을 지배하는 근대국민국가인 반공국가에 저항하는 연대의 중요한 축이다.²⁷⁷⁾

항쟁 전통의 계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민중이라는 주체는 전통 공동체와 시민사회로서 민주화세력이 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주체들 사이의 인접성을 창출한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국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일종의 사회화, 즉 주권 권력의 사회공학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도덕적 원천은 근대적인 사회화의 과정이 아니라 “전체 사회적the societal이 아닌 사회적the social 영역”, 즉 “공존, ‘타자와

276) 권현익, 2016, 177~178쪽.

277) 권현익은 근대적 충격에 맞서 재구성된 전통 공동체를 퇴보적인 문화현상이 아니라 국가로 인한 사회의 충격을 관리하는 시민사회의 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권현익, 2013, 121쪽) 그는 망자의례가 민주화를 이끈 정치세력과의 사회적 연대의 과정으로 작동하는 제주의 사례를 주목한다.(권현익, 2013, 129쪽) 본고에서는 현기영의 소설이 만든 민중 주체를 통한 제주공동체와 민주화운동의 연결이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한다.

함께 있음’의 맥락”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⁷⁸⁾ ‘타자와의 함께 있음’은 공동체가 외부자를 향해서 열려 있는 개방성이자 사회에 대한 주권 권력의 독점을 해소하는 다원화의 길이기도 하다.²⁷⁹⁾ 사회를 (반공)국민과 ‘비국민-빨갱이’로 분할한 반공국가에 맞서 민중이라는 역사의 주체를 내세우는 민주화운동은 사회를 다원화하면서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새로이 구성하는 저항의 계보 위에 놓여 있다. 특히 민중을 통해서 제주공동체를 민주화운동에 개방한 현기영은 타자를 수용함으로써²⁸⁰⁾ 공동체를 윤리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한다.

단편 「목마른 신들」은 제주 4·3항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씩김곳을 하는 심방의 시선을 통해서 제주공동체 안에 자리한 상처들을 더듬어간다. 「목마른 신들」의 심방의 경험 중에는 제주 4·3항쟁 희생자의 원혼이 들린 소년의 이야기가 나온다. 소년에게 붙은 원혼은 제주 4·3항쟁 중에 토벌대에게 살해당하고 그동안 홀 어머니가 차린 제삿밥을 먹어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모자를 위한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는 소년을 괴롭히지 않을테니 대신 그 가족이

278) 지그문트 바우만, 위의 책, 299쪽.

279) 그는 ‘사회적the social’ 관계라는 인간의 근원적 관계맺음을 주목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복원하는 일 역시도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한다.(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64쪽) 도덕성의 원천으로써의 ‘사회적the social’ 관계와 도덕에 대한 규제으로써 ‘전체 사회적the societal’인 사회화를 폭력적 행위를 추동하는 사회공학에 맞서는 두 개의 동력으로 설정하는 모순적인 태도는, 사회적 다원성이라는 틀로써 종합된다. 그는 권위에 대한 복종과 폭력수행에 대한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을 폭력을 수행하게 하는 사회화의 문제를 이해하는 전범으로 삼았다. 밀그램의 시험은 권위가 독점되고 폭력 수행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커지고 책임이 분산될 때, 폭력적 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스탠리 밀그램, 『권위에 대한 복종』, 에코리브르, 2009, 141~163쪽) 바우만은 밀그램의 실험을 검토하면서 사회적 권위의 경쟁상태에서 촉발되는 사회·정치적 소란스러움으로써의 ‘다원주의’가 개인의 도덕적 충동을 억제하는 사회화를 막을 수 있는 주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277~278쪽) 즉 ‘타자의 함께 있음’이라는 ‘사회적the social’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복수의 사회적 전망과 사회적 권위들을 형성하는 것이 주권 권력의 독점적인 ‘원예사의 전망’에 맞서는 다원적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인 것이다.

280) 바우만은 ‘타자와의 함께 있음’의 문제를 레비나스의 철학에 기대서 사유하려고 한다.(바우만,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304~305쪽) 그러나 타자를 사유하는 레비나스의 철학은 유대교의 선형적 논리를 윤리적 실천의 차원으로 드러낸다는 점(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문예출판사, 2009, 62~63쪽)에서 기성의 체계를 흔들고 변형시키는 타자의 근접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인간적 근접성에 의해서 기성의 공동체의 논리를 동요시키는 타자의 모습은 레비나스적인 ‘무한자으로써의 타자’보다 오히려 알프레드 슈츠가 공동체에 이질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편입됨으로써 집단의 ‘자연적 태도’를 교란시킨다고 말한 이방인 개념에 가깝다.(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 글항아리, 2014, 93쪽.)

자기 가족을 위해 제사를 지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특별대로 왔던 서칭 출신인 소년의 할아버지는 빨갱이 귀신을 모실 수는 없다며 이를 거부하다가 손자의 목숨 때문에 결국 원혼굿을 받기로 한다.

환자 아이도 열입곱살, 그 몸에 범접한 영신도 열일곱살이고, 나도 사태 당시 그 나이 무렵이었다. 묘한 우연이었다. 아마도 망인은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그랬듯이 항쟁 쪽에 가담했을 것이고, 나는 저승차사들을 태운 서칭 차를 몰아야 했고, 환자 아이 또한 제 조부의 업보를 통해 4·3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중략-인용자) 다시 말하거니와 4·3의 원혼은 남은 유족의 통함으로써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외톨이가 아니라 수만의 무리로서 존재했다. (「목마른 신들」, 96쪽)

제주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모두 4·3의 상처를 앓고 있다. 육지의 특별대도, 그들에게 동원된 제주인도, 그들에게 쫓긴 이들도,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까지 그 참혹한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공동체는 그 모든 ‘섬 백성’ 들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망자 해원을 이루어야 한다. 희생된 원혼의 제사를 지내게 된 특별대의 가족은 제주공동체가 타자를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잃은 원혼들을 다시 복권하고 이를 위해서 공동체 성원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수만의 원혼이 떠도는 상황에서 개개의 가족들을 이어주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백조일손, 그 얼마나 좋은 말인가. 아무렴, 4·3조상은 그렇게 모셔야지. 내 조상 네 조상 구별 말고 섬 백성이 모두 한 자손이 되어 모셔야 옳았다. (중략-인용자) 한낱한시에 죽은 원혼을 진혼하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아니 온 섬 백성이 한 자손이 되어 한낱한시에 합동으로 공개적으로 큰굿을 벌여야 옳다. 바람길 따라 구름길

따라 무리 지어 흐르는 수만의 군병들, 전대미문의 가장 억울한 죽음이기에 가장 영험 있는 조상신으로서 우리를 보우해줄 것이다. 어허, 백조일손, 얼마나 좋은 말인가. 덩지덩지 덩덩 덩더꿍.(「목마른 신들」, 99쪽)

백조일손, 제주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 희생된 이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복원한다. 항쟁의 전통을 통해서 제주와 육지를 민중이라는 주체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현기영의 소설은 백조일손의 문학적 구현으로 보아야 한다. 제주 4·3항쟁이 제주만의 사건이 아니라 반공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반도 전역이 겪은 근대적 폭력이라고 한다면, 제주와 육지의 죽음이 따로 구분될 수 없다. 반공국가에 의해서 희생된 이들의 죽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복권하는 일은 (반공)국민과 ‘비국민-빨갱이’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민중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는 일이다. 이 백조일손의 문학적 구현이 제주 4·3항쟁을 견디어내려고 했던 현기영의 소설이었다.

제4장 김원일 소설의 국민되기과 국가선택

4.1 잊어야 하는 혹은 수정된 아버지의 기억

김원일은 수십 년간 여러 작품에서 고향 진영읍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어둠의 혼」과 『노을』, 『불의 제전』은 김원일의 고향인 진영읍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겨울 골짜기』에도 그의 아버지를 모티프로 한 것으로 보이는 좌익 지식인인 ‘김익수’가 등장한다. 이외에도 그의 초기작 중에 「갈증」, 「여름 아이들」 같은 작품이 진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미망」, 『마당 깊은 집』 등에서 사라진 좌익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들의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아버지와 고향에 대한 김원일의 소설은 최근까지 계속되어서 2013년에는 또 다른 자전소설인 장편 『아들의 아버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고향과 아버지에 대해서 김원일이 쓴 소설들이 시기에 따라 사건의 내용과 아버지를 모티프로 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을』에서는 폭력적인 좌익으로 아버지가 그려지는 데 반해 『겨울 골짜기』의 김익수는 회의주의적인 사회주의자 지식인으로, 『불의 제전』의 조민세는 굳건한 사회주의 신념을 가진 지식이자 혁명가로 그려진다. 그리고 한 작품 안에서도 개작 시점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 『노을』의 1997년 개정판에서는 초판에 비해 아버지의 잔혹성과 그에 대해 아들 ‘김갑수’의 피해의식이 상당 부분 감소한다. 『불의 제전』에서도 조갑세와 좌익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정판에서는 일부 변화하고 『겨울 골짜기』의 김익수의 태도도 개작과정에서 바뀐다. 아버지에 대한 김원일의 형상화는 시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의 사상인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도 변해간다.

김원일의 소설에서 아버지에 대한 평가만큼이나 김해시에 속해 있는 그의 고향

진영읍의 지역사에 대한 재현이 변해가는 과정도 주목해야 한다. 김원일이 오랜 시간 천착해온 한국전쟁과 분단의 문제를 고향과 가족사를 통해서 정면에서 응시한 대작 『불의 제전』은 의도적으로 1948년에서 1950년까지의 지역사를 195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한정된 기간 안에 압축해서 보여주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실제 사실에 가깝다. 진영일대의 활발한 좌익활동과 토지개혁을 둘러싼 갈등, 김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발했던 야산대 활동²⁸¹⁾과 국민보도연맹학살사건 등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진영읍의 지역사에 충실하다. 이에 반해 1970년대에 발표된 「갈증」, 『노을』에서는 진영의 지역사, 특히 군경과 우익에 의해서 자행된 폭력이 휩쓴 지역사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특히 1948년의 진영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했다는 가상의 좌익봉기를 다룬 『노을』에서는 수백명의 지역주민들이 희생된 한국전쟁기를 비교적 평화로웠던 시기로 그리면서 좌익세력에 의해서 큰 화를 겪었던 것으로 묘사한다.

「 그랬지. 육이오 때 여기까지야 인민군이 못 내리워서 우리사 전쟁 구경도 못 했지마는, 전시가 따로 있겠나. 그놈들 폭동은 전쟁터보다 더한 난장판이었으니깐. 그래도 폭동을 가라앉추자 서슬퍼런 검산가 판산가 부산서 와가꼬 잡은 놈들을 추달하고, 아, 또 그 있잖는가베, 배주사 아들 배판사도 잔치 때문에 서울서 내리와 있던 참이라 한몫 거들고 해서, 폭동에 가담했던 놈들을 뽑아냈으이께. 」 (『노을』, 1978년, 240쪽.)

그런데 이렇게 지역사를 극렬하게 변주한 『노을』이 1997년의 개정판이 발간될 때, 좌익봉기에 선행했던 군경의 잔혹한 진압에 대한 서술이 추가된다. 본격적인 분석은 뒷장에서 진행할 것이지만 군경의 잔혹성에 대한 진술이 추가됨으로써 ‘추서방’에게 일방적으로 도덕적인 질타를 받던 ‘김삼조’가 군경의 폭력에 대한 대응

281) 홍순권, 배병욱, 위의 책, 90~91쪽.

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등한 대화로 변모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갑수’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잔혹성이 개작 이후 완화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개작을 통해 지역사와의 차이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함께 감소하는 것이다. 『노을』 초판에서 두드러진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좌익 아버지에 대한 묘사는 반공국가가 구축한 극도로 폭력적인 ‘빨갱이’ 이미지와 흡사²⁸²⁾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소설 속 아버지의 이미지는 1978년판 『노을』 이후 변화되는 과정은 반공국가의 ‘빨갱이-비국민’ 이미지로부터 아버지를 복권시키는 과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김원일이 반공국가가 만들어낸 국민과 ‘빨갱이-비국민’이란 경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그의 소설 속 아버지와 고향의 재현에서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보고 그 변화의 과정을 검토해볼 것이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어둠의 혼」과 『노을』의 초판을 중심으로 김원일이 아버지와 고향의 문제를 초기에 어떻게 형상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둠의 혼」은 고향과 아버지에 대한 김원일의 문학적 천착의 출발점으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은 『불의 제전』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어둠의 혼」에서 김원일과 김원일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인물은 각각 조갑해와 조민세로 『불의 제전』에서도 동일한 이름으로 등장한다. 『불의 제전』에 등장하는 태평양 전쟁에서 한쪽 팔을 잃은 회의주의자 지식인인 ‘심찬수’와 동일한 인물인 ‘찬수’도 「어둠의 혼」에 등장한다. 「어둠의 혼」에서 갑해를 보호하는 이모부는 『불의 제전』에서는 양심적인 전통 지식인인 ‘안시원’으로 등장한다.²⁸³⁾ 아버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조갑해의 어머니가 지사로 끌려가서 수난을 당한 것 역시 『불의 제전』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단편 「어둠의 혼」이 대하소설 『불의 제전』

282) 김득중, 위의 책, 402~405쪽.

283) ‘안시원’의 모델이 되는 인물은 실제 김원일의 이모부인 이인택이다. 그는 김원일이 서울에서 돌아와 가족과 떨어져서 진영에서 지내는 동안 그를 보살피주며 큰 영향을 끼쳤다. 김원일의 이모부는 「어둠의 혼」에서는 이모부, 『바람과 강』에서는 주인공 이인택, 『불의 제전』에서는 안시원의 모델이 되었다. (『아들의 아버지』, 21쪽)

의 원형이었던 셈이다. 「어둠의 혼」의 모티프가 된 유년기의 사건이 그에게 강렬한 체험으로 남았고 그로 인한 아버지의 잠적과 가족의 서울 이주가 『불의 제전』의 공간적 배경설정에 영향을 끼쳤다. 「어둠의 혼」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1948년 가을에 남로당 활동으로 인해 수배되었던 김원일의 아버지 김종표가 김해지서 경찰들에게 체포된 일이다.(『아들의 아버지』, 215쪽) 아버지가 경찰에게 살해당한 「어둠의 혼」과 달리 김종표는 이인택이 평소에 친분이 있던 CIC요원을 통해서 풀어주고 이후 잠적하여 서울로 올라간다. 『불의 제전』에서는 빨치산 유격대를 이끌던 아버지 ‘조민세’가 전황이 불리해지자 서울로 올라가 남로당 서울지부에 합류하고 그의 가족은 안시원의 도움으로 서울로 도피한다.

「어둠의 혼」에서 소설의 초점화자인 갑해에게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인물이다. 갑해는 아버지 조민세가 읍내 지서에 붙잡혀서 총살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에 슬퍼하지만 아버지 개인을 잃었다는 슬픔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가족이라는 관계를 잃게 되었다는 대서 오는 슬픔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가족의 곁을 비우고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아버지, “모두 쉬쉬하며 두려워하는 그 일에 아버지가 왜 발벗고 나서서 뛰어들게 됐는지 나는 그 내막을 모”(「어둠의 혼」, 214쪽.)르기 때문에 그를 이해할 수 없다. 갑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모두가 쉬쉬하며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뒤에 가족들이 겪은 수난과 위기뿐이다. 어머니는 ‘사상에 미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지만 아버지를 찾아내려는 경찰들에 붙잡혀서 지서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며 위태롭게 살아간다. 갑해 역시 빨갱이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아버지의 죽음이 갑해에게 그동안 가족이 겪어왔던 위기가 이제는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안도감으로 다가오는 건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순경들이 집 안으로 밀어닥치지 않을 거였다. 숨어 다니던 아버지가 수산리 장터에서 순경에게 잡혔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곧 총살당할 것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면, 사람들은 우리집을 빨갱이집이라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의 혼」, 218쪽)

갑해에게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고 가족이 겪는 고난만이 아버지에 대한 가장 선명한 기억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직후 갑해는 장자로서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에게는 어떤 책임이 뒤따를지 에 대한 불안이 뒤따른다. 어머니에게 이모가 내어준 양식 자루에 안도하고 국밥으로 배를 채우며 여유를 찾는 갑해의 모습에서 가족의 생계에 대한 소년의 무거운 책임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가족에게 고난이 뒤따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집을 비웠던 아버지의 무책임한 모습과 대비된다. 갑해가 지서에 간혀 있을 아버지를 다시 생각한 때가 가난과 배고픔의 불안을 조금 진정시킨 뒤인 것은 아버지가 가족의 고난과 동일시 되어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존재를 가족이 겪는 고난과 가난을 통해서 인식하는 방식은 「미망」에서도 반복된다. 「미망」에서 아버지는 해방 이후 좌익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쫓기다가 “머신 법(국가보안법-인용자)이 새로 생기서 자수하지 않는 빨갱이는 못지리 잡아 영창에 처넣고, 그중 악질은 총살시킨다”(「미망」, 130쪽)는 상황이 되자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다. 전향자 단체인 보도연맹에 가입했으면서도 지서가 모르게 좌익 활동을 계속했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일주일 만에 사라져버린다.²⁸⁴⁾ 「미망」은 좌익 활동을 하느라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들의 곁에서 사라져버린 아버지로 인해서 고통받은 어머니와 할머니가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지 못하고

284) 「미망」은 김원일의 소설 중에서 국민보도연맹이 언급된 첫 사례이다. 작중에서 국민보도연맹원이었던 아버지가 한국전쟁 일주일 후에 사라진 일을 두고 어머니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해 할머니는 복으로 가서 살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작중에서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는 아버지의 실종에 대해서 김원일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반공국가의 학살에 대해서 김원일은 1950년대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으로 이백 여명의 희생된 진영읍의 분위기와 1955년에 어머니를 찾아온 국민보도연맹원의 미망인의 사례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망」 이후에 출간된 『겨울 골짜기』(1987)에서는 주인공격인 문한돌 일가가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가족을 잃기도 한다.

계속 이어간 고부갈등이 할머니의 쓸쓸한 죽음으로 끝을 맺는 과정과 그 원인이 된 가족의 상처를 다룬다. 지서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이후 가족의 생계를 혼자서 책임져야만 했던 어머니의 고통과 죽을 때까지 아들의 ‘보도연맹 가입증’을 품고서 살아간 할머니의 그리움은 전면에 부각되지만 아버지는 단지 그 고통의 원인으로서만 언급된다. 아버지는 전향자로라도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던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라진 인물일 뿐이다. 아버지로 인한 가족의 수난, 특히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폭력과 가난은 1980년대에 연재된 『불의 제전』에서도 중요한 사건들로 제시된다.

아버지가 가족의 위기를 통해서만 인식되는 것이 아버지만의 책임은 아니다.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빨갱이라는 게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가족을 위협하고 마을 사람들은 사상에 미친 빨갱이인 아버지와 그 빨갱이의 가족에 대해서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다. 지역의 지식인인 ‘찬수’는 술에 취해서 극좌와 극우가 반목하는 세상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조민세가 “해방된 마당에 동포 손에 개값도 못하고” (『어둠의 혼』, 227쪽) 죽게 된 처지라면서 한탄할 뿐이다.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 누구도 말을 하지 않으므로 갑해가 그 원인을 알게 되는 일은 미래의 어떤 순간으로 계속 유예될 뿐이다.

아버지는 무슨 죄를 졌기에 왜 도망만 다니는지 알 수 없다. 빨갱이란 얼마나 나쁜 사람이기에 잡기만 하면 총살시키는지, 나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재작년 가을, 밀양 조선모직회사에서 번진 노동자 폭동이 있고부터 순경들이 눈에 불을 켜고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빨갱이 짓을 하면 무조건 죽인다고, 빨갱이 짓을 하려면 솟제 삼팔선을 넘어가야 마음놓고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사람들이 쉬쉬하며 소곤거린다. 그런데 아버지가 왜 그런 일에 나서게 되었을까에 대해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나도 나이 들면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달같이나, 닭이나에

대한 질문에서 아버지가 대답한 답을 깨칠 때쯤이면, 나도 그 모든 진상을 알게 될 거였다.(「어둠의 혼」, 227쪽.)

아버지가 붙잡혀 있는 지서로 찾아간 갑해는 경비를 서고 있는 의용경찰대원으로부터 이미 총살이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먼저 지서를 찾아온 갑해의 이모부는 그를 지서 안으로 대려가서 죽은 조민세의 시신을 마주 보게 한다. 이모부는 갑해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한다.

시신은 정강이부터 머리까지 가마니에 덮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이모부님 허리르 잡는다. 온몸이 떨린다.

「이거다. 이기 니 아버지 시신이데이. 똑똑히 보거라. 이렇게 죽었으이께 앞으로는 아버지를 절대 찾아서는 안된다. 인자 알겠제?」 이모부님이 내 손을 놓더니 가마니를 뒤집는다.(「어둠의 혼」, 235쪽)

유학을 배운 전통적인 지식인이었던 이모부도 갑해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했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갑해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확인시킴으로써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아버지를 찾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으려고 할 뿐이다. 이모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갑해의 수수께끼를 해결해주는 대신에 그가 아버지의 문제를 파고들지 않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존재가 결국 가족의 고난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존재를 지워내야만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삶에 대한 모든 질문은 미래의 어떤 순간으로 유예되고 “집안을 떠맡은 기둥으로 힘차게 버티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어둠의 혼」, 237쪽)는 책임감만이 갑해에게 주어질 뿐이다.

「어둠의 혼」은 어린 소년인 갑해의 눈을 통해서 좌익인 아버지가 반공국가에

의해서 희생된 상황을 조명한다. 사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좌익에 대한 반공 국가의 살인을 다름으로써 사상에 대한 작가의 판단을 유보한다. 아버지에 대한 갑해의 원망도 아버지가 위기에 처한 가족을 방치했기 때문일 뿐 그의 좌익 활동에 대한 평가와는 관련이 없다. 아버지에 대한 판단은 그가 아버지의 수수께끼 같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라날 훗날로 연기될 뿐 아니라 이모부는 아버지를 잊으라고 강요한다. 아버지의 사상에 대한 판단을 유예한 상태에서 가족의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장자의 책임감이 죽음의 충격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어둠의 혼」은 좌익 아버지의 죽음을 어린 소년의 눈을 통해서 봄으로써 반공국가로부터 사상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을 피할²⁸⁵⁾ 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판단까지도 유예하고 만다.

김원일은 「어둠의 혼」을 통해서 좌익의 아들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문학적 형태로 드러내고 있지만 정작 아버지 김종표에 대한 평가를 유보함으로써 아버지의 죽음은 가족의 가난을 가져온 가족수난사라는 제한된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어둠의 혼」에서 어머니가 지서로 끌려가서 겪었던 고문을 제외한다면 반공국가에서 좌익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좌익 아버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는 좌익의 가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둠의 혼」에서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문제는 이후 2013년의 자전소설 『아들의 아버지』까지 이어져 그의 50여년간 문학을 통해서 천착하는 일생의 과제였다.²⁸⁶⁾ 현기영이 「아버지」 이후 4·3항쟁에 대한 소설들을 통해서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해갔던 것처럼 김원일도 여러 작품들을 거치면서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어 간다.

285) 김원일은 「어둠의 혼」에서 작중화자로 어린아이를 내세운 이유가 당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김원일, 권오룡, 위의 책, 30쪽)

286) 「어둠의 혼」의 초고는 김원일이 서라벌예대에 재학 중이던 1961년에 쓰였다. 아버지의 문제는 김원일에게 평생 동안 붙잡고 있어야만 했던 숙제였다.

김원일이 「어둠의 혼」에서 간접적으로만 제시했던 아버지의 좌익 활동을 전면에서 응시하기 시작한 것은 장편 『노을』부터다. 1948년 김원일의 고향인 진영을 배경으로 가상의 좌익봉기 사건을 다루는 『노을』은 빨치산으로 불리는 좌익 유격대가 되는 아버지가 등장하는 첫 번째 소설이다. 『겨울 골짜기』와 『불의 제전』에서도 김원일의 아버지 김중표를 모티브로 한 좌익 아버지는 좌익 유격대원으로 등장한다. 빨치산으로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실제 김중표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김원일의 가족들이 진영에 머물고 있던 시기에는 좌익단체인 민애청의 경남 지부 지도위원이었으며(『아들의 아버지』, 206쪽) 서울로 올라가 한국전쟁 중 월북하기 전에는 중앙 민애청의 부위원장까지 지낸(『아들의 아버지』, 228쪽) 김중표의 경력에서 빨치산 활동은 찾을 수 없다. 김원일이 소설에서 아버지를 빨치산의 모습으로 다루는 데는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근 지역에 비해 진영 일대의 빨치산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는 점²⁸⁷⁾과 빨치산 기록물 및 소설에 김원일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²⁸⁸⁾을 추정해볼 수 있다. 좌익 아버지와 빨치산의 관계는 『노을』에서는 협력 관계로 제시된다. 『노을』에서 무식한 백정인 아버지 ‘김삼조’는 빨치산 세력의 봉기에 동참해서 우익 숙청에 동원되었다가 전경대의 진압으로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빨치산과 함께 월북을 하던 중 전경대에 포위되자 자결한다. 『겨울 골짜기』에서 김중표를 모티브로 한 인물로 빨치산의 폭력적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판적인 지식인인 ‘김익수’가 등장한다. 『불의 제전』에는 「어둠의 혼」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동일한 이름인 빨치산 유격대장

287) 홍승권, 배병욱, 위의 책, 90~91쪽. 불모산을 중심으로 한 진영지역까지 내려온 빨치산 활동이 김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발하기는 했지만 『노을』에 등장하는 것처럼 지역을 점령하는 수준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빨치산 활동이 거의 없었던 김해 일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을 뿐이었다.

288) 지리산의 빨치산 유격대를 다룬 이병주의 대하소설 『지리산』이 1972년부터 연재되어 1985년에 완결되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빨치산 유격대가 남한에서 활동하는 좌익의 모습을 표현하기 좋은 소재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1988년에 발간된 이태의 수기인 『남부군』은 그보다 수년 전부터 원고 상태로 여러 작가들에게 읽혀왔고 이병주의 『지리산』에도 영향을 끼쳤는데(황광수, 「빨치산 기록물과 그 소설화」, 『창작과 비평』 겨울호, 1988, 96쪽) 당시 문인들 사이에 고조된 빨치산에 대한 관심이 김원일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조민세’가 등장한다. 『불의 제전』의 조민세는 빨치산 세력의 조력자 역할에 머무는 『노을』의 김삼조나 빨치산 조직의 폭력적 문화에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는 『겨울 골짜기』의 김익수와 달리 신념에 찬 사회주의자다. 그는 북로당 갑산과의 지원을 받아 월북하는 안전한 길을 포기하고 혁명가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불리한 전황에도 자원해서 유격대를 이끄는 인물로 그려진다. 김원일이 빨치산에 참여한 아버지를 그리는 방식이 작품마다 상당히 다르다. 후기로 갈수록 빨치산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은 더 커질 뿐 아니라 사회주의자로서의 자의식과 신념도 견고해진다.

『노을』이 아버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김원일의 다른 작품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유일하게 아버지를 지식인이 아니라 무식한 백정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어둠의 혼」이나 「미망」, 『불의 제전』 모두 김중표를 모티브로 한 인물들은 그의 실제 경력과 동일하게 일본에서 유학한 엘리트 지식으로 그리고 있으며 『겨울 골짜기』의 김익수 역시 빨치산 대원 중 드문 인텔리 계층으로 묘사된다. 반면에 김삼조는 마을에서 ‘개삼조’라고 멸시받는 무식하고 폭력적인 백정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지식도 없는 인물이다. 그는 백정으로서 받아들인 차별에 대한 분노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자신이 출세할 수 있을 것이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무식한 백정인 김삼조가 좌익 봉기에 동참하게 된 것은 지역 사회주의자들의 이론적인 지도자였던 ‘배도수’의 영향을 받아서다. 진영의 봉화산 일대에서 활동한 빨치산 유격대를 이끌었던 사회주의자 지식인인 배도수는 『겨울 골짜기』와 『불의 제전』에 등장하는 빨치산 아버지 유형과 유사한 인물이다. 김삼조에 비해서 배도수가 김원일의 아버지 김중표와 훨씬 더 닮아있다. 배도수는 1948년의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봉화산의 빨치산 유격대를 이끌다가 홀로 서울로 상경한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배도수의 행보는 『불의 제전』의 조민세와 겹쳐진다. 하지만 끝까지 사회주의 혁명가로 빨치산 유격대를 이끄는 조민세나 월북하여 북한체제에서 활동한 김중표와 달리 배도수는 일본을 향한다.

일본으로 넘어가 조총련에서 활동을 하던 배도수는 좌익활동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고 귀국하여 전향자가 된다. 김원일의 소설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좌익 아버지’ 유형들과 김삼조의 차이가 지식인과 백정이라는 계급적 차이라면 배도수는 사상을 포기하기로 전향자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노을』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는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좌익세력에 동원되었다가 희생된 백정과 좌익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전향하여 고향의 가족으로 돌아간 지식인이란 두 가지 형태로 분할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유형의 아버지 모두 반공주의의 시선을 거스리지 않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원일은 『노을』에서 아버지를 실제와 달리 무식한 좌익으로 묘사한 이유가 반공주의의 검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밝힌다.

네, 그래요. 『노을』을 쓸 때는 내 속에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경계심, 좌파에 대한 사회적인 억압과 공포, 이로 인한 불안에 내가 억눌려 있었으니까, 인물을 그럴 때에도 그렇게 폭력적이고 무식한 사람 정도로 그려야 반공 논리에서 조금 비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려가 크게 작용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게 아닌데’ 라는 불만감도 컸지요. 실제 내 아버지의 모습은 지식인이고 사려 깊고 따듯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공산주의자를 그려야 한다는……289)

문학작품에서 ‘빨갱이’를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반공국가 형성되던 1948년부터 활용된 이데올로기적인 재현의 방식이었다.²⁹⁰⁾ 특히 어린 김갑수의 시선에서 아버지 김삼조의 폭력이 우익이나 경찰, 마을주민들 뿐 아니라 가족 내부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연히 아버지와 빨치산들의 봉기 계획을 엿듣게 된 어린 갑수를 발견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그를 살해하려고

289) 김원일, 권오룡, 위의 책, 36쪽.

290) 김득중, 위의 책, 402~405쪽.

한 것은 다른 빨치산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버지다.²⁹¹⁾ 갑수는 아버지가 자행하는 무자비한 폭력이 얼마든지 가족을 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갑수는 좌익을 잡던 지서의 윤주사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렇다면 아버지는 엄마쯤 더 쉽게 죽일 수 있” (『노을』, 1997, 270쪽)으리라고 불안해한다. 아버지의 폭력이 가족을 향할 것이라는 갑수의 불안은 그의 악몽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여러 동무들, 요년의 숨이 꼴깍 넘어가모 만세를 부르시오. 팔을 힘차게 올리고 조스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만만세 하시오!」 아버지가 눈을 홉뜨고 호통을 쳤다. 그러더니 금새 표정을 희극적으로 풀고 해들해들 웃으며 말했다. 「나를 무우꼴다리 같은 옛날 백정으로만 알고 동무들이 내가 시키는대로 안한다 카모 재미가 없을끼요. 재미가 없다 카는 말을 농으로 들으모 우째 될끼다 카능거는 여러 동무들이 더 잘알겠잉께, 내 너는 말을 앓겠심더.」 말을 마친 아버지는 드디어 철사줄을 엄마의 향문 안으로 깊이 밀어 넣기 시작했다. 엄마는 눈을 질끈 감고 이빨을 앙다물었다. 철사줄이 향문을 통해 어느만큼 들어갔는지 엄마가 숨을 킁 멈추자, 구경꾼들 속에 비단을 찢듯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다. 「저, 피, 피 좀 바!」 소리를 지른 사람은 갑득이었다. 갑득이의 댕그란 눈이 엄마의 검은 사추리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다. 향문에서 마치 세찬 오줌줄기처럼 피가 쏟아지고 있었다.(『노을』, 1997, 295~296쪽)

갑수의 꿈속에서 아버지는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어머니를 잔인하게 고문한다. 그의 악몽 속에서 아버지의 폭력은 가족에 대한 위협

291) 『노을』의 1997년판에서는 갑수에 대한 김삼조의 폭력을 다른 빨치산대원들로부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음을 암시하는 문장이 추가된다. 봉기가 실패한 이후 아들과 함께 진영에서 도망치던 중 김삼조는 그때의 폭행에 대해서 “니가 밍어서 때린 거 아니데이.” (『노을』, 1978, 341쪽)라고 말하면서 아들과 화해하려고 한다. 반면에 개정판에서는 “니가 밍어서 때린 거 아이데이. 내가 그래 안 하모……” (『노을』, 1997, 315쪽)라고 수정되어 아버지의 폭력이 당시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던 선택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며 이는 아버지가 자행하는 폭력의 비윤리성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반공주의의 문학적 재현에서는 좌익을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재현함으로써 가족주의적 공동체 의식을 구성하여 반공국가에 동원할 수 있는 국민으로 만들어낸다.²⁹²⁾ 가족을 향하고 있는 아버지의 폭력은 반공주의적 문학의 논리에 부합하고 있는 셈이다. 극도로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인물로 재현된 『노을』의 김삼조는 반공주의적인 좌익 재현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한편 전향자인 배도수 역시 반공국가가 허용할 수 있는 재현의 대상이다. 배도수는 자신의 과거 사회주의자로서의 행적에 대한 죄의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환멸은 전향자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하려는 반공국가의 욕망에 부합한다. 또 국민보도연맹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제도화된 전향은 국민을 만들어내고 국민에 대한 정의를 독점하는 반공국가의 주요한 기술이었다. 배도수가 간첩으로 의심되는 재일교포인 ‘진필제’²⁹³⁾를 원고출판 문제로 김갑수에게 소개해주기도 하지만 단지 한국정부를 지지하는 민단 계열 인사에 도움을 주었던 것일 뿐 확고하게 사상을 전향한 인물로 제시된다. 배도수는 간첩이라는 사상 오염의 재일교포 유학생 진필제의 간첩혐의로 그와 만난 적이 있던 김갑수와 배도수는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게 된다. 좌익의 아들과 전향자라는 이들의 정체성은 반공국민과 ‘비국민-빨갱이’ 사이의 불안한 경계선 위에 서 있으므로 언제든지 국민의 바깥으로 내몰릴 수 있다. 간첩 수사는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반공국가가 조사하고 심판하는 순간이다. 김갑수와 배도수는 진필제의 간첩사건으로 조사받은 이후 무혐의로 방면됨으로써 자신들이 반공국가의 국민임을 재확인받는다. 이처럼 배도수의 재현은 반공국가가 필요로 하는 모범적인 전향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292) 김진기, 「반공호국문학의 구조」, 『상허학보』 20호, 상허학회, 2007, 364쪽.

293) 조총련계를 포함해 재일교포는 반공국가의 적대적인 타자, 간첩이란 위협의 형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휴전선 이남이라는 공간적 기준을 통해서 국민됨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의 반공국민들과 달리 삼팔선이라는 이념적·법적 경계선을 가지지 않으면서 조선 국적·한국 국적·일본 국적과 민단, 조총련 등이 혈연과 지연 등으로 뒤엉켜 있는 재일교포의 성격은 반공국가가 손쉽게 비국민이라 낙인 찍을 수 있는 대상이었다. 허병식, 「분단 디아스포라와 재일조서인 간첩의 표상」, 『동악어문학』 73호, 동악어문학회, 2017, 123~124쪽.

나이 오십 줄에 들자 내가 이십대 초반부터 몸바쳐온 사상 운동에 뿌리부터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세비키 혁명 육십 년을 바라보는 이 마당에서 그들의 사적유물론(史的唯物論)이 오늘날 공산주의 제국가에서 어떤 정치 사회 형태로 나타났나는 역사적 과정을 따져 볼 때, 그들 프롤레타리아 관료 국가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원칙론에서 실패했고, 노동자 생활을 지나치게 억압함으로써 인간을 진정 인간다운 삶의 터전에서 소외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중략-인용자) 내가 신봉하던 사상을 회의하기 시작하여 반성하고 비판하고, 다시 원점으로 생각을 돌렸다 또 회의와 반성을 거듭한 그런 되풀이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회고록을 써도 한 권 분량은 족히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애긴 기회가 있으면 조용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머리칼이 이렇게 눈같이 세게 될 정도로 고뇌했다고만 생각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오 년을 정신적 고통과 갈등 속에 보낸 끝에 용단을 내려 민단으로 전향했습니다.(『노을』, 1997, 109쪽)

1948년의 좌익봉기 이후 수십 년만에 김갑수를 만난 자리에서 배도수는 자신의 전향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힌다. 사회주의 사상과 국제 공산주의의 현실에 대한 배도수의 비판적인 성찰과 치열한 자기 반성은 모범적인 전향의 서사를 구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배도수씨가 지금 어떤 신분임을 확인하는 일이 급선무라 판단”(『노을』, 1997, 108쪽)하는 김갑수 역시 반공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좌익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며 간첩의 위협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전향자와 좌익 유가족을 간첩으로부터 보호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반공국가의 치안 관료는 반공주의를 앞세워 억울한 이들을 희생시키는 위협이 아니라 공정하고 신념에 찬 재판관처럼 그려진다.

“내용을 분석해보니 일제 때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상만 교묘한 방법으로 강조해서

그자들의 투쟁이 암암리에 돋보여 있었소. 더욱 가증한 점은 순수한 민족주의 항일 투사들까지 계급 투쟁 선봉에 세워 왜곡되게 날조했소. 김형, 우리의 국시(國是)가 무엇입니까?” 윤이 말의 방향을 바꾸었다.

“반공입니다.”

“그게 옳은 답은 아니오. 우리의 국시는 자유민주주의요. 제이의 목표가 반공일 따름이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공을 다지는 거요. 그런 계속해서 쓰시오.” (『노을』, 1997, 125쪽.)

진필제의 간첩사건을 조사하는 중앙정보부 요원 윤은 반공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간첩과 빨치산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족과 사회에 대한 두려운 위협이라면 그에 맞서는 반공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윤의 주장이다. 사회에 대한 위협인 좌익과 사회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반공주의라는 대립 구도는 좌익의 비윤리성을 강조하고 반공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을 사회를 지키는 수단으로 정당화한다. 이는 치안을 유지하는 관료집단 앞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전향자와 좌익의 가족들²⁹⁴이 정당하게 수사받고 간첩이 아님을 확인받는 과정을 통해서 반공국가의 정당성을 재확인한다. 진필제의 간첩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그의 저서인 『일제시대일한국지식인(日帝時在日韓國知識人)의 항일운동(抗日運動)』가 식민지 시대의 사회주의자들이 벌인 항일운동을 긍정평가하고 있다는 것일 뿐이지만 이러한 반공주의의 검열 기준에서 대해서 김갑수는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진필제가 간첩임을 확신하고 그가 자신을 포섭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두려워한다. 반공국가에서 사회주

294) 치안작전에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관료들은 주권 권력처럼 자의적으로 대상을 정의(Definition)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조르주 아감벤, 2009a, 116~119쪽.) 치안작전의 수행과정에서 관료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외상태에서 주권 권력에 의해서 수행되는 폭력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강성현이 설명했듯이 사상사법이 제도화되던 반공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관료들에게 부여된 이러한 권한은 많은 이들을 희생시킨 중요한 원인이며 좌익과 연관되었던 이들이 항시적으로 체험하던 반공국가의 위협이었다. 이 과정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보호의 수단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은 반공국가의 행동에 상당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도 볼 수 있다.

의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만으로도 좌익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처벌이 가해지기도 했다.²⁹⁵⁾ 이러한 반공국가의 처벌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은 『노을』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으며 좌익의 위협과 그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만이 선명할 뿐이다. 이는 『겨울 골짜기』나 『불의 제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인데 이들 작품에서는 좌익이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이나 군인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이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관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처럼 사용한다는 점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그와 비교할 때 『노을』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대신에 반공국가에 대한 과잉적응이다.

김갑수는 고향의 삼촌이 별세했다는 전보를 받고 아들 현구와 함께 긴 시간 떠나있던 고향을 방문한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향인 진영을 방문하는 현구의 눈에 고향의 모습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겪었던 비극적 과거가 있었던 공간이 아니라 경제개발로 발전해가는 조국 근대화의 과정을 확인시켜주는 공간이다. 『노을』에서 현구의 입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발전과 근대화에 대한 기대가 반복적으로 말해진다.

정각 세시에 버스는 터미널을 떠난다. 버스는 시원히 뚫린 고속도로로 달려나간다. 차 내는 에어컨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땀이 나지 않았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현구의 표정이 차츰 밝아졌다.

「아버지, 팔십년대엔 국민 소득이 일천 불을 훨씬 넘어선대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현구는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다음 세대 역군답게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이었다.(『노을』, 1978, 22~23쪽)

박정희 시대의 개발과 근대화를 상징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경제발전

295) 이남희, 위의 책, 111쪽

기대감을 강하게 표현하는 현구의 모습에서 다음 세대의 역군의 자부심이 발견된다. 미래에 대한 현구의 긍정적인 태도와 달리 갑수는 강한 확신을 가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반박하지도 않는다. 좌익 가족사를 의식하지 않는 현구가 미래에 대한 강한 기대를 보이는 데 반해서 갑수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대비는 또 다른 좌익의 아들인 ‘치모’와 갑수의 비교를 통해서도 다시 반복된다.

좌익봉기에서 김삼조, 배도수와 함께 했다가 이후 남파간첩으로 내려와 처형당한 이중달의 유복자인 치모는 서울법과대학을 다니다가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제적당하고는 고향으로 돌아온다. 김갑수가 천한 백정 신분이면서 좌익봉기에 가담했던 아버지로 인해서 고향과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인물인데 반해 치모는 그런 갑수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선생님은 고향을 두려워하고 있어. 선생님의 말씀이나 표정은, 이 진영이란 상처투성이의 땅이 왜 아직도 지구상에 그 이름을 붙이고 남아 있어 내 악몽을 반추시키냐는 듯,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예.」
(중략-인용자) 「아니, 선생님이 고향에 머물러 계실 때,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만 당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또 이 말을 바꾸자면, 그 고통이 너무 절절하여 도무지 잊어지지 않으니깐 사랑하지 않겠다는 투정이랄까…… (『노을』, 1978, 254~255쪽)

고향과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김갑수와 달리 치모는 대학에서 제적당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세상 물정이나 분별 있게 파악하고, 옳고 참된 일이라면 만인이 모른 채 넘어가도 내 혼자 부딪쳐 조금씩 밝은 사회로 개선해 가는 데 보탬이 돼야” (『노을』, 1978, 254쪽)한다는 의지로 고향에 헌신하는 인물이다. 시골에서 서울대학으로 진학한 수재였으므로 그가 대학에서 제적되고 고향

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들도 있지만 고향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마을 지도자” 감이라고 평가받는다.

「저 자숙이 가가호호 방문하미 안 건디리는 기 읍심디. 저 자숙은 참말로 돈 안 받고 농민 도와주는 진짜 농촌 지도자라예, 장날에 한분 보이소. 저 본동, 회계, 물 통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장보로 나오모 치모 만나고 가는 사람이 많심디. 장날은 행상을 안 하거덩예. 저거 어무이하고 같이 교회에 나가니깐예.」

「참, 장날이 언제지?」 내가 물었다.

「내일이 가습장이니. 모레가 진영장이라나.」 추 노인은 담배 한 개비를 물며 대답했다. 「새마을 지도자군.」 하며 갑툭이가 얼른ライター로 추 노인의 담뱃 불을 댕겨주며 말했다.(『노을』, 1978, 106쪽)

진영의 농민들을 돕는 치모는 “새농민 혁명”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모아서 ‘농민 자활회’를 이끌만큼 적극적으로 새마을 운동에 참여한다. 박정희 시대에 국가적으로 추진되었던 농촌개발사업인 새마을 운동은 좌익유가족들에게 자신이 반공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헌신하는 기회의 장이기도 했다.²⁹⁶⁾ ‘새마을 지도자’로서 치모의 행보도 좌익의 아들로서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노을』에서는 좌익의 가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반공국가의 위협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치모의 행동은 현실의 좌익 유가족과 같이 반공국가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식의 결과다. 김갑수가 고향과 자신의 과거에서 도망치는데 반해서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짊어지려는 치모가 반공국가가 당대에 만들고자 하는 이상적인

296) 학살희생자 유가족이었던 여기원은 5.16 쿠데타 이후 농촌지도자 성주군연합회 회장, 도 연합회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자신이 반공주의자임을 증명하려고 했는데(김무용, 위의 책, 416쪽) 학살희생자 유가족들이 새마을운동이나 국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신이 반공국민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시도는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한성훈, 위의 책, 209~210쪽)

국민의 모습인 새마을 지도자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좌익의 아들로서 고향에 대한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는 과정이 곧 반공국민으로서 인정받는 길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치모 뿐 아니라 김갑수의 아들인 현구의 입을 통해서도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서사 진행과 어울리지 않게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아버지, 새마을 사업으로 농촌도 많이 변했죠? 학교서 천연색 슬라이드를 보니 이젠 사진으로 봤던 덴마크쯤 되던걸요.」 현구가 걸음이 빨라진 나를 따라붙으며 재잘거린다. 흙담장은 블록담장으로, 물길만 터놓았던 휘어진 개골창은 반듯한 시멘 하수구로 바뀌어져 있었다.(『노을』, 1978, 225쪽)

「근데, 아버지. 산에서 보니 시골 새마을 사업이 근사하던데요. 길도 반듯하고 초가집도 없구요. 들판이 이 정도 넓다면 미국처럼 기계로 농사지으면 안 될까요? 콤팩트인으로 벼를 거둬 들이고 비료는 경비행기로 뿌리고 말예요.」 녀석은 새마을 사업 담당 행정관처럼 들판 쪽을 손가락질하며 말한다.

「네 말대로라면 대지주만 남고 가난한 많은 농민은 직업을 잃을 텐데?」 녀석 다음 대답이 궁금하여 의중을 떠본다.

「그럼 사람은 공업 인구가 빼돌리죠 뭘. 선생님 말씀이 중공업 발달과 수출만이 우리나라가 잘사는 길이래요.」(『노을』, 1978, 244쪽)

현구가 반복해서 언급하는 새마을 운동은 갑수가 비극적인 과거의 모습으로 기억하는 고향의 풍경을 반공국가의 경제적 발전상으로 덮어놓는다. 치모가 아버지 세대의 잘못과 그에 대한 죄책감을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여 고향에 헌신하는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듯이 현구는 새마을 운동과 같은 반공국가의 경제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짓누르는 좌익 가족으로서의 부채의식으

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보여준다. 반공국가의 사회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배도수가 전향 후에 가족으로 돌아가 평화로운 말년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나의 부러움과도 겹쳐진다. 소년 감수가 품었던 “아버지를 빨갱이의 세계에서나 지서에서부터 빼내어 따뜻한 가정으로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 (『노을』, 1978, 200쪽)이 전향을 통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배도수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배도수가 김삼조와 함께 김종표의 성격을 나누어 가진 인물임을 생각한다면 이를 김원일이 자신의 아버지를 반공국가의 승인 속에서 복권하려는 열망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을』에서 김원일은 그의 회고처럼 반공국가의 논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이는 아버지를 폭력적이고 무식한 백정으로 재현한 것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 전향 지식인인 배도수와 반공국가의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치모, 반공국가의 새로운 세대로 성장해가는 현구 등 능동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는 인물들을 배치했다. 김원일은 반공국가의 시선을 경유해서 아버지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김원일이 반공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반공문학의 논리로 한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앞서 살펴보았던 피학살자유가족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적극적으로 반공국민임을 증명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반공주의의 재생산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인정받고 반공국가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인정 투쟁의 한 양상이다. 「어둠의 혼」의 갑해에게 누구도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던 것처럼 김원일에게 ‘비국민-빨갱이’로 아버지를 규정한 반공국가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회적 인정의 근거는 주어지지 않았다. 「어둠의 혼」에서 유보했던 아버지에 대한 판단이 반공국가의 논리에 의존해야 했던 것은 그와 다른 좌익의 가족들에게 공통적으로 놓여있던 당대의 사회적 조건이었다. 그러나 김원일이 다른 이들과 구별되었던 건 반공국가의 논리에 의존한 아버지의 재현이 가진 한계를 불편하게 자각하면서 소설을 통한 형상화를 계속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이는 반복되는 소설의 개작을 통해서 당대의 담론확장을 따라

가고 그 틈을 넓혀가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음 장에서는 『노을』의 1997년 개정판과 『겨울 골짜기』의 개작 양상을 통해서 김원일이 어떻게 반공 국가의 정의에서 벗어나갔는가를 살필 것이다.

4.2 소설의 개작과 정본의 형성

김원일의 문학에서 반복되는 소설의 개작이 가지는 의미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김원일의 주요 작품 중에서 개작 과정을 살핀 연구는 『노을』과 『겨울 골짜기』에 대해 각각 한 편의 논문²⁹⁷⁾이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김원일의 생애사나 다른 작품들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김원일은 1966년 등단작인 「1961년 알제리아」부터 2016년에 발표한 소설집 『비단길』까지 50년 이상 작품활동을 이어가면서 많은 작품들을 발표해왔다. 그는 긴 시간 꾸준히 많은 작품을 발표하는 다작의 작가일 뿐 아니라 자신의 책을 수차례 반복해서 개작을 해오는 작가이기도 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강 출판사에서 발간되고 있는 김원일 소설전집에 실리는 많은 작품들이 개작과정을 거쳤으며 전집으로 작품들을 정리하기 전에도 수차례 개정판을 발간하기도 했다.

『노을』과 『겨울 골짜기』는 김원일이 자신의 소설들을 전집으로 정리하기 전에 작품을 개작해온 대표적인 사례다. 『노을』은 1978년 초판을 출간했던 문학과 지성사에서 1997년에 재판판을 냈는데 눈여겨 볼 것은 작가가 작품의 개작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노을』의 1997년 개정판은 작중 인물의 대사나 상황들을 적지 않게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재판(再版)으로만 표

297) 『겨울 골짜기』의 개작 과정에 대해서는 박찬모의 「『겨울 골짜기』의 개작 양상 고찰」이, 『노을』의 개작은 정확진의 「김원일의 의식 변화 연구」가 있을 뿐이며 김원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개작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언급하지 않는다.

기되어 있고 작가의 말 등을 통해서 이를 말하지 않는다. 이에 비하면 『겨울 골짜기』는 개작 과정을 좀 더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에 속한다. 『겨울 골짜기』는 1987년 민음사에서 상·하권으로 초판본이 발간되었고 1994년에는 동지에서 『겨울 골짜기』 1, 2권으로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다시 2004년에는 이룸에서 원고지 2500매 분량이던 초판본과 비교했을 때 700매 가량을 줄인 1800매 분량의 한 권으로 『겨울 골짜기』을 발간한다. 김원일이 2004년에 발간한 이룸판 『겨울 골짜기』을 정본이라고 부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당시 전쟁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를 다룬 이 책을 다시 찾는 독자들과의 문의가 있었고, 손을 좀 더 보아 정본을 내고 싶던 차에 출판사 ‘이룸’에서 중간을 허락해주었다. 이제 다시 새 책으로 선을 보이게 되어 문장을 다듬고 낱말을 보다 정확하게 박아 넣고, 결가지를 대폭 쳐내었다. 그렇게 작업을 마치니 이제야 작품 꼴이 제대로 선 느낌이다. 그 결과 초간본이 원고지로 2,500매였는데 1,800매로 정도로 분량이 줄어, 한 권으로 재출간하게 되어 작가로서는 새 작품을 완성하듯 기쁘고 묵은 부채를 털 듯 개운하다.(『겨울 골짜기』, 2004, 5쪽)

김원일은 이룸판 『겨울 골짜기』를 작품이 제대로 완성된 정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룸판이 이전 판본과 구분되는 정본이 된 이유를 “문장을 다듬고 낱말을 보다 정확하게 박아넣고, 결가지를 대폭 쳐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소설 문장을 다듬고 서사를 정돈하는 작업은 분명 문학적 완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단지 그 이유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빨치산 지식인인 김익수의 공산주의에 대한 평가나 당대의 정치적 상황들에 대한 설명과 같이 정치적인 평가의 변화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1994년 동지에서 발간된 『겨울 골짜기』의 개정판에서도 김원일은 개정판 발간의 필요성이 “내용이나 구성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로 문장이 엉터리”(『겨울 골짜기』, 1994, 3쪽)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개작의 이유를 문장과 구성으로 한정하고 내용을 수정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불의 제전』에서도 반복되었다.²⁹⁸⁾ 하지만 개작 이후 좌익과 반공국가에 대한 정치적 평가의 변화나 그와 관련된 내용의 보충은 『노을』을 포함해서 김원일의 개작과정의 공통적인 성격이다. 『노을』의 개작을 연구한 정학진은 1997년의 개정판에 와서 김원일이 한국 사회의 레드 콤플렉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변화된 작가의 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²⁹⁹⁾ 김원일은 개작의 의미를 문장과 작품 구성상의 수정으로 한정하려고 하지만 실상 변화된 작가의 정치적 인식을 소설 속에 반영하는 작업이었다. 개작을 통한 정치적 평가, 서술의 변화는 『노을』, 『겨울 골짜기』, 『불의 제전』으로 뒤로 갈수록 작품에서 보이는 정치적 인식이 변화해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노을』 초판본에 짙게 배여 있는 반공주의에 대한 강한 의식에서 김원일이 멀어져 가려고 한 노력의 결과다.

『노을』은 김원일의 고향인 진영읍을 배경으로 한 그의 첫 장편소설이지만 지역사와 비교할 때 일치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노을』에서는 진영읍이 1948년에 빨치산의 봉기로 일시적으로 점령당했다가 전경에 의해서 탈환된 것으로 묘사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백여 명의 사망자는 한국전쟁 중에는 별다른 피해를 겪지 않은 진영에서는 가장 깊은 상처로 제시된다.

좌익 폭동으로 죽은 사람이 마흔에 가깝고, 전경대가 난리를 평정하자 좌익패를 잡 아들었는데 그 인원이 칠십 명도 더 된다고 삼촌이 말했다. 유등 외갓집에 갑득 이와 함께 피해 있던 엄마가 아버지 대신 지서에 잡혀갔다는 이야기도 했다.(『노을』, 1997, 294쪽)

298) “이 소설을 구상하고 기고했을 때와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새 삽화를 첨가하거나 내용상 해석을 달리하여 개고하지는 않았다.” (『불의 제전』 1권, 2010, 7쪽)

299) 정학진, 「김원일의 의식 변화 연구」, 『우리말글』 58호, 우리말글학회, 2013, 474쪽.

그러나 1948년에 진영읍에는 빨치산의 제한적인 테러 이외에 군경과의 대규모 충돌이 없었고³⁰⁰⁾ 빨치산에 의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은 없으며 봉기를 주도했다가 살해당한 좌익의 가족들이 봉기로 희생된 이들의 눈치를 보며 무덤조차 만들지 못하는 상황은 없었다.

“그대로 저 골짜기에 모두 묻었지러. 총살당한 식구가 죽어나사나 피붙이다보이 그 유족은 시체를 거둬 무덤이라따나 맹글어 줬음 했지마는 대역 죄인인데 거기 어테 당할 소린가. 폭동 때 늙들 죽창에 생목숨 잃은 양민이 수월찮고, 그쪽 유족도 눈 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 말이다. 그러다보이 무덤 맨들었다가 다블로 혹 붙일까바 포기하고, 멀리 타지로 이사를 가뿌린 사람도 있었제. 그 후 이태 된가, 육이오전쟁이 안 터짓는가베. 그라이깐 또 몇 년 묵고 산다고 시월이 바뿌게 흐를 동안 시체는 몽지리 썩어뿐 기제.” (『노을』, 1997, 228~229쪽)

『노을』의 배경이 되는 진영읍에서는 좌익봉기가 아니라 한국전쟁기에 국민보도연맹원학살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는데 가족이 총살된 이들의 무덤을 수습하지 못한 것은 좌익이 아니라 군과 우익 자경대에 의해서 희생된 이들이었다.³⁰¹⁾ 총살된 이들의 유골을 수습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은 지역주민들 내부에 형성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학살을 은폐하려는 반공국가의 위협이었다. 『노을』에서 김삼조 역시 다른 빨치산들처럼 무덤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는 그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00) 홍승권, 배병욱, 위의 책, 91~92쪽.

301) 진영읍 국민보도연맹학살희생자들의 시신 수습은 1960년에 가서야 이루어지지만(김기진, 위의 책, 295쪽)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정권에 의해서 묘소와 위령비가 파괴된다.

“그런데, 할아버진 무덤조차 없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죽은 뱃사람들처럼.”

“왜 무덤이 없나요?”

“그 얘길 다하자면 또 길지. 이답에 네가 크면 들려주마.”

“할아버진 역시 나쁜 짓했기에 죽었겠군요. 그러다보니 무덤도 없구.”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나 역시 아버지 죽음을 내 눈으로 보진 못 했지만 말야. 네 말처럼 할아버진 본받을 만한 사람은 못 돼. 그 시절은 세상이 온통 광란에 들떠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많았다.” (『노을』, 1997, 217쪽)

진영의 지역사에 비춰볼 때 『노을』은 반공국가와 그에 결탁했던 지역 우익세력의 희생자들이 겪었던, 가족의 무덤조차 만들 수 없는 고통이 오히려 그들이 진 죄의 증거가 된다. 『노을』의 재현은 이들을 오히려 가해자로서 도덕책 채무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이들로 뒤바꿔놓은 셈이다. 이는 『노을』이 반공국가의 시선을 통해서 좌익의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방식이 내포하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반공)국민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은 역설적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체계의 일원이 됨으로써 자신과 같은 희생자들을 위협한다.

『노을』에서 과장된 진영읍의 빨치산과 좌익활동은 소설의 개작과 이후 작품에서 점차 축소되고 수정되어 지역사에 근접해간다. 1997년의 『노을』의 개정판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반공국가의 군경에 의해서 자행된 살인과 고문에 대한 고발이다. 소설이 194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를 완전하게 반영할 수는 없지만 군경이 가혹한 폭력의 주체였음은 명확하게 보여주려 한다.

「그라모 부자 눈을 뺏아서 조각인한테 나누주는 사람은 누구요? 그렇게 눈을 나누주고 나누 준 문서를 맨드는 사람, 즉 지도하는 사람이 역시 세력을 잡는 기 아니겠소. 거기 우째 공평한 시상이요? 사람을 개척이듯 적이면서 서로 동무, 동무 카모 다요?」

「이 자석이 말이라 카모 다 말인 줄 아나? 혁명 침에는 다 이런 법이란다. 반동을 처치하는 기 우리들 일이다. 죽어서도 죽었지 협력을 몬 하겠다고 니가 니 손가락을 찢라뿌린 짓도 반동이기사 하지마는 정 그 카모 인자 손목을 땡강 끊어뺄게 다!」

「손목을 끊든, 적이든 성님 맘대로 하소. 어젯밤도 누누이 말했지마는 나는 절대로 이런 혁명은 찬성을 몬 해요!」 (『노을』, 1978, 299~300쪽)

좌익 붕기로 점령당한 진영읍에서 반동을 처단하는 일을 부여받은 김삼조는 잔인하게 우익인사와 경찰을 살해한다. 그는 추서방에게 붕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혁명의 폭력성과 공산주의의 논리적 불합리성에 대해서 비판받는다. 추서방은 공평한 사회를 주장하는 공산주의 내부의 권력의 위계를 비판하면서 그 논리의 모순을 비판하고 혁명의 잔혹성을 고발한다. 그런 추서방의 비판에 대해서 김삼조는 제대로 된 반박은 하지 못하고 그를 위협할 뿐이다. 그런데 『노을』의 초판에서 김삼조가 속한 좌익 세력의 도덕적 타락과 공산주의의 논리가 가진 모순을 비판하던 장면이 개정판에서는 내용이 바뀐다.

“그라모 부자 눈을 뺏아서 작인한테 나나주는 사람은 누군교? 그렇게 눈 나나주고 그 문서 맹그는 사람, 즉 지도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되서 세력 잡는 기 아이겠쇼. 거기 우째 공평한 시상인교? 사람을 개 적이듯 적이미 서로 동무, 동무 카모 단교?”

“이 자속이, 말이라 카모 다 말인 줄 아나? 순사나 남조선 군대는 좌익하는 사람 안 적이더나? 남조선 개놈들, 해방되고 좌익하는 사람들 오죽 많이 적있나. 좌익하는 사람 근처에마 가도 험으를 잡아서 고문하고 적이고 안 했나. 그래 적인 사람이 수만명도 넘을 끼라.”

“그 말이사 맞아예. 그러나……”

“그러나 또 머꼬? 내 말이 사실 아이가. 그러이 어데 우리만 찍이는 기가? 우리도 원썩 갇는다꼬 반동놈들 처단하는 기제. 혁명 침에는 다 이런 밧이라 카더라. 반동 분자 처치하는 기 내한테 땀겨진 일이데이. 험력 몬 하겠다고 니가 니 손가락 찢라 뿌린 짓도 반동이기사 하지마는, 니 증말 그캐싸모 인자 니 손목을 끊어뿔 끼다!”

“손목을 끊든, 찍이든 성님 맘대로 하소. 어젯밤도 누누이 말했지마는 나는 절대로 이런 혁명은 찬성을 몬 해요!” (『노을』, 1997, 278~279쪽. / 밑줄은 초판에서 변화된 문장 - 인용자)

『노을』의 초판에서 김삼조가 자행한 살인은 혁명의 과정에 수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만 개정판에서는 해방 이후 군경이 좌익에 대해서 가한 고문과 살인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한다. 『노을』의 초판에서 반공국가의 군과 경찰은 마을을 위협하는 좌익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주체로 그려진다. 배도수를 찾기 위해서 김삼조를 폭행하는 임주사처럼 경찰이 가하는 고문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좌익봉기를 진압한 이후 군경에 의해서 총살이 집행되지만 그 과정을 문제 삼지 않고 좌익의 죄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에 『노을』의 개정판에서 군과 경찰은 해방 이후 수만의 좌익을 학살하고 고문한 폭력의 주체로 그려진다. 군경의 학살이 자행되었음은 좌익을 비판하던 추서방 역시 인정한다. 좌익이 자행한 폭력의 원인이 공산주의의 본질적인 폭력성 때문만이 아니라 군경이 자행한 폭력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곧이어, 「눈껍만 뽑아도 똥쌀 늪의 색끼, 인자 니는 그물에 든 피기요, 쏘아놓은 범이다. 인자 녹신녹신하게 죽을 차리다! 니는 인명재판이고 머고 필요가 없어. 좌익 잡아다가 지하실서 물 먹이고, 바늘로 손톱 밑 찌르고, 팬 거 다 기억하제? 그 연네까지 빨가배끼서 고문한 거 다 알제? 최 순사, 니 죄를 지가 알고 있겠제? 왜

니가 죽어야 하능가를 말이다.» 하는 아버지의 악에 받친 외침이 들렸다. 도수장 안에서 살점이 터지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살찐 질경이 풀에다 얼굴을 묻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으나 울음이 목 구멍을 넘어 왔다.(『노을』, 1978, 301쪽 / 『노을』, 1997, 280~281쪽. 밑줄은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이다.)

『노을』의 초판에서 김삼조가 최순사를 살해하는 장면은 살인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서 개정판에서는 최순사가 좌익과 그 가족에게 자행한 고문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가 좌익의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이념을 이유로 자행하는 폭력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은 김원일이 『불의 제전』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는 태도다. 『노을』의 개작에서 좌익을 향한 반공국가의 잔인한 폭력에 대한 비판을 추가한 것은 좌익만을 유일한 폭력의 주체로 설정하고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반공국가의 폭력을 당연시하는 반공주의적인 재현의 논리로부터 이탈해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노을』의 초판이나 「어둠의 혼」에서 작중 인물들은 반공국가 자행하는 폭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보이지 않았다. 좌익의 가족을 대신 끌고 가서 고문하는 경찰이나 별다른 재판과정도 없이 좌익에게 자행되는 총살은 위법적인 국가의 폭력이었지만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는 없다. 「어둠의 혼」에 등장하는 외팔이 ‘찬수’의 입을 통해서 이념의 이름으로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난무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 섞인 외침을 던질 뿐이다.

「미친놈으 세상. 뭇 때메 싸움질인지 몰라. 죽어라 죽어. 뉘질 놈은 뉘져버려, 극좌 극우가 없어져야 편안한 세상이 될 테이깐.» (「어둠의 혼」, 226쪽)

찬수는 극좌와 극우가 모두 없어져야만 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념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이란 단순히 극좌 혹은 극우라는 이념적인 지향을 가진 개인이나 정치단체로 그 주체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반공국가에 의해서도 수행되었기 때문에 찬수의 분노가 비판하는 대상은 너무 넓고 공권력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기에 불분명하다.³⁰²⁾

반공국가의 폭력에 대한 작중 인물들의 인식은 선명하지 않은데 반해 좌익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노을』에서 과잉으로 느껴질 만큼 선명하다. 「어둠의 혼」에서 어린 갑수가 빨갱이가 왜 나쁜 사람이고 왜 잡아서 살해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달리 『노을』의 어린 현구는 할아버지가 좌익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무덤도 가질 수 없을만큼 나쁜 인물이었다고 쉽게 단정한다. 반공국가가 형성되어 가던 1950년의 갑수와 유신체제에서 성장한 1977년의 현구를 동일한 조건에서 보는 것은 부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노을』에서 어린 갑수의 기억 속 진영 주민들의 태도도 현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김삼조에게 살해위협을 당하면서도 사회주의 사상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추서방처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좌익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인물들로 제시된다. 지역주민들의 재현에서 좌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견고하게 갖춘 반공주의적 태도가 나타나는 강도는 「어둠의 혼」보다 『노을』이 더 강하다. 1983년에 발간된 『불의 제전』의 1부에서도 마을 주민들의 태도에서 좌익에 대한 강한 반감을 발견할 수 있다.

「난도 좌익하는 사람이다 카모 이가 갈리구마. 그런데 갑해 아버지야 공부 많이 해서 중학교 선상까지 지냈겠다, 머가 부러워서 그 일에 미쳤능강 알고도 모르겠구마. 무지랭이 같은 작인이사 공짜로 논마지기를 준다 카이 그 입발린 소리에 눈깔

302) 「어둠의 혼」에 등장하는 찬수는 『불의 제전』에서 실질적인 주인공 격인 '심찬수'라는 인물로 다시 등장한다. 『불의 제전』에서는 극좌 극우가 자행하는 폭력에 대한 찬수의 비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대상으로 했는가를 상당히 선명해진다. 인민군 점령하의 서울에서 진영으로 내려가는 과정 과정과 이후 반공 국가의 영역 안에서 자행되는 폭력들을 지켜보는 심찬수는 남북의 두 개의 국가를 모두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 절의 『불의 제전』 분석에서 다룰 것이다.

이 뒤집힐까 몰라도 말입니다.) (『불의 제전』 1권, 1983, 38~39쪽)

진영의 평범한 주민인 ‘채재학’의 발언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좌익에 대해서 이가 갈린다고 할 만큼 평범한 지역주민들도 강한 반공주의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보여주던 이 인물의 발언이 『불의 제전』의 1997년 판에서는 태도가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좌익하다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심사를 모르겠습디. 갑해 아버지사 공부 많게 해서 중학교 선상까지 지냈겠다, 머가 부러워서 그 생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디. 무지랭이 작인들이사 땅마지기 공짜로 타볼라고 투쟁할 맘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불의 제전』 1권, 1997, 45~46쪽. 밑줄은 바뀐 문장 표시 - 인용자)

1997년판에서는 좌익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가 갈리는 좌익이 아니라 입산 동기를 이해할 수 없는 좌익들로 묘사되며 조민세가 왜 좌익에 미쳐있는지³⁰³⁾ 모르겠다는 말이 왜 생고생을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바뀐다. 1983년 판에서는 사회주의의 농지개혁을 ‘입발린 소리’라고 단정하지만 1997년 판에서는 농민들이 토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요인이라는 점만을 보여줄 뿐 사회주의 자체에 대한 일체의 평가가 빠져 있다. 1983년 판의 채재학의 발언과 1997년 판은 인물이 좌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분노와 반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감으로 변했다는 차이를 보인다. 『노을』의 작중인물들이 취했던 강한 반공주의적 태도와 비교할 때 1997년 판의 『불의 제전』은 인상적인 변화인 셈이다. 특히 18년 만에 드디어 『불의 제전』이 완간되었던 1997년은 『노을』이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개정되어 반공국가가 숨기려고 했던 좌익학살과 같은 문제를 드러내면

303) ‘사상에 미친 아버지’는 김원일의 소설 속에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1997년의 개작과정에서 이 표현이 사라졌다는 점은 조민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게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 반공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1997년에 김원일의 소설 속에서 반공주의적 재현의 흔적이 크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작이 이루어진다.

『노을』의 초판이 출판되었던 1978년과 『노을』이 개작되고 『불의 제전』이 완간되었던 1997년 사이에 놓여 있는 작품이 1987년 4월에 출판된 『겨울 골짜기』다. 『겨울 골짜기』는 역사의 금기로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소설화했다는 점에서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강렬한 도전이라고 평가받는다.³⁰⁴⁾ 『노을』을 비롯한 여러 소설들에서 반공국가의 학살이 자행된 고향 진영의 지역사에 다른 서사를 덧씌워두었던 김원일이 반공국가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사건인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소설화했다는 점은 작가가 반공주의를 의식해온 태도가 변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겨울 골짜기』가 거창양민학살을 소재로 선택했다는 점이 곧 반공국가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이나 4·3항쟁처럼 반공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인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역사적 금기로 다루어지던 사건들과는 달리 거창양민학살사건은 반공국가의 공식 역사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군부정권하에서 거창양민학살 유가족 단체가 탄압받았지만³⁰⁵⁾ 전쟁 중 국회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1974년에 당대 주요 일간지였던 동아일보의 연재 기사인 「비화 제1공화국(秘話 第一共和國)」의 9화로 편성되어 ‘거창사건’이라는 이름으로 22회에 걸쳐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반공국가의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 시절이었지만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언급하고 소개하는 일 자체에 걸려 있는 제약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것은 아니었다. 특히 『겨울 골짜기』는 출간 직후부터 과연 소설의 제1의 소재라고 보기

304) 류보선, 「광기의 전쟁과 동일시라는 감옥」, 『겨울 골짜기』, 이룸, 2004, 423쪽.

305) 거창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명예회복에 대한 시도들은 다른 양민학살사건들처럼 1980년대 후반에나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89년에는 국회의 야당 의원들이 ‘거창 양민학살사건 배상특별법’을 발의하여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 위령탑 건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거창 양민학살사건 배상특별법안 제출」, 『한겨레』, 1989.10.19.

에는 작중 사건의 비중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받아왔다.³⁰⁶⁾ 거창양민학살 사건이 서사의 후반부에 단편으로 너무 짧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소설화했다는 『겨울 골짜기』에서 정작 사건이 작품의 후반부에 제한적으로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품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여러 곤란함을 가져왔다. 『겨울 골짜기』 출간 직후에 거창양민학살사건이 제1의 소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던 평론가 정과리는 김원일이 일회적 사실로서의 거창사건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상징으로 거창사건을 배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³⁰⁷⁾ 류보선도 『겨울 골짜기』의 구성이 거창사건을 부차화하는 특수한 형태로 되어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다큐멘터리식의 재현을 거부하고 사건의 상징성과 당대의 총체성을 보이기 위한 특수한 구성을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법의 승리라 고평한다.³⁰⁸⁾ 『겨울 골짜기』에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서사적 재현을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사건의 의미화를 더 풍부하게 했다는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여럿 남는다. 『겨울 골짜기』가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자행한 국군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소설의 대부분을 빨치산 내부와 인민군 치하의 마을 주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이 반공국가에서 여타의 학살사건들과 구분되는 지점은 군의 불법적인 학살과 이에 대한 행정부의 조직적 은폐시도가 국회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에서 적성지역으로 분류된 마을에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사실만큼이나 그 이후 사건을 은폐하려는 반공국가의 시도에 관심이 쏠렸다. 1957년 8월 15일 경향신문에 실린 「해방이후의 중요일지」에는 거창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국회조사단이 군에 피습당한 사건을 해방 이후의 중요사건으로 꼽고 있는데

306) 정과리, 「이데올로기 혹은 집승의 삶」, 『김원일 깊이 읽기』, 176쪽

307) 정과리, 위의 책, 177쪽.

308) 류보선, 위의 책, 427~428쪽.

정작 거창사건 자체는 언급되지 않는다.³⁰⁹⁾ 거창사건이 폭로된 직후에도 국회조사단에 대한 군의 습격은 거창사건 그 자체만큼이나 국가와 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사건으로 인식되었다.³¹⁰⁾ 『겨울 골짜기』가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일부분만을 감당한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소설의 전반적인 구성이 빨치산과 인민군 치하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거창양민학살사건을 기억하고 호명하는 당대의 사회적 맥락의 한 축을 서사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작가의 관심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겨울 골짜기』의 정본인 2004년의 이룸판에서 갑작스레 김원일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점은 이 의문에 무게를 더해준다. 그는 책의 말미에 「불러보고 싶은 말, 아버지」라는 짧은 글을 붙인다. 이 글에서 그는 “나는 소설을 통해 아버지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 이름 앞에 ‘분단문학 작가’라는 호칭이 따라다니게 되었다.”(『겨울 골짜기』, 2004, 447쪽)며 자신의 문학이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고 말한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다루고 있는 『겨울 골짜기』의 정본을 출간하면서 김원일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겨울 골짜기』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는 이 작품과 김원일의 가족사 사이의 연관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겨울 골짜기』에서 빨치산 대원인 좌익 지식인 김익수가 김원일의 아버지 김종표를 모티프로 한 인물로 보며 『겨울 골짜기』와 이후의 개작 과정이 김익수의 형상화 과정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겨울 골짜기』 역시 『노을』이나 『불의 제전』처럼 김원일이 ‘아버지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의 계보 위에 놓여있으며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재현에서 나타나는 서사적 불균형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309) 「해방이후의 중요일지」, 『경향신문』, 1957.8.15.

310) 「거창사건의 중대성」, 『동아일보』, 1951.8.9.

『겨울 골짜기』을 『노을』이나 1980년대에 출간된 『불의 제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빨치산과 반공국가를 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태도다. 앞서 작품들에서 좌익과 반공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다분히 반공주의적인 모습이었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지역 지식인 출신 빨치산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가 강한 적개심을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 노용석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좌익에 대한 강한 적개심은 반공국가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산물에 가까우며 좌익은 지역 지식인으로서 신비화된 측면이 강했다.³¹¹⁾ 반면에 『겨울 골짜기』에서는 좌와 우의 이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나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지 않는 주민들로 그려진다.

“보이소, 제 말 좀 들어보이소. 우리 자전사람들은요, 남쪽 북쪽 어느 편에도 들지 못하고요, 그저 땅만 뒤져 묵고 살아왔습시다. 우리는 까막눈이라서 전쟁이 났다는 거만 알제 세상 형편도 모르고, 그저 이 산골 떠나모 죽을 줄 알아 살아온 죄뿐이 라요.” 늙은이 하나가 물코를 킁킁 빨아가며 소리쳤다. (『겨울 골짜기』 상권, 1987, 219~220쪽)

『겨울 골짜기』에서 배경이 되는 거창군 신원면의 주민들은 남과 북으로 나뉘는 이념대립이나 국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지 않는다. 소설의 주인공격인 ‘문한득’, ‘문한돌’ 형제의 고향으로 소설의 중요한 공간 중 하나인 대현리의 주민들은 지역을 점령하는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민공화국의 국민이 되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도 하는 이들이다. 실상 그 두 개의 국가가 어떤 차이가 있고 자신들이 그중 어느 쪽에 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311) 노용석, 앞의 책, 80~88쪽. 이러한 태도는 4·3항쟁을 경험한 제주에서도 나타나는데 4·3항쟁에 대한 구술기록들에서 제주인들은 무장대에 대해서 “산군, 산사람, 산활동가, 인민군, 해방군, 산군, 폭도, 빨갱이”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렀고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은 ‘산사람’ 이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반공국가에서 사용한 명칭과는 다른 호칭을 사용했다. 그리고 ‘산사람’ 에 대해서는 “시대가 좋았으면 큰 일을 할 사람” 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대다수였다. 박찬식, 2006, 88쪽.

다.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친인척 관계와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에서의 소속감이지 어떤 국가에 소속되거나 특정한 사상을 체화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현리는 부락민 절반이 처가 쪽이거나 겹사돈 인척으로 얼개가 짜여,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만 신정대나 방 서방 처 사단만 아니었다면 누가 누구를 고발하거나 신고할 입장이 못 되었다. 목숨 부지하자니 이편도 되고 저편도 되어 목숨줄 잇고 살 수밖에 없었다. 문한돌과 문한도 또한 분주소 부역은 자발적으로 나선 일이 아니었고, 누구든 부역에 뽑혀야 할 사람이 있게 마련이었다.(『겨울 골짜기』, 2004, 87쪽)

큰 형인 ‘문한병’ 이 보도연맹원 학살로 죽은 이후 입산해 빨치산이 된 막내 문한득이 신원면을 점령한 팔로군의 일원으로 돌아와 훈장을 전투에서의 공로로 훈장을 수여 받자 대현리의 주민들은 문한득의 가족들을 축하해준다. 가족들이 문한득 덕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마을이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다. 주민들은 국가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친인척 관계로 묶여 있는 혈연적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인식한다. 이는 『노을』에서 좌익이 된 이들에게 지역주민들이 강한 반감을 드러내 보이는 양상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잠깐 집을 찾은 아들 문한득에게 “마 인제 우리하고 같이 살자. 발이 그래 되도록 나라 위해 그만큼 싸워줬으므로 됐제, 뭇하로 까마구 노는 곳에 또 사우로 갈라 하노.” (『겨울 골짜기』, 1987, 353쪽) 라고 말하는 그의 어머니 실매덕의 태도에서도 국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다. 빨치산 활동이나 국군에 동원되는 것이나 ‘나라’ 를 위해 가족들의 희생을 감내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눈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인민공화국과 반공국가라는 상이한 두 개의 국가가 점령하고 빼앗기기를 반복하면서 거창의 주민들은 두 국가가 만들어 놓은 상이한 국민의 경계선을 수차례 넘어가기를 반복한다.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

하는 경계선을 오가는 주민들은 국민의 경계선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된다.³¹²⁾ 그로 인해 주민들은 두 개의 국가로부터 ‘반동’ 과 ‘빨갱이’ 라는 이중의 의심을 받게 된다.

“어째야 될란지 모르겠네. 산사람들이 마실에 들어오면 박 생원 자네가 나서서, 마실 사람 안 다치도록 알아서 해주게. 우리야 그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갈 수밖에 더 있는가. 마실을 버리고 갈라 해도 어데 나설 데가 있다. 저쪽으로 가면 빨갱이 첩자라고 들쭉이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면 반동분자라고 또 몰매 맞제, 앞은뱅이 신세로 이래저래 부대끼는 팔자 아닌가.(『겨울 골짜기』, 2004, 185쪽)

국가와 이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양민들이 두 개의 국가가 세운 국민의 범주에 포함되었다가 배제되기를 반복하면서 처하게 되는 위기는 『불의 제전』에서도 핵심적인 사건으로 등장한다. 한국전쟁이 개인의 삶에 끼치는 위협에 대한 김원일의 인식이 반공주의적인 재현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양민들을 그려낸 『겨울 골짜기』에서 구체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거창군 신원면이 인민군 치하에서 겪게 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재현한 것은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는 국민만들기의 과정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은 신원면에 인민공화국의 제도적 이식을 위해서 수행되는 체계적인 이데올로기 교육과 각종 위원회 등을 설립하면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동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상황들에 대한 상세한 묘사다. 거창양민학살사건에 있어서 그리 강렬하지 않은 기억으로 남은 인민공화국에 편입되는 인민으로 주민을 재구성하

312) 지그문트 바우만은 유대인들이 근대국민국가의 표적이 된 데에는 원예사로서 국민국가가 만들고자 하는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비규정적 인구집단이라는 특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한다.(지그문트 바우만, 위의 책, 110~116쪽) 사회의 정체성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근대국가의 속성이라면 그 정체성의 경계선의 외부와 내부를 오가는 존재들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려고 했던 상황들이 『겨울 골짜기』에서는 국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기술보다 오히려 상세하다. 이와 비슷하게 우익 가족과 같은 반동을 색출하고 그들에 대해서 자행된 인민재판을 서술하는 부분도 양민학살사건보다 더 상세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노을』에서 자행된 빨치산의 폭력이 ‘백정’인 아버지를 통해서 묘사되는 것처럼 감정적이고 가학적 폭력으로 가시화되는 것과 달리 『겨울 골짜기』에서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 동원과 국민만들기,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비국민의 제거라는 제도적 형태를 선명하게 보여주도록 다듬어져 있다.

『노을』에서 좌익을 유일한 가해의 주체로 그렸다면 『겨울 골짜기』는 반공국가의 위협을 재현하고 있으며 실상 두 개의 국가의 위협이 동일한 성격임을 제시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역설적으로 반공국가에 의해서 자행된 역사적 비극을 소재로 삼으면서도 인민군 점령이라는 문제를 중첩해놓음으로써 한국전쟁의 폭력 구조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거창양민학살 사건을 소재로 하면서도 실상 인민군 점령지와 빨치산 내부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한 데는 한국전쟁의 형상화 이외에도 김원일의 문화적 화두였던 ‘아버지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을 수행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는 특히 몇 차례의 개작을 통해서 『겨울 골짜기』의 정본을 만드는 작업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겨울 골짜기』의 정본이 다른 판본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지식인 빨치산인 김익수의 의식을 보여주는 장면들이기 때문이다.

『겨울 골짜기』에서 빨치산 대원이자 지식인인 김익수는 부르주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적응자로 그려진다. 그는 다른 빨치산 대원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그를 싫어하는 중대장이 언제 자신을 살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떠다.

“그런데 문 동무, 난 말ियो, 난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전투가 치열할 때, 뒤에서 그 새끼가 네 등판에 총을 쏠 것 같단 말ियो. 그래서 나는 앞을 보고 총을 쏘지만, 사실은 적 총알에 맞기보다 꼭 뒤쪽서 쏜 총알에 맞을 거란 강박관념

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겨울 골짜기』, 2004, 328쪽)

김익수가 느끼는 불안감은 빨치산에 대한 그의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역시도 다른 대원들 사이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김익수를 괴롭히던 송 중대장이 전투 중에 군기를 위반하고 도망친 탈영병의 총에 죽자 문한득을 포함한 대원들은 김익수를 먼저 의심하고 심지어는 그에게 총을 겨누기도 있었다. 김익수의 부적응은 단지 그가 서울에서 온 인텔리 계층에 속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자신이 빨치산 활동과 사회주의 혁명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나는 양(羊)이요. 평화주의자요.” (중략 - 인용자)

“나는 군대를 증오하오. 군대의 조직과 통솔방법을 불작시면 이게 또한 인간을 가축과 같이, 아니 가축 이하로 학대하는 걸 골자로 삼고 있지 않고. 전쟁이란 원래 도덕적이 아닌, 물리적 폭력 행사이므로, 군대 역시 인간을 무작하게 다루는 쪽으로만 연구가 발달되어 온거요. (중략) 거기에는 한치의 인간미도 있을 수 없소. 군관이 자기 부하에게 사람다운 대접을 해주는 경우를 봤소? 그랬다간 당장 가축주의로 비판을 받게 될 거요. 강한 군대란 전사를 얼마만큼 용맹하고 잔인한 짐승으로 길러 내느냐에 달린 겁니다. 전쟁의 속성이 비도덕적인 몰염치로 치러지니깐 군대조직 역시 개개인에게 인간다운 대접을 해주면 그게 바로 허약한 집단이 되니, 그 이치가 또 묘하지 않아요? 그런 뜻에서 보자면 정의나 인도주의란 말도 현실논리로서는 자가당착이요. 공산주의 이론으로는 그걸 변증법으로…….” (밑줄 그은 부분은 이룸판에서는 삭제됨. 『겨울 골짜기』 상권, 1987, 81~82쪽 / 『겨울 골짜기』, 2004, 58쪽.)

김익수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인민군 전투부대로 자원해서 참전했지만 전쟁

과 군대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낀다. 그는 자신은 평화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군대의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가감 없이 비판한다. 그러면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정의와 인도주의’ 역시 자가당착에 불과하며 이 자가당착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변증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익수는 자신이 속한 인민군과 자신에게 주어진 군인이라는 역할 뿐 아니라 그의 사상인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사회주의에 강한 환멸을 느끼고 전향을 선택하는 배도수처럼 『겨울 골짜기』의 김익수 역시 공산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빨치산 조직에도 섞이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겨울 골짜기』의 정본인 이룸판이 출간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는 지점이 바로 김익수의 의식 변화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룸판 『겨울 골짜기』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된 서사들 대부분은 작품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건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다.³¹³⁾ 박찬모가 지적하듯이 『겨울 골짜기』가 가족주의에 기초한 민족화해를 추구하는 작품이라는 평가의 근거가 되었던 가족에 대한 언급이 대폭 축소된 것³¹⁴⁾은 사실이지만 문한돌의 처, 종님이 엄마의 출산을 보고 국군 병사들이 그들을 학살에서 빼준 것과 같이 가족과 생명탄생에 대한 강조점은 개작과정에서 수정되지 않았다. 그에 반해서 김익수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는 상당히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앞서 인용된 대사의 뒷부분에서 공산주의 이론의 변증법을 자가당착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 비판한 부분이 삭제된 것은 그 한 사례다.

김익수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문한돌의 말에 답하는 부분은 앞서의 사례보다 훨씬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313) 삭제되거나 수정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정리는 박찬모의 논문을 참조할 것. 박찬모, 「『겨울 골짜기』의 개작 양상 고찰」, 『현대문화이론연구』 41권, 현대문화인학회, 2010, 265~266쪽.

314) 박찬모, 위의 책, 259쪽.

“이제는 나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전쟁 전에는 이승만의 하는 짓거리가 하도 결중나서 북조선 말에도 솔깃했더랬는데, 의용군으로 뽑혀 나오자 이들의 주의 주장과 이론이 현실 앞에 신기루가 되고 말았요. 구역질만 날 뿐이랴오. 포장 잘된 말들이지. 난 이제 누구의, 그 어떤 말도 믿지 않기로 했소” 하더니, 김익수가 꿇어 앉았던 무릎을 세우며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말하였다. “문동무, 나는 서울에 처자식이 있소. 반드시 살아남아 처자식을 만나야 해요. 어떤 사선을 해매더라도 죽어서는 안되지.” 말끝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다.(『겨울 골짜기』 상권, 1987, 73~74쪽)

『겨울 골짜기』의 초판에서 김익수는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인민군에 자원입대하게 된 동기가 이승만 정권에 대한 환멸 때문이었고 현실에서 그들의 주장이 잘 포장된 말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강한 불신을 보인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돌아가야만 하는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상과 전투에 대한 자신의 의무보다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스스로 다짐한다. 『노을』의 배도수가 사회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전향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태도와 『겨울 골짜기』의 김익수가 보이는 태도는 동일인의 것처럼 유사하게 겹쳐져 있다. 그런데 『겨울 골짜기』의 이룸판에서는 김익수의 관점이 크게 달라진다.

“공산주의는 무산 대중을 위한 좋은 사상인 점만은 틀림없소. 그래서 나도 징병 기피자로 무위도식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좋아한 쪽 편이 되어 통일 달성에 이바지 하고자 조국 해방 전쟁에 지원했요. 남조선 자본제 사회가 빈부 격차가 심하고 부정부패가 많은 개판이라, 남조선 인민의 호응 아래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전쟁이 쉽게 끝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미제가 끼어들구, 이제 중공군이 참전한다니, 전쟁은 장기전을 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전쟁은 통일 달성이 쉽지 않은, 잘못 벌

린 전쟁이요. 북과 남을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만들구…….” 김익수 목소리가 풀이 죽었다. 그는 엉덩이를 털구 일어섰다. “그런 애긴 그만 하구 근무나 섭시다.” (『겨울 골짜기』, 2004, 53쪽)

이룸판에서 김익수는 공산주의가 무산 대중을 위한 좋은 사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승만에 대한 감정적 반감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인물로 그려진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나 환멸의 태도가 사라지고 그의 비판은 전쟁의 전개에 대한 잘못된 판단, 전쟁의 장기화와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서 통일 가능성은 낮아지고 남과 북의 갈등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황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바뀐다. 초판본의 김익수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 이후에 남겨진 것이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과 생존의 열망이라면 이룸판에서는 가족에 대한 언급 대신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전황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강한 우려를 보인다. 사상에 대한 환멸과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이 『노을』의 배도수를 전향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겨울 골짜기』의 개작과정은 김익수를 인민군에 부적응하고 잠재적으로 전향의 조건을 갖춘 인물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지식인으로 바꾸어놓았다.

박찬모는 초판에서 김익수가 지극히 냉소적이고 감성적이면서 관념적인 인물로 그려지던 것과 비교할 때 이룸판에서는 감성적이고 관념적인 성격을 걷어냈다는 점을 지적한다.³¹⁵⁾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주관적이고 빈약하게 보였던 김익수의 말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뀐다. 김익수의 성격 변화와 함께 눈여겨볼 것은 문한득이 그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 변화다. 김익수의 관념적인 태도에 대해서 문한득이 보였던 불신이 개작과정에서 차츰 사라져 가기 때문이다.

「언제는 안 그랬습미까. 칼자루 쥔 놈이 장땡이지요. 윗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인

315) 박찬모, 위의 책, 271쪽.

민이야 불평이 있다 해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문한득은 [실소를 흘렸다.] 김익수의 말이 어려워 어떤 식으로든 그의 말을 받을 수가 없었다. 다만, 전쟁이 나기 전에도 배웠다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우익은 우익대로, 좌익은 좌익대로 무지랭이 토농이들을 모아놓고 김익수처럼 그럴싸한 논설을 주절거렸다. 그러면 새 국가 건설과 평화와 자유,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을 깃떠들었다. 그러나 듣기좋은 그 말들은 아랫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상관없이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다. 끝장에는 배운 자들[은]의 주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삼팔선 철책을 더욱 두껍게 치더니, 기어코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다.] 총싸움의 살상이 번지고 말았다. 이제는 김익수의 말처럼 누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모를 정도로, 이 나라땅을 텃밭삼아 다른 나라 군인들의 전쟁터로 변하고 만 터였다. 한득은 누구의 말도, 익수의 말까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택 되어진 쪽에서, 그렇게 몸 담고 있는 쪽을 위해 싸우라니 싸울 뿐이었다.([]에는 등지판에 추가된 내용. 밑줄은 등지판에서 삭제된 부분. 『겨울 골짜기』 하권, 1987, 490쪽 / 『겨울 골짜기』, 1994, 하권, 178~179쪽)

『겨울 골짜기』의 초판에서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한반도를 전쟁에 밀어넣은 민족반역자들이라는 김익수의 비판을 들은 문한득은 그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보인다. 김익수와 같은 지식인들이 이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판에서 김익수에 대한 문한득의 인식이 그가 신뢰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등지판에서는 불신보다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냉소적 태도다. 문한득에게 김익수와 같은 지식인은 민중이 언제나 체험했던 폭력의 구조에 자신 역시 동참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 실소를 흘리게 하는 존재일 뿐이다.³¹⁶⁾

316) 정찬영은 가족주의에 기초한 민족화해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익수와 문한득이 서로를 인정하고 소통가능한 기층민중과 양심적 지식인의 모습을 가족의 평화를 갈망하는 정서를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주장한다.(정찬영, 「김원일의 <겨울 골짜기>론」, 『현대소설연구』 1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반면에 이룸판에서 문한득은 김익수의 주장을 귀담아들을 뿐 김익수에 대한 불신이나 지식인들에 대한 냉소적인 생각은 삭제된다. 그뿐 아니라 김익수가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는 방식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모두를 불신하면서도 공산주의가 오래 유지되지 못하리라는 강렬한 비판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남과 북이 강대국에 의해서 주어진 이데올로기를 선택해서 대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지금 우리 민족도 두 적과 싸우고 있어요. 저쪽 편에서 보자면 중공군이 되겠고, 이쪽 편에서 보자면 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거대한 관념의 두 적과도 싸우고 있어요. 서구에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 둘 중 어느 쪽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대국이 나눈 삼팔선을 경계로 각각 한쪽 이데올로기를 선택했지요…….” (『겨울 골짜기』, 2004, 328쪽.)

김익수의 진술은 크게 축소되어서 “공산주의 이론이 이론만으론 오래 지탱하지 못한다고” (『겨울 골짜기』 하권, 1994, 179쪽) 주장하면서 파쇼적 지배 세력의 대두와 자신과 같은 불평분자들이 제거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이룸판에서는 사라진다. 그리고 그런 김익수에 대한 문한득의 강한 불신과 냉소적 태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앞서 김익수가 전향자인 배도수와 유사했던 인물에서 사상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이는 인물로 변화했다는 점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쟁과 분단의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중으로부터 의심받고 외면당하는 지식인으로 그려졌던 김익수는 불신의 대상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양상은 『노을』의 개작에서도 나타나는데 좌익에 대한 강한 환멸을 드러내면서 계속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던 배도수가 1997년 판에서는 당대의 시대적

349쪽.) 그러나 『겨울 골짜기』의 개작과정에서 김익수가 보이는 가족에 대한 강조나 사상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가 약화되는 부분은 실상 이들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게 한다.

조건 속에서는 좌익의 주장과 행동이 일정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하는 장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럼. 자네 부친은 그들 중 과격한 극렬분자였다고나 할까. 지금 생각해 보면, 자네 부친은 새로운 세계는 반드시 혁명에 의해서 성취된다 믿었고, 그 혁명의 구체적인 실행 수단은 폭력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 같아. 사실 그 당시 남한은 난장판이었지. 한 해에 물가가 배 이상 치솟고, 도시는 실업자 투성이고, 농촌 경제는 일제말 못잖게 파탄이었어. 미국 원조에 힘입어 떼부자가 생기는가 하면 친일 분파가 득세했으니, 좌파 중 폭력 혁명의 남조선 해방론 주장도 만만찮았다고 봐. 자네 부친은 요즘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벌이는 적군파나 극좌파와 비슷한 발상법을 갖고 있었다고 할까.」 (밑줄은 개정판에서 추가된 부분. 『노을』, 1978, 355쪽 / 『노을』, 1997, 329쪽.)

『노을』의 개정판에서도 당대 좌익들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이 남한이 처해있었던 상황 속에서는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부각된다. 김삼조의 입을 통해서 당시 남한의 반공국가 자행했던 고문과 살인을 폭로하면서 반공주의를 비판하고 좌익이 취했던 노선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을 보여주는 과정은 『겨울 골짜기』의 개작에서 남과 북, 두 개의 국가를 모두 폭력의 주체로 제시하면서도 김익수를 신념을 가진 사회주의자로 재구성하는 과정과 겹쳐진다. 그리고 한편으로 김익수가 가족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약화 되어간다. 가족의 문제가 『겨울 골짜기』에서 유독 김익수와 관련해서만 그 비중이 감소해가는 것은 전향의 논리와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배도수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은 사상을 포기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어둠의 혼」이나 『노을』에서 아버지를 돌려받길 원하는 소년 화자들의 욕망이기도 하다. 『노을』에서 좌익에 심취한 아버지의 잔혹성과 비윤리적인 태도가 가족에 대한 위협으

로 나타난 데 비해서 가족을 위하는 태도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 태도를 보여주는 장치로써 사용되었다. 즉 좌익을 가족을 위협하는 비윤리적인 주체로 재현하는 논리 속에서 가족에 대한 강조가 좌익의 비인간성을 지워는 알리바이로 기능했다면³¹⁷⁾ 반공주의적인 재현의 논리에서 벗어난 시점에는 가족에 대한 언급은 감소하고 신념을 가진 주체로 변모하는 것이다.

양진오는 반공국가에 의해서 악마적인 타자로 규정된 좌익을 복권하는 일이 ‘좌익의 인간화’와 ‘좌익의 주체화’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가능한데 김원일은 전자의 방식을 통해서 반공국가의 논리에 대항해왔다고 주장한다.³¹⁸⁾ 하지만 김원일의 『겨울 골짜기』의 개작과정을 살펴보면 ‘좌익의 인간화’를 뒷받침해주던 가족주의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감소하고 김익수가 가진 주체적인 측면,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이 강조된다. 이런 변화가 『겨울 골짜기』가 한국전쟁과 좌익의 활동, 특히 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김원일의 관점이 명확하게 정립된 ‘정본’을 구성하는 과정의 핵심적인 양상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좌익의 인간화’가 아니다. 오히려 ‘좌익의 주체화’가 김원일이 반공국가에 의해서 악마적 타자로 규정된 아버지를 복권하기 위해서 취한 핵심적인 전략일 수 있다. 이는 곧 그가 2010년대에 와서 “돌이켜 보건대 아버지를 포함한 그들이 비록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체제를 지향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민족애는 순수했다. 더러 판단의 오류에 따른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이 땅에 평등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려 혼신을 기울였다.”(『아들의 아버지』, 8쪽)고 평가하면서 해방 이후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만들어가려고 헌신한 정치적 주체로 아버지를 평가한 것이 그가 작품을 지속적으로 개작함으로써 도달한 의식의 지점임을 의미한다. 그가 개작을 통해서 『겨울 골짜기』의 정본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곧

317) 박찬효, 위의 책, 245쪽.

318) 양진오, 위의 책, 274~275쪽.

‘좌익의 주체화’ 라는 전략을 통해서 수행되었을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김원일이 한국전쟁에서 고향과 아버지가 놓여있었던 상황을 정리한 『불의 제전』에서 김원일이 주체화의 전략을 통해서 아버지를 복권하려고 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4.3 두 개의 국가와 국가선택

『불의 제전』은 「어둠의 혼」을 포함해서 아버지와 고향 진영읍에 대한 다른 소설들에서 다루었던 사건들과 문제의식을 한편의 작품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대작이다. 「어둠의 혼」에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재현되었던 아버지의 체포와 그로 인해서 이모부의 도움으로 가족의 서울로 이주한 과정이나 『노을』 등에서 그려진 빨치산으로 활동한 아버지, 『겨울 골짜기』에서 나타났던 국민만들기와 그에 수반되는 국가의 폭력, 고향 진영에서 자행되었던 보도연맹학살 등 김원일의 소설 속 핵심적인 사건과 문제들 대부분이 『불의 제전』에 등장한다.³¹⁹⁾ 『노을』과 비교했을 때 『불의 제전』에서 김원일의 생애사와 진영읍의 지역사가 비교적 사실에 근접하게 그려진다. 진영에서의 빨치산 활동이 그려지기는 하지만 『노을』처럼 지역을 점령하거나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진영 인근에서 있었던 지역 경찰과의 소규모 교전을 연상하게 하는 수준에 그친다. 김원일 가족의 서울 이주와 서울에서의 생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1948년부터 1950년 말까지 약 3년간의 일이지만 『불의 제전』에서는 1950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로 압축해서 보여준다. 소설은 크게 진영과 서울이라는 두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조민세 일가와 심찬수 등이 진영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한국전쟁 중 다시 고향 진영으

319) 진영에 설립된 후방 병원에서 증상을 입은 약혼자를 찾아온 여성에 대한 단편인 「갈증」의 내용도 『불의 제전』 제7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등장한다. 이에 대해서 하웅백은 소설 속 상황이 김원일의 자전적인 경험이었으리라 추정한다. (하웅백, 「장자(長子)의 소설, 소설의 장자(長子)」, 『김원일 깊이 읽기』, 122~123 쪽.)

로 돌아오는 과정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들의 시선을 따라서 한국전쟁 직전 토지개혁과 좌우대립으로 인한 남한 사회의 혼란과 인민군에 점령되어 인민공화국의 지역이 되었던 서울, 전선을 따라서 변화하는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로 인해서 양민들을 희생시키는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

『불의 제전』은 총 4회에 걸쳐서 출간되었다. 1983년에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된 『불의 제전』 1, 2권은 소설의 전반부인 1부 ‘인간의 마을’을 총 20장으로 나누었는데 후방에서의 빨치산 유격대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 판단한 조민세가 서울로 떠나면서 자신의 가족들도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 안시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까지 이어진다. 이는 1997년에 완결된 『불의 제전』 3권에 속한 한 장인 ‘4월 28일’에 해당하는 범위다. 다시 1987년에는 중앙일보사에서 『오늘의 歷史 오늘의 文學』 시리즈로 묶여서 『불의 제전』 1, 2권이 출간되었는데 총 27장이며 조민세가 서울의 남로당에서 활동하는 부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1997년판의 4권 ‘5월 21일’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1995년에야 연재가 완결된 『불의 제전』은 1997년에 문학과지성사에서 총 7권 분량으로 출간되는데 이때부터는 1월부터 10월까지 소설을 나눠서 부제를 붙이고³²⁰⁾ 각 장의 이름에는 날짜를 붙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강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김원일 소설전집으로 『불의 제전』이 5권 분량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각 월에 붙은 부제가 바뀌고³²¹⁾ 일부 사건의 순서와 날짜가 바뀌었다. 『노을』이나 『겨울 골짜기』가 이미 완성된 작품을 개작하고 출판하는 과정을 반복했다면 『불의 제전』은 십여년 간의 여러 차례 연재를 멈추고 재개하길 반복하면서 소설의 전반부를 8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출판하고 이후 1997년에 완결한 뒤, 이를 다시 2010년 김원일의 소설전집에

320) ‘1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2월 지키기, 깨부수기’, ‘3월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4월 허위 넘는 보릿고개’, ‘5월 새 터전을 찾아서’, ‘6월 인민공화국의 전쟁’, ‘7월 해방구 서울, 살아남기’, ‘8월 자유란 이름의 신기루’, ‘9월 죽은 자를 넘고 넘어’, ‘10월 전쟁, 타오르는 불’이다.

321) ‘1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2월 지키기, 깨부수기’, ‘3월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4월 떠나는 사람, 남는 사람’, ‘5월 지하생활자’, ‘6월 인민공화국의 전쟁’, ‘7월 해방구 서울, 살아남기’, ‘8월 자유, 그 신기루를 찾아’, ‘9월 죽은 자를 넘고 넘어’, ‘10월 전쟁, 타오르는 불’이다.

포함하는 과정에서 개작을 거쳤다. 앞서의 두 작품에서는 개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반해서 『불의 제전』에 대해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의 작품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 본고에서는 좌익 형상화와 아버지의 묘사, 국가의 폭력, 지역사와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불의 제전』의 각 판본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노을』이나 『겨울 골짜기』의 개작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좌익에 대한 반공주의적 인식이나 재현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의 『불의 제전』과 90년대 이후 『불의 제전』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조민세’에 대한 진영 주민의 인식 변화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념과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의 좌익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은 실상 당대의 현실적인 반응이었다기 보다는 반공주의적인 학습의 산물이었다. 1980년대의 판본들과 달리 1990년대 이후의 『불의 제전』은 좌익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보여주려는 흔적이 여럿 발견되는데 식민지 시기 좌익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언급이 추가되거나 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인물 말이 수정되기도 한다.

한주임은[한광조는] <다른아닌,> 일제 말기 창씨 개명을[까지] 하고 영천서[경주경찰서] 고등계 형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고, 노순경은[노기태는] 그가 전근 가기 전 잠시나마 상관으로 모시기도[그의 영천 출장길에 더러 만나 술대접을 하기도] 했었다. 「이사람아, 세월이 두번째 또 바뀐 줄을 아직 모르누만. 이제는 우리가 왜놈 앞잡이들이며 좌익들을 죄잡아들이는 끝날 좋은 호시절을 다시 만났단 말이야. 우리가 일정 때 그 방면에 유경험자다보니 다들 복직이 됐지. 계급도 경총 뛰고, 골수 좌익들 중엔 우리가 예전에 취조했던 불령선인 놈들도 많아. 일정 때 좌익 사상에 물든 놈들이 독립 운동에도 극렬했잖아.」 (『불의 제전』 1권, 1983, 92쪽 / 『불의 제전』 1권, 1997, 104쪽. []는 수정된 내용, <>는 삭제된 부분, 밑줄은

추가된 내용이다.)

진영지서의 경찰인 한광조와 노기태의 대화는 해방 이후 일본제국의 경찰력이 반공국가의 반공주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큰 틀에서 해방 이후 식민지 사법기구와 반공국가 사이의 연속성과 좌익 탄압을 위한 공모관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1983년 판에서는 불분명했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그들의 경력과 좌익 탄압 사이의 연관성이 선명하게 제시되면서 좌익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가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을』에서 진필제의 간첩혐의가 그가 쓴 연구서인 『일제시대일한국지식인(日帝時在日韓國知識人)의 항일운동(抗日運動)』에서 사회주의자의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와 기술의 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좌익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일은 반공주의와의 갈등을 의미한다.

“내용을 분석해보니 일제 때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상만 교묘한 방법으로 강조해서 그자들의 투쟁이 암암리에 돋보여 있었소. 더욱 가증스러운 점은 순수한 민족주의 항일 투사들까지 계급 투쟁 선봉에 세워 왜곡되게 날조했소. 김형. 우리의 국기(國是)가 무엇입니까?” (『노을』, 1997, 125쪽)

좌익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는 해방 이전의 행보로 한정되지 않는다. 진영 지역의 지식인들의 대화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제시되고 사회주의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인물의 관점이 변하기도 한다.

「조민세 선생[조선생]이나 그 친구나, 아니 그들 모두가 외곽으로 그렇게 치달을 수밖에 없겠지. 그 뜨거운 열정이야 눈물겹지만, 그런 마음이 결코 민족애와 동일

시 될 수는 없어.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그들의 희망이 우리 현실과 밀착되어 있대도,] 주입된 [강제] 이념<이>[에 그들이 맹종하고 있으]니깐. 몰라,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인민을 살리는 절대적인 민족주의 길일 수도 있겠지.」 (『불의 제전』 1권, 1983, 205쪽 / 『불의 제전』 1권, 1997, 231쪽. []는 수정된 내용, <>는 삭제된 부분, 밑줄은 추가된 내용이다.)

진영의 지식인인 심찬수와 대화에서 박도선은 조민세를 비롯한 진영의 사회주의자들이 외부에 의해서 주입된 이념에 이끌리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박도선은 해방 이전에 사회주의를 지향으나 해방 이후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1983년 판과 1997년 판에서 박도선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는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태도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1983년 판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당대 한국사회가 놓여 있던 사회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우리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주입된 이념” 을 경도된 이들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1997년 판에서는 “그들의 희망이 우리 현실과 밀착되어 있” 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외부에 의해서 주입된 이념을 일방적으로 추종했다는 관점에서 그들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선택했다고 보는 입장으로 변한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민을 살리는 절대적 민족주의 길일 수도 있” 지 않겠느냐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주의자들의 선택이 당대의 사회현실과 밀착된 것이었다는 평가는 『노을』의 1997년판의 개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전향자인 배도수의 입을 통해서 혼란스러웠던 남한의 상황에서 사회주의의 입장이 당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는 평가가 개작과정에서 추가되었다. (『노을』, 1997, 329쪽)

김원일의 고향인 진영읍을 배경으로 하는 『불의 제전』의 전반부(322)에는 사회

322) 1983년판에서는 『불의 제전』의 1부 ‘인간의 마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1983년판과 1987년 판에서는 1~2권, 1997년판은 1~3권, 2010년판에서는 1~2권 분량의 내용이다.

주의자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조민세가 이끄는 발치산 유격대의 시선이 제한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는 공개적인 좌익활동이 반공국가에 의해서 금지되었고 그로 인해서 남로당과 같은 남한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전반부에서는 우익 지식인이나 심찬수나 박도선 같이 좌우 모두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사회주의자와 당대 남한의 상황이 언급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원일의 개작 과정은 반공주의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평가를 지향했다. 사회주의자의 시선은 주변화되고 그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부의 성격 때문에 1980년대와 이후의 『불의 제전』로 개작되는 과정에서 그 인물들의 입장이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이라 생각된다. 소설의 구성을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사회주의와 반공국가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진영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당대 남한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조민세의 인척이자 전통적 지식인은 안시원으로 그는 조민세 일가나 경찰에 의해서 희생된 다른 좌익의 가족들을 돌보면서 반공국가가 주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양심적인 지식인으로 그려진다. 그는 이승만 정권하의 혼란과 만연하는 국가의 폭력에 저항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이론이라는 비판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 그런데 『불의 제전』의 1997년 판에서 안시원의 태도는 좀 더 유연하게 변모한다.

「친미 반공<(親美反共)>을 앞세워 미국을 업은 우남이 이제 명실공히 남한을 한 손에 넣었어. 지금 감히 누가 우남과 맞서겠나. 미 군정이 우리 백성의 여론은 전혀 무시하고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를 그냥 등용해 쓰더니, 우남도 권력 유지에 급급하니까 왜놈들 앞잡이를 사족으로 마구 불리들이지 않는가. 반민특위(反民特

委)? 잘들 해 보라지. <정말 얼마만한> 민족 반역자 거물을 중형에 처하는가 <두고 보지>[두고봐]. 눈가리고 아웅식이고, 해방을 못 보고 죽은 독립지사들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꼴이야. 그 일이야 말이 났으니 허는 말이지만, 북쪽이 용단 있게 잘했지. 그 김새를 알구 얼마나 많은 인간 말자들이 북에서 남으루 내려왔나. 남한에 와서 그놈들 설쳐대는 작태라니. 물론 양식 있는 식자며 지주·상공인두 있지만.」 (『불의 제전』 2권, 1983, 108쪽 / 『불의 제전』 2권, 1997, 170쪽. []는 수정된 내용, <>는 삭제된 부분, 밑줄은 추가된 내용이다.)

안시원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친일과 청산을 요구하는 남한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친일파를 등용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친일과 청산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과 결탁한 것이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일방적인 독주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친일과 청산을 내세운 반민특위는 여론을 의식한 일시적인 대처일 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전망한다. 그는 1983년 판에서는 친일청산의 문제를 남한의 상황에서만 이해했는데 반해서 1997년 판에서는 한반도 전체의 상황으로 파악한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해방 이후 친일청산 문제를 직면했던 북한이 더 잘 대응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 월남 행렬의 주요한 원인 중에는 친일청산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친일청산을 피해서 내려온 이들이 오히려 반공주의와 결탁해서 위세를 부리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보이는 것이다. 1997년 판의 안시원은 민족주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보를 보았다면 이를 정당하게 평가해주는 유연한 인물로 그려진다.

1997년 판 『불의 제전』에서는 반공국가의 사회적 혼란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기준으로 사회주의자들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하려는 인물들을 통해서 반공주의의 제약을 벗어나려고 한다. 같은 진영을 소설의 배경으로 한 『노을』이 1997년의 개정판에서 반공국가가 자행한 폭력을 고발하고 사회

주의자들이 놓여 있던 상황과 선택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작했던 방향과 동일하다. 이는 『노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강조했던 악마화된 좌익의 이미지를 거둬내려고 했던 시도도 동일하다. 대표적인 반공주의적 재현이었던 반인륜적인 존재로서 ‘빨갱이’의 이미지도 1983년 판 『불의 제전』에서 등장한다. 조민세가 이끄는 빨치산 부대는 『노을』의 김삼조가 그러했듯 가족을 위협하는 비윤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냉혹한 집단으로 그려진다.

< 「가망이 없겠습니다.」 조민세 앞으로 다가간 배종두가 귀엣소리로 말했다.

조민세가 최윤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 보았다. 불규칙적인 맥박은 이미 그 기가 약해져 있었다.

「약속 시간이 지났어. 어서 여길 뜨야 돼.」 조민세가 말했다.

「최동무는 어떡할까요?」 배종두가 물었다.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던 조민세가 얼굴을 들고 배종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착삼계 굳은 그의 얼굴을 배종두가 마주 쳐다 보았다.

「안락사를 시켜야지. 그 일은 지판수 동무에게 맡겨.」 > [“죽었습니더.” 최윤의 손목에 맥박을 짚던 배종두가 말했다. 그는 가는 비가 내리는 숲을 둘러본다. “장례는 다음에 지내기로 하고 낙엽으로 우선 덮어둡시다. 여기가 화전골 뒷숲 같은데 이 산만 돌아가면 구들재목이니깐”] < 냉랭하게 말을 마친 조민세는 아들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끼이끼이 울고 있는 최두술씨의 겨드랑이를 껴안았다.> [“윤아!” 최두술이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쏟는다.

총을 메고 일어선 배종두가 몸부림치는 최두술을 묵묵히 내려다보다 사망을 살핀다.] < 「최동무, 떠나야 돼요. 이젠 여기도 안전한 피신처가 못 되니깐. 곧 추격을 당한단 말입니다.」 하고 말하며 최두술씨를 일으켰다.> [“최동무, 갑시다. 더 지체했다간 추격당해요.”

배종두가 말했으나 최두술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 배종두가 최두술의 어깨

를 흔든다. 그는 아들의 시신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최두술을 잡아채어 일으킨다.] (『불의 제전』 1권, 1983, 281~282쪽 / 『불의 제전』 1권, 1997, 306쪽. []는 수정된 내용, <>는 삭제된 부분이다.)

조민세의 빨치산 부대는 화차고개에서 경찰에게 패배하고 부대원인 최윤은 치명적인 총상을 입는다. 1983년 판의 조민세는 아들을 따라서 입산한 최두술이 보는 앞에서 부상당한 대원의 안락사를 결정한다. 회복이 불가능한 부상을 입은 동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라고 말하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절규하는 최두술과 냉혹하게 부대를 이끄는 조민세의 모습이 교차하면서 『노을』이나 『겨울 골짜기』에서 나타났던 냉혹하고 폭력적인 빨치산의 이미지와 유사하게 보인다. 반면에 1997년 판에서는 조윤의 안락사 장면은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동료의 시신을 버리고 가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있다. 1983년 판과 비교했을 때 빨치산 대원들이 겪어야 하는 윤리적인 갈등이 부상당한 동료를 살인하는 것에서 시신을 버리고 떠나는 문제로 축소된다. 눈앞에서 아들이 살해당하는 걸 보아야 하는 최두술의 상황도 아들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으로 바뀐다.

“이 자습을 여게다 두고 가잔 말인교?” 최두술이 고개를 돌리고 따지듯 묻는다.
“지금 형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더.”

“나는 이늬를 업고 마실로 내리갈랍니더. 내려가서 양지쪽에 물어줄랍니더. 병신으로 서럽게 큰 이 자습, 짐승 뜯어먹게 여게 다 내빼리돌 수 읍심더.” 최두술이 널브러진 아들을 등에 얹는다.

“하산하면 최동무도 죽습니더. 개놈들이 최동무를 그냥돌 것 같아요?” 일어서는 최두술에게 배종두가 말했다.(『불의 제전』, 1997, 306~307쪽)

1983년 판의 상황이 최두술에게는 가족이 살해당하는, 가족의 위협이었다면

1997년 판에서는 전쟁이라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망자에 대한 의례를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좌익이 가족에 가하는 위협이 전시의 현실적 제약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약은 단순히 빨치산 부대의 한계만이 아니라 최두술을 처벌할 수 있는 반공국가에 의해서도 가해진다. 빨치산을 비롯한 사회주의자와 인민군의 냉혹함을 강조하는 서사가 크게 줄어들거나 남북 모두 유사하게 그려지는 것이 1997년 판 『불의 제전』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반공주의와 비판적 거리를 확보해가는 이러한 변화는 해방 이후 민중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그려 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아낙네들은 역센 남도 사투리로 연방 수다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몇 달 전, 그가 형 가족이 사는 사글셋방을 찾았을 때 형의 푸념이 떠오른다. “정우야, 살아갈수록 우리가 남한으루 성급하게 내려왔다는 생각이 들어. 쫓 가직 무식쟁이 설쳐대는 꼴 보기 싫어 내려왔다만 여기 세상은 왜 이 꼴이디? 피양에 그대루 참구 있었단 한동안 부르좌 계급으로 몰려 고생했갔으나 지금쯤 형편이 나아졌잖았어? 남한 세상 돔 보더라구. 수백만 귀환 동포가 유입됐디, 청장년 태반이 실업자디, 도적 거지는 들끓디, 시장을 자유 경쟁에 맡게두니 모리배 매점 매석은 날루 심하잖아. 법 위에 설쳐대는 놈들이 한둘이야? 천정 모르는 물가고 보더라구. 배 터져 죽는 부르좌는 따루 있어. 있는 놈 살찌우는 미국 원조 정책부터 글러먹었구.” 형이 소주를 마시며 말했다. 뒷전에서 형수는 말없이 수북이 쌓인 팩표지에 풀칠한 형곶을 씹우고 있었다. 월남한 지 이태 만에 겨우 인쇄소 식자공 일자리를 얻은 형이 부업으로 날라온 일감이었다. 형은 명색 전문대학 중퇴자였다.(『불의 제전』 1권, 1983, 28쪽 / 『불의 제전』 1권, 1997, 35쪽. 밑줄은 추가된 내용이다.)

심찬수의 대학동창인 허정우의 그의 가족들은 월남한 실향민들이다. 이들은 인민공화국에서 반동 부르주아로 탄압받을 상황에 놓이자 월남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

들이 직면한 현실은 극심한 경제적 혼란과 원조 경제로 인한 사회 부조리,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인한 실업난으로 인해 고학력자임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겪게 되는 가난한 삶이다. 남한에서의 힘겨운 삶으로 인해서 정우의 가족은 월남을 후회한다. 이러한 내용이 1997년 판에서 추가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해방 이후 월남한 실향민이나 남한의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남한을 선택하는 것이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겨울 골짜기』의 거창 주민들이 남과 북의 두 개의 국가 사이에서 이동을 계속했던 것처럼 민중에게 국가는 선택 가능한 대상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혼란과 가난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오랫동안 열망했던 공동체 사회의 평등 개념이 남한보다는 북조선에 실현 가능성이 크므로 그는 북조선으로 올라갈까도 생각했다. 장자의 책임으로서 달린 가족을 이끌고 갈 짐도 부담이 되었지만 뜻을 펴는 데는 선택된 땅이 따로 없다는 쪽으로 그는 생각을 바꾸었다. <자기 뜻을 펴는 데는 일개 정치꾼으로서의 행동 대원보다 저술을 통해 더 많은 동지를 간접적으로 만나는데 헌신하기로 결정했고, 지역 사회에서 민중을 위한 교육에 봉사함으로써 후계자를 양성하기로 뜻을 바꾼 것이다.> [그는 혁명의 실천적 행동 대원으로 나서기를 포기한 대신, 오물투성이의 더러운 물을 자체 정화하는 한갓 일꾼으로서, 지역 사회 민중 교육의 봉사로 후계자를 양성하고 저술을 통해 뜻을 펴기로 결심했다.] (『불의 제전』 1권, 1983, 82쪽 / 『불의 제전』 1권, 1997, 93쪽. []는 수정된 내용, <>는 삭제된 부분, 밑줄은 추가된 내용이다.)

진영의 지식인인 박도선은 여운형 암살 이후 민족적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불가능한 꿈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정치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저술과 교육으로 지역에 헌신하고자 한다. 그런데 1997년 판에서는 박도선이 월북

을 고려했던 것으로 그려진다. 그는 1983년 판과 동일하게 “그가 염원했던 민족주의에 입각한 계급 평등의 공산주의는 현실 앞에 신기루 같은 허상” (『불의 제전』 1권, 1997, 93쪽)이었음을 자각하지만 이것이 반공주의자로서의 전향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박도선은 인민공화국이 자신의 신념에 좀 더 근접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장자로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월북을 선택하지 않는다. 1997년 판 『불의 제전』에서 이러한 변화는 해방 이후 남과 북, 두 개의 국가가 형성되던 시기에 민중이 한 국가의 국민으로 당위적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러한 국가선택의 가능성이 열릴 때 이념 역시도 개인에 의해서 선택 가능한 대상이 된다. 화가를 꿈꾸는 젊은 대학생 서성호는 안시원과 사회에 참여하는 예술의 문제를 두고 안시원과 이야기한다.

“예. 당파성·계급성·민중성을 서로 밀접하게 연관시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투쟁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이론 말입니다. 귀족적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발판으로 성장한 미술은 부르주아 착취 계급의 독점 미술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프랑스 인상주의 미술은 자본주의 시대의 꽃인 셈이지요.”

“난 그 방면의 소양이 없지만, 프롤레타리아 미술은 시각이 너무 편중되지 않았어?”

“부분적으로 수용할 요소가 있잖습니까.”

“자네가 심적으루 갈등을 겪고 있는 모양이군.”

“<글쎄요. 그러나>[그렇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순수한 예술일지라도 그 시대를 <그> 예술 속에 융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향기 없는 가화(假花)와 <갈잡을 까요.>[갈지 않나 싶습니다.] 현 시대를 고통스럽게 직시하는 예술가의 정신이 <그의 작품 속에 면면히 숨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만인에게 보편적인 감동을 수반하여>[작품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 점이 생활과 직결된 감동으로] 전달 될 때, 비로소 좋은 예술이 탄생되는 게 아닐까요?” (『불의 제전』 2권, 1983, 91쪽 /

『불의 제전』 2권, 1997, 148쪽. []는 수정된 내용, <>는 삭제된 부분, 밑줄은 추가된 내용이다.)

1983년 판에서 이들의 대화는 시대에 기여하는 예술에 대한 서성호의 고뇌를 드러내는 장면에 가까웠다. 그러나 1997년 판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서성호의 고뇌를 보여주는 장면이 되며 이는 한국전쟁 중 서울에서 자발적으로 인민군에 자원입대하는 그의 행보를 암시하는 장면이 된다. 두 개의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곧 반공국가의 금기였던 사회주의의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1997년 판 『불의 제전』은 국민이 주권 권력이 그 사회에 속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으로 나누어 놓는 경계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체성을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즉 1997년 판 『불의 제전』이 바라보는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반공국가의 국민이면서도 월북과 같은 다른 선택을 통해서 국민의 위치를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다.³²³⁾ 주권 권력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경계 안에 갇히지 않는 국민의 모순적 성질은 곧 국민의 경계를 확고하게 만들어내려는 반공국가의 표적이 된다.³²⁴⁾

323) 조르조 아감벤은 정치구조 속에 놓여 있는 인민이란 본질적으로 균열과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민이라는 개념은 그 안에 근본적인 생명정치적 균열을 이미 언제나 담고 있다. 인민은 자신이 이미 언제나 포함되어 있는 집합에 속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전체에 포함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인민 개념은 정치 무대에 불려와 작동되는 매 순간 모순과 아포리아를 발생시킨다. 인민은 이미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민은 모든 동일성의 순수한 원천이며 배제, 언어, 혈통, 영토에 따라 계속 스스로를 재규정하고 정화시켜야만 한다. 혹은 반대의 극에서 인민은 본질적으로 그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인민의 실현은 자신의 폐지와 일치한다. 존재하기 위해서 인민은 자신의 대립물을 통해 스스로를 부정해야만 한다.(그러므로 노동운동 특유의 아포리아는 인민을 향하는 동시에 인민의 폐지를 목표로 한다.) 언제나 매번 반동의 피 묻은 깃발로서, 혁명과 인민전선의 불확실한 깃발로서 나무끼게 되는 인민은 적과 동지의 분열보다 더 근원적인 분열을 매번 포함한다. 끊임없는 내전은 그 어떤 갈등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민을 분할하며, 그 어떤 동일성보다 더 확고하게 인민을 구성하고 하나로 결합시킨다.” (조르조 아감벤, 2009a, 42쪽)

324) 아감벤은 인민에 내재한 균열을 제거하고 하나의 ‘민족’ (혹은 국민)을 구성하려고 하는 현대적 주권 권력의 시도가 단일한 정치체로 통합되지 않으려는 자들을 제거하는 학살로 귀결되었다고 진단한다.(조르조 아감

1997년 판 『불의 제전』은 한국전쟁을 재현하면서 두 개의 국가가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민중에게 가하는 폭력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국민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모순을 드러낸 김원일의 작업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불의 제전』의 후반부는 한국전쟁의 참상이 인민공화국의 점령지 서울과 진영을 오가는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서 그려진다. 중심이 되는 인물은 진영의 부유한 집안 출신에 경성제대를 다녔던 수재였지만 식민지 시기에 사회주의에 관여했다가 불령선인으로 체포되어 학도병에 징집된다. 태평양전쟁에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그는 전쟁이 끝나고 한쪽 팔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 냉소적인 허무주의자로서 살아간다.³²⁵⁾ 갑자기 고향에서 사라진 조민세 일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서울에 올라왔던 그는 한국전쟁으로 인민공화국에 의해서 지배되는 서울에서 진영으로 내려가면서 두 개의 국가가 민중을 국민으로 만들고 국민이 아닌 자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목격한다. 그가 주권 권력의 영토를 횡단하면서 그 참상을 목격하고도 살아 있을 수 있던 것은 장애가 있는 그의 신체가 국민임을 인정받기 위해 국가에 동원되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에 도착한 직후 심찬수는 과거 만난 적이 있던 안시원의 친척인 안진부를 찾는다. 사라진 조민세 일가가 그의 인척이며, 조민세가 그의 오랜 친구임을 알기 때문이다. 호기심으로 조민세를 찾던 심찬수는 이내 조민세가 속한 서울의 남로당 세력에게 붙잡힌다. 심찬수를 심문하던 남로당원은 그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남과 북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던 심찬수는 어느 한쪽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벤, 2009a, 44~45쪽)

325) 『불의 제전』에서 등장하는 심찬수는 「어둠의 혼」에서도 태평양전쟁으로 한 팔을 잃은 ‘찬수’로 등장하며 『노을』에서는 “태평양전쟁 때 학병으로 끌려가 남양에서 팔 하나를 날리고 해방과 함께 돌아온 뒤, 지금은 부친이 세운 한얼고등공민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 (『노을』, 1997, 156쪽)는 ‘배도찬’이란 인물이 언급된다.

“저를 편하게 그냥 풀어놓아줄 순 없겠습니까? 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지로 구제하기도 불가능한 상태로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 동지가 하는 일에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심찬수는 탈진한 사람처럼 의자에 늘어진다.

“심동무 말은 국적 불명자나 할 소린데요. 심동무 지금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인민으로 이 나라가 구성되었다면 계급 혁명은 물론 통일의 날은 영원히 기약할 수 없을 겁니다.” (『불의 제전』 4권, 1997, 277쪽)

두 개의 국가 중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심찬수의 태도는 주권 권력의 경계를 오가면서 그 안에 귀속되지 않으려는 국민의 모순적인 성질을 드러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국가 용인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남로당원의 입을 통해서 북의 인민공화국도 국민의 경계에 포착되지 않는 이들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두 개의 국가 어느 쪽이 만들어 놓은 국민의 경계에 귀속되지 않으려는 심찬수의 태도는 이후 그가 계속 주권 권력의 위협에 노출되는 원인이 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이내 무기력하게 서울이 점령당하면서 얼마전까지 38선 이남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공국가의 국민이 되었던 이들은 갑작스레 인민공화국의 국민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들은 자신이 인민공화국의 국민임을 증명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반동으로 몰려서 주권 권력의 폭력과 직면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은 두 개의 국가의 경계선을 오갔던 경력이 있는 자들에게 특히 치명적이었다. 인민공화국은 그들을 언제든 반동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임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는 두 개의 국가가 대립하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의미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조선 전토가 안정되면 남조선 출신자는 성분조사가 있을 건

데 성구 경우 제 전공을 살려 공화국 세상에서 뺏어나가려면 전사로서 경력 정도는 갖춰야지에. 더욱 성구는 과거 빨치산 입산 생활에서 탈출한 전력까지 있으니 남 먼저 자원 입대해야지에. 지금 상황 보이소. 젊은이들이 앞다퉈 의용군으로 입대하고, 불합격 맞는 젊은이도 많은 실정 아입니겨.” (『불의 제전』 5권, 1997, 251쪽)

진영 유지의 아들이었던 서성구는 조민세의 빨치산 유격대에 붙잡혔다가 탈출했다. 전향을 강요당했던 그는 최두술의 도움으로 탈출한 뒤 가족과 함께 서울로 향한다. 하지만 서울이 인민공화국의 점령지가 되자 그는 다른 이들보다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인다. 전쟁에서 인민공화국이 승리하게 될 때 그의 과거로 인해 국가의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성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민군에 자원입대를 해서 국민임을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 서성구와 그의 가족들은 심찬수의 도움으로 진영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을 하지만 반공국가는 적성지역을 거쳐왔다는 이유로 그를 의심한다. 좌익으로 몰린 서성구는 경찰에 의한 고문후유증으로 끝내 사망한다. 두 개의 국가가 가하는 위협에 계속 직면해야 했던 건 서성구만이 아니다. 전쟁으로 인해 계속 변화하는 국가의 영토는 한 지역에 거주하는 민중이 수차례 다른 국가의 국민이 되도록 만들었다.³²⁶⁾ 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두 개의 국가가 국민을 만들어내려는 폭력에 직면해야 했다.

이승만 괴뢰 도당 아래 협조한 남조선 인민은 그 죄파로 해방 전쟁에 앞장서는 충받이가 돼야 하는데, 자원을 못 하겠다면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에 불을 할 때는 인민 재판에 넘기겠다는 으름장을 놓거나, 그 과정에서 남조선 시절 인민

326) 조르조 아감벤은 전쟁으로 인해 변화하는 영토, 점령지와 같은 예외상태적 공간(그는 이러한 성격의 공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용소’ 라고 주장한다.)은 근대국민국가로부터 국민이 인정받은 인권이 영토와 그곳에서 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 하나의 픽션일 뿐임을 확인시켜준다고 설명한다. 실상은 생명이 주권 권력의 결정에 포섭되어 있다는 것이다.(조르조 아감벤, 2008, 329~332쪽)

을 착취한 반동 혐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가족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방이 묘연해져버린다고, 흥흥한 소문을 끼리끼리 쑥덕댄다.(『불의 제전』 6권, 1997, 70쪽)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동원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곧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국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민공화국의 국민이라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은 국가의 표적이 되어 언제든 제거당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쪽의 반공국가에서도 동일했다.

『불의 제전』은 국민보도연맹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운영 과정에 대해서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불의 제전』 4권, 1997, 218쪽) 한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민군 사이에서 도는 전선소식과 같은 형태로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조직적 학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불의 제전』 5권, 1997, 262쪽) 특히 진영에서 자행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도 주민들의 시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다루고 있다.

『불의 제전』에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의 재현이 가지는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의 인민공화국과 마찬가지로 남의 반공국가 역시도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고 그 경계선에 선 이들을 제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점이다. 반공국가는 인민공화국에 점령되었던 곳에서 진영으로 도망쳐온 피난민들을 A, B급으로 분류해서³²⁷⁾ 제거와 전향의 대상을 관리했다.(『불의 제전』 6권, 1997, 168~172쪽)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이러한 분류와 통제, 그리고 파괴를 자행했던 반공국가의 관리기술이 적용되었던 중요한 대상들이었고 그만큼 철저하게

327) 한국전쟁 중 반공국가는 수복지역의 주민들, 특히 국민보도연맹원들을 A·B·C 등급으로 구분해서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를 구분하고 전향의 강제와 제거를 선택했다.(한성훈, 위의 책, 252쪽) 반공국가가 국민을 나누는 구분은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1961년 군부정권에 의해서 탄압받았던 피학살유족회에 대해서도 A·B·C(D·E)로 등급을 나눠서 처벌과 통제의 강도를 결정했다.(한성훈, 위의 책, 311~312쪽)

공격당했다.

“지서에서 마산경찰서로 넘겼다 카는데…… 그기 아인 기라예. 국민학교에 모아 놓은 백뿔 맹을 동아줄로 묶어서 밤중에 어데로 텔고 갔다는 소문이 저갓거리에 파다합디디. 우째우째 수소문해서 알아보이게…… 그 사람들을 관음사 골짜기에 모다놓고 총 쏘서 죽이고 지름 뿌리서 불을 질러뵈다 카인께……” (『불의 제전』 6권, 1997, 183쪽)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에 대한 김원일의 강조는 남과 북의 두 개의 국가가 가한 위협이 동일한 성격이었다는 걸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노을』에서 변형되었던 진영읍의 지역사를 그가 사실에 근접하게 그려내고자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을』에서 좌익봉기를 겪었던 것으로 재현된 진영과 달리 실제로는 수백 명의 진영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으로 희생되었다. 김원일은 과거 반공국가의 위협으로 인해 다룰 수 없었던 역사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려고 한다.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은 사실의 재현에 대한 김원일의 관심을 보여주는 일종의 척도였던 셈이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한명 있어.” 박도선이 심찬수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살아남다니요?”

“경사짜리 경찰 하나와 육군 중위 하나가 양쪽에서 횃불을 들고 서 있는 가운데 다섯 명씩 일렬로 세우곤 수건으로 눈을 가린 후 가슴팍에다 검정색 원을 그린 과녁판 종이를 붙여놓고 삼십보 뒤쪽에서 사격을 했는데, 한 명만은 총에 맞지 않았어. 실수로 총알이 비껴갔는지, 아니면 양심적인 군인이 일부러 과녁판을 비껴나게 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쨌든 그 사람은 죽은척 쓰러져 있다가 군인들이

아랫마을 사람들을 차출하러 내려가자 구덩이의 시체 더미에서 기어 나와 도망쳤어.” (『불의 제전』 5권, 2010, 45쪽)

기적으로 살아남은 한 생존자에 대해서 박도선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2010년의 개정판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이야기 속 생존자는 김영봉으로 진영에서 자행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했고 1960년에는 국회에 나가서 사건의 진실을 증언했던 인물이기도 하다.³²⁸⁾ 김원일의 자전소설인 『아들의 아버지』에서는 김영봉의 사례를 포함해서 그가 고향을 떠나있던 사이 발생했던 지역사를 그가 어떻게 공부하고 정리해왔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만큼 김원일은 자신이 알지 못했거나 이전에는 재현할 수 없었던 역사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는 진영의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2010년의 개정판에서 한국전쟁 중 반공국가가 자행한 대표적인 학살 사건인 부산 형무소 재소자 학살사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점은(『불의 제전』 4권, 2010, 378쪽) 이를 잘 보여준다. 이외에도 『노을』에서 좌익에 희생된 주민들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수습할 수 없었던 좌익 가족의 묘지 문제(『노을』, 1997, 228~229쪽)에 대응하는 듯 박도선의 입을 통해서 학살 희생자들의 위령과 복권의 문제(『불의 제전』 6권, 1997, 282쪽)가 언급되기도 한다. 말할 수 없었던 역사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다.

두 개의 국가가 자행한 폭력은 민중에게 아주 동일하게 인식되었다. “공산 세상만 무섭은 게 아니라 민주 세상도 똑 한가지” (『불의 제전』 6권, 1997, 181쪽)라는 말처럼 소설은 그들이 겪는 위협이 동질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폭력의 양상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서성구와 마찬가지로 적성지역을 거쳐온 심찬수에게 경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결백하는 증거를 보이는 최선의 방법은 공산군과 맞

328) 김영봉과 그와 함께 피학살자 유족회인 금창유족회를 이끌고 평생을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김영옥의 삶은 소설가 조갑상에 의해서 『밤의 눈』이라는 이름으로 소설화되었다.

서서 싸우는 길밖에 없다” (『불의 제전』 7권, 1997, 109쪽)면서 참전을 강요한다. 그의 장애로 징병을 면하지만 함께 조사받았던 박도선은 강제 징집되어 끌려나간 전쟁터에서 두 눈을 잃는다. 두 개의 국가는 국민임을 증명하라고 끝없이 요구하면서 민중을 희생시킨다. 김원일이 바라본 한국전쟁의 잔혹함이란 국가와 국가가 대등하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을 만들어내려는 두 개의 국가가 민중에 가하는 위협이었다.³²⁹⁾

김원일은 한국전쟁이 두 개의 국가가 자행하는 동질적인 폭력, 국민만들기의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그를 오랜 시간 속박해온 반공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김원일은 반공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좌익을 더 주체적인 인물로 그려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아버지, 김종표를 모델로 한 조민세의 형상화가 『노을』의 김삼조·배도수, 『겨울 골짜기』의 김익수와 달라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겨울 골짜기』의 개작을 통해서 김익수는 사회주의에 회의적인 인물에서 강한 신념을 가진 사회주의자로 변모했다. 『노을』에서 배도수가 전향자로 등장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좌익 아버지를 모델로 한 인물의 주체성이 훨씬 강화된 것이다. 이는 『불의 제전』의 조민세의 묘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김익수가 빨치산 부대원 사이에서 부적응자로 묘사되는데 반해서 조민세는 강인한 유격대 지도자이자 이론가로 그려진다.

조민세가 벼랑을 피해 언덕 아래로 내려간다.

“선생님은 여계서 지휘를 하시지예.” 차구열이 조민세에게 말한다.

“나도 대원들과 함께 행동해야지요. 이럴 땐 전사고 지휘관이고 구별이 없어요.” (『불의 제전』 1권, 1997, 290쪽)

329) 이진희는 『불의 제전』에서 나타나는 학살이 상호 보복을 자행하는 대등한 두 국가 간의 충돌인데 반해 『겨울 골짜기』의 거창양민학살은 반격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한 지배권력의 무차별적 폭력이라고 구분한다. (이진희, 『김원일 소설의 죽음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11, 84~85쪽) 그러나 국민을 만들어내려는 주권 권력이 국민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들을 제거한다는 데서 김원일이 그리고 있는 『겨울 골짜기』와 『불의 제전』의 폭력은 동일한 것이다.

열정적인 지도자로 묘사되는 조민세의 모습은 1997년 판에서 두드러진다. 위의 인용문은 1997년 판에서 추가된 부분으로 헌신적인 지도자로서 조민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1983년 판에서 조민세가 최윤의 안락사를 부대원에게 지시하는 냉정한 인물로 묘사되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조민세는 한국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남로당과 북로당 사이의 갈등에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할 수 있는 위치를 얻으나 파벌 다툼에 염증을 느끼고는 빨치산 유격대를 이끌고 최전선에 나서는 혁명가의 삶으로 돌아간다.

조민세가 쓰러진 안진부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며 말한다. “진부, 잘 들어. 가족을 북으로 옮겨놓고 난 유격대를 지원해서 다시 내려온다고. 내 말 들어?” 안진부가 게슴츠레 눈을 뜬다. 조민세가 그의 얼굴에 대고 악을 쓴다. “난 다시 전쟁 전, 서울로 올라오기 전, 빨치산 시절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진영에 남은 딸애를 빼내어 올 거야. 책상물림으로 늘어앉아 있지 않는다고, 너한테 그 약속만은 분명하게 하지!” (『불의 제전』 7권, 1997, 62쪽)

『불의 제전』의 결말부에서 조민세가 경남 지방 의용군 출신자로 구성된 ‘조학구 부대’ (작중 조민세의 가명)를 이끌고 지리산을 향해서 태백산맥을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급된다.(『불의 제전』 7권, 1997, 280~281쪽) 그는 부적응자나 회의주의자도, 작중 남로당원들의 비판처럼 기회주의자도 아니라 강한 신념으로 무장한 헌신적 혁명가로서 가장 위태로운 전장을 향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동시에 『겨울 골짜기』의 김익수가 보였던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로서의 면모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가 보기에 북조선은 지금 ‘미 제국 사슬과 이승만 폭정 아래 굶주리며 신음하

는 남조선 동포를 한시라도 빨리 해방시켜야 한다’ 는 절대절명의 사명감과 그 희망에 부풀어 있다. 북조선 인민의 그 열기 넘침을 그는 북조선으로 들어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조민세 역시 북조선의 남반부 통일 전쟁을 열렬히 바라던 바이다. 눈동자 또록또룩한 여성 전사를 바라보는 그의 가슴에 희열이 강렬한 불기둥을 일으켜세운다. (『불의 제전』 5권, 1997, 112~113쪽)

전쟁을 혐오하는 평화주의자였던 김익수와 달리 혁명가 조민세는 한국전쟁은 남한에서 혁명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자 기회로 인식한다. 조민세 역시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지만 심찬수처럼 전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전쟁이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혁명가로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불의 제전』에서 나타난 김원일의 전쟁 인식은 대체로 심찬수의 시선에 가깝다. 그는 두 개의 국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하고 그 구조를 정밀하게 살피고 있다. 그러면서도 심찬수가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신념을 가진 조민세에게 존경심을 보이듯 김원일 역시도 사회주의자, 즉 아버지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보인다. 박도선의 입을 통해서 그가 말했듯이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인민을 살리는 절대적인 민족주의 길” (『불의 제전』 1권, 1997, 231쪽)을 선택했을 당대의 지식인들의 고뇌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사회주의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민족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다수의 지식인들을 통해서 당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원일은 반공국가의 위협 속에서 말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한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때로 그는 강한 반공주의의 자장 속에서 재현의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고, 그 한계를 자각한 이후에는 반공국가가 설정한 재현의 한계를 배회하면서 그 가능성을 조용히 넓혀갔다. 현기영과 비교할 때, 김원일이 반공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길었다. 현기영이 제주의 역사를 통해서 민주화운동

의 민중담론과 접속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함으로써 반공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의 행렬에 속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김원일은 민주화 이후, 특히 1990년대를 기점으로 사회주의와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금제가 약화된 이후에 주목할만한 변화들이 발견된다. 이는 그의 개작을 통한 의식의 변화가 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며 동시에 한국전쟁 중 반공국가에 의해서 희생된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유가족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시점³³⁰⁾과 맥을 같이 한다. 자신의 고향에서 ‘빨갱이’로 내몰렸던 경험이 고향에서조차 버림받았다는 고립감으로 이들을 가두어 놓았다.³³¹⁾ 그가 『아들의 아버지』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들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듯이 민주화로 인한 해금 조치와 그로 인한 담론장 확장이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김원일은 민주화의 진행에 따른 담론의 확장과 맥을 같이하며 반공주의가 자신의 문학에 끼친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가 자신의 작업이 가지는 의미를 언급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개작이 김원일의 문학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다. 그가 반공주의가 만든 왜곡과 그로 인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존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반공국가가 배제한 이들을 복권하려는 인정투쟁의 과정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원일은 아버지의 복권을 다른 정치 담론에 의존하는 대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아버지의 신념을 긍정함으로써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³³²⁾

330) 김동춘, 앞의 책, 32쪽.

331) 『노을』의 김갑수가 마치 실형민처럼 행동하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고향에 대한 상실감은 『마당 깊은 집』 등 김원일의 여러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332) 악셀 호네프트는 각 개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도래할 것이라 예견되는 미래의 공동체에서 받게 될 사회적 인정을 근거로 현재의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정치적 공동체에서의 투쟁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악셀 호네프트, 위의 책, 302~303쪽.) 김원일은 좌익 아버지의 사회적 인정 근거를 한국의 지배적인 사회담론에 의지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체제를 지향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평등한 민주 사회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려” (『아들의 아버지』, 8쪽) 노력에서 발견했다.

제5장 결론

지그문트 바우만은 근대사회가 새로운 사회와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 시기의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오래된 것들을 녹여 액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³³³⁾ 근대성은 이미 존재하던 것들을 재배치하고 새롭게 의미화하는 역사적 기회인 셈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재배치의 기회는 거대한 사회를 가꾸는 원역사, 즉 주권 권력의 손에 위임되었다. 모든 견고한 것들을 유동하는 것으로 만들어 다듬을 기회, 즉 근대적인 사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전쟁이었다. 모든 법률과 법적으로 보장된 인간의 권리를 멈출 수 있는 예외상태 속에서 주권 권력은 어떤 제약도 겪지 않고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주권 권력의 결정을 견제하는 사회적·문화적 조건들이 예외상태에 의해서 멈추게 될 때 사회는 새로이 만들어진다. 1950년의 한국전쟁이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도 사회를 창출하는 예외상태의 도래에 의해서였다. 예외상태에서 주권 권력은 사회의 가꿈의 대상이 될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아닌 것들 사이의 경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경계는 피로써 붉게 칠해져 있었다. 본고에서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주권 권력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단일한 주권 권력이 사회의 내부에 만들어 놓은 경계를 피로써 쌓아 올린 학살의 문제를 중심에 두었던 것은 국민과 국민 아닌 것 사이의 경계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정치의 경계선이기 때문이다.³³⁴⁾

주권 권력, 즉 한국의 반공국가는 ‘빨갱이-비국민’ 들을 제거함으로써 (반공) 국민이라는 형상을 만들어냈다. 반공국가에서 살아가는 자는 끊임없이 자신이 국민임을 증명하거나 국민 아닌 것으로 내몰리는 위험을 감내해야만 했다. (반공)국민의 형상을 대표하는 반공의 주체였던 상이군인들의 국민됨 조차 언제고 반공국가의

333) 지그문트 바우만, 앞의 책, 9~10쪽.

334) 조르조 아감벤, 2008, 45쪽.

의심에 직면할 수 있었으므로 안전한 자리란 존재하지 않았다. 반공국가에서 모든 인간은 국민의 경계 바깥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가장 위태롭게 가장자리로 내몰려 있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국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반공국가가 제거한 ‘빨갱이-비국민’들의 가족 혹은 이웃, 그들과 같은 고향에서 함께 살아왔던 이들이었다. 월북한 좌익 지식인의 아들이었던 김원일과 ‘빨갱이섬’으로 규정된 제주도 태생의 현기영과 같은 이들은 국민과 국민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반공국가의 시선이 가장 오래도록 머무는 자리에 있었다.

근대적인 국민국가로서 반공국가는 국민을 법적인 경계선 안에 만들어낸다. 반면에 가족이나 지역공동체는 혈연이나 공통의 문화와 같은 문화적 경계선을 통해서 구성원을 형성한다. 하지만 국민이 아닌 것을 사회에서 제거하려는 반공국가는 법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문화적 경계선 안으로 침투한다. 국민이 아닌 자로 정의된 이들을 문화적 근거를 통해서 구성원으로 인정하려는 사회적 시도들이 반공국가에 의해서 불법화된다. 반공국가에 의해서 희생된 이들을 문화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일은 자기 자신이 반공국가에 의해서 비국민으로 내몰릴 위험을 가져왔다. 하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문화적 경계가 반공국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중첩되자 역설적으로 문화는 반공국가가 그어놓은 국민의 경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대항적 근거가 되어주었다. 권현익이 지적하듯 친족관계가 불법화될 때 자신의 법적 지위는 그를 복권하는 문제에 달려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적 공동체가 주권 권력에 대항해 사회를 변화하게 하는 시민적 역량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³³⁵⁾ 반공국가에 의해서 국민의 경계 바깥으로 내몰린 이들을 문화를 통해서 복권하려는 시도들이 뒤따랐다. 그리고 희생된 이들을 복권하려는 노력이 가장 끈질기고 치열하게 전개된 문화의 공간은 문학, 특히 역사적 사건을 서사구조 속에서 새로운 맥락을 통해 재배치할 수 있었던 소설이었다.

김원일과 현기영은 반공국가가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어 놓는 경계선의 가장 바

335) 권현익, 2013, 140쪽.

갈수록 가장자리에 위태로이 서 있던 이들이었다. 이들은 반공국가에 의해서 국민의 경계 바깥으로 내몰린 사람들과 혈연과 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같은 공동체의 성원으로 그들을 묶어주는 문화적 경계로 인해서 반공국가의 위협이 자신에게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만 했다. 김원일과 현기영은 자신이 속한 관계들, 아버지와 고향을 복권하지 못하면 반공국가의 위협에서 안전해질 수 없었다. 김원일과 현기영은 반공국가가 공적인 장에서 숨겨놓으려고 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문학을 통해서 천착해야 했던 이유는 희생된 이들의 사회적 복권과 자신의 시민적 지위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반공국가의 위협이 그들에게 남긴 유년의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김원일과 현기영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단편 「어둠의 혼」과 「아버지」에서 좌익 아버지의 죽음을 마주하는 소년의 시선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려고 한다. 과거의 상처를 비슷한 소설적 재현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두 작가의 행보는 70년대 말에는 반공문학상 수상자와 검열 당국에 의해 출판금지가 된 불온한 소설의 작가로 엇갈리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들의 엇갈린 행보가 반공국가에 대한 순응과 저항이라는 대립적 구도로 파악하는 대신에 반공국가의 정의에 맞서 국민이 아닌 자로 내몰린 이들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주체화의 상이한 과정이었다고 판단한다.

현기영은 등단작인 「아버지」 이후 제주가 겪은 4·3항쟁의 경험을 공동체 내부의 분열이 아니라 외부가 제주공동체에 가한 위협이라는 방식으로 재현한다. 4·3항쟁의 소설적 재현에서 남로당계 무장대의 역할은 배면에 놓고 육지에서 온 토벌대로 인해 제주인들이 겪었던 고통이 전면으로 나온다. 반공국가가 좌익에 의한 반란으로 규정해온 4·3항쟁을 제주공동체가 경험한 공동체의 위기로 재현한다. 현기영은 4·3항쟁으로 인해서 제주공동체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양상을 정확하게 포착한다. 같은 공동체의 성원들에 대한 반공국가의 정치적 규정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려지게 되자 살아남기 위해서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육지에서 토벌

대와 혈연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의 성원을 확대해간다. 그리고 제주인들은 반공국가의 전쟁에 동원됨으로써 자신들이 국민임을 증명하려고 한다. 1970년대와 80년대 중반의 4·3항쟁에 대한 현기영의 단편들은 제주공동체가 생존을 위해서 국민임을 증명하고자 했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예리하게 파악한다. 혈연을 근거로 국민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시도는 육지 출신의 토벌대를 가족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가족을 4·3항쟁에 대한 기억과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순이 삼촌」에서 제사를 위해 모인 가족들이 4·3항쟁의 역사적 평가를 놓고 논쟁하면서도 누구 하나 빨갱이로 의심받지 않은 것은 토벌대 출신인 고무부가 가족이라는 경계 안에 서로의 정치적 정체성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벌대와와의 혈연적 결합에는 제주 여성들의 희생이 뒤따랐고 이는 「해룡이야기」가 보여주듯 가족의 상처로 남았다. 국민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공국가의 동원에 동참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제주공동체를 위협하는 반공국가에 동원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살아남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공동체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며 구성원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누어 놓았다. 그리고 반공국가의 국민이라고 자신이 인정받는 것은 희생된 이들을 국민이 아니라고 규정한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아니라 더 견고하게 만들 뿐이었다.

반공국가의 위협에 대응해 변화하는 제주공동체의 모습을 세밀하게 관찰한 현기영은 반공국가가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야만 4·3항쟁에서 희생된 이들을 복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는 반공국가의 논리에 맞서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 인정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근거를 반공국가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좌익의 논리에서 찾을 수는 없었다. 반공주의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4·3항쟁의 과정에서 제주인들이 겪은 고통에서 무장대 역시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기영은 제주의 역사에서 항쟁의 전통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고자 한다. 중앙과 변방이라는 전통적 관계를 통해 설명되는 항쟁의 전통은 반란과 민란의 엄격한 구분을 통해서 중앙의 국가와 제주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제주인들의 저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변방에 우짖는 새』가 방성철의 난과 이재수의 난을 비교함으로써 반란과 민란의 차이를 선명히 했던 것은 반공국가와 직접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4·3항쟁에 나섰던 제주인들을 복권하기 위한 시도였다. 『바람 타는 섬』에 와서는 항쟁의 전통을 현대화하여 계승하는 주체로서 ‘민중’의 형성을 보여준다. 현기영은 항쟁의 전통을 전 근대시대의 과거가 아니라 공동체가 경험하는 근대적인 위기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전통의 근대화는 제주공동체 내부의 단독적인 변화가 아니라 식민지배라는 동일한 위협에 노출된 중앙, 한반도와의 민족적 협력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잠녀들을 비롯해 생계를 위해 바깥으로 내몰린 제주인들이 지역적 체험이 아니라 민족의 위기를 경험하고 근대적 지식으로 무장한 지식인들에 의해서 민중으로서 의식화되는 것은 항쟁의 전통이 한반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기영은 80년대 민주화세력의 민중운동을 4·3항쟁과 결합한다. 4·3항쟁을 광주항쟁과 같은 민중적 저항의 계보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반공국가에 저항한다. 반공국가에게 자신이 국민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위태로운 주체는 「위기의 사내」에 와서는 민중이라는 정치적 정체성을 통해 광주항쟁을 은폐하고 민중을 억압한 반공국가에 맞서서 싸운다. 항쟁의 전통이 민중운동과 결합함으로써 4·3항쟁의 제주인들은 반공국가에 의해서 규정된 ‘빨갱이-비국민’이라는 굴레를 벗고 민중으로써 복권된다.

김원일은 「어둠의 혼」에서 어린소년 갑해의 눈을 통해 좌익 아버지를 재현함으로써 사상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유보한다. 사상 문제를 언급하게 되면 반공국가에게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를 상실한 유년기의 체험이 가족의 위기에 대한 장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져야 했음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미래의 일로 유보해둠으로써 아버지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다. 현기영과 달리 김원일에게 고향은 외부의 위협을 함께 겪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었다. 멀리받는 좌익의 아들이라는 자의식과 고향을 떠나왔던

유년기의 경험으로 인해 안심하고 아버지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없었다. 아버지가 참여한 좌익 봉기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고향에 대한 죄의식을 품고 살아가는 『노을』의 김갑수는 이러한 김원일의 상황을 반영한 인물이었다. 김원일은 아버지를 소설에서 재현할 때 반공국가의 위협적인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노을』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반공국가의 좌익에 대한 재현방식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백정 김삼조와 전향한 지식인 사회주의자인 배도수로 나누어 놓은 것은 그 때문이다. 김원일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두 인물로 분할 제시함으로써 아버지를 애도할 수 있는 대상인 사회주의에 현혹된 희생자로 재구성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향자를 통해서 반공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받는 길을 열어놓는다. 이는 빨갱이에 대한 망자의레조차 제한하는 반공국가에서 아버지를 복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었다. 반공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아버지의 이미지를 재구성할 뿐 아니라 소설 속 좌익의 아들도 국민으로써 인정받기 위해서 과잉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노을』에서는 김갑수의 아들인 현구의 입을 통해서 사건의 흐름과 관계없는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발전하는 국가에 대한 희망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김갑수와 마찬가지로 빨치산의 아들인 치모는 좌익이었던 아버지와 달리 고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물로, 새마을 지도자로 그려진다. 현구나 치모 모두 좌익인 가족과 달리 반공국가에 헌신하는 다음 세대의 국민으로 그려진다. 이는 반공국가의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보다 반공국가에 헌신했던 피학살자유가족들의 과잉적응 현상과 유사하다. 『노을』은 「어둠의 혼」에서 유보했던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반공국가에 대한 순응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양상을 보인다.

피학살자유가족들이 반공국가에 대한 과잉적응을 통해서 가족을 복권하는 데 실패했듯이 김원일이 『노을』에서 반공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재현하는 방식 역시 그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었다. 반공국가의 좌익 재현의 방식은 아버지를 선명하게 하는 대신에 이전보다 훨씬 더 왜곡시킬 뿐이었다. 김원일은 당대에 좌익 집단을 재현하는 주요한 방식이었던 빨치산이란 형태로 아버지의 문제

를 재조명한다. 80년대 초에 연재되던 『불의 제전』에서는 혁명가로서 신념을 가진 사회주의자 조민세를 통해서 아버지의 고민을 보여줄 것처럼 같았으나 부역자학살이나 국민보도연맹학살 등 민감한 주제가 나오는 한국전쟁 시기는 몇 차례 연재가 중단되고 재개되기를 반복한 끝에 90년대에 들어서야 소설화한다. 김원일이 본격적으로 좌익으로서 아버지의 활약을 다루는 작품은 거창양민학살 사건을 다룬 『겨울 골짜기』다. 『겨울 골짜기』는 『노을』에서 보여준 반공국가에 대한 과잉적응과 달리 빨치산이 점령한 해방구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 사이에 놓인 양민들의 고난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반공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는 앞선 소설들의 인물들과 달리 반공국가의 국민이라는 자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양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국민과 비국민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한다. 한편 좌익 아버지를 회의주의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인 김익수로 그림으로써 좌익과 아버지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려는 모습도 유지된다. 『겨울 골짜기』는 반공국가가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양민학살인 거창사건을 소설의 배경으로 선택하여 반공국가의 의심을 피하면서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확고하지 않았던 해방 이후의 사회상을 제시했다. 반공국가가 허용하는 재현의 최대치를 활용함으로써 김원일은 아버지가 직면했던 정치적 상황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1980년대 말의 정치적 민주화와 그에 뒤이은 과거사진상규명의 시도들은 김원일을 가로막던 정치적 제약들을 크게 약화시켰다. 1990년대에 들어서 김원일은 자신의 소설들을 개작하면서 고향과 아버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 평가를 내린다. 『노을』에서는 반공국가의 좌익 재현방식을 따라 비윤리적인 폭력의 주체로 그려졌던 아버지의 폭력성이 상당히 완화된다. 좌익봉기에서 자행된 학살사건에 대해서도 우익과 경찰이 좌익에게 자행한 살인과 폭력에 대한 보복이라는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좌익에 대한 반공국가의 도덕적 우위를 상당부분 축소시킨다. 『겨울 골짜기』도 수차례 개작을 거치면서 좌익 지식인인 김익수와 그가 사회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평가들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좌

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비국민임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었던 시기를 지나 민주화에 의해서 확대된 공론장을 김원일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997년에야 완결된 『불의 제전』에서 김원일은 반공국가의 정치적 억압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좌익 아버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80년대에 연재되었던 『불의 제전』과 비교했을 때 빨치산의 비윤리적인 재현이 줄어들고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국가에 대한 작중 인물들의 인식이 반공국가의 우위를 승인하는 대신에 각자의 신념에 따라 다르게 내려진다. 김원일의 고향 진영에서 자행된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나 한국전쟁기의 부역자학살 등 반공국가의 역사적 금기들이 소설의 주요한 사건들로 제시된다. 점령과 피난, 수복 등 전쟁의 전황에 따라서 속하게 되는 국가가 바뀌고 그에 적응하는 양민들의 모습을 통해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를 긋는 일이 어떻게 인간을 희생시켰는가를 고발한다. 『불의 제전』에 등장하는 좌익 아버지인 조민세는 신념에 찬 사회주의 혁명가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해방이후 국가건설의 방향을 사회주의로 선택한 인물로 그려진다. 『노을』처럼 좌익을 윤리적으로 비판하는 대신에 해방 이후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놓인 정치적 선택으로 인정함으로써 김원일은 반공국가의 논리를 벗어나 아버지를 복권할 수 있었다.

김원일과 현기영의 문학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끝내 그들을 억압해 온 반공국가의 자장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한다. 4·3항쟁의 수난사를 공유하는 제주 공동체를 통해서 현기영은 반공국가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정치적 정체성을 서로 보증하는 공동체의 성원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기억을 통해서 반공국가의 공식역사와는 다른 4·3항쟁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 공동체는 생존을 위해서 반공국가에 포섭된 상태였으므로 희생된 이들을 복권하는데 한계를 가졌다. 현기영은 제주공동체의 역사에서 항쟁의 전통을 발견하고 이를 민주화세력의 민중운동과 결합시킴으로써 반공국가에 맞서서 4·3항쟁을 민중항쟁으로 새롭게 규정한다. 민중이란 정치적 정체성을 통해서 복권된 4·3항쟁은 반공주의가 놓여 있는 냉전의 양극적 정치의 어느 쪽에도 서지 않는다. 항쟁은 민중에

의해서 수행된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계보를 통해서 반공국가에 저항하는 시민적 역량을 형성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이 민중 항쟁의 계보는 반공주의의 자장이 강하게 남아 있던 시기에도 제주 4·3항쟁의 복권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힘이였다. 그리고 제주 4·3항쟁의 위상은 같은 고통을 겪은 한반도의 많은 이들이 반공주의의 위협에 저항할 수 있게 하는 선도적 역할을 했다.

김원일은 좌익의 아들로서 자신의 고향과 공동체로부터 이탈한 이였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 역시도 과거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반공국가의 위협을 홀로 마주해야만 했다. 김원일의 소설에서 반공국가의 논리를 적극 수용하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는 까닭은 반공국가를 대신할 사회적 인정 관계를 그가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원일은 반공국가의 논리로는 해명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는다. 그는 당대 정치적 재현의 한계영역이 변하고 확장될 때마다 이를 수용하여 아버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한다. 연재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18년간 『불의 제전』의 집필을 이어가고 출간된 소설들을 수차례 개작했던 김원일의 노력은 반공국가가 만들어 놓은 한계에 갇히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김원일은 당대의 정치적 재현의 한계가 변화되는 과정을 뒤쫓음으로써 해방 이후 새로운 국가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담아낼 수 있었다.

본고는 김원일과 현기영의 문학을 민족분단이 아니라 해방 이후의 반공국가 형성과 (반공)국민의 창출 그리고 그에 맞서는 대항적 주체화의 과정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는 김원일과 현기영의 문학에서 중심적인 사건이자 한국사회에 강렬한 충격을 남겼던 한국전쟁 전후에 반공국가가 자행한 학살이 한국전쟁과 분단에 수반된 주변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공국가를 만들어내는 역사적 과정이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원일과 현기영의 문학에 나타나는 학살과 반공국가의 정의, 그리고 그에 맞서는 인정투쟁은 반공국가의 형성과 민주화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문학이 어떻게 동참했는지를 보여준다. 김원일과 현기영의 소설들은 자의적으로 인간을

정의하여 사회를 만들어내는 주권 권력의 위협에 맞서서 문학과 문화의 응전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법과 정치가 정지되고 주권 권력의 단독적인 결정만이 남겨진 예외상태에서 문학과 문화는 다른 사회, 다른 인간에 대한 전망을 보존하는 후방이자, 다른 사회적 인정의 근거들을 매개하는 공간이다. 주권 권력의 예외상태에서도 문학은 사라지지 않고 저항의 역량을 보존한다. 주권 권력에 의해서 불법화된 인간의 삶은 문학을 통해서 복권될 수 있다. 권헌익의 주장처럼 주권 권력에 의해서 불법화된 인간을 복권하는 것이 사회를 민주화하는 시민적 역량을 형성하는 일이라면 김원일과 현기영의 문학은 사회를 민주화하는 시민적 역량을 형성해온 것 소중한 기록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1) 기본 자료

김원일, 『사랑하는 자는 괴로움을 안다』, 문이당, 1991.

- 『김원일 중단편전집』 1, 문이당, 1997.
- 『겨울 골짜기』 1~2, 민음사, 1987.
- 『겨울 골짜기』 1~2, 등지, 1994.
- 『겨울 골짜기』, 이룸, 2004.
- 『겨울 골짜기』, 강, 2014.
- 『노을』, 문학과지성사, 1978.
- 『노을』, 문학과지성사, 1997.
- 『불의 제전』 1~2, 문학과지성사, 1983.
- 『불의 제전』 1~2, 문학과지성사, 1985.
- 『불의 제전』 1~7, 문학과지성사, 1997.
- 『불의 제전』 1~5, 강, 2010.

김원일, 『아들의 아버지』, 문학과지성사, 2013

현기영, 『순이 삼촌』, 창비, 2015.

- 『아스팔트』, 창비, 2015.
- 『마지막 테우리』, 창비, 2015.
- 『변방에 우짖는 새』, 창작과비평사, 1983.
- 『바람 타는 섬』, 창작과비평사, 1989.

- , 『지상의 손가락 하나』 , 실천문학사, 1999.
- , 『바다와 술잔』 , 화남, 2002.
- , 『젊은 대지를 위하여』 , 화남, 2004.
- , 『소설가는 늙지 않는다』 , 다산책방, 2016.
- , 「내 소설의 모태는 4·3항쟁」 , 『역사비평』 22호, 역사비평사, 1993.

2) 신문 및 잡지 기사

- 「거창사건의 중대성」 , 『동아일보』 , 1951.8.9.
- 「제이거창사건 강화특공대이송(第二居昌事件 江화特攻隊移送)」 , 『경향신문』 , 1952.01.08.
- 「돌아와안겨라! 전향자여! 『보련원』 포섭심사요강결정」 , 『동아일보』 , 1952.3.23.
- 「재건복귀 진정(陳情) / 도평·노형 양리」 , 『제주신보』 1953년 11월 3일
- 「경미한 부역자는 불문」 , 『동아일보』 , 1955.12.14.
- 「해방이후의 중요일지」 , 『경향신문』 , 1957.8.15.
- 「부역자간첩등 포섭기준성립」 , 『동아일보』 , 1960.3.30
- 「비화 제1공화국 재 9화 「거창사건」 (6)」 , 『동아일보』 , 1974.3.23.
- 오제도, 「그때 그일들」 141회, 『동아일보』 , 1976.6.19.
- 「大統領賞에 「노을」 제4회 反共文學賞」 , 『동아일보』 , 1979.6.30.
- 「거창 양민학살사건 배상특별법안 제출」 , 『한겨레』 , 1989.10.19.
- 이산하, 「삶과 문학 : "4·3트라우마"를 위한 기억 투쟁 작가_인터뷰: 현기영」 , 『계간 민주』 6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2013.

2. 논저

1) 학술지 논문

강성현, 「제노사이드와 한국현대사」, 『역사연구』 18호, 역사학연구소, 2008.

-, 「아카(アカ)와 "빨갱이"의 탄생 -"적(赤-敵) 만들기"와 "비국민"의 계보학」, 『사회와 역사』 100호, 한국사회사학회, 2013.

-, 「‘예외상태 상례’의 법 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 『사회와 역사』 108호, 한국사회사학회, 2015.

강진호, 「민족사로 승화된 가족사의 비극 - 김원일의 삶과 문학」, 『현대소설과 분단의 트라우마』, 소명출판, 2013.

고지현,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읽기」, 『인문과학』 93호,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김동윤, 「현기영의 4,3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의 문제」,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2015.

-, 「공간 인식의 로컬리티와 서사적 재현양상」, 『한민족문화연구』 53호, 한민족문화학회, 2016.

김무용, 「제헌국회의 계엄령 헌법화와 계엄법안의 차별화」, 『한국사학보』 49호, 고려사학회, 2012.

-,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유족의 자서전 분석」, 『일기를 통해 본 전통과 근대, 식민지와 국가』, 소명출판, 2013.

김봉국, 「이승만 정부 초기 애도-원호정치」, 『애도의 정치』, 길, 2017.

김성례, 「제주 무속」, 『종교신학연구』 4권,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1991.

-, 「근대성과 폭력 - 제주 4·3의 담론정치」, 『근대를 다시 읽는다 2』, 역사비평사, 2006.

김순태, 「제주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8.

- 김영범,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민주주의와 인권』 3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3.
- 김윤식, 「분단·이산문학의 수준」,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153쪽.
- , 「6·25전쟁문학 - 세대론의 시각」, 『문학사와 비평』 1집, 문학사와 비평학회, 1991.
- 김은희, 「제주 4·3시기 ‘전략촌’의 형성과 주민생활」, 『역사민속학』 제 2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6.
- 김정인, 「내재적 발전론과 민족주의」, 『역사와 현실』 77호, 한국역사연구회, 2010.
- 김종민, 「제주 4·3항쟁 -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98년 봄호, 역사비평사, 1998.
- 김종준, 「한국전쟁기 서부경남지역 빨치산의 조직과 활동」, 『제노사이드 연구』 2호,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 김진기, 「반공호국문학의 구조」, 『상허학보』 20호, 상허학회, 2007.
- 김태현, 「반공문학의 양상」, 『실천문학』 1988년 봄호, 실천문학사, 1988.
-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20세기의 내전」, 『亞細亞研究』 14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 김한식, 「사실 복원의 의지와 이념에 대한 불만」, 『우리어문연구』 32호, 우리어문학회, 2008.
- 김현선, 「국민, 半국민, 非국민」, 『사회연구』 12,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6.
- 류보선, 「광기의 전쟁과 동일시라는 감옥」, 『겨울 골짜기』, 이룸, 2004
- 마혜정, 「분단 기억의 이중적 소환과 가족의 구성」, 『현대소설연구』 6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 박명림, 「전쟁과 인민」, 『아시아문화』 16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 , 「국민형성과 내적 평정」, 『한국정치학회보』 36권, 한국정치학회, 2002.
- 박찬모, 「『겨울 골짜기』의 개작 양상 고찰」, 『現代文學理論研究』 41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 박찬식, 「4·3증언 프레임과 제주민의 자치의식」, 『탐라문화』 2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 「‘4·3’의 公的인식 및 서술의 변천」, 『한국 근현대사 연구』 41호,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 , 「한국전쟁과 제주지역 사회의 변화 : 4·3사건과 전쟁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제 27호, 부경역사연구소, 2010.
- 박찬효, 「김원일의 노을에 나타난 ‘죽은’ 아버지의 귀환과 이중 서사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 백운철, 「일제치하에서의 계엄법」, 『世界憲法研究』,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2.
- 서중석, 「사실, 이렇게 본다2 - 보도연맹」, 『내일을 여는 역사』 7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12.
- 양문규, 「수난으로서의 4.3 형상화의 의미와 문제」, 『현대문학의 연구』 11권, 한국문학연구학회, 1998.
- 양진오, 「좌익의 인간화, 그 문학적 방식과 의미」, 『우리말글』 35권, 우리말글학회, 2005.
- 염무웅, 「역사의 진실과 소설가의 운명 - 현기영 『마지막 테우리』」, 『실천문학』 84년 가을호, 실천문학사, 1984.
- 오생근, 「분단 문학의 확장파 현실 인식의 심화」, 『김원일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2.
- 오병두,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민주법학』 43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10.

- 유임하, 「마음의 검열관, 반공주의와 작가의 자기 검열」, 『상허학보』 15호, 상허학회, 2005.
- 이강수, 「1960년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5호,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 이동진,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 『사회와 역사』 101호, 한국사회사학회, 2014.
- 이동하, 「역사적 진실의 복원」, 『작가세계』 1998년 봄호, 세계사, 1998.
- 이명원, 「4·3과 제주방언의 의미 작용 -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 19집, 제주학회, 2001.
- 이상록, 「1960~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의 민주주의 담론」, 『역사와현실』 77호, 한국역사연구회, 2010.
- 이임하, 「상이군인, 국민 만들기」, 『중앙사론』 33호, 한국중앙사학회, 2011.
- 이재승, 「형이상학적 죄로서 무병(巫兵)」, 『민주법학』 57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5.
- , 「묘지의 정치」, 『통일인문학』 68호,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 이혜숙, 「남한과 일본에서의 미군정기 점령정책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24집 제1호, 사회과학연구, 2006.
- 인정애, 「4·3과 한국정부의 역할」, 『4·3과 역사』 2호, 제주4·3연구소, 2002.
- 전갑생, 「1960년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조사특별위원회’ 자료」, 『제노사이드연구』,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 정과리, 「이데올로기 혹은 짐승의 삶」, 『김원일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2.
- 정근식, 「지역 정체성, 신분투쟁 그리고 전쟁기억」, 『지방사화지방문화』 7호, 역사문화학회, 2004.

정종현, 「4.3과 제주도 로컬리티」, 『현대소설연구』 5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정찬영, 「김원일의 <겨울 골짜기>론」, 『한국현대소설연구』 1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정학진, 「김원일의 의식 변화 연구」, 『우리말글』 58호, 우리말글학회, 2013.

조은, 「전쟁과 분단의 일상화와 기억의 정치」, 『사회와 역사』 77호, 한국사회사학회, 2008.

표인주, 「전쟁경험과 공동체문화」, 『전쟁과 사람들』, 한울아카데미, 2003.

-,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죽음 처리방식과 의미화과정」, 『전쟁과 기억』, 한울아카데미, 2005.

하응백, 「장자(長子)의 소설, 소설의 장자(長子)」, 『김원일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2.

허병식, 「분단 디아스포라와 재일조서인 간첩의 표상」, 『동악어문학』 73호, 동악어문학회, 2017

홍기돈, 「제주 공동체문화와 4·3항쟁의 발발 조건」, 『탐라문화』 4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5.

-, 「근대 이행기 민족국가의 변동과 호모 사케르의 공간」, 『한국언어문화』 64권,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홍승권, 배병욱, 「한국전쟁 전후 김해지역 민간인학살의 실태와 성격」, 『제노사이드 연구』 4호,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8.

홍정선, 「기억의 굴레를 벗는 통과 제의」, 『노을』, 문학과지성사, 1997.

황광수, 「빨치산 기록물과 그 소설화」, 『창작과 비평』 겨울호, 1988.

2) 학위논문

강성현, 『제주 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2.

-, 『한국 사상통제기제의 역사적 형성과 ‘보도연맹 사건’, 1925-50』,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2012.

김동현, 『로컬리티의 발견과 내부식민지로서의 '제주'』,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4.

노용석, 『민간인 학살을 통해 본 지역민의 국가인식과 국가권력의 형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논문, 2005.

박미선, 『4·3소설의 서술 시점 연구』,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박사논문, 2009.

양현준, 『김원일 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이성희, 『김원일 분단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 2008.

이소영, 『김원일·이문구 소설에 나타난 고아의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이진희, 『김원일 소설의 죽음 의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11.

정재림, 『전쟁 기억의 소설적 재현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06.

3) 국내저서

권귀숙, 『기억의 정치』, 문학과 지성사, 2006.

김경현, 『민중과 전쟁기억』, 선인, 2007.

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 글항아리, 2014.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푸른역사, 2006.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 ,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사계절출판사, 2013.
- 김득중 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선인, 2007.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 김상기, 『제노사이드 속 폭력의 법칙』, 선인, 2008.
- 김원일 외, 『김원일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2002.
- 김학재, 『관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 김향, 『종말론 사무소』, 문학과 지성사, 2016.
- 노용석, 『박희춘 1933년 2월 26일생』, 눈빛, 2005.
- 정근식 외,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2』, 책세상, 2012.
-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1999.
- 서중석 외, 『전쟁 속의 또 다른 전쟁』, 선인, 2011.
- 선우중원, 『사상검사』, 계명사, 1993.
- 신동훈, 『한국전쟁 체험담 연구』, 박이정, 2016.
- 안진,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울아카데미, 2005.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다시 쓰는 여순사건보고서』, 한국학술정보, 2012.
- 윤대선, 『레비나스의 타자철학』, 문예출판사, 2009.
-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 이영진 외, 『애도의 정치학』, 길, 2017.
- 장근식 외,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선인, 2010.
- 전진성 외,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권, 전예원, 1997.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2003.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한울, 198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3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창비 50년사 편찬위원회, 『한결같되 날로 새롭게』, 창비, 2016.

최원식 외, 『4월혁명과 한국문학』, 창비, 2002.

최정기 외, 『전쟁과 재현』, 한울아카데미, 2008.

최호근, 『제노사이드』, 책세상, 2005.

표인주 외, 『전쟁과 사람들』, 한울아카데미, 2003.

한모니까, 『한국전쟁과 수복지구』, 푸른역사, 2017.

한성훈, 『가면권력』, 후마니타스, 2014.

4) 국외저서

권현익, 『학살, 그 이후』, 아카이브, 2012.

-,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2013.

-, 『베트남전쟁의 유령들』, 산지니, 2016.

데틀레프 포이케르트, 『나치시대의 일상사』, 개마고원, 2003.

라우 힐베르크, 『홀로코스트, 유럽 유대인의 파괴』 1~2, 개마고원, 2009.

바바라 하프 외,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각, 2005.

발터 벤야민, 『서사(敍事)·기억·비평의 자리』, 길, 2013.

벤자민 발렌티노,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스탠리 밀그램, 『권위에 대한 복종』, 에코리브르, 2009.

- 악셀 호네프, 『인정투쟁』, 사월의 책, 2011.
- 앤서니 D.스미스, 『족류 상징주의와 민족주의』, 아카넷, 2016.
- 이남희, 『민중 만들기』, 후마니타스, 2015.
- 이시도르 왈리만 외,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각, 2005.
- 자크 랑시에르, 『불화』, 길, 2015.
-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 , 『목적없는 수단』, 난장, 2009.
- , 『예외상태』, 새물결, 2009.
- ,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 , 『왕국과 영광』, 새물결, 2016.
- 조르주 디디-위베르만, 『반딧불의 잔존』, 길, 2012.
-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강, 2009.
- ,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 카를 슈미트, 『정치신학』, 그린비, 2010.
- 허버트 허시,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책세상, 2009.
- Tzvetan Todorov 『Facing The Extreme』, London : Phoenix,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Genocide Narrative in Novel of Kim Won-il · Hyun Ki-young

Kim Yo-Sub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ungkyunkwan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novels written by Kim Wonil and Hyun Giyeong were a progression of literary comeback in reaction to the historical shock of civilian genocide perpetrated by anti-communist state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The massacre was not an outdated form of violence but rather a social engineering act to build a modern nation-state and its people at the crossroads of the end of postcolonial period and entering the Cold War. The mechanisms practiced by anti-communist states to produce (anti-communist) citizens upheld even after the Korean War. Those who lost one or more family members to the anti-communist states or fixed as family members of a communist were under constant threats posed by anti-communist states that wanted to draw a line between citizens and non-citizens. To restore the social status of their family members and themselves, they attempted recognition struggles through over-adaptation

or resistant social independence. In the course of the novels by Kim Wonil and Hyun Giyeong being written and remade, such aspects of recognition struggles emerged.

In his novels, Hyun Giyeong endeavored to bring back the historical memories of the Jeju 4·3 Incident, which was made taboo by the anti-communist states, through the structure of Jeju community. He was able to break away from the logic of anti-communist states that established the 4·3 Incident as a left wing rebellion through an internal union and the tradition of resistance movement by Jeju community. He used the concept of people that rose up dur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1980s to defin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4·3 Incident. To achieve this, he linked the historical bonds between the tradition of resistance and nationalism of Jeju through historical novels of the end of Jeseon and the colonial period. To fight the anti-communist states, Hyun Giyeong defined the Jeju 4·3 Incident through the concept of people in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 most powerful resistant discourse at the time. Through it, the 4·3 Incident was able to stand above the historical lineage of civilian resistance against anti-communist states and socially reinstate the people of Jeju who were denounced as ‘communists’.

Kim Wonil was agonized concerning the representation of his left wing father after defecting to North Korea. His earlier works represented left wing figures as anti-communist. In the course, the history of his town was restructured and tailored to be publicized as anti-communist, and he felt burdened. He struggled to demonstrate the logic of adaptation to be recognized as a citizen of an anti-communist state, but before long, he

understood his limitations. Kim exploited every time when the boundaries of representation established by anti-communist states expanded in various social changes. He remade his novels even several times to gradually restore the distorted figure of his father and the history of his hometown. By charging that the Korean War was a violence born of the process of two nations building a country and its people and revealing the anguish of the intellectuals trying build a new country, he reestablished his father as a dedicated scholar and a revolutionary.

The novels by Kim Wonil and Hyun Giyeong were literary works efforting to surmount the boundary of citizen and non-citizen instituted by anti-communist states. The meaning of their collective efforts is not restricted to a mere exertion to outrun the trauma of genocide that took place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because the genocide they came subject to was a structural violence inflicted by anti-communist states formed after South Korean liberation. Their works illustrated how literature fought against the social engineering built by anti-communist states that divided citizens and non-citizens and illustrate

Key Words : Genocide , Anti-communism , recognition struggle , nation-state , People